

中央語文學會

<第30次 全國 學術大會>

- ◇ 기 획 주 제 : 다문화시대의 한국문학
- ◇ 일 시 : 2013년 5월 25일 (토) 13:00~18:00
- ◇ 장 소 : 남서울대 화정관 5202(개회식, 폐회식)
국어학 5513, 고전문학 5514, 현대문학 5202
- ◇ 주 최 : 중앙어문학회, 남서울대 교양과정부
- ◇ 후 원 : 남서울대학교

中央語文學會

(<http://www.cakoll.or.kr>)

<第30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 기획 주제 : 다문화 시대의 한국문화
- ◇ 일시 : 2013년 5월 25일 (토) 13:00~18:00
- ◇ 장소 : 남서울대 화정관 5202(개회식, 폐회식)
국어학 5513, 고전문학 5514, 현대문학 5202

◇ 전체 식순

- (1) 회원등록 (13:00~13:20)
- (2) 개회사 (13:20~13:30) : 안기수 회장(남서울대)
전체사회 : 허만욱(남서울대)
- (3) 분과별 발표 (13:30~17:50)
- (4) 폐회식 (17:50~18:00)
- (5) 저녁 만찬 및 친교의 시간 (18:00~)

< 第30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국어학 분과 발표>

사회: 정선화(중앙대) / 장소: 남서울대 화정관 5513

시 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13:30~14:10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면대면 상담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	이희영(한성대)	김미선(중앙대)
14:10~14:50	한국어교육에서의 아동 언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 KSL 대상 아동의 어휘 능력을 중심으로	김수은(고려대) 이경(고려대)	형재연(한림대)
14:50~15:30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과 교육 방안	김보경 (서울시립대)	이현주 ((주)다이퀘스트 기술 연구소 연구원)
15:30~15:40	중간 휴식		
15:50~16:30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발화 상황 연구	손진희(강원대)	손경애(안양대)
16:30~17:10	문식력 발달을 위한 사고(思考) 관찰 -Vygotsky의 '내적 말'(Inner Speech)을 활용하여	김희경(서원대)	전형길(상명대)
17:10~17:50	종 합 토 론		

* 각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토론은 20분입니다.

* 발표순서와 제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第30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고전문학 분과 발표>

사회: 유형동(중앙대) / 장소: 남서울대 화정관 5514

시 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13:30~14:10	<달천몽유록>과 <강도몽유록>의 서사성 비교	황병홍(중앙대)	강우규 (남서울대)
14:10~14:50	『희조일사』의 편찬 양상과 서술 특성 - 『호산외기』·『이향건문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태식 (서울시립대)	정숙인(중앙대)
14:50~15:30	고려속요의 樂章적 성격 고찰 - <쌍화점>을 중심으로	김지은(상지대)	김성문(중앙대)
15:30~15:40	중간 휴식		
15:40~16:20	『補閑集』의 서술방식과 현대적 수용	김상진(한양대)	함복희(강원대)
16:20~17:00	水路夫人 說話 再考 -현화가 · 해가 창작의 시공간-	이주희(중원대)	신영명(상지대)
17:00~17:40	『金鰲新話』에 나타난 解冤의 具現 樣相 研究 -「萬福寺楞蒲記」를 中心으로-	유권석 (남서울대)	김용기(중앙대)
17:40~17:50	종 합 토 론		

* 각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토론은 20분입니다.

* 발표순서와 제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第30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

기획 주제 : 다문화시대의 한국문학

<현대문학 분과 발표>

사회: 허만옥(남서울대) / 장소: 남서울대 화정관 5202

시 간	발 표 주 제	발 표 자	토 론 자
13:30~14:10	한국적인 것과 타자들	김영찬(계명대)	오창은(중앙대)
14:10~14:50	2007년 개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현대시 텍스트 분석	류찬열(중앙대)	김낙현(경희대)
14:50~15:30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타자 형상화 방식의 변화 과정 연구	장성규(서울대)	김효석 (순천향대)
15:30~15:40	중간 휴식		
15:40~16:20	『나마스테』를 통해 본 ‘공통성’과 ‘소통’	허정(동아대)	홍기돈 (가톨릭대)
16:20~17:00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수기를 중심으로	강진구(중앙대)	김주현(인제대)
17:00~17:40	『만인보』에 나타난 역사의 형상화 양상 - 4·19 시편, 5·18 시편을 중심으로	장은영(경희대)	이재용(군산대)
17:40~17:50	종 합 토 론		

* 각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토론은 20분입니다.

* 발표순서와 제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목 차

〈국어학〉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면대면 상담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	이희영 /	3
한국어교육에서의 아동 언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		
KSL 대상 아동의 어휘 능력을 중심으로	김수은·이경 /	15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과 교육 방안	김보경 /	29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발화 상황 연구	손진희 /	41
문식력 발달을 위한 사고(思考) 관찰 :		
Vygotsky의 ‘내적 말’(Inner Speech)을 활용하여	김희경 /	51

〈고전문학〉

<달천몽유록>과 <강도몽유록>의 서사성 비교	황병홍 /	63
『희조일사』의 편찬 양상과 서술 특성 :		
『호산외기』·『이향견문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택식 /	75
고려속요의 樂章적 성격 고찰 : <쌍화점>을 중심으로	김지은 /	87
『補閑集』의 서술방식과 현대적 수용	김상진 /	95
水路夫人 說話 再考 : 현화가·해가 창작의 시공간	이주희 /	107
『金鰲新話』에 나타난 解冤의 具現 樣相 研究 :		
「萬福寺樗蒲記」를 中心으로	유권석 /	119

〈현대문학〉

한국적인 것과 타자들	김영찬 /	131
2007 개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현대시 텍스트 분석	류찬열 /	133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타자 형상화 방식의 변화 과정 연구	장성규 /	143
『나마스떼』를 통해 본 ‘공통성’과 ‘소통’	허정 /	153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 수기(手記)를 중심으로	강진구 /	175
『만인보』에 나타난 역사의 형상화 양상 : 4·19 시편, 5·18 시편을 중심으로	장은영 /	189

第30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국어학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면대면 상담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
이희영(한성대)

한국어교육에서의 아동 언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
KSL 대상 아동의 어휘 능력을 중심으로
김수은·이경(고려대)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과 교육 방안
김보경(서울시립대)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발화 상황 연구
손진희(강원대)

문식력 발달을 위한 사고(思考) 관찰 -Vygotsky의 '내적 말'
(Inner Speech)을 활용하여-
김희경(서원대)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면대면 상담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

이희영(한성대)

1. 서론 : 대학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

대학 글쓰기에 관한 논의는 현재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 글쓰기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학의 학술적 글쓰기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글쓰기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읽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 텍스트 관련 연구와 대학 이전의 교육 분야에서의 글쓰기까지, 이루 다 섭렵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쓰기 관련 연구 영역은 넓으며 연구의 방향과 깊이도 각기 다르다.

이는 ‘대학 글쓰기’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다양성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학 글쓰기는 대학 이전의 글쓰기와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과 더불어 대학에서는 여러 전공별, 교양별 글쓰기 과제를 학생에게 부과한다는 점, 대학 글쓰기는 실제로 전공과 연관을 가질 때 대학 이후의 글쓰기와도 연계성을 가진다.¹⁾ 즉, 대학 글쓰기의 영역은 대학 이전, 즉 가깝게는 고등학교 글쓰기 교육과의 연계성과 차별성, 대학 내에서의 글쓰기는 교양 및 전공 관련 글쓰기, 졸업 논문 등을 포함하며, 대학 이후의 글쓰기는 대학원에서 쓰게 될 논문, 취업 후의 글쓰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 중 ‘대학 내 글쓰기 교육’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대학 신입생 글쓰기 교육과 계열별 글쓰기 교육은 ‘학술적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관을 맺는다. 즉, 학술적 담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그 경계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²⁾ 학술적 담화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실제로 대학의 계열별 글쓰기 교육의 방향 설정과도 연결된다. 현재 대학 글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의 방향은, 신입생 글쓰기 교육의 경우 계열별 교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신입생 글쓰기 교육 외에 계열별 심화 글쓰기 강좌를 개설하는 등 대학의 계열별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는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³⁾

1) 대학 글쓰기의 이러한 측면은 대학 글쓰기에 관한 ‘학술적 정체성’에 관한 많은 질문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진숙(2005), 정혜영(2009), 박나리(2009), 박규준(2010), 이운빈(2012)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이운빈(2012: 167)에서는 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학술적 담화’ 혹은 ‘학술적 담화 공동체’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원만희(2009:199)에서는 ‘담화 공동체’의 성격에 관하여 ‘가족 유사성’이라고 표현하였다.

3) 고려대, 한성대, 경북대, 영남대 등에서 신입생 글쓰기 교육을 계열별 교재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대, 연

계열별 글쓰기의 중요성은 특히 공학 글쓰기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실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공학교육인증제도가 실행됨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커리큘럼에서는 필수적으로 문서 작업, 즉 일종의 종합 보고서의 작성과 완성의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많은 기업에서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실행한 학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부차적으로 공학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이 급진적으로 대두되었다. 생존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글쓰기라는 점에서 아무도 반기를 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 당당한 교육 동기는 그러나 결국 그래서 어떻게 글쓰기를 잘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물음으로 선회하게 된다. 공학 글쓰기만을 볼 때 원론적인 이러한 질문의 기저에는 역시 공학 분야에서 바라는, 혹은 바람직하게 여기는 글의 전형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을 야기한다.⁴⁾

그러나 현재의 계열별 글쓰기 교육 연구에서 계열별 글의 전형성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앞서 설명하였듯이 담화 공동체의 성격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거나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보 상태에 있다는 점, 둘째, 현실적으로 현재 대학의 일부 학문 교육은 융합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의 인재 양성과 더불어 학제 간 통합을 통하여 대학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 등 실질적인 학문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드는 경우도 있다. ‘융합’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모호한 부분에 있어서 융합 혹은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공학 분야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공학자의 소임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술 관련한 손익 계산과 홍보 등을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용어는 그간 존재해왔던 일부 전공 분야의 다양성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융합교육’을 포함한 대학 글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의 정의와 영역을 규명하는 한 편, 계열별 글쓰기로 잠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공 관련 글쓰기의 양상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⁵⁾ 물론 글쓰기 이론의 원론적인 논의와 더불어 이와 같은 귀납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연구는 학술적 텍스트성의 규명과 더불어 담화 공동체 간의 접점과 차이점, 전공교수들의 견해, 학생들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개선점 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 내의 계열별 혹은 장르별 혹은 갈래별 글쓰기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몇몇 연구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보다 활발하게 조직적으로 진행될 필요를 느낀다.

세대, 성균관대에서는 계열별 심화 글쓰기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경희대, 한성대, 숙명여대, 전남대의 경우 ‘계열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경희대는 특정 주제로 집약적으로 글을 쓰는 ‘세계를 위한 글쓰기’ 과목을 2학년 교양 필수로, 숙명여대에서는 심화 글쓰기 과목으로 ‘인문학 독서토론’을, 한성대에서도 ‘비즈니스 글쓰기’와 ‘나를 위한 글쓰기’를 교양 선택으로 지정하고 있고, 전남대는 2006년부터 ‘논술 중심 전공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 4) 나은미(2012:120)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전형성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러한 전형은 구조, 문제, 내용, 의도된 독자의 측면에서 유사한 패턴을 드러냄으로써 담화 공동체에게 인식될 것이라고 서술한다.
- 5) 최수현(2012)은 예술계열 수업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이 연구는 글쓰기 수업을 수강한 예술계열 학생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계열적’ 특성을 보인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주세형·김형석(2013)은 글쓰기 담당 교수와 경제학 전공 교수가 하나의 팀으로 경제학 학술 글쓰기의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으며, 경제학 텍스트의 학술적 특성을 규명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석 텍스트의 분량이 많지 않고, 그 수준이 대학생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고급 텍스트라는 점에서, 과연 텍스트의 선정이 소위 ‘눈높이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 적합한가 하는 논의가 발표장에서 오고 갔다.

2. 학술적 담화를 향한 접근

앞서 언급했던 전공별 담화로의 접근은 제도적으로 개별 연구자가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것은 학과나 학과 간의 팀티칭이나 학교 내 기관과 학과 혹은 단대의 협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시도는 남진숙(2012)과 남경완·조철우(2012)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연구는 실질적인 전공 연계 글쓰기 교육을 전공 담당 교수와 글쓰기 담당 교수가 함께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공 교수와 글쓰기 교수가 각각 담당 역할을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팀티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조희정·이희영(2011)에서도 담당교수와의 미팅을 통하여 해당 과목의 전공 지식에서 필요한 글쓰기 유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일종의 팀티칭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된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연구실의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⁶⁾ 상담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희정·이희영(2011:622) 컴퓨터공학과 졸업프로젝트 글쓰기 상담 일정

상담 진행		3월				4월				5월				6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사전 상담 (담당교수)															
제안서	초안 상담														
	수정안 상담														
홍보 문서 상담															
결과 보고서	초안 상담														
	수정안 상담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졸업 프로젝트 문서 상담은 2009년, 2011년, 2012년과 2013년까지 총 11팀을 상대로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연구실 소속 연구원으로 다른 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소속 연구원 신분이 아닌 개별적 연구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공학 문서는 인문학 전공자로서 텍스트 구성, 문장 표현, 많은 수식과 그래프 등 시각적 요소 사용 등 생소하였다. 무엇보다도 의미 구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전문적 어휘, 내용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공학 문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교육이 전공 담화의 영역에 접근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L. Reave(2004)에서는 공학도들의 의사소통은 매우 난해한 용어들로 복잡하며 같은 전공의 사람들만 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학적 소통은 학창시절에만 국한된다고 설명한다. 이들이 졸업 후에는 고객, 매니저, 투자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공학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학을 교육한 경험이 있는 의사소통 전문 인력이 공학도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한편 E. Wardle(2009)은 전공 관련 글쓰기를 글쓰기 전문 교수자가 교육했던 경험에 관하여 ‘해당 장르’의 글쓰기는 글쓰기 교수자가 교육할 수 없지만 장르에서 요구하는 논증의 방

6) 현재는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조금 변경하였으며, 학생들의 전공 보고서를 여섯 명의 연구원들이 면대면 상담을 해주고 있다.

식은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이 전공과목에서 글쓰기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학 글쓰기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가정할 때 이 두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그 하나는 인문학 전공 배경의 글쓰기 교수자로서 어떻게 생소한 학술 담화의 논증 방식 혹은 서술 방식을 익힐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의미 구성을 이루는 지식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도 전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은 긍정 혹은 부정의 단답형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정도성의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신입생 글쓰기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자들이 학생들의 글의 완결성에 만족할 수 없듯이, 해당 전공과목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글에 관하여 혹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글에 관하여 전공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의 내용을 적절하게 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전공 관련 글쓰기 교육에 요구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말이다. 이 논의 안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산만하게 ‘전공 관련’이니 ‘학술적 담화’니 사용하는 용어에 잠시 양해를 구하고서라도, 위와 같은 개별 학술적 혹은 해당 학술적 담화로의 접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별 학술적 담화로의 접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해당 전공의 소논문이나 서적, 학위 논문을 살펴볼 수도 있고, 해당 전공의 졸업생들이 전공 관련한 취업을 했을 경우, 이러한 취업 전선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찾아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럴 경우 경우에 따라 ‘학술적’이라는 용어는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학부 내에서의 글쓰기 교육이 ‘학술적’인 방향에만 초점을 두지 않으면서도 해당 담화 공동체의 영역에 어느 정도 접근해있다면 분명 부정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⁷⁾

이 논의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여러 학술 담화 공동체 중 하나인 공학적 학술 담화에 접근했던 방식과 그에 따른 고민, 남은 과제의 제시 등이다.

3. 글쓰기 상담의 실제와 방향 설정

글쓰기 교육을 위하여 연구자의 전공이 아닌 학술적 담화에 다가가는 방식 중 하나로 면대면 상담을 꼽는 이유는 글쓰기 교수자가 제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택하기에 앞서 해당 학술 담화의 전형성에 대하여 일종의 교육을 받기 위함이다. 글쓰기 교수자는 실제로 글쓰기 관련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전공 담화의 표현적 전형성, 관습, 해당 전공에서 미숙한 필자가 주로 난항을 겪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사전 준비 작업으로는 전공교수와의 면담, 실제로 상담, 즉 교육을 수행하여야 할 문서에 대한 반복된 독해, 해당 전공 관련한 학술적 서적과 신문 등을 독해, 공학적 문서의 경우는 수업이나 공학 관련 경진대회 등에 참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과정을 모두 거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접근 가능한 기본적 단계로 전공교수와의 면담, 학생과의 면대면 상담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음

7)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술적’ 혹은 ‘학술적 담화’ ‘학술적 담화 공동체’ ‘담화 공동체’ 등에 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이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전히 그 경계선 안에서 다소의 혼선과 방향이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논의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잠시 접어두어도 좋을 듯하다.

은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졸업 프로젝트 문서를 상담하기 이전에 담당교수와 글쓰기 교수자가 면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자료 1>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글쓰기 교수자와의 사전 면담

- 교수자 : 컴퓨터 공학 전공의 학문은 대부분 실습과 프로그램 완성, 실현, 구동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 글쓰기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 관련 회사에 취직했을 때 글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 담당교수 : 문서 작업은 컴퓨터 공학 전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제품이나 프로그램으로만 남기는 것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서 남겨야 하며, 실제로 졸업생들이 IT 관련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무하게 되어도 상당한 분량의 문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 교수자 : 학생들의 문서를 보니 이쪽 분야의 글은 제가 접했던 인문학,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어국문학 쪽의 어학과 문학 관련 글과는 구성이나 문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안서의 경우가 학생들이 졸업 후 투자 유치 같은 것을 할 때 쓰이므로 더 필요하다고 보면 되나요? 프로젝트 수행 목적, 개요, 결과물 개요, 현실적 제약 조건, 기능에 대한 설명과 실행 화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대회나 회사의 문서들도 이와 같은 구성을 갖추는지요?
- 담당교수 : 네 기본적으로 그런 설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통의 모든 문서가 같은 구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때그때 분량이나 요구사항은 좀 다르죠. 인문학에서는 아름다운 글쓰기를 강조하지 않는지요?
- 교수자 : 아름다운 글쓰기...라고 하시면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인문학 쪽에서도, 글썬요, 제가 문학 전공이 아니라 어학 전공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서...국어학 쪽의 논문은 상당히, 뭐랄까요, 좀 딱딱하고 단어 하나하나의 정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름다운 측면이 문학 관련 글의 비유가 풍부하고 문체가 유려한 그러한 글을 뜻하시는 거라면 그런 것도 같은데, 그건 제가 선불리 말씀드리기가...
- 담당교수 : 같은 내용이라도 공대 학생들은 일단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설명하고 그런 것은 잘하는데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서라는 것이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어서, 아름답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 해도 사실적인 내용을 보다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쓰는 기술도 사실 중요하지요. 공대 교수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지만 저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문서에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부분도 보이면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서...어딘가 문서를 제출하고 뽕개 될 경우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여서요.
- 교수자 : 현재 교내에는 공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강좌는 없지만, 신입생 글쓰기 교육은 나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입생 글쓰기 교육에는 만족하시는지요?
- 담당교수 : 네.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을 쓰게 하니깐요. 더 많이 쓰게 해야 합니다.
- 교수자 : 교수님께서 공대 학생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하신다면,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 담당교수 : 테크니컬 라이팅, 프레젠테이션 등 실무적인 글쓰기, 이력서도 포함해서요. 실무적인 글쓰기가 더 집중적으로 교육되어야 합니다. 강좌가 개설되어도 좋고, 이번 경우처럼 글쓰기 튜터링도 좋습니다. 연구원이나 전문가 선생님들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국문과 친구들과 공대 애들을 엮어준다거나...또 속성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글의 프레임 잡는 법, 산문이나, 보고서 등 기계적인 글쓰기 방법론에 관한 좀 강도높은 교육이 필요하죠.

<자료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료1>에서 보여준 사전 상담은 글쓰기 교수자가 실제적 문서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심층적 내용들에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변적 내용에 관한 상담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심층적 내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해보다면 앞서 말한 ‘전형성’에 관한 것이다.⁸⁾ <자료1>은 인문학 전공자인 글쓰기 교수자가 컴퓨터

8) 학생들은 졸업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선배들이 작성한 예들을 바탕으로 목차와 구성을 만든다고 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OCW(Open Course Ware)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이곳에서 밝히지 않는다.

공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을 전공하는 학부 학생의 졸업 문서를 접한 후 담당교수에게 해당 담화의 상황적 맥락에 관한 주변적 질문을 한 단계이다. 다음은 <자료1>의 바탕이 되는 학생의 졸업 프로젝트 제안서의 앞 부분과 이에 관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담 내용이다.

<자료 2> 컴퓨터공학과 졸업 프로젝트 제안서의 일부분

1. 프로젝트 수행 목적

1.1. 동기

이전부터 ‘움직이는 무언가(moving object)’를 만드는 것에 유난히도 관심이 많았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재미있을까를 찾아보던 차에 ‘쿼드콥터(Quadcopter)’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마치 UFO처럼 공중을 유영하는 모습에 끌려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와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Controller)를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쿼드콥터를 만들어서 영상 인식 등의 응용 보드를 올릴 수 있는 드론(Drone)으로 삼고자 한다.

1.2. 프로젝트의 가치

UAV의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행기(Air-Plane)로, 한 장소에 머물기 위해서는 선회동작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헬리콥터의 경우, 호버링(Hovering)이 가능하여 허공에 정지해 있을 수 있다. 또한 로터(Roter)의 수가 하나일 경우, 주 로터에서 발생하는 토크(Torque)를 제거하기 위해 기체의 꼬리부분을 만들어 로터를 달아야 하지만, UAV라면 굳이 적재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로터의 수를 4개로 늘려 제어는 힘들어지지만 보다 소형화가 가능하다. 때문에 쿼드콥터를 이용하여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의 탐사나 정찰을 할 수 있고, 내연기관이 아닌 전동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이 적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 3> <자료 2>에 관한 글쓰기 교수자와 학생 간의 면대면 상담의 일부분

교수자 : ‘쿼드콥터’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한데, 연구물의 이름이기도 하니 설명을 좀 넣어주는 것이 어떨지요?

학생 : 네.

교수자 : 개발의 동기가 학생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설득력있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전부터 움직이는 무언가(moving object)’를 만드는 것에 유난히도 관심이 많았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재미있을까를 찾아보던 차에 ‘쿼드콥터(Quadcopter)’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는데 이 부분이 객관적인 필요성에 의해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학생 : 객관적인 필요성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개발을 시작했다고 쓰면 어떤 점에서 안 좋은가요?

교수자 : 많은 연구나 개발이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에 서술할 때 다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을 독자의 관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독자를 누구로 정하고 있습니까?

학생 : 교수님이 읽으실 건데...생각해보니 교수님이 일반 투자자나 뭐, 그런...일반인을 대상으로 삼으라고도 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자 : 그렇다면 독자는 일반인과 전공교수님이 됩니다. 졸업 후 진로를 생각하여 학생이 만든 상품에 투자할 일반인을 독자로 정한다면 해당 독자의 관심에 맞추어 서술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 네

교수자 : ‘프로젝트의 가치’ 부분에 현재 생산할 쿼드콥터의 기능적인 특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동기’가 어떤 객관적 용도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는 내용이라면 프로젝트의 가치에 관한 부분은 이와 관련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영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떨지요?

학생 : 네...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어떻게 항목별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고, 가치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용어들도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무슨 내용을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3>은 <자료 2>를 상담한 내용의 일부이다. <자료 3>에서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이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실재하는 독자에 관한 인식이 없다.
- ② 담당교수를 독자라고 상정할 경우 ‘쿼드콥터’에 관한 용어 설명은 불필요해진다.
- ③ 교수자는 이 문서를 졸업작품의 일부로만 보지 않고 취업 후 바로 작성하게 될 문서의 일부로 바라본다.
- ④ 이것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담’이며 쌍방향적인 교육 효과가 있음에도, 학생은 교수자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으로 파악하여 실재 독자에 관한 주장을 더 강하게 하지 못한다(혹은 ‘독자 고려’라는 글쓰기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⑤ 프로젝트의 목적, 가치,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①, ④, ⑤의 내용은 비단 <자료 2>의 문서를 작성한 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상담했던 11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컴퓨터 공학과의 경우 창업과 취업 관련하여 기업과 학교, 행정구역에서 주최하는 각종 공모전에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 다시 겪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면대면 상담을 제안하게 되는 이유는 전공 담화 글쓰기에서 인문학 전공의 교수자 역시 해당 담화에 익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말로는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글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예로써, <자료 3>의 다른 부분을 보면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다.⁹⁾

<자료 4> <자료 2>에 관한 글쓰기 교수자와 학생 간의 면대면 상담의 일부분

학생 : 이런 문서를 처음 써봐서요..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교수자 : 제안서는 일종의 피알(PR) 광고와도 같습니다. 제품이 왜 필요한가, 기존의 유사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차별성은 어떤가,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회에서 혹은 사회의 어떤 계층, 유저층에게 유익한가 등을 써야 합니다. 쿼드콥터는 무인항공기라는 건데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된다고요? 군사용으로만 사용되나요, 그럼?
 학생 : 아니요, 이게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소형이고 조종하는 거여서 사실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보내어서 뭔가를 감시하거나 조사하거나 할 수가 있지요.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수자 : 아, 그럼 쿼드콥터를 만들어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유저의 층이 의외로 넓은 거네요?
 학생 : 네, 근데 아직까지는 군사용으로 쓰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기는 한데...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자료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수자는 학생과의 면대면 상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9) 김병길(2008), 원만희(2009), 이재성·김은영(2010)을 보면 일반적으로 ‘범교과적 글쓰기(WAC)’로 번역되는 글쓰기, 즉 전공 관련, 타교양 관련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rscht, J et al(1994)를 따르면 WAC는 미국 내에서 전공 관련 글쓰기인 WTL(writing to learn)과 전공 글쓰기인 WID(writing in discipline)으로 그 방향이 나뉜다고 한다. 이 논의는 따라서 WID의 방향에 가깝다.

- ⑥ 학생이 해당 장르의 글에 대한 특성에 관한 지식이 없다.
- ⑦ 학생은 글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프로젝트의 목적과 가치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며 이것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발화하였다.
- ⑧ 관련된 후속 질문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사고를 확장하고 추가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자료 5> <자료 2>의 수정본

1. 프로젝트 수행 목적

1.1. 동기

최근 군사용 혹은 사람이 작업하기 힘든 환경에서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ir Vehicle)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용의 경우 적진의 정찰이나 타격 등을 하는데 있어 아군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인 무인항공기로는 미국의 국방선진개발연구소(DARPA :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 제작된 MQ-1 (Predator : 프레데터)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인비행기’라고 부르는 물체인 프레데터의 행동반경은 900Km, 204kg의 화물을 싣고 29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으며, 기상레이더와 4Km밖에서 교통신호를 식별할 수 있는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프레데터처럼 날개를 이용하여 양력을 얻는 비행체의 경우 어떤 한 지점에 정지해 있기 위해서는 넓게 원을 그리며 선회하는 수밖에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헬리콥터는 호버링 (Hovering)이 가능하며, 작업영역의 선정에서 비행기보다 유리하다. 또한 헬리콥터는 날아오르는 데에 있어서 비행기에 비해 상당히 적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헬리콥터는 그 구동원리가 상당히 복잡하다. 하나의 로터만으로 토크와 방향이동을 모두 제어해 내야 하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을 얻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로 인해 여러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시키기가 힘들다는 단점을 가진다.

쿼드로콥터는 네 개의 로터를 마주보는 것끼리 같은 방향으로, 인접한 것끼리는 역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기체가 수직 축으로 회전하는 것을 억제하고, 각 로터의 추력을 제어하여 종횡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있다. 하나의 로터로 제어해야 하는 것을 네 개의 로터로 나누었기 때문에 제어가 용이해지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 프로젝트는 ‘무인 헬리콥터’중에서도 네 개의 로터를 가진 쿼드로콥터를 개발하도록 한다. 쿼드로콥터의 명칭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독일 ‘Micro Drone’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쿼드로콥터가 있으나, 본 프로젝트는 MIT UAV-Lab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영상에 나온 자동으로 움직이는 쿼드로콥터를 그 최종 목표로 한다.

1.2. 프로젝트의 가치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무인항공기는 대부분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점차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밀수선감시, 밀입국 감시, 산불감시, 지도 제작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민수용 또는 상업용으로서의 UAV 활용 역시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역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할 쿼드로콥터는 군사용에서 정찰, 감시등에 활용될 수 있다. 헬리콥터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날릴 수 있고 호버링하면서 적진 촬영 및 적 동태 감시등에 유용하다. 민간 분야에서는 조종사 고용에 관한 비용 때문에 실현하기 힘들었던 밀입국 감시 및 산불 감시등에 쿼드로콥터가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자료 5>는 상담 후 수정된 <자료 2>의 수정본이다. 개발 동기 부분을 보면 <자료 3>에서 상담했던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즉, ‘나의 관심, 학습용으로’ 개발한다는 필자 중심의 서술에서 다소 벗어나 ‘사람이 작업하기 힘든 곳에서 사용하는 무인 항공기’라는 구체적 설명을 도입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자료 5>에서 ‘프로젝트의 가치’ 부분은 ‘프로젝트의 동기’와 내용상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동기’는 필요성에 의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한 원인이고 ‘가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실현되는 이점이다. 상담은 교정이나 첨삭과는 다르다. 따라서 교수자와의 대화에서 학생이 스스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가 글을 다시 쓰게 된다.

현재 글쓰기 연구에서 첨삭, 피드백이라는 용어에 상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글쓰기 상담의 결과로 학생이 스스로 첨삭을 할 수 있으며, 글쓰기 피드백의 한 종류로 글쓰기 상담이 존재할 수는 있다.¹⁰⁾ 제도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공 학술 담화의 글쓰기 상담은 1회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초고를 상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정본을 상담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교수자보다 학생이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점과, 같은 장르의 텍스트에서 반복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상담매뉴얼을 작성하여 상담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문제에 대하여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촉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논의에서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공학과와 프로젝트 제안서에 관한 상담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

- ① 프로젝트 제안서라는 장르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가?
- ② 프로젝트의 독자를 설정하고 있으며 독자에 맞추어서 글을 서술하고 있는가?
- ③ 프로젝트의 목적을 글의 서두에 명시하였는가?
- ④ 프로젝트의 개발 배경과 프로젝트 결과물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서술하였는가?
- ⑤ 프로젝트 개발 배경과, 목적, 가치를 혼동하여 서술하지 않았는가?
- ⑥ 프로젝트 개발 배경과, 목적, 가치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았는가?

4. 결론과 남은 과제

이 논의에서는 대학의 전공 글쓰기 교육에서 면대면 상담의 중요성과 방향 설정을 논의하였다. 대학 내 글쓰기의 영역은 학제로 구별되어 있는 계열의 수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나, 이미 신입생 글쓰기 교육이 많이 진행된 만큼, 이제는 보다 개별 학술적 담화에 접근하여 전공 글쓰기 영역에서도 글쓰기 교육을 차차 실행하고 연구를 병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글쓰기 면대면 상담은 전공교수와와의 사전 상담 및 중간 상담, 해당 학생과의 상담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과의 상담에서는 개별 학문적 담화의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오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관련된 항목을 짚어줌으로써 학생이 이미 알고 있으나 항목화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을 스스로 발화하도록 돕는다. 실제로 사용된 컴퓨터공학과 프로젝트 제안서의 경우,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가치 등에 관한 서술은 실제로 해당 공학철학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궁극적으로 몇 회의 글쓰기 상담으로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련 주제에 관한 동료 토론

10) 글쓰기 첨삭과 관련된 연구로 박진숙(2009), 최규수(2009)가 있으며 글쓰기 피드백에 관한 연구로는 최상민(2008), 염민호·김현정(2009), 김현정(2012)이 있다.

과 글쓰기 등으로 습득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이지는 않지만 단편적으로라도 이러한 상담이 보편화되고 지속된다면, 소기의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쓰기 상담과 글쓰기 평가의 연관성, SNS를 이용한 글쓰기 상담, 수강생의 수나 강의 시간과 장소의 문제 등 제도적인 문제에 관한 논의는 후술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 김병길, 「교과과정 연계방안으로서 WAC 프로그램 도입사례 연구」, 『새국어교육』, 80, 한국국어교육학회, 2008
- 김현정,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우리어문연구』, 43, 우리어문학회, 2012
- 나은미, 「장르의 전형성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2012
- 남경완·조철우, 「이공계 글쓰기 교육의 팀티칭 사례 연구」, 『공학교육연구』, 15-1, 한국공학교육학회, 2012
- 남진숙, 「이공계 ‘팀티칭 수업’(Team-teaching)의 효과적 방법 및 그 실제」, 『우리어문연구』, 43, 우리어문학회, 2012
- 박나리, 「학술논문에 나타난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의 사상(mapping)양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2009
- 박규준, 「담화 공동체 관점에서의 대학 글쓰기 교육」, 『우리말글』, 50, 우리말글학회, 2010
- 박진숙, 「첨삭지도라는 공통감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개선방향」, 『반교어문연구』, 26, 반교어문학회, 2009
- 오택환, 「고등학교 작문 교육의 현황과 전망」, 『작문연구』, 4, 한국작문학회, 2007
- 염민호·김현정, 「대학 ‘글쓰기’ 교과에 활용 가능한 피드백의 특성과 방법」, 『새국어교육』, 83,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 원만희, 「대학 글쓰기 교육의 개선 방향과 방법에 관한 시론」, 『교양교육연구』, 3-1, 한국교양교육학회, 2009
- , 「왜 ‘범교과 글쓰기(WAC)’인가?」, 『철학과 현실』, 82, 철학문화연구소, 2009
- 원진숙,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작문 교육 방법」,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2005
- 이상혁, 「대학 글쓰기에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육 과정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9
- 이운빈, 「대학 신입생 대상 ‘학술적 글쓰기’의 장르적 의미와 성격」, 『작문연구』, 14, 한국작문학회, 2012
- 이은희, 「설득 텍스트의 본질 및 특성과 교수 학습」, 『한국어교육학회지』, 136, 한국어교육학회, 2011
- 이재성·김은영, 「범교과적 글쓰기(WAC: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연구」, 『국어교육연구』, 47, 국어교육학회, 2010
- 이희영, 「공학적 글쓰기를 위한 표현 전략 교수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정혜영, 「대학의 교양교육과 학술적 글쓰기」, 『현대문학이론연구』, 37,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 조희정·이현주, 「대학 글쓰기 상담 대화의 구조와 특징 : 인문계열 전공 글쓰기 상담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2009
- 조희정·이희영, 「공과대학 프로젝트형 글쓰기 상담 연구 : 제안서와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2011
- 주세형·김형석, 「경제학 학술 텍스트의 특성 연구」, 『제29회 한국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1세기의 작문 환경과 작문 교육의 지평』, 한국작문학회, 2013
- 최규수, 「첨삭지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 양상과 교육적 효과의 문제 - 명지 대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26』, 2009
- 최상민, 「대학생 글쓰기 지도에서 비계 설정하기 - 실용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
- 최수현,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방법과 의미-예술계열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작문학회 제5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집』, 대학작문학회, 2012
- Kirscht, J. et al., 1994, WAC and the Rhetoric of Inquir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45(3): 369-380.
- Leslie C. Pereman et al., (1997) The Mayfield handbook of Technical & Scientific writing (Online version)
<http://www.mhhe.com/mayfieldpub/tsw/home.htm>
- Reave, L., 2004, Technical communication Instruction in Engineering Schools A Survey of Top-Ranked U.S. and Canadian Programs, *Journal of Business and Technical Communication* 18(4) : 452-490.
- Wardle, E(2009) “Mutt genre” and the goal of FYC : Can we help students write the genres of the universit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60, 765-789

한국어교육에서의 아동 언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

KSL 대상 아동의 어휘 능력을 중심으로

김수은 · 이경(고려대)

1. 들어가며

최근 다문화 가정이나 중도 입국 자녀,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 등 다양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공교육 체제 내에 급증하게 되면서 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¹⁾ 특별히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중도 입국 자녀나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자신의 모국어를 습득한 이후에 두 번째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제2언어 환경에 놓이게 되며(원진숙:2011), 한국어 및 한국 사회에 대한 학습과 적응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공교육 체제 내로의 편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연구 및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이해를 돕는 연구나 교수 내용 및 방법들을 제시하는 연구,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도 입국 자녀나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의 입국 초기에 주목하여 진행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중도 입국 자녀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입국 초기에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이후 체제 내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도가 현저히 낮아 언어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제2언어 교육에 기반한 한국어교육 차원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특별히 이들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²⁾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한국어 사용

1)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들 학습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11년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초·중·고 학교별 표준 한국어 교재가 발간된 바 있다.

2) 다문화 배경 아동은 여러 가지 언어와 문화에 노출되고 습득된 경험이 있는 아동(및 청소년)으로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 입국 자녀를 포함한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 가정자녀뿐 아니라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귀국 자녀, 재외동포자녀를 포함한다. 또한 탈북자나 새터민 자녀도 언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북한의 배경이 있고, 탈북 과정에서 제3의 언어와 문화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하는 다문화 배경 아동은, 진단 평가를 통해 국내 공교육에 중도 편입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므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및 재외동포 자녀 등은 제외하고, 중도

수준과 인지적 발달 단계에 맞는 학년 수준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사어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교육 편입 전과 후에 적절한 한국어교육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언어 수준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적 지원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 양상을 포착하여 향후의 교육 내용 설계 및 방향 제시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김정숙 외(2010), 윤희원·서혁(2010)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대해 지적하면서 아동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J-TOPIK)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원진숙(2011)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개발 방향과 시행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아동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진단 평가 도구의 개발 필요성 및 목적에 동의하며, 그 개발 방향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탐색해 볼 것이다.

특별히 본고는 언어 능력 요소 중에서도 아동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광철호(2009)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독해와 어휘력, 쓰기 능력 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기술하며, 이들의 언어사용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휘 이해 능력 수준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어휘는 개념적 측면에서 아동의 인지·정의적 발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시적인 지표가 되며, 언어의 이해·표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뿐만 아니라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들의 경우, 공교육으로의 성공적인 편입을 담보하기 위해 CALP 능력의 신장 역시 평가 목표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교과 학습을 돕는 CALP 어휘는 김광해(2003)이 구분한 이차 어휘에 속하는 것으로, 의도적인 학습에 의해서만 학습될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 편입 전과 후에 명시적인 어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선행하여 정확한 수준의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의 언어 능력 중 어휘 능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가 도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A.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의 어휘 능력은 무엇인가?
- B.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어휘 능력의 목표는 어떠한가?
- C. 어휘 능력 진단 평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2. 아동의 어휘 능력

2.1. 아동의 언어 및 어휘 발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논하기에 앞서, 아동의 언어

입국자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3) 다양한 사례 연구에서, 이중 언어 연구자들은 어휘 평가를 언어 습득과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근거로 활용해 왔다.(Read:2000, 240p)

발달에 관해 일반적으로 기술되었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아이들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모어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일반적인 발달 패턴에 따라 언어를 가지고 부모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아이의 언어 발달은 어휘의 습득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돌이 되기 전후로 첫 단어를 말한 후, 아주 천천히 단어 학습이 진행되지만 18~19개월쯤 50개 단어를 구사하는 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단어의 학습이 눈에 띄게 급증하는 ‘단어 폭발(Vocabulary Spurt)’ 단계에 이른다. 단어 폭발 시기가 지나고 더 자라게 되면 학습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데, 2세~6세의 아이는 하루 평균 10개 정도의 단어를 학습하여 여섯 살 무렵이 되면 1만 4천 개의 단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며, 그 이후 하루에 20개 이상의 새로운 단어를 습득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 정도가 되면 평균 6만 개의 단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아이들은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는 일련의 연속된 음을 단어들로 분절하여 잘라내고,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며, 조합된 단어의 합에 대해 형식, 의미, 화용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반응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나아가 단어 내부의 합성과 파생에 대해 이해하여 새로운 어휘를 창조하여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이가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조음, 어휘, 구조, 화용적 측면에서 깨달아 유창하게 사용하는 과정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발달의 양상 또한 일반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나 모어와 달리 외국어 학습의 경우, 해당 언어 환경이나 입력 자료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유창한 의사소통까지 성공하지는 못한다. 박이도(2005:13)는 언어습득을 특성에 따라 모국어의 습득, 습득과정을 조정하려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 개입 없이 일상적 의사소통에 따라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제2언어습득(자연적 제2언어습득), 제2언어습득자가 목적 언어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제공받고 기존의 각종 언어 레퍼토리를 활용하도록 조종 받는 언어습득(외국어학습)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류 방법에 따르면 KSL 대상이 되는 아동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연적 제2언어 습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아동이 국내 출생이 아니라 모어 체계를 확립한 후에 순차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어학습의 성격 또한 가지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고유한 언어발달 특성을 다룬 연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다문화 가정 아이와 일반 아이와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의 특징 파악을 시도한 연구들이 최근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정은희 외(2012)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을 취학 전과 학령기 이후부터 중학교시기로 나누어 선행 연구들을 분석⁵⁾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취학 전인 다문화 배경 아이들은 언어의 이해(수용)와 표현 영역, 음운 인식과 조음에서 일반 가정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학령기 이후에도 어휘량, 단어 및 독해력, 배경지식 활용 능력 등에

4) 보통 영아는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유아는 36개월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를 의미하며, 아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William O'Grady(2005:16)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children)’을 영아, 유아, 아동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하였다.

5) 정은희 외(2012)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된 선행 연구는 강금화 외(2010), 김명라 외(2011), 심미영 외(2010), 정은희(2004), 안성우 외(2008), 양성오 외(2009), 황상심(2010), 권순희(2009), 배소영 외(2010), 김선정 외(2009), 박지윤 외(2009), 서혁 외(2009) 등이다.

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배소영(2009) 등과 같이 다문화 아동의 한국어 수준을 언어발달 혹은 언어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연구도 있었다. 황상심(2011)의 조사에서도 전체 다문화 가정 아동 47명 중 약 30%가 약간 언어발달지체 또는 언어발달장애에 해당하였으며, 어휘이해력에서는 다문화 집단이 약 47%의 성취로, 비교집단아동들의 평균 91%에 비해 어휘이해력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문화 배경 아동들 역시 다문화 가정 아동처럼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언어의 발달, 특히 어휘력이 더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배경 아동들이 언어 능력 자체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애 고위험군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의 특수한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Pearson et al.(1993)에서는 이중 언어 아동이 단일 언어 사용 아동들보다 표준화된 어휘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전체 개념적인 어휘(conceptual vocabulary), 즉 양쪽 언어를 합한 어휘는 단일 언어 사용 아동들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중 언어 각각의 어휘 점수가 낮은 이유는 ①두 가지 어휘의 장기 기억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 ②노출량이 적음, ③각각 학습하는 상황(문맥)이 적으므로 각 언어 어휘 레퍼토리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아동과 다문화 가정 자녀를 단순 비교하여 언어의 발달이 뒤처지거나 지체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문화 가정 혹은 다문화 배경 자녀의 언어 발달을 정밀하고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관련하여, 오소정(2012)에서는 단순히 다문화 환경의 요인으로 인하여 일반가정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 아동과 언어학습 잠재력의 차이로 인하여 꾸준한 언어치료적 지원을 필요로 아동을 구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배소영(2009)에서도 정밀한 진단과 평가, 조기 언어발달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며 조기 선별과 진단을 위한 진단·평가 도구의 필요성 주장을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배경 아동의 고유한 언어 발달 양상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밝힌 기 연구들과 기본적인 논지를 함께 하며, 언어 진단·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2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아동의 어휘 능력을 보다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을 본고의 목적에 맞게 정의해 보기로 한다.

2.2. 아동의 어휘 능력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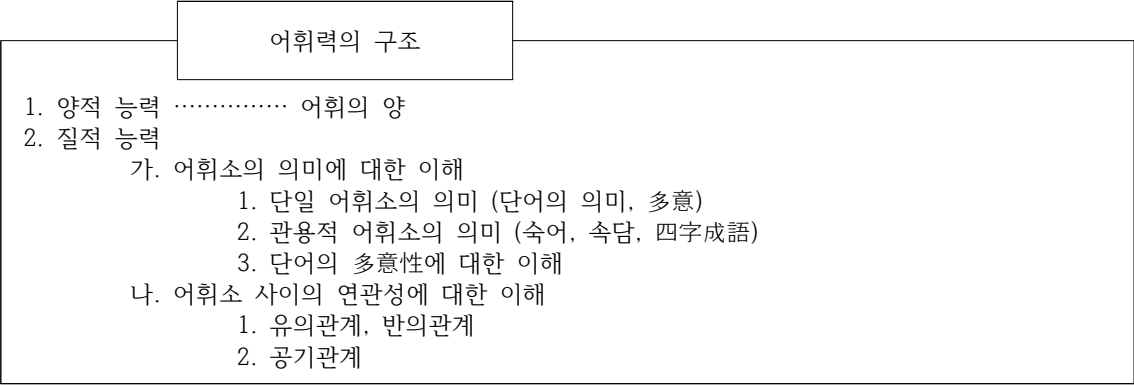
아동의 한국어 어휘 평가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휘 능력과 구성 요소를 한국어교육학적 입장에서 정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광해(1993)은 어휘력⁶⁾을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손영애(2000)에서는 '어휘에 대한 지식, 개개 낱말에 대한 형태, 의미, 화용에 관련되는 지식의 총체'로, 이충우(2005)에서는 '어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으로서 형태와

6)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어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김광해(1993, 1997)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력' 대신 '어휘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본고가 한국어교육에서의 어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의미, 용법에 관한 지식, 적절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 등'을 이룬다고 정의한 바 있다. 손영애(2000)의 정의는 간결하나, 어휘 사용 능력을 포함하기에는 다소 좁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충우(2005)의 정의는 자칫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술로 받아들여져 향후 논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김광해(2003)의 정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김광해(2003)에서는 어휘력을 양적 지식과 질적 지식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해와 사용 모두를 포괄하고 있어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어휘 능력의 개념에 일면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김광해(2003)에서는 어휘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1> 어휘력의 구조 (김광해, 2003)



해당 논의에서는 어휘력의 구조를 크게 양적인 능력과 질적인 능력으로 나누고, 질적인 능력을 다시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로 세분하고 있다. 이는 어휘소의 개별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소 간의 연관성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어휘력에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전 단계의 논의들이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 차원에 머물렀던 점을 상기해 볼 때, 김광해(1993, 1997, 2003)의 논의는 어휘력의 구조에 대한 시각을 넓혀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김광해(2003)의 어휘 능력의 개념은, 모국어 화자의 어휘 지식 체계를 전제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에 초점을 두고 더욱 면밀하게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의 구조는 지식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기술되어 있어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하는 사용의 측면이 배제되어 있다. 어휘 능력을 단어들의 집합인 어휘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일에 관한 언어 사용자의 능력이라고 하였을 때, '어디'로부터 이해하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어 교육과 평가에 모호하다는 측면도 지적해 볼 수 있다.

한편, 어휘 능력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제2언어 분야에서 이루어진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Richards(1976)과 Nation(1990), Chapelle(1994), Read(2000)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김연진, 2006).

Richards(1976)은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어휘를 맞닥뜨릴 확률, 함께 결합되는 어휘를 아는 능력, 다양한 상황과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 통사적 특성에 대한 지식, 어휘의 기저형과 도출형에 대한 지식, 다른 어휘와 연합한 의미적 그물망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휘의 의미적·화용적 지식 등을 포함한다고 하여 어휘 학습을 복합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또한, Nation(1990)의 경우 어휘 지식을 크게 형식, 위치, 기능 그리고 의미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두 가지로 새로이 구분하고 있다. 즉, 형식은 구어와 문어로, 위치는 문법적 패턴과 연어, 기능은 빈도와 적절성, 의미는 개념과 연합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이러한 8가지 하위 요소를 다시 수용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Chapelle(1994)는 Bachman(1990)에서 정의한 언어 능력을 기초로 어휘지식을 지식과 사용 능력으로 보고 어휘 사용의 맥락, 어휘 지식과 기초적인 과정, 어휘 사용을 위한 초인지적 전략의 세 가지 하위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어휘 능력에 대한 실체를 단면적이거나 일차원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구성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즉, 어휘 능력을 어휘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때에, “안다”와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 안에 포함되는 모든 지식을 포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휘 능력에 대한 국내, 국외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의 어휘 능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식적 차원에서 어휘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까지 포함시켜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별히 교육 및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무엇’을 ‘어디’로부터 이해하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은 이전에 살펴본 어휘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과는 차별점을 가지게 된다. 아동의 언어 발달 단계에 따라 어휘 능력의 양적, 질적인 폭이 달라지며, 모국어에서 습득했던 사전 지식과 전략 등이 변인으로 작용해 보다 특성화된 어휘 능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고는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을, “어휘와 어휘를 둘러싼 언어·사회·문화적 요소를 의사소통 상황 및 학습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과 그 태도”로 정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함의된다.

<표 2>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에 대한 정의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	
어휘와 어휘를 둘러싼 언어·사회·문화적 요소를 의사소통 상황 및 학습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과 그 태도	
‘무엇’ : 어휘와 어휘를 둘러싼 언어·사회·문화적 요소	
‘어디로부터/어디에’ : 의사소통 상황 / 학습 상황	
교육 및 평가의 내용 :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과 그 태도	

7) Richards(1976)는 어휘 지식을 가진다는 것을, ① 모국어 화자의 문법 지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어휘 지식은 평생동안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② 구어나 문어에서 그 어휘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으며, 어떤 다른 표현들과 함께 쓰일 수 있는지 아는 것. ③ 어휘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기능의 변화를 알고 그 사용의 한계도 아는 것. ④ 어휘의 문법적 사용을 아는 것. ⑤ 어휘로부터 변형되어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어휘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 ⑥ 어휘의 연합과 그 관계를 안다는 것. ⑦ 어휘의 의미적인 가치를 알고 있는 것. ⑧ 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김연진, 2006 재인용)

위 정의를 통해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휘 지식뿐만 아니라, 어휘를 둘러싸고 있는 언어·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지식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상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소통 상황 및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때, 의사소통 상황과 학습 상황을 구분한 것은, 아동이 제2언어 상황에 놓여 있는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의 체제 내의 상황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와 어휘 사용에 대한 태도적인 측면 역시 어휘 능력의 한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다문화 배경 아동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데 참여하느냐는 점에서 전략적 능력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위에서 상세한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을 토대로 아동의 어휘 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 목표와 평가 원리를 고안해 보고자 한다.

3. 아동 어휘 능력 평가 개발 방향

3.1. 평가 목표

아동 어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각 발달 단계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의 논의대상이 되는 다문화 배경 아동의 경우 제2언어 환경에 속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따라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유럽공통참조기준, 그리고 KSL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및 목표를 어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 평가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11년 국어과 교육과정 최종 고시본에는 어휘교육 관련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년군에 따른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3> 2011년 국어과 교육과정 최종 고시안 어휘교육관련 내용(최운선, 2012)

학년군	성취기준
1·2학년군	기초 어휘를 익히면서 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3·4학년군	어휘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쓴다.
5·6학년군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핵심적 국어능력을 갖추어 어휘의식을 높이고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며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한다.

위의 성취기준을 검토해 보면, 기초 어휘의 습득을 통해 어휘의 이해 및 문장에서의 활용 능력으로, 나아가 일상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국어능력 배양을 통한 어휘의식 고취로 그 내용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그러나 다문화 배경 아동의 성취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세밀하지 못하며, 대상 아동의 생활 연령과 언어 연령의 괴리를 감안할 때 학년군에 따른 범주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배경 아동의 제2언어 환경에 적합한 목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 능력의 숙달 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어휘의 숙달 표 (유럽 평의회, 2001)

어휘의 숙달	
A1	해당 능력기술문항이 없음.
A2	구체적인 일상의 요구와 관련된 제한된 어휘를 구사한다.
B1	비교적 복잡한 일을 표현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주제나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 초보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 어휘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B2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혼동이나 잘못된 단어의 선택도 있지만, 어휘사용의 정확도가 일반적으로 높다.
C1	가끔 작은 실수가 있지만, 어휘의 사용에서 큰 실수는 없다.
C2	일반적으로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어휘 숙달의 표를 살펴보면, 언어 능력의 숙달 정도에 따라 A1-C2까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제2언어 발달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의 성취기준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각 단계별 폭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으며,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교육 과정 내에 편입되어야 하는 대상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필요, 즉 교과 어휘에 대한 목표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수준을 어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어휘와 관련되는 부분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서술어는 모두 ‘-할 수 있다’ 형식으로 재기술하였다.

<표 5> KSL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수준 (원진숙 외, 2011)

등급	총괄 수준
초급	1급 ·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최소한의 기본 어휘들을 보고 읽을 수 있다.
	2급 · 일상 생활과 학교에서 자주 접하는 기초적인 단어나 관습화된 어구로 이루어진 단문 총위의 간단한 대화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중급	3급 · 학교 교실이나 문방구, 마트 등과 같이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4급 · 수업 시간에 자주 접하는 교과 학습 어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고빈도 어휘와 관용적인 표현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고급	5급
	6급 · 일상 생활은 물론 모든 교수 학습 장면에서 접하게 되는 교과 학습 어휘의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친숙하지 않은 어휘와 소재를 중심으로 한 대화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5급의 경우, 어휘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기술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구성 원리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원진숙, 2011:145), 고빈도 어휘에서 저빈도 어휘로, 일상어휘에서 교과학습 어휘로, 구상적 아이디어와 개념에서 추상적 아이디어와 개념으로 확장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KSL 교육과정의 경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연령이 아닌 숙달도 수준에 따라 1-6급으

로 세분화하여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상어휘와 교과어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나,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아동을 포함한 전체 대상을 상대로 목표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논의하는 다문화 배경 아동, 즉 중도 입국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비해 초급1의 단계가 다소 높을 수 있다. 이들이 제2언어 환경에 처음 진입한 초기 입국 단계의 한국어 수준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제2언어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모국어 지식 및 전략적 능력, 정의적 태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역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평가 내용이, 다문화 배경 아동의 현 숙달도 정도를 정밀히 진단하고 진단 내용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데에 있다고 할 때, 아동이 어휘를 ‘어디’로부터 이해하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어휘 이해·사용” 측면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어휘 평가의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측면들이 모두 포함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어휘의 평가 체계

	어휘의 평가			
	어휘 이해·사용 지식		모국어 지식	태도
	어휘 이해	어휘 사용		
아동언어 · 발달단계	· 아동의 언어 및 발달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교과학습에 필요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		·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국어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어휘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의 어휘 능력 평가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 및 발달 단계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 수준 정도에 따라 목표 범위와 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휘 지식을 이해와 사용으로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다문화 배경 아동의 불균형한 제2언어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역할을 면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선 논의를 통해 그 중요성을 밝힌 모국어 지식과 태도에 대한 측면 역시 평가 체계와 내용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아동의 한국어 발달 단계 및 평가 내용이 될 어휘의 범위나 양에 대한 양적·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각 급의 시작점과 끝점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일반 아동과 다문화 배경 아동의 한국어 발달 양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이후에 기술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2. 평가 원리

이 장에서는, 평가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를 구성·시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원리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는 3.1.에서 살펴본 어휘 평가 목표 체계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와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어휘 선정과 범위 설정, 평가 맥락의 구성 등에 적용될 수 있다.

(1)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논의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잣대에서 어휘 교육 및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아동의 인지·정의적 발달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어휘를 선정하고, 어휘 목록의 범위 및 목표 수준을 정할 때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배경 아동의 한국어 어휘 발달 과정을 지체나 장애의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 김화수(2011)에서는 언어장애와 언어평가에 대해 비교하며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은 전생애적 언어 변화, 발달 경로, 환경과의 상호 관계 안에서 언어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다문화 배경 아동들에게 적용해볼 때, 발달단계에서 기대되는 어휘 사용 기술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국어문화적인 사용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다문화 배경 아동의 특수적인 발달 단계들을 확립하는 한편, 김화수(2011)의 논의처럼 수치적 언어평가 결과에 설명적 해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제2언어 학습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국어 어휘 지식도 간과할 수 없다. 어휘를 이해하고, 개념화하며 분류하는 과정에서 모국어 어휘 지식 체계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어휘를 습득하는 데에도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국어 화자 또는 국내 출생 다문화 가정 아동과는 달리 제2언어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에게는 기존의 모국어 어휘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국어로 수행할 수 있는 어휘 능력과 한국어로 수행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이 얼마큼이고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또한 평가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3) (예비) 학령기임이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의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 배경 아동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함으로써 학령기를 준비하거나, 이미 학령기인 상황에서 새로이 편입되고자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아동들은 일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교과목을 학습하는 학생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 어휘와 교과 관련 어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문화 배경 아동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의 어휘를 모두 기초 수준부터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각 영역에서의 어휘 수준 및 체감 난이도는 동일하지 않으며, 사용되는 분포 역시 다르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제시, 평가하여야 한다.

나아가 다문화 배경 아동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수준과 교과 학습 어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어휘 수준 사이의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어휘 목록과 상황맥락 설정을 위해 초·중·고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어휘 목록 선정과 평가 방법, 채점과 진단 등 평가의 모든 설계 단계에서 언어적 관점에서의 초·중·고급뿐 아니라 피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초·중·고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8) 김화수(2011)에서는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는 연령이나 발달단계에서 기대되는 언어기술의 불일치인 반면, 언어차이(language difference)는 주류문화의 표준적인 사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규칙에 지배되는 언어방식이라고 설명했다.

(4) 평가에 사용되는 주제, 맥락, 텍스트는 아동의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선정되어야 한다.

아동의 의사소통은 성인의 생활과 차이를 나타냄은 물론이고,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아동이 접하게 되는 의사소통 상황 또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나 일부 학교생활이 의사소통 영역에 포함될 것이고, 고학년으로 성장할수록 또래 중심적, 공적·사회적 의사소통 맥락의 폭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가에 사용되는 어휘의 주제, 사용 맥락, 장르적인 특징 또한 아동의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 내용이나 교육 시에 발생하는 의사소통에 관한 말뭉치와 언어 기능 목록을 학령기 별로 나누어 작성하고 평가 문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5) 확장된 어휘 능력의 개념과 이해·사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2.2에서는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에 대해 “어휘와 어휘를 둘러싼 언어·사회·문화적 요소를 의사소통 상황 및 학습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과 그 태도”로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확장된 어휘 능력이 평가에 사용될 어휘 선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즉, 어휘 능력을 단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의사소통 상황 및 학습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진단할 수 있어야 하겠다.

언어·사회적 요소를 의사소통 상황 맥락에 맞게 선택하여 이해·사용한다는 점에서 Bachman(1990)의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Bachman(1990)에서는 의사소통 언어 능력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전략적 능력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능력에 의해 언어 능력과 지식구조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아동은 자신이 가진 한국어 및 모국어의 어휘 지식을 전략적 능력을 통해 상황적 맥락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분절적인 어휘의 개념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어휘 지식을 의사소통 맥락에 어울리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의 요소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4. 활용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의 어휘 능력 진단 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 배경 아동 학습자의 어휘 능력과 도달해야 할 성취 목표, 그리고 평가 원리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본고는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을, “어휘와 어휘를 둘러싼 언어·사회·문화적 요소를 의사소통 상황 및 학습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과 그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어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언어 및 발달 단계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그 수준 정도에 따라 목표 범위와 폭이 결정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또한, 어휘 지식을 이해와 사용으로 나누어 기술함으로써, 다문화 배경 아동의 제2언어 발달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역할을 면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2언어 학습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모국어 지식과 태도에 대한 측면 역시 평가 체계와 내용 수립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평가 내용 구성 및 시행을 위한 몇 가지 원리와 기준에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

제2언어 학습 환경, (예비)학령기 등을 반영해야 함을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의사소통 상황에 적절한 주제, 맥락, 텍스트를 선정해야 하며, 어휘 능력의 개념이 이해와 사용의 측면에서 확장되어 설계되어야 함 역시 논의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어휘 능력 평가는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어휘 능력을 정밀하게 진단함으로써, 교육 편입 전·후에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상·처치적 진단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 자료의 구축을 통해 다문화 배경 아동의 언어 발달 양상을 살핌으로써, 아동의 총체적인 언어 발달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 능력을 점검하고, 그 습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교재나 텍스트 구성부터, 학습자 개인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확장적 읽기 자료 선정에 이르기까지 한 개인의 어휘 습득 정도를 측정하고 점검하는 것은, 언어 교육의 설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 능력 평가를 통해, 다문화 배경 아동이 자신의 어휘 능력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어휘뿐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시야에서 언어 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휘와 다른 언어 기능간의 통합 가능성 및 상관성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또한,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던 어휘 능력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구인 설정과, 어휘 목록 선정 원리 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별히 아동 발달 단계에 주목한 어휘 등급 체계의 구분과 등급별 목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만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으나, 다문화 배경 아동들과 그들이 속한 언어 교실이 목표로 하는 수준 높은 어휘 능력의 실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후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로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곽철호(2010). 「초등학생을 위한 단계형 어휘 지도 방법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광해(200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정숙 외(2010). 『한국어능력시험 15년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화수(2011). 「다문화사회와 의사소통: 언어병리학의 지평에 서서」. 『현대사회와 다문화』1-2. 푸른길.
- 김한란 외 옮김(2007).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동참조기준」. 한국문화사
- 박이도(2005). 『세계화 시대의 모국어습득과 외국어학습』. 한국문화사.
- 배소영, 곽금주, 김근영, 정경희, 김효정(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발달지연자 설문을 통해 본 아동의 언어환경 및 언어발달 실태」. 『언어치료연구』9-4. 언어치료학회.
- 손영애(2000). 「국어과 어휘 지도의 내용 및 방법」. 『국어교육』10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오소정(2012). 「어휘지식과 구어처리 과제를 통한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장애 예측요

- 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진숙 외(2011).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윤희원·서혁(2010).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충우(2005). 「국어 어휘 교육의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24. 국어교육학회.
- 임지룡(2010). 「국어 어휘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어 의미학』 33. 한국어
- 정은희, 김태강, 박윤(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과 진단·평가에 대한 문헌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특수아동학회.
- 최운선(2012). 「초등학생 어휘력 평가를 위한 범위 설정에 대한 연구」. 『長安論叢』 33. 장안대학교.
- 황상심(2011).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이담.
- Bachman, L.(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pelle, C. A.(1994). Are C-tests valid measures for L2 vocabulary research? *Second Language Research*, 10(2). 157-187.
- Nation, P.(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Rowley, MA: Newbury House.
- Pearson, B. Z. Fernandez, M. C. & Oller, D. K.(1993). Lexical Development in Bilingual Infants and Toddlers: Comparision to Monolingual Norms. *Language Learning*, 43. 93-120.
- Read, J.(2000). *Assessing Vocabula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1976). The role of vocabulary teaching. *TESOL Quarterly*, 10(1), 77-89.
- William O'Grady(1005). *How Children Learn Language*. 박경자 역. 『아이들은 어떻게 말을 배우나』. 고려대학교출판부.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과 교육 방안

김보경(서울시립대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1. 서론

최근 기업들은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의 비중을 높이는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¹⁾ 능력, 태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대면 면접은 필기시험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의 인성, 열정, 표현 능력 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기관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해당 기업에 맞는 면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대학 내 취업센터를 활성화시켜 저학년 때부터 취업마인드를 함양하는 데 힘쓰고, 고학년 때에는 취업캠프²⁾에 참여시켜 면접 분위기를 익히게 한다. 하지만 각 기업의 채용 방식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나 입사서류 특강, 면접 특강 등이 따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대학들이 취업커뮤니케이션³⁾을 기존 교양교과목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화법교육과정⁴⁾에 면접화법을, 글쓰기교육과정에 입사서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렇다.

최근 들어 취업 목적의 말하기·글쓰기 통합 교육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정훈(2012)은 취업 목적 자기소개 말하기를 대상으로 협동적·전략적 말하기 지도 모형을 고안하였다. 나은미(2012)는 대학에서의 면접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여 담화유형으로서 화법교육뿐 아니라 언어·비언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1) 영어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communication'의 어원은 '공동', 또는 '공통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communis'이다.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은 같으나, 신문방송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국어학이나 국어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

2) 대부분 3일간 교육으로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유형별 핵심 이해, 실전 모의면접을 실시한다.

3) 연구에서 처음 취업커뮤니케이션이라고 사용한 전지현·김재운(2005)은 비서학 전공 취업준비생들과 인사담당자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 숙명여대 <발표와 토론>은 교양강좌로 12주 면접관련 특강, 13주 면접의 목적과 내용/면접자와 면접관의 자세/면접상황의 분석 및 이해, 14주 모의면접으로 3주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중앙대 <언어와 표현>은 9주 인터뷰/인터뷰의 종류 및 절차/면접의 방법/면접질문지 작성, 10주 면접실습으로 2주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화법(speech)을 화술, 스피치, 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한다.

제안하였다.

이렇듯 면접 상황의 말하기를 화법교육과정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말하기와 글쓰기를 포함하는 취업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⁵⁾의 하나인 실용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을 담당하는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그리고 실용 스피치와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신문방송학, 또한 채용시장 변화를 담당하는 경영학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채용에 당락을 결정짓는 면접 상황에서의 말하기는 일반 상황의 말하기와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 국어화법교육 내에서만 교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면접 상황의 자기소개 말하기나 질의에 응답하기를 ‘취업 목적 말하기’라 부르고,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과 과정을 말하기 유형, 텍스트 유형, 면접 상황, 대화 분석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 특성을 적용한 ‘취업 목적 말하기’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취업 목적 말하기’의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2.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

2.1. 말하기 유형에 따른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

말하기의 종류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일방적 말하기와 쌍방적 말하기로,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말의 방향에 따라 나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완벽한 일방적 말하기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일방적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의 처지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상황을 말한다. 화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적인 말하기와 공적인 말하기로도 나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 또래집단, 직장동료와 사교 목적의 대화는 사적인 말하기에 속한다. 공적인 말하기는 1:多로 둘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정해진 형식과 과정에 맞게 혼자 이야기를 하는 연설이나 토론, 강연이 해당된다. 이러한 말의 방향과 화자의 상황에 따라 김종택 외(2005)는 다음과 같이 분류, 제시하고 있다.

<표 1> 화자의 상황과 말의 방향에 따른 말하기 유형(김종택 외, 2005)

구분	사적인 말하기	공적인 말하기
일방적 말하기	칭찬, 부탁	강의, 강연, 연설
쌍방적 말하기	일상적인 대화	토의, 토론, 회의

또 인사말, 대화와 같이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친교적 말하기, 청자에게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설명적 말하기, 청증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적 말하기 분류로 화자의 목적에 따라서도 나누어진다. 친교적 말하기는 사적인 말하기와, 설명적·설득적 말하기는 공적인 말하기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면접과 관련된 말하기는, 화자⁶⁾와 청자가 말하기·듣기를 반복하며 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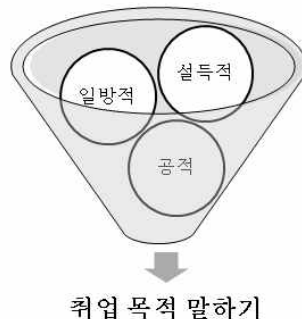
5)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란 회사와 같은 조직상황에서 관리자, 부하, 동료, 고객 등 이를 상호간 혹은 그들이 소속한 부서나 상호간에 의견, 정보, 감정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창희 외, 2001)

고 답하는 대화형식이지만, 쌍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형식을 취한다.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질문자가 되고 지원자는 응답자가 되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지원자는 면접관의 질문 내용에 단순히 단답형이 아니라 해당기업의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충실한 답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친구들이나 부모와 나누는 대화와, 면접상황에서 면접관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달라진다. 면접 말하기에서 청자와 화자는 면접관과 지원자가 되어 동등하지 않은 관계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면접은 평가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이창덕 외, 2010). 면접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최적의 인재를 가려내려 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면접관에게 최대한 잘 표현해야 한다. 화자는 자신의 사고방식, 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을 면접관에게 전달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면접관을 설득해야 그 다음 평가로 넘어갈 수 있다. 또한 면접유형이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하지만, 대체로 1:多 형식이라는 점에서도 공적인 말하기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황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취업 목적 말하기는 말의 방향, 화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일방적/공적/설득적인 말하기로 나눌 수 있고 <그림 1>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말하기 유형에 따른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



면접에서는 화자의 논리성, 합리성 등과 같은 기준만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청자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 화자는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과 더불어 면접관의 질문에 대처하는 방식, 표정, 태도 등 화법에서 말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중요시해야 한다. 전은주(1999)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 못지않게 중요함을 입증하기 위해, 음성언어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다를 경우 비언어적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면접 말하기 역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큰 역할을 하는 말하기 활동으로, 면접관은 평가자의 입장에서 지원자의 대답내용, 자세, 제스처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고, 지원자는 이를 대비하여 태도적인 측면까지 준비하여 면접관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업 목적 말하기는 언어적 측면 뿐 아니라 비언어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의견을 따르도록 한다.

6) 평가라는 측면에서 면접 말하기에서는 면접관보다는 지원자를 더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말하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화자는 지원자, 청자는 면접관으로 보고, 글의 상황에 따라 단어를 섞어 쓰도록 한다.

2.2. 텍스트 유형에 따른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

취업 목적 말하기는 1차적으로 문어로 작성된 것을 발화하여 구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소개 말하기도 미리 문어로 준비하여 암기하고, 면접관의 질문도 지원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어와 구어를 모두 텍스트로 보도록 한다.

텍스트이론에 관한 연구⁷⁾는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시작되었는데, 한국어의 특정 텍스트에 관한 유형별 연구로는 신문을 비롯한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결과물이 가장 활발하게 나왔다.⁸⁾ 취업을 위한 말하기 텍스트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을 밝혀 지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의 텍스트 유형 분류 중에 브링커(Brinker, 1985)의 분류에 따라 취업 목적 말하기를 살피겠다. 브링커의 텍스트 유형 분류는 써얼(Searle, 1969)의 발화 수반행위를 변형시켜 실제 텍스트를 분류할 때 용이하고, 텍스트를 분석할 때 세분화할 수 있다.⁹⁾ 브링커는 텍스트의 기본 기능을 제보, 호소, 책무, 접촉, 선언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¹⁰⁾

- (1) 제보 기능 : 생산자는 정보를 전달하여 수용자를 이해시킨다.
- (2) 호소 기능 : 수용자가 일정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이해시킨다.
- (3) 책무 기능 : 생산자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수용자에게 이해시킨다.
- (4) 접촉 기능 : 생산자가 수용자와의 접촉, 친교를 만들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수용자에게 이해시킨다.
- (5) 선언 기능 :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일정한 사실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브링커는 이러한 텍스트 기능을 텍스트 유형 분류의 기본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제보 텍스트/호소 텍스트/책무 텍스트/접촉 텍스트/선언 텍스트로 텍스트 유형을 구분하였다. 브링커는 다수의 기능들이 어떤 텍스트의 특징을 이룰 수는 있으나, 텍스트 전체의 통보양식을 보통 '하나'의 기능에 의해서만 정해진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지배적인 통보기능을 '텍스트 기능'¹¹⁾이라고 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면접 상황의 텍스트에 혼재되어 있는

7) 국내에 텍스트언어학과 관련된 연구는, Beaugrande와 Dressler(1981)의 텍스트언어학 이론을 번역하고 소개한 김태옥·이현호(1991)의 "담화·텍스트 언어학 입문"을 시작으로, 브링커의 텍스트 입문서를 번역한 이성만(1994), Van Dijk(1980)의 책을 번역해 소개한 정시호(1995)등이 있다.

8) 표제어가 사회적 행위로서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정보 전달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룬 김혜정(1997), 일간신문의 제목에서 일어나는 응집성·패러디·생략 현상을 연구한 박금자(1999), 텍스트언어학적으로 한·미·일 신문 지면의 기사를 비교한 신명선·박재영(2004) 등이 있다.

9) Searle의 발화 수반 행위는 ①화행의 발화수반 목적, ②발화 내용과 사실 간의 적정성 방향을 중요한 2가지 기준으로 보았다.

1. 제시 행위: 사태를 서술한다.(참이나 거짓)
2. 지시 행위: 청자는 뭔가를 행하기 위해 동요되어야 한다.
3. 책무 행위: 화자는 미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며, 특정한 행동을 결심한다.
4. 정표 행위: 명제에 표명된 사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입장 표현이다.
5. 선언 행위: 보통 제도적인 틀 속에서 고정된, 의례적인 어법으로 수행된다.

제시 행위-제보 기능, 지시 행위-호소 기능, 책무 행위-책무 기능, 정표 행위-접촉 기능, 선언 행위-선언 기능과 서로 상응하는 부류이지만,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10) Brinker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이성만 역, 2004).

11) Brinker는 요리법을 예로 들며 제보 기능과 호소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요리법은 음식요리에 관한 생산자의 안내행위이기 때문에 지배적 기능은 호소 기능이라고 하였다(이성만 역, 1994).

기능을 한 가지로 정의하지 않고 분포에 따라 몇 가지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여 문장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 예(가)~(다)는 실전모의면접에서 지원자가 사용한 1분 자기소개の内容과 면접관의 질문에 응답한 내용으로 분석을 위해 예시로 삼은 것이다.¹²⁾

예) 가. (Q.자기소개) ①안녕하십니까. ②저는 조직에서의 신의, 그리고 꿈을 향한 끈기를 가진 지원자 000입니다. ③첫째, 00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은 저에게 조직에서의 신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④저는 공장 막내로 신의를 지키는 것이 공장에서 항상 먼저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⑤둘째,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⑥공대생이었지만 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군 전역 후 수능이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에 다시 도전하여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⑦이후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하여 과 수석 및 학업우수상을 받았습니다. ⑧또한 회계사 시험에 도전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한 적도 있습니다. ⑨저의 꿈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으며 00에서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⑩감사합니다.

자기소개에 해당하는 예시로 이 텍스트의 ③~⑧의 문장은 텍스트 생산자의 과거 경험을 시간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X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X할 수 있었습니다.', 'X를 받았습니다.'라는 구문을 사용하여 면접관에게 'X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즉, 'Y를 통해 X를 할 수 있었다.'로 Y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긍정적인 마음', X는 Y를 통해 얻게 된 '신의, 대학합격, 학업 우수상'등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표현은 지원자의 과거와 경험을 표현하는 자기소개, 성장배경과 학교생활, 경력사항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자신에 대한 어린 시절의 정보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부분은 제보 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⑨의 문장은 'X를 이루고 싶습니다.'의 구문을 사용하여 지원자의 의지와 소망을 표현한 호소 기능으로, ⑩의 '감사합니다.'는 친교의 목적으로 접촉 기능으로 나누어진다.

아래 예(나)는 다른 학생의 자기소개이다.

예) 나. (Q.자기소개) ①안녕하십니까. ②지원자 000입니다. ③제 꿈은 엔지니어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④생활의 편리함 그리고 안전을 생각하는 자동차 제어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고 000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⑤제 손은 손 크기에 비해 매우 두껍습니다. ⑥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었지만, 강한 의지력이 더해져 유도대회에서 메달을 딸 만큼 실력을 향상시켰고 8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⑦전공학과를 바꾼 것도 제 적성을 찾아 새로운 지식에 대해 도전한 것입니다. ⑧도전하고 열정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저는 000에 뚜렷한 목적을 남기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②~⑦의 문장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원자의 이름, 자신의 꿈, 지원한 이유, 손두께, 운동, 전공변경 이유 등을 한 문장에 하나씩 담아 전달하고 있다. 예(나)에서도 'Y를 통해 X를 할 수 있었다.'의 형식으로 Y는 '자동차 제어기, 운동, 도전', X는 '지원동기, 메달획득, 전공변경'이 된다. ⑧의 문장은 'X가 되고 싶습니다.'의 구문을

12) 취업 목적 말하기 수업의 일부로 실전모의면접에서 나온 예이며, 미리 예상답안을 문어로 작성시키고 실전 모의면접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담화 책략상의 언어적 요소(감탄사, 부사, 대명사 등)인 담화표지는 표기하지 않았다. 지금 (가)~(라)의 예는 텍스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문어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용하여 지원자의 의지와 소망을 표현한 호소 기능인데, 예(가)와 마찬가지로 제보 기능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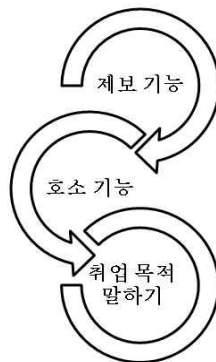
이제 지원자에게 자신을 하나의 사물로 비유하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다.

예) 다. (Q.사물에 비유) ①저는 라디오 같은 사람입니다. ②24시간 방송되는 라디오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주파수에 맞춰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③저는 000라는 방송국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주파수를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④한발 앞서 고객들의 마음을 읽고 시장과 제품 정보를 기억에 남게끔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싶습니다.

이 예시에서 ①, ②의 문장은 비유하는 대상인 라디오, 라디오의 특징을 설명하는 비보적 기능이라면, ③, ④의 문장은 ‘X할 것입니다.’, ‘X하고 싶습니다.’, 구문을 사용하여 지원자의 의지와 소망을 표현하였다. 즉, ‘Y하여 X가 되고 싶습니다.’의 희망을 나타내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Y는 전달’, X는 ‘소통, 주력’ 등 미래지향적 표현으로 파악된다. 사물에 비유하는 글은 제보 기능에만 그칠 수 있지만 취업 상황에서는 예(다)처럼 호소 기능으로 제보의 내용이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지 설득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취업 목적 말하기는 자신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입사를 목적으로 면접관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를 하듯이 자신을 상품화시켜 면접관의 마음을 동요시켜야 한다. 호소 기능을 보이는 텍스트에는 그 회사명이나 직무, 부서에 대한 단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었다. 내용 면에서는 지원동기나 포부 부분에서 호소 기능이 강하게 나타났다. 취업 목적 말하기에서 가장 큰 텍스트 기능을 제보와 호소로 보고 이러한 특성을 <그림 2>로 정리하였다.

<그림 2> 텍스트 기능에 따른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



취업 목적 말하기는 호소 기능이나 제보 기능 가운데 하나만 실현되기도 하지만, 두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실현되어 상보적 관계를 이루는 텍스트가 훨씬 많다. 동사의 구분만으로 보면 면접 상황에서 사용되는 ‘약속합니다.’는 책무 기능, ‘감사합니다.’는 접촉 기능, ‘증명합니다.’는 선언 기능이 되지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제보 기능과 호소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비교적 면접관의 호응도가 높은 내용일수록 제보 기능의 텍스트 다음에 호소 기능의 텍스트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취업 목적 말하기가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입사를 목적으로 수용자를 설득하는 텍

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호소 기능의 텍스트를 사용하여 지원자의 의지를 보여야 하며, 회사명이나 직무명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 면접 상황에 따른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

기업의 채용과정은 크게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서류전형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첫 관문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잘 표현하여 자신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기전형은 대기업에서 실시하는 평가도구로 직무적성검사를 활용한다. 직무적성검사는 언어능력, 수리능력, 추리능력 등으로 지원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매년 거의 같은 유형이므로 사전에 준비가 가능하다. 면접전형은 채용의 마지막 단계로 면접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 업무 능력을 최종 확인한다.

<표 2> 기업의 채용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지원자는 면접 상황에서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평가받는다. 이때 빈도수가 가장 높은 질문이 ‘자기소개’이다. 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1분으로 시간을 한정하거나 전공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자기소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소개’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은 ‘지원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본인의 장·단점’ 순이다.¹³⁾

사교적인 목적의 자기소개는 청자의 관심을 끌거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지만 면접관 앞에서의 자기소개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이때 자기소개의 기본 내용인 성격의 장단점, 출신학교, 전공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기 어렵다.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내용의 깊이가 달라지는데 면접하기 전에 해당기업의 인재상, 직무의 특성, 기업의 장단점, 회사에 기여 가능성 등 사전지식을 습득해두어야 한다. 면접에서 자기소개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구현정·전정미(2007)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 주어진 시간 안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원한 곳에 자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면접은 인성면접과 직무면접으로 나누어진다. 인성면접은 기본 인성 및 조직적응도를 평가하는 유형으로, 지원자의 경험이나 성향을 알아보는 내용이 추가된다. 지원자는 솔직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되, 단답형이면 지원의지가 부족해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원자와 면접관의 수는 1:1, 1:多, 多:多 등 다양한데, 多:多의 상황에서는 다각도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지원자와 비교당하기 쉽기 때문에 더 진지해야 한다.

직무면접은 역량평가 중심인 프레젠테이션 면접과 토론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면접관 앞에서 개별 또는 조별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을 발표

13)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하반기 30대그룹 계열사 122개 대기업 면접 질문 총 2663건을 분석한 결과로 91%의 대기업이 ‘자기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지원자에게 질문했다. 「면접때 단골 질문 1위」, 『동아일보』, 2012. 1. 10, <<http://news.donga.com/3/all/20120109/43198886/1>>, (2013. 3. 7.)

하는 면접유형이고, 토론면접은 여러 명의 지원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찬반토론,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은 최적의 인재를 편견 없이 채용하기 위해 잡페스티벌, 잡페어 등을 개최하고 프레젠테이션 면접의 일종인 '자기PR'¹⁴⁾에서 두각을 보이면 공채 시에 서류전형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프레젠테이션 특성상 언어적인 부분의 말하기 스킬 뿐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을 포함한 비언어적인 부분도 평가요소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동료평가 면접, 무자료 면접, 합숙 면접 등이 있지만, 다음 대화 분석에 따른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은 면접 상황의 질의응답을 잘 드러내는 인성면접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4. 대화 분석에 따른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

취업 목적 말하기의 이론과 실제에서 나타나는 직관을 바탕으로 대화원형¹⁵⁾을 먼저 구축해 보고, 모의면접에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원형을 바꾸어 보도록 한다. 대화분석이 말하기 교육에서 필요한 이유로, 박창균(1999)은 대화분석이 체계적인 구조로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실제적인 발화상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실제 언어사용 현상 조건과 규칙, 실제적인 발화상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구조 분석은 헤네/레복(1979)의 모형을 적용하여 대화를 거시차원, 중간차원, 미시차원으로 나누었다. 거시차원은 대화의 시작단계, 중간단계, 종료단계로 구분되는 범주이다.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인사 등 말하기 준비 행위가 시작단계, 대화의 핵심주제와 하위주제들이 중간단계, 대화의 핵심주제를 다루고 나서 작별의 인사로 끝을 맺는 것이 종료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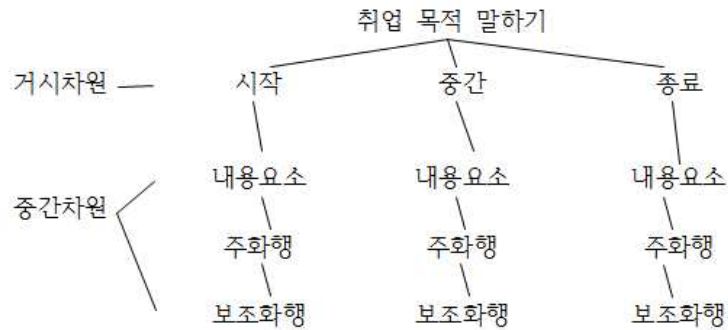
중간차원에서는 대화를 각각의 대화행위로 나누는데, 시작/중간/종료단계는 각각 하나 이상의 대화행위로 구성된다. 대화행위는 발화순서에 나타나는 발화행위로 규정된다. 대화 분석은 대화 과정에서 대화연속체, 대화기여, 대화이동이 갖는 기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미시차원에서는 음운, 낱말,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몸짓 등 발화행위를 구성하는 화행 내적 구성에 관련하는 요소들이다.

면접상황에서 말하기도 하나의 대화이동으로 되어 있다. 면접관과 지원자 중 지원자 입장에서의 자기소개 말하기나 질의응답 말하기도 대화이동 안에 시작, 중간, 종로의 단계가 나와 있는 것이다. 각 단계는 그 단계에 적합한 내용요소로 구성되고 그 내용요소는 주화행과 보조화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 목적 말하기의 대화분석 범주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4) '자기PR' 우수자에게는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는 행사는 두산 잡페어, 현대자동차 잡페어, SK 텔런트 페스티벌, KT&G상상오디션 등이 있다. 「상반기 취업 올 가이드」, 『한국경제』, 2013. 3. 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496211>>, (2013. 3. 7.)

15) 대화원형은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를 전개하는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전개 구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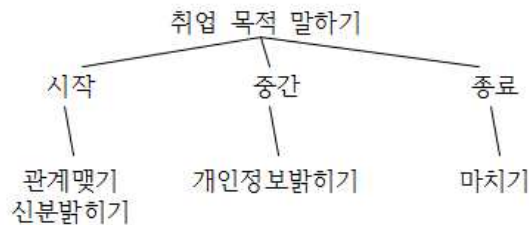
<그림 3> 취업 목적 말하기의 대화분석 범주



취업 목적 말하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행이 ‘자기소개’에 해당되는데, 백(Paik, 1994)은 소개화행을 신분밝히기, 인정하기, 소개유도, 개인에 관한 정보와 같은 관용표현이 있다고 밝혔다. 동등한 입장에서 2인 이상이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말을 듣고 인정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면접 상황에서는 지원자만 면접관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표현은 나올 수가 없다. 인정신(2000)은 대화분석을 통한 자기소개대화 지도 연구에서 ‘관계맺기’, ‘개인생각밝히기’, ‘마치기’ 등의 표현을 추가한 바가 있다.

취업 목적 말하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포함한 원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취업 목적 말하기의 시작, 자기소개에서 제일 처음을 여는 말은 ‘인사말’이다. 인사는 사회적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행위이고, 면접 상황에서는 인사의 형식은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로 고정되어 있다. 신분을 밝힐 때는 지원부서와 더불어 이름을 말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 말하는 목적이 드러나도록, 지원한 부서, 학교, 전공, 성격이 포함된다. 이력서에 이미 드러나 있는 정보는 최대한 배제하고 신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칠 때에는 관계발전을 위한 바람, 취업에 대한 바람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실제 모의면접에서 자기소개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원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예) 라~마 1분 자기소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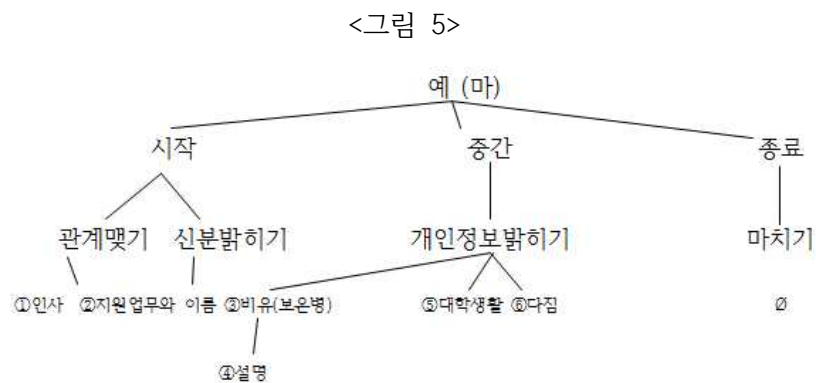
예) 라. (Q.자기소개) ①안녕하십니까. ②세계 속에 우뚝 선 기업 MCI의 PCO Operation에 지원한 00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생 000입니다. ③대학교 1학년 때 저는 PCO가 사람들에게 매우 생소한 직업임을 알았습니다. ④그래서 저는 PCO계의 탐이 되어 사람들에게 이 멋진 직업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PCO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⑤이처럼 개인적 포부가 있다면 사회적 포부도 있습니다. ⑥저는 PCO로서 정부가 주도하는 MICE 산업 부흥에 이바지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

니다. ⑦감사합니다.

예 (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와 자신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①관계맺기(인사)-②신분밝히기(소속와 이름)-③개인정보밝히기(경험)-④개인정보밝히기(바람)-⑤개인정보밝히기(포부)-⑥개인정보밝히기(바람)-⑦마치기(감사)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포부나 바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중간단계에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예 (마)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기소개이다.

①안녕하세요? ②저는 대한항공 여객 마케팅 부서에 지원한 수험번호 5번 000입니다. ③저는 제 자신을 보온병에 비유하여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④보온병은 내용물을 따뜻하게 보존하여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⑤저 역시 대학교 생활 중 경영학부 내 학회에 들어가서 선배님들 밑에서 따끔한 조언과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선배님들로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전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온병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⑥따라서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도 상사 분들과 동료, 후배들 사이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마)는 자신을 보온병에 비유하여 장점을 부각시키려 하는 내용으로 ①관계맺기(인사)-②신분밝히기(지원업무와 이름)-③신분밝히기/개인정보밝히기(비유)-④신분밝히기/개인정보밝히기(비유 설명)-⑤개인정보밝히기(대학생활)-⑥개인정보밝히기(다짐)으로 종료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이다. 상호 교환적인 대화는 마치는 말이 없이도 끝날 수 있지만 면접관 앞에서 설득의 목적을 가지고 말할 때에는 마치는 말이 필요하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내용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기다리게 때문이다. 이를 <그림 5> 원형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5>에서 보온병에 자신을 비유한 부분인 ③은 신분밝히기와 개인정보밝히기 둘다에 해당하게 두었다. 구성으로 보면 중간단계이지만, 내용상 보온병에 대한 설명은 자신의 속성이라기보다 속성을 이야기하기 전 시작단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형으로 보면 이 자기소개는 앞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고 끝이 불분명한 좋지 않은 예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실제 상황의 자기소개의 원형들을 비교한다면 자기소개 말하기를 지도할 때에도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전략을 포함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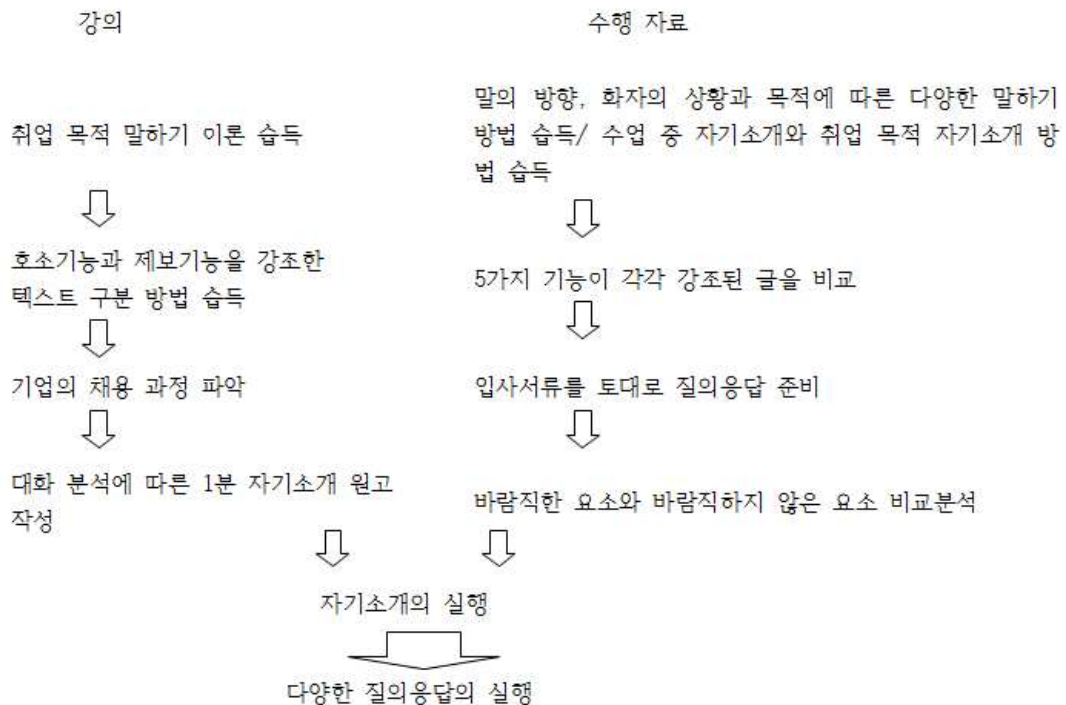
3. 대학에서의 교육 방안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과 과정을 말하기 유형, 텍스트 유형, 면접 상황, 대화 분석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 특성을 적용한 ‘취업 목적 말하기’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취업 목적 말하기는 말의 방향, 화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일방적/공적/설득적인 말하기로 나눌 수 있다. 취업 목적 말하기를 브링커의 분류에 따라 자기소개 텍스트를 분석하였고, 호소기능과 제보기능이 복합적으로 실현되어 상보적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 상황에서 지원자는 지원한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면접관에게 어필해야 하고, 기업의 채용 과정을 미리 파악하여 입사서류 제출과 면접을 위한 준비 절차 방법을 알아야 한다. 대화 분석 차원에서는 헤네/레복의 모형을 적용하여 취업 목적 말하기에서 자기소개를 거시차원, 중간차원, 미시차원으로 나누었다. 거시차원은 대화의 시작단계, 중간단계, 종료단계로 구분되는데, 자기소개에서 이 중 어느 단계라도 하나가 빠지면 설득력을 높일 수 없다.

이를 토대로 취업 목적 말하기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취업 목적 말하기 교수-학습 모형



4.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취업 목적 말하기의 특성을 말하기 유형, 면접 상황, 텍스트 유형,

대화 분석 차원에서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취업 목적 말하기와 관련된 15주차 강의안을 제시하는 것은 다음 과제로 미루도록 한다.

〈참고문헌〉

- 구현정·전정미(2007), 화법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김종택 외(2005), 생활 속의 화법, 정림사.
김혜정(1997), 신문 표제어의 텍스트 양상 연구, 선청어문, 25, 53-78.
나은미(2012), 대학에서의 면접 교육의 방향 및 지도 방법, 화법연구, 21, 47-79.
박금자(1999), 일간신문에 나타나는 응집성, 패러디, 생략 현상, 텍스트 언어학, 7, 25-56.
박은영(2006), 자기소개 스피치의 논증구조,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5, 40-68.
박창균(1999), 대화분석을 적용한 말하기 교수 학습 방법 연구, 인천교육대 석사학위논문.
서종훈(2008),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80, 251-271.
신명선·박재영(2004), 신문 기사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미디어연구소.
이정훈(2012), 자기소개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이창덕 외(2010), 화법교육론, 역락.
인정신(2000), 대화분석을 통한 자기소개대화 지도 연구, 인천교육대 석사학위논문.
임창희 외(2001),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한울.
전은주(1998), 말하기·듣기 교육에 대한 개념적 접근, 새국어교육, 56, 111-132.
전정미(2002), 대학생을 위한 말하기 교육, 화법연구, 4, 85-112.
전지현·김재운(2005), 취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비서학 논총, 14, 169-191.
황성근(2009), 말하기 교육에서 글쓰기의 효과와 연계방안, 작문연구, 8, 111-137.
- Brinker, K.(1985)/이성만 (2004), "Linguistische Textanalyse(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역락
Hennem, H. & Rehbock, H.(1979), "Einführung in die gesprächsanalyse", Berlin/New York: de Gruyter.
Robert A. de Beaugrande & Wolfgang U. Dressler(1981)/김태옥·이현호(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Teun A. van Dijk(1980)/정시호(1995) "Textwissenschaft Eine inter disziplinäre Einführung(텍스트학)" 민음사.
「면접때 단골 질문 1위」, 동아일보, 2012. 1. 10, <<http://news.donga.com/3/all/20120109/43198886/1>>, (2013. 3. 1.)
「상반기 취업 올 가이드」, 한국경제, 2013. 3. 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496211>>, (2013. 3. 7.)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발화 상황 연구

손진희(강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¹⁾ 발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것은 발화 상황의 다양성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어 교재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다양하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재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직관을 가지지 못하여 학습 과정에서 전적으로 교재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²⁾ 그만큼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재는 중요하며 최근까지 많은 교재들이 나오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이 문법은 언제 사용해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못해요?’, ‘이 표현은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구에게나 항상 사용해도 괜찮아요?’ 학생들은 문법과 표현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한다. 학생들이 실제 맞닥뜨리는 상황은 다양한 데, 교재에서 배운 문법과 표현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사용하고 싶어 한다.

본 논문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배운 문법과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자면 먼저 학습자들이 대하는 교재에 나타난 대화문의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2. 연구 방법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교재 내 대화문의 발화 상황을 살펴 보았다. 전 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겠지만 시간과 지면, 능력이 부족

1) ‘대화문’이란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글(표준국어대사전)로서, ‘본문’, ‘이야기’ 등으로 사용되나, 본 논문에서는 ‘대화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박석준(2005),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에 대하여, 233쪽, pp.10~12.

하여 대표 교재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4종의 교재를 선정하였다.

- ① 대학교에서 발간한 교재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
- ②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 교육을 목표로 한 교재
- ③ 초급부터 중급까지 전 권이 완권된 교재

본 논문은 교재별로 그 차이점을 밝히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교재를 임의대로 ‘가~라’로 표시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선정된 교재의 대화문의 발화 상황을 모두 조사하였다. 각 교재별로 대화문을 ‘본문, 대화 & 이야기, 본문 대화, 잘 들어보세요’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화문’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나’의 교재의 경우 각 과마다 ‘잘 들어보세요’를 처음 앞장에 배치하였는데 대화문 없이 삽화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교재에 수록된 ‘대화문’과 비교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어 보여 이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대화문은 먼저 전체 대화문의 개수를 파악한 후 각 대화문 별로 대화 참여자 수, 대화 참여자의 친밀도, 대화 참여자의 국적, 대화 장소의 다양성, 대화 참여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은 대화문 발화 상황을 살피어 현재 교재에 어떠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지 그 다양성을 파악하고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표 1> 한국어 교재

번호	한국어 교육기관	교재명	단계
가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1, 재미있는 한국어2 재미있는 한국어3, 재미있는 한국어4 재미있는 한국어5, 재미있는 한국어6	초급1,2 중급1,2 고급1,2
나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1, 한국어 초급2 한국어 중급1, 한국어 중급1 한국어 고급1, 한국어 고급2	초급1,2 중급1,2 고급1,2
다	서울대학교	한국어1, 한국어2, 한국어3, 한국어4	초급 중급 중상급 고급
라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1, 연세 한국어2 연세 한국어3, 연세 한국어4 연세 한국어5, 연세 한국어6	초급 중급 고급

3.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발화 상황

각 교재별로 대화문 발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전체,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 별로 연구 방향에 따른 대화문의 개수를 파악하였다. ‘가’, ‘나’, ‘라’ 교재는 전체 교재가 총 6권으로 초급 2권, 중급 2권, 고급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교재는 4권으로 초급, 중급, 중상급, 상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재별로 대화문만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본문이 서술문, 즉 편지글, 이야기, 시 등으로 이루어진 것은 제외하였으며, 1인 발화의 경우는 가상의 청

자가 있다고 파악하여 포함하였다.

그 결과 ‘가’ 교재는 초급 60개, 중급 60개, 고급 36개, 총 156개의 대화문이 있었으며, ‘나’ 교재는 초급 37개, 중급 35개, 고급 21개, 총 93개의 대화문이, ‘다’ 교재는 초급 16개, 중급 35개, 고급 21개로 총 93개의 대화문이, ‘라’ 교재는 초급 80개, 중급 80개, 고급 40개, 총 200개의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교재를 제외하고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수록 대화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급으로 갈수록 대화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한 대화문을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말하기나 쓰기 등의 과제 활동을 하면서 대화문의 개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 교재의 경우 초급 대화문이 단문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제외되어 적어 보이거나 제외된 10개를 포함하면 초급 26개, 중급 27개, 중상급 31개, 상급 33개로 비슷한 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대화문 수를 살펴 보면, ‘나’ 교재, ‘다’ 교재, ‘가’ 교재, ‘라’ 교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재 대화문 개수

번호	교재명	급별 대화문 개수		총대화문 개수
1	가	재미있는 한국어1, 2	60개	156개
		재미있는 한국어3, 4	60개	
		재미있는 한국어5, 6	36개	
2	나	한국어 초급1, 한국어 초급2	37개	93개
		한국어 중급1, 한국어 중급2	35개	
		한국어 고급1, 한국어 고급2	21개	
3	다	한국어1	16개	107개
		한국어2	27개	
		한국어3	31개	
		한국어4	33개	
4	라	연세 한국어1, 연세 한국어2	80개	200개
		연세 한국어3, 연세 한국어4	80개	
		연세 한국어5, 연세 한국어6	40개	

3.1. 대화문의 대화 참여자 수

전체 대화문을 대상으로 각 대화문별 대화 참여자 수를 살펴 보았다. ‘가’ 교재는 1명이 1번으로 05%, 2명은 142번(91.6%), 3명은 10번(65%), 4명 이상은 2번(1.3%) 나타났다. ‘나’ 교재는 2명이 68번(73.1%), 3명은 21번으로 22.6%, 4명 이상은 4번으로 나타났으며, ‘다’ 교재는 2명은 97번으로 90.6%를 차지하고 3명은 8번으로 7.5%, 4명 이상은 2번으로 1.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라’ 교재는 2명은 194번으로 97%를 차지하고 3명은 6번 3%로 나타났다.

각 교재별로 대화 참여자가 2인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대화 참여자가 3명인 경우도 ‘가’ 교재가 6.5%, ‘나’ 교재에서 22.6%, ‘다’ 교재에서 7.5%, ‘라’ 교재에서 3%로 나타났다. 대화 참여자가 1인인 경우도 ‘가’ 교재에서 1번 나타났다. 대화 참여자는 강사로

대답하는 학생들은 표시되지 않았으나 가상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명 이상인 경우도 ‘가’교재에서 1.3%, ‘나’교재에서 4.3%, ‘다’교재에서 1.9%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대화 참여자 수

번호	교재명	총대화문 개수	대화 참여자 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1	가	156개	1번 (0.5%)	142번 (91.6%)	10번 (6.5%)	2번 (1.3%)
2	나	93개	0번 (0%)	68번 (73.1%)	21번 (22.6%)	4번 (4.3%)
3	다	107개	0번 (0%)	97번 (90.6%)	8번 (7.5%)	2번 (1.9%)
4	라	200개	0번 (0%)	194번 (97%)	6번 (3%)	0번 (0%)

(%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이하 같음.)

3.2. 대화문의 대화 참여자의 친밀도

각 대화문 별로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도를 살피고자 대화 참여자가 서로 초면인지 구면인지를 구별하여 정리하였다. 친밀도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초면인지 아닌지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으나, 구면의 경우 친밀도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구면일 경우에도 교재의 특성 상, 반말로 대화하기보다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친해졌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초면인지 아닌지의 정도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구면의 경우는 ‘가’교재가 119번으로 76.8%, ‘나’교재의 경우 62번으로 66.7%, ‘다’교재의 경우 85번으로 79.4%, ‘라’교재는 163번으로 81.5%로 나타났다. 초면의 경우도 ‘가’교재의 경우 34번으로 21.9%, ‘나’교재의 경우 23번으로 24.7%, ‘다’교재의 경우 15.9%, ‘라’교재는 35번으로 17.5%로 나타났다. 대화에 구면인 대화 참여자와 구면인 대화 참여자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조금씩 나타났다.

구면의 경우 상황 상 친구로 보이나 반말을 하기보다 존댓말을 사용하여 친밀도의 파악은 어려웠다. 구면인 경우는 친구, 동료, 반 친구, 교수님과 학생, 이웃, 선후배, 직장 상사 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서로 아는 사이 중 친족 관계도 드물게 나타나는데 어머니와 아들, 아빠와 딸, 부부, 고부 관계 등이다.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친족까지 한국어를 할 기회가 없어 교재 구성 시 적게 한 것으로 보인다.

초면의 경우는 주인과 손님, 직원과 손님, 행인과 행인, 기사와 손님, 면접관과 면접자, 하숙집 아주머니와 학생, 종업원과 손님, 의사와 환자, 약사와 환자, 직원과 주민, 학생과 도우미, 미용사와 손님, 안내원과 손님 등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경우는 1인 강사, 발표자, 노인대학 친구 등의 관계였다. 대부분은 외국인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친구 사이나 동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많이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대화 참여자의 친밀도

번호	교재명	총대화문 개수	대화 참여자 친밀도			
			초면	구면/초면	구면	기타
1	가	156개	34번 (21.9%)	2번 (2.3%)	119번 (76.8%)	
2	나	93개	23번 (24.7%)	8번 (8.6%)	62번 (66.7%)	
3	다	107개	17번 (15.9%)	5번 (4.7%)	85번 (79.4%)	
4	라	200개	35번 (17.5%)	2번 (1%)	163번 (81.5%)	

3.3. 대화문의 대화 참여자의 국적

다음은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별 대화 참여자의 국적에 대해 살펴 보았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은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대화 상황이었다. ‘가’교재는 107번으로 69%, ‘나’교재는 71번으로 76.3%, ‘다’교재는 70번으로 65.4%, ‘라’교재는 148번으로 74%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재로 외국인 학습자가 실제 한국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한국인 사이의 대화 상황은 ‘가’교재는 31개 20%, ‘나’교재는 8개 8.6%, ‘다’교재는 29번으로 27.1%, ‘라’교재는 22번으로 11%로, 외국인 사이의 대화 상황은 ‘가’교재는 17번 11%, ‘나’교재는 14번 15.1%, ‘다’교재는 7번 6.5%, ‘라’교재는 27번 13.5%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다’교재에서 ‘재일 교포’가 1번 등장한 것이었다. 대화 참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표 5> 대화 참여자의 국적

번호	교재명	총대화문 개수	대화 참여자 국적			
			한국인만	외국인만	한국인 / 외국인	기타
1	가	156개	31번 (20%)	17번 (11%)	107번 (69%)	
2	나	93개	8번 (8.6%)	14번 (15.1%)	71번 (76.3%)	
3	다	107개	29번 (27.1%)	7번 (6.5%)	70번 (65.4%)	1번(재일 교포) (1%)
4	라	200개	22번 (11%)	27번 (13.5%)	148번 (74%)	3번 (1.5%)

대화 참여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교재별로 기본 대화 참여자를 소개하고 있었다. 교재별로 대화 참여자를 소개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대화 참여자의 관계에 따라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교재별로 대화 참여자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대화 참여자가 나타난 것은 ‘가’교재였다. 대화 참여자에 대한 소개를 따로 하지 않고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 주고 있었다.

<표 6> 한국어 교재 대화 참여자³⁾

번호	교재명	한국어 교재 대화 참여자
1	가	한국인으로 보이는 등장 인물 : 경호, 기정, 김민수, 동규2, 무호, 미경, 미선, 미숙, 민서2, 민수6, 민호, 박도현2, 상민, 상현, 석호2, 성호, 세경, 세영, 세호, 수연4, 수진, 수현, 승우, 승철, 수미23, 영미3, 영민, 영재, 영진14, 영호, 유미2, 윤아, 윤영, 윤호2, 은선, 은지, 이세경, 이연우, 정화, 준수, 준혁2, 지영, 지완, 지혜3, 지훈, 진성2, 진수, 진희, 철수, 현석2, 현주, 현중, 호철,
		외국인으로 보이는 등장 인물 : 게이코, 교코, 니콜, 니콜라2, 다니엘2, 다카코, 다케시, 로버트, 로산나, 루징, 린다26, 링링, 마사토, 마야8, 마이클12, 마크2, 몽흐졸, 멩멍, 바타르, 산드라, 사토7, 아만다, 아시프, 아야코, 알렉스, 알리2, 앙리, 엘리나, 에스민, 왕치엔, 요코, 우랑, 웨이2, 위엔4, 유키3, 이르완, 이사벨, 미즈키, 미키2, 나츠키, 수잔2, 자하, 제니3, 제니퍼, 제인2, 제임스, 제프, 첸닝5, 치엔2, 케빈, 케이코, 캔조, 타냐, 토머스2, 토이, 투이3, 파블로, 하루코, 헤마, 호아, 홍위, 흐영, 히로미3
		기타 : 김 과장, 김 대리, 이 대리2, 이 과장, 안 과장, 최 대리, 팀장, 소장 정 선생, 김 선생, 장 선생, 최 선생, 조교, 강사, 교사, 교수4, 선생님2 기자2, 평론가, 해설사, 중개인, 의사2, 약사3, 미용사2, 진행자3, 전문가5, 사회자2, 점원4, 종업원, 직원5, 면접관2 부인, 아주머니2, 주인2, 집주인, 발표자, 청중, 행인5, 손님13, 환자2
2	나	한국인으로 보이는 등장 인물 : 미란, 민정14, 박성호, 박창수, 성호2, 세진, 송기석, 심미자, 영철12, 은서, 이석하, 이정수(배우), 정은13, 정은의 아버지, 정은의 어머니, 한선옥, 한수7
		외국인으로 보이는 등장 인물 : 나오코39, 라우라, 모하메드5, 빌리59, 왕영5
		기타 : 과장, 선생님, 김 선생님2, 김 선생님 부인, 교수님 기자, 남자 종업원, 여자 종업원, 미용사, 상담원, 안내원2, 사회자4, 역무원, 요리사, 의사2, 종업원, 직원2, 판매원, 여자(사회자), 안내 방송 모르는 학생, 아는 학생, 아저씨2, 아주머니2, 여자, 남자2 어머니, 집주인,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
3	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등장 인물 : 경수, 나래, 마리, 수미3, 수지2, 영미3, 영수, 영숙5, 영철, 영희2, 은주, 지연22, 지영2, 진수, 철수16, 최선영, 민석, 민수8
		외국인으로 보이는 등장 인물 : 다나까13, 마이클18, 미치코3, 바바라13, 앙리9, 올가3, 윌슨18, 존슨18, 피터, 소피아4
		기타 : 교수님, 김 선생님, 선생님9, 최 선생 기사2, 세탁소 주인, 약사, 의사, 점원, 직원4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어머니4, 할아버지, 사모님, 손님, 아가씨3, 아저씨4, 아주머니8, 영숙 어머니, 이웃집 아주머니, 철수 어머니, 옆집 아주머니, 학생2, 학생들, 할아버지 친구, 장
4	라	한국인으로 보이는 등장 인물 : 김영식, 미선31, 민수2, 민철27, 영수35, 정민철, 정희30
		외국인으로 보이는 등장 인물 : 다나까, 리에58, 마리아48, 알렉스2, 양견2, 웨이43, 제임스48, 존스
		기타 : 과장, 과장님, 김과장, 조부장, 김부장, 부장, 사무총장, 최 부장 구청장, 꽃집 주인, 미용사, 신 국장, 약사, 은행원, 의사3, 면접관, 박 의원, 택시기사, 병원 직원, 사회자2, 주인7, 직원7, 점원2, 선생님3 며느리, 시어머니, 큰어머니, 아저씨2, 아주머니4, 이웃, 주민 반 친구, 친구5, 학생5, 회장, 선배5, 후배, 남자, 답변자, 고객

3) 이름 옆에 숫자는 그 이름이 교재의 대화문에 드러난 횟수이다.

3.4. 대화문 발화 장소

한국어 교재별로 대화문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 보았다. 교재별로 나타난 대화문 발화 장소는 <표 7>과 같다.

<표 7> 대화문 발화 장소⁴⁾

번호	교재명	대화문 발화 장소
1	가	회사5, 사무실1, 학교 면접장1/ 입사 면접장1, 학교5, 교실1, 교무실1, 강의실2, 연구실1, 친구 집1, 청계천1, 수원 화성1, 산1, 조선소1, 집 안4, 집2, 지하철1, 전화 3, 은행1, 우체국1, 옷 가게2, 과일 가게1, 가게3, 여행사1, 식당3, 병원2, 약국3, 시사회장1, 부동산, 방송3, 박물관2, 미용실2, 동아리방1, 도서관2, 놀이터1, 결혼식장1, 건물 안2, 거리9, 열린 장소 ⁵⁾ 79
		총 37개
2	나	거리4, 공항2, 교실2, 기숙사 앞1, 노인대학, 도서관, 면접 장소, 미용실, 방송국3, 백화점1, 병원2, 서울역1, 서점1, 신발가게1, 식당 1, 여행사2, 카페1, 옷 가게1, 우체국, 지하철, 전화 5, 전화(예술의 전당/지하철 유실물), 집 거실1, 집 안2, 집 앞1, 학교1 학교 3, 교실1, 회사1, 열린 장소46
		총 30개
3	다	가게1, 과일 가게1, 거리5, 교수님 집1, 교실4, 남대문 시장1, 놀이 공원1, 다방2, 버스 정류장1, 병원1, 세탁소1, 식당3, 약국1, 야외1, 옷 가게1, 우체국1, 은행2, 전화5, 자연 집2, 지하철 역1, 집5, 택시1, 택시 정류장1, 티비 있는 장소1, 하숙집2, 학교4, 헌책방 1, 열린 장소55
		총 27개
4	라	가게1, 강의실1, 교실6, 복도3, 거리7, 극장 앞1, 기숙사1, 정류장 앞1, 꽃 가게3, 도로 차 안1, 도서관1, 동물원1, 면접장1, 모임 장소1, 미용실1, 박/계단4, 방4, 버스 정류장 1, 병원3, 부동산1, 부엌1, 빵 집1, 사무실2, 서점1, 세탁소1, 수원 화성1, 식당4, 식당 앞1, 약국1, 연구실1, 열린 장소 94
		총 30개

교재별로 등장하는 장소를 분류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 교실/강의실, 복도, 상담실, 학생 회관, 학생 식당, 도서관, 동아리방, 기숙사 등
 집 - 집 안, 거실, 부엌, 친구 집, 친지 집, 집 구하기 위해 집 구경 등
 공공 장소 - 은행, 우체국, 공항, 지하철, 택시, 버스, 병원, 약국, 여행사, 부동산, 식당, 놀이터, 결혼식장, 카페, 다방, 헌책방 등
 가게 - 옷, 과일, 꽃, 빵, 슈퍼마켓 등
 지명 - 청계천, 수원화성, 예술의 전당, 남대문 시장, 과천 놀이공원 등

위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는 다양한 장소가 등장하고 있었다.

4) 장소 옆에 숫자는 전체 대화문 중에 나타난 횟수이다.

5)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해 ‘열린 장소’를 사용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 ‘열린 장소’는 대화문을 통해 장소를 알 수 없거나 발화 가능 장소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이른다.

4. 결론

본 논문은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4종을 선정하여 대화문의 발화 상황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이 총 몇 개인지 살펴 본 후에, 대화문의 대화 참여자 수, 대화문의 대화 참여자의 친밀도, 대화문의 대화 참여자의 국적, 대화문의 발화 장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지금처럼 한국어 교육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더 많은 교재가 연구되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나오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교재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1, 교보문고.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2, 교보문고.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3, 교보문고.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4, 교보문고.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5, 교보문고.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6, 교보문고.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10), 한국어 초급1,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10), 한국어 초급2,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11), 한국어 중급1,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10), 한국어 중급2,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11), 한국어 고급1,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10), 한국어 고급2,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1,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 한국어2,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 한국어3,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6), 한국어4,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0), 연세 한국어1,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2), 연세 한국어2,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2), 연세 한국어3,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2), 연세 한국어4,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1), 연세 한국어5,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0), 연세 한국어6, 연세대학교 출판부.

2. 논저

김서형·장향실(2012),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전형성과 구성 요건, 한국언어문학83.
김준희(2011), 초급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적절성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박석준(2005),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에 대하여, 문법 교육3.

- 엄나영(2012), 구어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분석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원해영(2009), 한국어교재의 과제활동 수행양상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34.
- 유은우(2011),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분석 및 구성 방안 연구-사회언어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이소림(2008), 한국어 교재의 제시대화문 구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조경순·이소림(2012), 한국어 모어 화자의 물건 사기 대화문과 한국어 교재의 제시대화문 비교 연구, 한국언어문학80.

문식력 발달을 위한 사고(思考) 관찰 :

Vygotsky의 ‘내적 말’ (Inner Speech)을 활용하여
김희경(서원대)

1. 서론

최근까지 ‘교양 국어’는 ‘사고와 표현류’의 교과들로 대체되는 큰 변화를 겪었다.¹⁾ ‘교양 국어’가 ‘국어와 한국 문학 교육’에 집중되어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성은 교과명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교양 국어’의 내용 영역은 개별 교과로 수용되어 ‘사고와 표현’, ‘독서와 토론’, ‘대학 작문’, ‘발표와 토론’, ‘읽기와 쓰기’, ‘계열별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공학적 글쓰기’ 등으로 분화되었고, 내용의 폭도 넓어졌다.²⁾ 덕분에 ‘교양 국어’와 같이 하나의 명칭으로 단일화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 가운데 최근에는 ‘사고와 표현류’로 통칭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사고와 표현류’로의 전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언어 능력 발달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이다.

‘교양 국어’와 달리 ‘사고와 표현류’에 와서는 분화된 교과들을 하나의 교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사고와 표현류’를 범주화할 공통 자질에 무엇이 있나. 교과명이 해당 교과의 목표나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때, ‘독서와 토론’, ‘대학 작문’, ‘발표와 토론’, ‘공학적 글쓰기’, ‘글쓰기와 읽기’는 공통적으로 언어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사고와 표현류’의 교육 목표를 언어 능력 발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능력이라는 것이 개별 언어 기능 간에 매우 긴밀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어 복합적이라는 점, 또 실제적으로 ‘사고와 표현류’의 교과에서 복합적 언어 능력 발달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언어 능력이 바로 문식력(文識力, literacy)³⁾이다. 다만 ‘공학적

1) 이재현(2011), 나은미(2013)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에 들어나면서 나타났다.

2) ‘교양 국어’의 내용 영역은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한국문학은 비중이 매우 컸다. ‘사고와 표현류’에 와서는 한국문학이 거의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반면에 한국어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표현류’가 ‘교양 국어’의 내용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 영역의 변화라기보다는 지식 중심에서 사용 중심으로의 변화 속에서 내용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3) literacy는 문식성과 문식력으로 번역되며(노명완, 2008), ‘그려한 성질’, ‘그려한 능력’으로 구분된다. 이관규(105~106)는 문식성을 ‘글을 읽고 쓰고 말을 하고 듣는 성질’, ‘문식 능력’은 ‘글을 읽고 쓰고 말을 하고

글쓰기', '대학 작문', '발표와 토론'에서는 특정 언어 능력 발달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된다.⁴⁾

언어의 기능의 특성상 읽기와 독서는 수렴적 활동으로, 말하기, 발표, 토론, 쓰기, 작문은 발산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수업에서는 수렴적 활동에서 발산적 활동으로 연계된다.⁵⁾ 때문에 발산적 활동의 성공적 수행은 수렴적 활동의 성공적 수행 여부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는 수렴적 활동의 중요성으로 설명된다.

둘째, '사고력'과 '표현력' 발달을 교육 목표로 한다. '사고와 표현'이라는 명칭에도 드러나는 대로 '사고'와 '표현', 즉 사고력 발달과 표현력 발달이 교육 목표이다. 쓰기 교과의 교육 목표도 '비판적 사고력과 종합적 사고력'(서울대), '비판적 체계적 사고 능력'(연세대)으로 상제화된다.(조미숙, 2008;박남기 재인용) 비판적 사고력, 체계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합리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의 신장을 글쓰기 강좌의 목표로 본 김주연(2007;이재현 재인용)의 논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⁶⁾

요컨대 '교양 국어'에서 '사고와 표현류'로 변화는 '교양 국어'의 내용 확장이며, 내용 분화이다. 그리고 '사고와 표현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언어 능력을 크게 강조하여 교과 명칭에 그러한 의도로 명시적으로 드러내었다는 점이다. 특히 말하기, 읽기, 쓰기가 복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언어 능력은 문식력으로 설명된다. 다음으로 사고력과 표현력을 교육 목표로 하며, 특히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언어 능력의 발달 즉 문식력의 발달 방향과 사고력과 표현력의 내용이 설명되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쓰기를 통해 고찰된 것과 방향을 달리하여 수렴적 활동인 읽기를 통해 문식력 발달과 교육 목표로서 사고력의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쓰기와 달리 읽기의 성격상 학습자의 발달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찰 도구로서 비고츠키의 '내적 말'(Inner Speech) ⁷⁾을 활용하고자 한다.⁸⁾

쓰는 능력'으로, '국어 능력'은 '국어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자 언어 사용 뿐 아니라 구어 사용 능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문식력 개념과 확장은 2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4) 나은미(2013)는 '사고와 표현류'의 강좌를 (가)말하기에 초점을 두는 유형, (나)쓰기에 초점을 두는 유형, (c) 읽기에 초점을 두는 유형, (d)독서-토론-작문의 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어떤 기능으로 귀착되는가에 따라 유형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남기(2011)의 글쓰기 교과 조사에서 '기술보고서 작성과 발표'(성균관대학교), '발표와 토론', '글쓰기와 읽기'(숙명여자대학교)와 같은 통합적 교과가 발견된다. 이는 복합적 언어 능력 발달 교육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사례들이며, '사고와 표현류'를 '문식력' 교육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 하겠다.

5) 숙명여대 <인문학독서토론>의 수업 절차는 '자유논의→프레젠테이션→조별 독서토론→독서토론 평가'로 단계화되며, 한성대 <사고와표현>은 '지정도서 읽기→발표→요약글 쓰기'로 진행된다. 나은미(2013)를 참조할 것.

6) 쓰기 연구에서 확인된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 능력과 복합적인 관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7) 비고츠키 연구에서는 inner speech는 '내적 말' 또는 '말로 하는 사고'로 번역된다. 여기에서 '말로 하는 사고'는 비고츠키의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해 주지만, 자칫 '사고 기술'(think aloud) 혼동될 가능성이 높고, '내적 말'이라는 용어는 의사소통으로서의 활동임을 잘 드러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구어 활동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어 학습자들에게는 '이너스피치'로 지도하였다.

8) 본고의 논의 내용은 '독서와 토론' 교과(중앙대학교, 2012년 진행)의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독서와 토론'의 수업 절차와 독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수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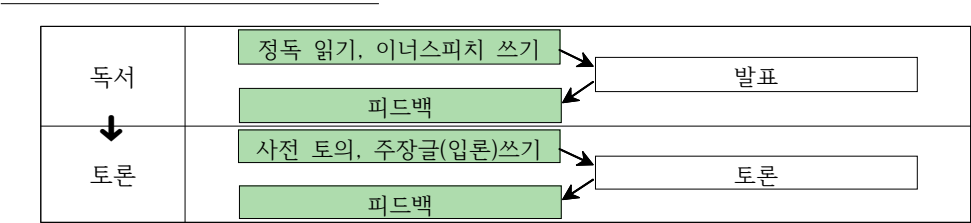
2. 문식력 발달의 방향

2.1. 읽기 문식성(reading literacy)

‘사고와 표현류’교과에서 문식력 발달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문식성의 기능적 특성에서 찾아야진다. 문식성은 (㉠)문자 언어의 사용과 문명 발전의 원동력, (㉡)정보 보편화와 지적 수준 고양을 통한 민주사회 확립의 원동력, (㉢)언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지식 창조의 원동력,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판단하고 조절하는 초인지의 능력, (㉤)가장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교류·교감과 설득의 원동력, (㉥)직무 수행의 원동력이 된다.(노명완, 2008)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기능하는 언어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기능은 대학의 ‘교양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도 매우 유사하다.⁹⁾

수렴적 활동인 읽기에 요구되는 읽기 문식성의 지향하는 바를 좀더 살펴보자. PISA¹⁰⁾에서의 읽기 문식성은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텍스트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성찰하는 능력”(PISA, 2000)으로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서 다른 상황에 적용하거나,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성찰과정을 거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개인의 자유, 해방, 권한 부여하는 것도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 문식력이다. 궁극적으로는 ‘성인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이며, 특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학습할 수 있는 읽기 능력이다.(최미숙·노국향, 2001;재인용) 문식 평가 기준 가운데 ‘성찰과 평가 능력’은 ‘읽기 자료를 자신의 경험, 지식, 아이디어 등과 결부시키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으로 설명된다. 읽기 문식성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복합적 언어 능력 발달을 목표로 하는 교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드러내 준다. PISA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식성의 수준은 정보탐색, 해석, 성찰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최미숙, 2008:194 ~195)

문식력 발달에서 비판적 능력이 핵심적 능력이 되는 이유는 텍스트와 담화의 특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읽기 자료로서의 텍스트나 담화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는 문화적 맥락, 상황적 맥락에 의해 구성된다.(Halliday and Hasan, 1989:47) 따라서 텍스트를 둘러싸고



2. 독서 자료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창비, 2010.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지글러 지음, 갈라파고스, 2007.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양희승 옮김, 중앙북스, 2007.
9) 김진해(2011:112~113)는 대학의 ‘교양 교육’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며, ‘더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유용한 인간’이 도어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양’에 대한 정의는 김진해(2011)를 참조할 것.
10) PISA는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약칭으로 OECD가 주관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이다. 이 평가에서는 각국의 인적 자원의 수준을 읽기 능력, 수학 능력 그리고 과학 능력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최미숙, 2008)

있는 문화적 맥락,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참여로서의 읽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문화적 맥락,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읽어내는 능력이 비판적 문식력¹¹⁾이다. 비판적 문식성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김혜정, 2008:재인용) 그리고 읽기 행위를 독자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권이은, 2011:362) 문화적, 상황적 맥락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산된 텍스트나 담론을 바라볼 때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관점이나 의식을 가져야 한다. 토론에서 요구되는 주장 내지 의견도 수렴적 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기만의 '-관(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수동적 이해나 무비판적 읽기가 되지 않도록 학습자의 인식 전환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1> 비판적 문식성의 특성(권이은, 2011)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
인식론	지식은 자연스럽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사회의 광범위한 규칙 기반이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임
텍스트와 독자에 대한 관점	텍스트는 특정한 권력, 문화,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 구성됨. 독자 스스로 설득력 있는 이데올로기에 가담함
교육 목표	중요한 의식(정신)의 개발
교육 내용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관점, 의식'의 배양 사회 변혁을 위한 적극적 행동 주체로서의 역할 학습 등

비판적 문식성 발달을 위해 읽기 연습에는 첫째,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읽기 활동을 포함해야 하고 둘째, 독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의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며 셋째로 독자는 명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념적 가정을 언급하는 텍스트를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한다.(김혜영, 2012:265)

2.2. 비판적 사고

읽기는 '쓰여진 글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Anderson et al.)이며, 의미 구성을 위해 상호교섭하는 행위(Galda et al.)이다. 그리고 읽기와 구별하여 독서는 '주로 교양 획득이나 인격 함양을 위한 읽기, 정서적인 즐거움을 위한 읽기'로 설명된다. 반면에 읽기는 문자의 해독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며, 언어 기능 혹은 언어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¹²⁾

'독서와 토론' 교과에서 읽기는 개인적 활동으로 전적으로 의미 구성 주체인 학습자의 인지 활동으로 이뤄진다. 반면에 수업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읽기 즉 비판적 사고가 적절하게 또는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그래서 비판적 문식성 발달이 나타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는 무엇일까? 비판적 사고란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

11) 문식성과 문식력은 각각 성질과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지만, 본고에서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문식력'으로 쓴다. 다만 서술에 따라서 대등한 의미로 '문식성'을 구분없이 쓴다.

12) 따라서 교과명인 '독서와 토론'에서 독서는 목적으로서의 활동을 강조한 것이고, 읽기는 언어 활동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용어이다.

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초점을 둔 합리적인 반성적인 사고’(Ennis, 1989:10)이며, ‘반성적 회의를 가지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과 기능’(Mecpeck, 1981:8)이다¹³⁾. 한편 이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 요소로 (㉠)‘건전한 회의성’, (㉡)지적 정직성, (㉢)객관성, (㉣)체계성, (㉤)철저성이 있다.(허경철 외, 1990:재인용)

- (㉠)건전한 회의성 - 일반적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사실 혹은 신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사고 과정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성향
- (㉡)지적 정직성 - 어떤 진술이 자신이 참이라고 알고 있는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라 하여도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려는 성향
- (㉢)객관성 -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성향
- (㉣)체계성 - 논의나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
- (㉤)철저성 -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결론짓기를 보류하는 성향

비판적 사고는 성격상 평가적이다.(박영목, 2008) ‘대상’에 대해 평가적이라는 의미에서 독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기만의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비판적 사고의 성향이 발산적 언어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것은 비판적 표현력으로 설명될 것이고, 비판적 사고의 성향이 의식적 활동에 머물러 있어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판적 사고력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사고’라는 것이 인지적 영역에 속한 것인 만큼 언어화 되지 않는 비판적 사고는 학습 현장에서 교수자가 관찰하거나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읽기 활동을 통해 독자 내면 속에서 활성화된 비판적 사고는 관찰이나 평가가 어렵다는 말이다.

3. 사고(思考) 관찰

3.1. 사고 관찰 도구서로의 ‘내적 말’ (Inner Speech)

내면에서 활성화되는 사고를 타인이 관찰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의 발달 또한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읽기 활동에 대한 지도와 평가는 간접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비고츠키의 이론은 사고 관찰에 새로운 전환을 마련해 준다. 비고츠키(1978)는 인간의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은 심리적 도구인 기호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심리적 도구로서 언어는 가장 중요한 기호이다. 언어(말)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의사소통의 기능과 지적 기능을 한다.(한순미, 2007:158)

말의 첫 번째 기능은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이다. 말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첫 번째 수단이며 어떤 의견을 내고 타인을 이해하는 수단이다. 말의 이와 같은 기능이 흔히 독립된 단위로 분석됨으로써 말의 지적 기능(intellectual)과는 분리되어 왔다. 이 두 기능은 서로 독립적으로 혹은 병행하여 말에 포함되어 있다. 말하자면 말은 그 안에 사회

13) 김남미(2012:134) 재인용. 김남미(2012)는 비판적 사고 능력 확장 방안으로 글쓰기에서의 교수 전략을 제안하였다.

적 상호작용의 기능과 사고의 기능을 결합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Vygotsky, 1981b)

때로 의사소통의 기능과 사고의 기능은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병행하기도 한다.

비고츠키(1981)에 따르면 언어는 ‘외적 말’에서 ‘자기중심적 말’로, 다시 ‘내적 말’로 발달한다. 이때 ‘외적 말’은 생각을 물질화하는 것이며, 대상화하는 것이다. ‘외적 말’은 음성으로 산출되며, 타인과의 소통의 매개가 된다. 따라서 ‘타인을 향한 말’로 설명된다. 이와 달리 ‘내적 말’(inner speech)은 ‘말이 사고(思考)’로 내면화되는 단계이며, 성인의 ‘내적 말’은 사회적 적응보다는 ‘자신을 위한 사고’로 나타난다.(한순미, 2007) ‘내적 말’은 반드시 ‘외적 말’과 ‘자기중심적 말’의 발달 뒤에 나타난다. ‘외적 말’에서 ‘내적 말’로의 발달은 진화로 설명된다.(Vygotsky, 1981;배희철 외 역, 2011:607) 그러나 진화의 과정은 분리된 단계가 아닌 연속성 위에서의 진화로 설명된다. ‘내적 말’은 친밀하고 고도로 축약된 내적 말로부터 고도로 정교화되고 문자화된 내적 말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다.

읽기는 ‘내적 말’의 한 형태이다. 읽기는 독자 스스로를 향한다는 뜻에서 기능적으로 내적 말이다. 또한 읽기의 과정에는 ‘내면의 목소리’가 개입되며 또한 외적 말에 비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내적 말’이라고 할 수 있다.비고츠키(1981)는 ‘내적 말’을 ‘말로 된 사고’로 표현하였다.(배희철 외역, 2011:624, 역주5) ‘내적 말’과 ‘사고’의 관계를 살펴보자.

날말의 의미는 오직 생각이 날말과 연계되고 날말 속에 구체화되는 한에서 생각의 현상이고, 반대로 그것은 오직 말 생각에 연결되고 생각에 의해 명료해지는 한에서 말의 현상이다.

사고가 언어로 구체화되었을 때 진정한 사고라 말할 수 있으며, 언어는 사고와 연결되고, 사고에 의해 명료해져야 진정한 언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적 말’은 ‘말로 된 사고’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사고 자체인 것이다.

3.2. 사고(思考) 관찰의 내용¹⁴⁾

‘내적 말’은 비음성적 언어이지만, 언어 발달 과정에서 ‘외적 말’, ‘자기중심적인 말’의 언어 구조와 체계를 수용한다. 그래서 ‘내적 말’은 ‘정신적 지향성, 의식적 파악, 어려움과 장애물의 극복, 회상과 생각’을 표출한다.(Vygotsky, 1986;배희철 외역, 2011:607)

‘내적 말’은 본질적으로 비음성적 언어로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점에서 타인이 판별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말’을 관찰하는 것은 ‘내적 말’이 ‘사회-문화적-논리적-발달적 특징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Vygotsky, 1981; 배희철 외 역, 2011:624, 역주 V)

(1) ‘내적 말’의 표출

가) 인식적 파악(conscious understanding)

‘인식적 파악’은 인지적으로 처리된 지식이나 사태에 대한 인식, 깨달음, 교훈, 성찰,

14) 사고(思考) 관찰에 사용된 ‘내적 말’ 자료는 전체 수강생 자료 중 유형화를 위해 10여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반성, 궁금증 등이 확인된다.

- ① 라다크 사람들은 땅을 소유할 때도 자신이 경작할 수 있는 땅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한 욕심없는 삶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한다.
- ② 기근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곳에서는 죽음이 우리사회에서의 죽음보다 덜 슬플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곧 죽음을 맞을거란 걸 안 아버지가 전신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에서 죽음은 어느 하나 덜 슬프고 덜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 ③ 동성애자들은 아마도 가장 불편한 이들이 아닐까 싶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랑을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④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 이전에는 절대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우리나라처럼 병역에 관련해서 민감한 나라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싶기도 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적절한 대체복무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다.
- ⑤ 사회진화론과 인권차별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 ⑥ '기본적으로 이곳 사람들은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다가 참 멋진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든지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우리들과는 정반대이다.

‘내적 말’ ①은 라다크인들의 삶의 자세를 통해 얻은 ‘교훈’, ②는 죽음의 고통에 대한 ‘깨달음’, ③대상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인지, ④사태에 대한 새로운 인식 획득, ⑤두 사태에 대한 궁금증, ⑥은 이해에서 얻어진 깨달음이 나타났다.

나) 어려움과 장애물 극복(overcoming difficulties)

어려움과 장애물은 사고 처리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상황이다. 인지활동인 ‘판단’이나 ‘조정’이 어려움이 사고 처리가 되지 못한 상태로 표출된다. 따라서 극복은 ‘판단’을 내리거나 ‘조정’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⁵⁾

- ① 기독교인인 나는 신애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②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왜 그 돈으로 기아를 해결할 수 없는 걸까?
- ③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기아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지원금을 내놓는 개인 또는 기업,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강제로 요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내적 말’ ⑦은 딜레마에 빠져 판단하지 못함으로 ⑧은 돈의 힘에도 불구하고 기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에서 조정하지 못함으로 ⑨은 기아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강요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조정하지 못함을 표출되었다.

라) 회상과 생각

회상과 생각은 ‘장기 기억 속에서 지식을 인출하는 행위’(Anderson et al., 2001:강현석 역, 2005:76)로 회상하기, 후회하기, 생각하기와 같은 인지 처리가 나타난다. 후회하기는 정의적 반응이지만, 인지 처리 후에 나타난다.

15) 인지 처리 항목은 Anderson et al.(2001)의 ‘인지과정 차원’을 참조하였다.

- ④ 나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두발규정, 복장규정 검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학교규정이니 따라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책에서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학생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건 학생들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때, ‘아 그때는 왜 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 왜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⑤ 이 책을 읽기 전, 그러니까 지난 여름 방학에 돈 없이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곤 했다. 그 결과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숨쉬기와 잠자기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어떤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을 때, 예쁜 것을 가지고 싶은 때는 다 돈이 필요하다. 우리는 언제부터 돈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내적 말’ ⑩은 새로운 사태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후회’, ⑪은 과거 경험의 회상을 통해 깨달음과 새로운 궁금증이 나타났다.

(2) 비판적 사고 성향

‘내적 말’이 정신적 지향성으로 표출될 때, 비판적, 종합적 사고로 구체화된다. 인지 처리에서 비판적, 종합적 사고는 비판, 판단, 종합, 구성과 같은 요목으로 구체화된다.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 성향’은 ‘건전한 회의성’, ‘지적 정직성’, ‘객관성’, ‘체계성’, ‘철저성’의 다섯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가) 건전한 회의감

‘건전한 회의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나 신념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 ⑥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보통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같다는 근거 없는 느낌에서 비롯된다.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 ⑦ 우생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릇된 것이 맞긴 하다. 그런데 실제 경쟁사회에서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알게 모르게 우생학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인종의 차원이 아닌 자신의 사회적 계급, 지위 차원에서 말이다.
- ⑧ 지금까지 사전검열과 등급제도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드렸는데 책을 읽으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내적 말’ ⑫에서 일반적 사실 혹은 신념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념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다. ⑬은 우생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현재의 인식에 대한 비판, ⑭은 사전검열과 등급제도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다.

나) 지적 정직성

지적 정직성은 자기가 참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부정하는 것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진리로 받아드리는 성향을 말한다.

- ⑨ 책에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후에 종교에 귀의한 후 새사람이 되었다는 이들과 그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당혹스러움과 아픔을 이야기한다. 사실, 얼마 전에 읽

은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던 내용이다. 이 책의 저자는 범죄자들의 교화에 직접 참여한 분이기에, 이들의 회심은 아름답게만 묘사된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⑨에서 학습자는 범죄자의 회심을 긍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독서로 피해자의 용서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전의 참으로 여겼던 것을 회의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적 정직성 성향으로 이해된다.

다) 체계성

체계성은 논의나 사고의 전과정에 걸쳐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⑩ 동성애 인정에 대한 키워드는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혐오하는 호모포비아 또한 그 다양성의 범주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동성애가 인정받기 시작한 단초는 그것이 질병이 아니며, 그들의 유전자 속에 내재된 것이므로 치료 혹은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호모포비아 또한 단순히 다수자로서의 권위의식이나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차별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이 그렇게 되먹은 것일 수도 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용인 가능하다면 본성이 그렇기에 그들을 혐오하는 것 또한 용인 가능하다.

‘내적 말’ ⑩은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본성이라면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 또한 본성으로 보고 있다. 한 가지 논리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라) 철저성

철저성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결론짓기를 보류하는 성향을 말한다.

- ⑪ 원조를 계속해서 한 아이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옳은지, 중단해서 각국에서 원조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논의해 볼만하다고 생각했다.
- ⑫ 기아가 인구조절을 위한 자연도태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60억 인구가 지구에 공존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내적 말’ ⑪은 판단을 유보한 채 새로운 논의를 요구하고 있고, ⑫은 결론짓기를 보류하고 비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였다.

4. 제언과 마무리

〈참고문헌〉

- 권이은(2011), ‘비판적 읽기’의 범주 설정 및 내용 체계화 연구, 독서연구 제26호.
 김남미(2012), 비판적사고 능력 확장을 위한 글쓰기 교수방안, 대학작문 제5호.

- 김혜영(2012), 다문화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분류-소설과 시 텍스트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제90호.
- 김혜정(2008),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향, 독서연구 제20호.
- 나은미(2013), 교양 기초 교육으로서 말하기와 글쓰기 연계 및 통합, 대학작문학회 제8회 학술대회 발표집.
-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노은경(2002), Vygotsky의 발달 이론에서 사회-문화적 발달과 언어에 관한 연구, 교육학논총, 22-2.
- 로버트 티어니, 존 리드스 저, 노명완 외 역(2011), 읽기 전략과 읽기 수업, 한우리.
- 박남기(2011), 대학 교양교육의 정책과 방향 탐색-글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작문 제3호.
- 박영목(2008), 독서교육론, 박이정.
-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제15호.
- 안부영(2010), 사회적 문식성에 기반한 읽기 교육에 대한 시론, 독서연구 제23호.
- 이관규(2008), 국어 능력, 문식 능력, 통합적 국어교육,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이재현(2011), '사고와 표현'교과에서의 글쓰기 교육에 대하여-동덕여대의 기초교양 교과목을 중심으로-, 대학작문 제2호.
- 정희모(2011), 대학 글쓰기 교육과 연구 과제-소통과 토론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작문 제2호.
- 주민재(2010),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복합양식적 쓰기의 수용 가능성, 새국어교육 제86호.
- 최미숙(2008), 문식성 평가의 동향-PISA를 중심으로,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한순미(2007), Vygotsky와 교육, 교육과학사.
- Anderson et al. 외 저, 강현석 외 역(2005),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Bloom 교육목표분류학의 개정, 아카데미프레스; Anderson et al.(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aching, and Assessment: A Revision of Blooms'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Pearson Education,
- Halliday and Hasan(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Vygotsky 저(2011), 배희철, 김윤희 역, 생각과 말, 살림터.
- Vygotsky(2012), Thought and Language, MIT Press.

第30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고전문학

<달천몽유록>과 <강도몽유록>의 서사성 비교

황병홍(중앙대)

『희조일사』의 편찬 양상과 서술 특성-『호산외기』·『이향견문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태식(서울시립대)

고려속요의 樂章적 성격 고찰 -<쌍화점>을 중심으로-

김지은(상지대)

『補閑集』의 서술방식과 현대적 수용

김상진(한양대)

水路夫人 說話 再考 -헌화가 . 해가 창작의 시공간-

이주희(중원대)

『金鰲新話』에 나타난 解冤의 具現 樣相 研究 -「萬福寺樗蒲記」를 中
심으로-

유권석(남서울대)

〈달천몽유록〉과 〈강도몽유록〉의 서사성 비교

황병홍(중앙대학교)

1. 서론

몽유록은 꿈을 중요한 소재로 삼는 문학으로, 다른 문학 갈래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몽유록의 갈래, 구조, 작가, 작품의 형성배경, 작품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었다. 몽유록과 관계된 많은 연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끈 것은 그 구조와 갈래에 관한 연구이다. 몽유록은 현실과 꿈을 오가는 이야기가 액자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가 작품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몽유록 작품들은 이러한 큰 특징을 공유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되는 양상을 보인다. 필자가 검토한 바로몽유록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대체로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향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말을 바꾸면 몽유록은 후기로 갈수록 교술성이 축소되고, 서사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조선 전·후기의 분기점에 놓이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서사성의 추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교술성이나 서사성 등의 개념은 몽유록을 어떤 문학 갈래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갈래 귀속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논의 되었다.¹⁾ 서대석은 ‘서사적 교술’ 혹은 ‘허구적 교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고,²⁾ 정학성은 ‘소외된 사대부들의 사회적 갈등과 역사 과정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서 유발된 사대부들의 독특한 서사 유형’³⁾이라고 하였다. 또 장효현은 ‘傳奇와 寓言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⁴⁾ 신재홍은 ‘교술적 서사’⁵⁾라고 하였다. 이들 논의는 저마다 나름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1)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 규정」, 『장암지현영선생 화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71. ;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징」, 『관악어문연구』2, 서울대, 1977. ; 장효현, 「몽유록의 역사적 성격」, 『한국고전소설론』, 새문사, 1990. ; 신재홍, 『한국몽유록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2) 서대석, 위의 논문, 524쪽.

3) 정학성, 위의 논문, 296쪽.

4) 장효현, 『韓國古典小說史研究』,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5) 신재홍, 위의 책, 106쪽 참조.

지니고 있어 어느 한 가지 견해가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어느 한 논의를 수용한다고 해도 몽유록의 갈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교술’이라는 갈래의 성격 규명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서사’라는 갈래의 정의도 논자의 편의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몽유록의 갈래에 대한 분분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에서는 몽유록을 서사 갈래로 귀속시키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필자가 그 과정을 검토해 본 결과 정확성이 몽유록을 ‘소설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전기적 서사문학(또는 몽유소설)의 한 변형’⁶⁾이라고 밝힌 뒤 몽유록을 서사 혹은 소설로 보는 견해에 동조하는 연구자들⁷⁾에 의해 오늘날에 와서 몽유록은 자연스럽게 소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한편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서사>소설’이라는 갈래 구분의 위계를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몽유록이 가진 ‘서사적 성격’으로 인해 ‘몽유록=소설’로 논리적 비약이 진행된 것이다. 다시 말해 몽유록을 ‘허구적 서사’의 성격을 가진 문학 갈래로 볼 수 있을지언정 소설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지금에 와서 ‘몽유소설’ 혹은 ‘몽유록계 소설’이라는 용어가 일반에 통용되는 것에 대한 성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초기 연구자들이 몽유록의 장르를 교술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몽유록을 소설로 인식하는 연구자들이 몽유록을 교술 장르로 봐야한다는 관점에 대해, 작품이 가진 ‘서사적 성격’을 앞세워 서사문학임을 밝히고자 한 연구 과정에서 몽유록이 소설로 규정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몽유록의 개별 작품들은 교술적 성격과 서사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그 비율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서사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역사적 장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개별 몽유록 작품이 서사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소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몽유록을 단선적 구조로 이해하여 교술 혹은 소설로 양분하는 것보다는 소설사적 전개에서 장르 성격의 변모 양상을 분석하여 ‘교술적 몽유록 ⇒ 서사적 몽유록’의 순서로 몽유록의 성격이 변해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몽유전기나, 몽유장편소설을 제외한 몽유록 중에서 <달천몽유록>과 <강도몽유록>의 두 작품을 선정하여 서사성을 비교함으로써 몽유록의 장르 성격의 변모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⁸⁾ 이 두 작품을 선정한 것은 조선시대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기의 마지막 시기에 지어진 <달천몽유록>과 후기의 가장 앞선 시기에 지어진 <강도몽유록>이 몽유록 성격 변화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⁹⁾ 필자는 그러한 과도기적 성격 중에서도 서사적 성격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교술적 성격이 강했던 전기 몽유록이, 서사적 성격이 강한 후기 몽유록으로 변해가는 변곡점을 찾아내면 몽유록 장르

6) 정확성, 위의 논문, 277~296쪽.

7) 대표적으로 신재홍은 정확성의 견해를, 김정녀는 장효현의 논의를 각각 수용하고 있다.

8)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피생명몽록>이 여타의 몽유록과 달리 현실모순의 문제를 드러낸 후 극복의 논리를 제시했다는 논의가 있다. 정확성, 위의 책, 136쪽.

9) 김정녀, 『조선 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46쪽~53쪽 참조.

규명 및 몽유록 개별 작품의 성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논의는 서대석이 몽유록을 서사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것들과 연관하여 <달천몽유록>과 <강도몽유록>이 서사적 성격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추적하였다.¹⁰⁾ 즉, 서사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몽유록이 지닌 서사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몽유록이 서사적 성격으로 변모해 가는 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서대석이 몽유록을 서사로 볼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¹¹⁾

- ① 구성 면에서 몽유록은 몽중사건이 독립되어 있어 사건 사이의 인과적 계기가 없다는 점.
- ② 인물 면에서 몽유록은 등장인물이 거의 역사적으로 실제 생존했던 인물이지만, 소설 속에는 등장인물은 작자가 창조한 완전한 허구적 인물이라는 점.
- ③ 몽중사건의 성격 면에서 몽유록은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적 이해와 관련되어 있어 작품외적 지식이 없으면 몽유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

이중 ①은 몽유록의 구성적 측면과 관련된 지적이며, ②와 ③은 내용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II장에서는 구성적 성격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검토하고, III장에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두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전기 몽유록이 후기 몽유록으로 구조 및 성격이 변화해 나가는 도중에 서사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구성적 측면에서의 비교

1600년에 尹繼善이 지은 <達川夢遊錄>과 1611년에 黃中允이 지은 <獐川夢遊錄>은 임진왜란 당시 가장 중요했으면서도 뼈아픈 패배의 결과를 남긴 탄금대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작자미상의 <강도몽유록>은 병자호란 시 인조의 항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江都失陷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소재로 창작된 작품이다. 이 세 작품은 모두 몽유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달천몽유록>은 조선전기에 창작된 몽유록 중에서도 전성기의 정형화된 틀(입몽-인도 및 좌정-토론-토론의 진정, 혹은 잔치의 배설-시연-시연의 정리-각몽)을 보여주는 작품¹²⁾임에 반해, 조선후기 몽유록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강도몽유록>은 시연 부분이 제거되어 정형성을 탈피하고 있다. 이처럼 <강도몽유록>은 “조선전기부터 지속되어온 몽유록의 양식적 특징을 유지하는 한편 그것을 변화한 소설적 상황에 걸맞게 적절히 변용, 창조적으로 계승한 작품”¹³⁾이라는 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외적의 침입이라는 비슷한 소재로 창작된 <달천몽유록>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는 작품이다.

본장에서는 세 작품의 배경, 인물, 사건을 포함하는 구성적 측면을 검토하여 서사성을

10) 조동일과 서대석을 제외한 연구자들은 몽유록이 서사문학 혹은 더 나아가 소설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 서대석, 앞의 논문, 521~541쪽 참조.

12) 신재홍, 앞의 책, 295쪽.

13) 김정녀, 앞의 책, 53쪽.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2.1. 공간배경의 매개를 통한 외화와 내화의 연계

우선 공간배경의 측면을 살펴 ‘몽유록은 현실세계와 몽중세계의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¹⁴⁾ 필자는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작자의 분신인 몽유자가 특정 몽중세계로 연결될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원생몽유록>에는 慷慨之士인 元子虛가 몽중세계에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게 되는 필연적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중 서술자인 원자허나 작가인 임제는 癸酉靖難과 직접 관계된 인물도 아니고, 정변 관련자와의 상관성이 작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용궁부연록>의 박생처럼 각몽 후 수궁에서 받은 보물같은 증거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몽유자와 몽중세계와의 관련성은 더욱 떨어져 서사적 인과성을 추출할 근거가 희박하다. 따라서 이 지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 전기에 생산된 몽유록에 거의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¹⁵⁾

그런데 이와 달리 두 <달천몽유록>과 <강도몽유록>은 이전의 몽유록들과 달리 특정한 몽중세계로 진입할 근거가 입몽 단계에 설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입몽 공간의 연계성과 몽유자의 특성을 살펴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1 坡潭子가 호서 지방을 암행하던 중 달천강에 이르러 백골 등을 보고 회상에 잠겨 시를 짓다.(밑줄 필자, 이하 같음)

-2 몇 달 후 화산 현령으로 나가 밤에 遺稿를 보던 중, 침상에 기대 생각하다 문득 한 나비에 인도되어 한 곳으로 나아가다.

(나)-1 生이 辛亥年 봄에 증광시를 치고 돌아가던 중 충주 탄금대 아래서 비를 피하다.

-2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水府 왕의 초대로 잔치에 참석하다.(필자 추정)

(다)-1 적멸사의 선승 청허선사가 강화도에서 죽은 시신들을 염습할 의도로 강화도에 들어가 연미정에 초막을 짓고 法事를 베풀다.

-2 달이 밝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 가보니 부녀자들이 모여 있었다.

(가)는 윤계선의 <달천몽유록>, (나)는 황중윤의 <달천몽유록>, (다)는 <강도몽유록>에 나타난 입몽 과정이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後孫家 소장본이 유일본인데 卷頭の 두세 장이 떨어져 나가 입몽 과정을 알 수가 없다.¹⁶⁾ 그러나 황중윤의 7대손인 晁九가 家狀에 “辛亥年(1611년, 광해 3년) 春에 增廣解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충주 탄금대 아래서

14) “完全히 두 세계가 斷絶되어 있는 夢遊錄”(서대석, 앞의 논문, 525쪽.)이라고 하여 몽유록에서 현실세계와 몽중세계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하였다.

15) 그러나 몽유록의 경우에도 <대관재기몽>의 경우 꿈속에서 뱃속에 먹물을 가득 부어 주었는데 꿈에서 깨어 보니 실제로 자기 배가 뽕뽕해져서 아팠다고 한 점은 <용궁부연록>의 경우처럼 현실과 몽중세계와의 연관성이 발견되는 작품도 존재한다.

16) 장효현·윤재민·최용철·지연숙·이기대, <달천몽유록>, 『교감본 한국한문소설 몽유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163쪽.

비에 막혔는데 (여기는) 곧 申總兵 砦이 배수진을 친 곳이다. 이상한 꿈이 있어 달천몽유록을 지었다.”¹⁷⁾는 기록을 남겨두어 추정이 가능하다.

(가)와 (나)의 몽유자는 각각 달천강 혹은 탄금대 아래라는 공간의 연계에 의해 몽유자가 몽중세계에서 신립과 원혼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다)에서 몽유자인 청허선사는 강도실함의 원인 제공자들이 있던 장소인 연미정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강화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女鬼들을 만나게 된다. 즉 공간배경을 매개로 하여 외화와 내화의 내용에 있어 연계성이 발생한다.

그런데 (가)와 (나)는 (다)와 달리 입몽 장소와 몽중세계가 분리되어 있다. (가)의 경우는 입몽 몇 달 전 몽유 장소에 가서 시를 지은 것이 인연이 되어 몽중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2에서 보듯이 ‘遺稿’라는 연결고리가 하나 더 설정되어 있다. 이 유고는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들의 것인데, 한 개인의 유고에 한정되지 않고 윤계선이 평소에 우러러 보던 이들, 즉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들의 유고인 것이다.¹⁸⁾ 다시 말해 현실과 꿈이 우연히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탄금대를 다녀온 기억과 몽유자의 강한 의식적 지향이 몽중세계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앞부분의 유실로 인해 입몽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가)와 마찬가지로 탄금대라는 공간적 인연으로 입몽하여 水府로 가게 되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황중윤에게 탄금대는, 자신이 과거에 흠모했던 이산해가 신립의 패전으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을 통해 신립에게 변론의 무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의도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¹⁹⁾

이에 비해 (다)의 경우 청허선사는 애초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강화도로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강도실함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공간인 연미정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몽중세계에서 여귀들인 모인 곳으로 가게 된다. 이처럼 세 작품은 공간의 연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전의 몽유록에 비해 서사성이 강화되어 있지만, (가)와 (나)에 비해 (다)의 청허선사는 입몽 공간과 몽중세계가 같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현실과 몽중세계의 연계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차이가 있다.

2.2. 인물에 대한 서술 방식의 변화

다음으로 인물 면에서 몽유자 설정을 비교하여 인물에 대한 서술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윤계선의 <달천몽유록>에서 ‘坡潭子’나 황중윤의 <달천몽유록>에서 ‘生’은 기존의 몽유록에 등장하는 인물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 둘은 강개지사형 인물로 몽중세계에 참여하여 ‘토론-좌정-시연’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몽중인물들의 冤抑함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한다. 이에 비해 <강도몽유록>의 ‘청허선사’는 이전까지의 강개지사형 몽유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품의 몽유자인 청허선사는 부처와 같은 자비로움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 가득한 인물이며 몽중에서는 몽중인물들과 전혀 섞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허선사는 여귀들의 목소리를 공식적

17) 김동협, 「<달천몽유록> 고찰」, 『국어교육연구』17, 경북대 사대, 1985, 161쪽에서 재인용.

18) 윤계선과 황중윤이 이산해와 관계가 있으며, 이산해와 신립이 정치적 동반자였음을 밝힌 논문이 있다. 정출현, 「탄금대 전투에 대한 기억과 두 편의 <달천몽유록>」, 『고소설연구』29, 고소설학회, 2010, 167-168쪽 참조.

19) 위의 논문, 164쪽.

기록물의 영역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두 편의 <달천몽유록>은 이전의 몽유록의 관습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인칭 주인공서술이 아닌 1인칭 관찰자서술이라는 점에서 변모된 모습을 보인다. 1인칭 관찰자서술은 주인공이 부수적 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관점에서 서술하며, 화자 자신은 주관적이나 작중인물의 세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서술한다.²⁰⁾ 이러한 서술 방식의 변화는 <달천몽유록>이 1인칭 주인공 서술에서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면서도 당대의 현실 구조 속에서는 변혁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현실 비판적 성격을 더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도몽유록>의 경우는 작가 관찰자서술을 택함으로써 몽유자인 청허선사를 몽중사건에 개입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위치에서 서술하게 만들고 있다.²¹⁾ 그리고 이를 통해 독자들을 몽중인물들 자체에 좀 더 집중하게 하여, 사건에 대한 몰입을 강화하고 그 극복의 논리까지 제시한다. 이는 <달천몽유록>에 비해 인물들 자체로 사건을 일으키고 마무리하게 하는 것으로 좀 더 세련된 방식의 서사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2.3. 몽중 사건의 유기적 배열

마지막으로 사건 면에서 ‘몽유록은 몽중 사건이 독립되어 있어 사건 사이의 인과적 계기가 없다’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계선의 <달천몽유록>은 몽유자인 ‘파담자’가 입몽 이후 나비의 인도로 한곳에 이르러 못 귀신들을 만나고 그 중 한 병졸이 신립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신립이 나타나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 때 전몰한 육·해군 장수들이 좌정한 후 돌아가며 시를 읊는다. ‘파담자’는 이순신의 요청으로 마지막으로 시를 짓고 돌아가는 길에 잡귀들이 元均을 기롱하는 것을 보고 덩달아 웃다가 잠을 깬다. 각몽 후 몽중인물들의 관직과 성명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제문을 지어 花山에 올라 招魂祭를 지낸다.

황중윤의 <달천몽유록>의 몽유자인 ‘생’은 水府 왕의 초대로 잔치에 참석하여 시를 읊는다. 이에 왕이 ‘생’의 시를 얻고 기뻐하여 술을 준비하고 음악을 연주하게 한다. 술이 세 분배쯤 돌았을 때 獺川侯 신립이 당당한 위풍으로 들어와 자신을 소개하는데, 天帝가 자신을 달천후로 봉한 것은 패배가 자신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이 신립에 대한 인간 세상의 부정적 평가를 전하자 신립은 자신이 배수진을 친 이유를 설명하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분개한다. 이후 달천후의 아우인 臨津伯 신할과 幕賓 김여물이 도착하여 국가의 군사제도가 잘못되어 패배했음을 항변한다. 수부의 왕이 승패의 존망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며 신립을 위로한다. 순서대로 시를 읊은 후 잔치가 파하고 使者의 인도로 ‘생’은 배로 돌아오게 된다.

몽중사건의 서사적 순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신립에 대한 비판’ 이후 ‘신립에 패배에 대한 변호’로 사건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윤계선과 황중윤의 <달천몽유록>에 있어 전자가 좀 더 신립에 대한 비판의식이 선명하고 그에 대한 변호가 궁색한 측면이 있

20) 양언석, 『몽유소설의 서술유형연구』, 국학자료원, 1996, 129쪽.

21) 앞의 책, 213쪽 참조.

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립은 좌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균은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병졸들에 의해 기롱당하는 장면을 통해 작가의 의도가 신립 비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²²⁾ 그리고 황중윤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립의 패배가 개인의 문제보다는 兵農一體라는 국가 체제의 문제임을 들어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립에 대한 비판’과 ‘신립에 대한 변호’라는 서사전개의 순서를 바꾼다면 서사의 유기성이 약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신립에 대한 비판’을 앞쪽에 위치한 것은 탄금대 전투의 패배의 책임과 관련된 신립에 대한 당대의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는 작가의 진실한 의도인 ‘신립에 대한 변호’라는 반전을 위한 포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두 <달천몽유록>에는 몽중사건이 독립적 성격이 강했던 <원생몽유록>과는 달리 서사적 인과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강도몽유록> 역시 사건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몽유자인 청허선사는 방관자에 불과하여 몽중 여귀들의 대화를 통해 서사가 진행되는데, 서대석은 “부인망령들의 대화의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작품의 의미는 마찬가지”²³⁾라고 하여 열다섯 여귀들의 대화에서 순서가 가지는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여귀에서 열두 번째 여귀가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토로하고 강도실함 시에 부정적 면모를 보인 남편과 자식을 포함한 남성들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는 반면, 열세 번째 여귀와 열네 번째 여귀는 자신들이 정절을 지킨 대가로 하늘에 의해 영혼이 구제받았음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나온 여귀(기생)는 앞선 여귀들의 정절을 치하하고 위로하며 끝내고 있다. 이처럼 <강도몽유록>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원한의 토로’와 ‘자신들의 수절에 대한 하늘의 보상 제시’ 및 ‘여귀들의 정절에 대한 예찬’이라는 유기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두 번째 단계는 지고존재인 하늘이 직접 간여하여 정절을 지킨 여인들을 천당으로 보내 주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여귀들의 해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몽중세계 자체의 서사적 완결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전기의 마지막 작품인 <달천몽유록>과 <강도몽유록>은 앞선 작품들에 비해 현실과 몽중세계의 공간적 연결고리를 사용한 점, 인물을 서술하는 방식의 변화, 몽중사건의 유기적 구성을 통해 한 단계 진전된 서사적 성격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도몽유록>은 한층 더 서사성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내용적 측면에서의 비교

교술 장르에 비해 서사 장르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은 ‘허구성’이라 할 수 있다. 교술은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들이 작품을 구성하지만, 서사는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존재’와 ‘갈등(conflict)이 있는 사건(event)’²⁴⁾을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로 본다면 몽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실존 인물 그 자체로 서술된다면 몽유록은 교술에 속한다고 할

22) 정출현, 앞의 논문, 168쪽 참조.

23) 서대석, 앞의 논문, 522쪽.

24) 장효현, 앞의 책, 78쪽 각주 57번 참조.

수 있다. 그러나 몽유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개 역사적 실존 인물일지라도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한 날 한시에 자리를 같이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작가의 의도에 의한 허구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²⁵⁾ 그런 의미에서 ‘인물 면에서 몽유록은 등장인물이 거의 역사적으로 실제 생존했던 인물’이라는 주장은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1. 등장인물의 허구적 성격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윤계선의 <달천몽유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달천몽유록」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 姓名이 밝혀진 것은 모두 28명이다.(이 중 李鎰만은 對話 중에 거명된다.) 파담자를 제외하면 官軍측이 21명, 義兵측이 7명 등장하는데, 모두가 전쟁에 참가한 장수들로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詩宴 때 元均만이 말적이거나 참석하지 못하여 당시에 그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지 않았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관군이든 의병이든 陸軍이 대부분이고, 海軍은 이순신·이억기·이영남·정운, 그리고 원균 등 5명뿐이다.²⁶⁾

이상에 등장한 28명의 장수들은 임진왜란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육군과 해군이라는 차이를 비롯하여 같은 공간에서 같은 전투를 겪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작품의 소재가 된 ‘탄금대 전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은 신립을 포함하여 김여물·이일(대화에만 등장) 등 세 명뿐이다. 이는 <원생몽유록>의 몽중인물들이 계유정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만 선별된 점과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즉, 윤계선의 <달천몽유록>에는 비록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작가의 의도적 구성에 의해 허구성이 상당히 가미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수많은 雜鬼로 묘사된 죽은 병사들 역시 역사적 실존 인물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황중윤의 <달천몽유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水府의 용왕·달천후 신립·임진백 신할·막빈 김여물이 전부이다. 이중 김여물은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과 함께 참전하였으나, 신립의 아우 신할은 임진왜란 당시 도원수 金命元과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이때 용왕은 허구적 인물로서 신립에게 승패는 하늘에 달린 것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하고 술로 울분을 씻어버리라고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⁷⁾ 신할 역시 신립의 입장을 대변하여 병제의 잘못으로 인한 패배임을 강변하고 있다. 이로 보아 두 작품 모두 역사적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사실이나 허구적 구성이 가미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도몽유록>의 경우는 두 <달천몽유록>의 몽유자가 작가의 분신적 존재임에 비해, 몽유자까지 허구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파격적이다. 이 작품의 몽유자인 청허선사는 다음과 같은 인물이다.

25) 신해진 편역, 『조선 후기 몽유록』, 역락, 2008, 205쪽.

26) 金基鉉, 「尹繼善의 <達川夢遊錄> 研究 - 登場人物의 出身分析을 중심으로」, 『순천향어문논집』3·4합輯, 1997, 3~4쪽.

27) 신해진, 앞의 책, 228쪽.

적멸사에 한 선사가 있었는데 청허라 하였다. 그 성품은 어질고 친밀했으며, 그 마음은 자비로웠다. 추운 사람을 보면 옷을 주었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먹여 주었으니, 누가 대한 때 봄바람이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엮어진 향아리 밑의 밝은 해라고 하였다.(중략)

청허선사는 그(유골의) 주인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한번 斂을 해 보고자 했다.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날듯이 강물을 건너니, 인가가 다 없어져 의지할 곳이 없었다.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고 막을 만들어, 거기서 법사를 베풀었다.²⁸⁾

이로 보아 청허선사는 부처와 같은 자비로움과 인간에 대한 연민이 가득한 인물이다. 그런데 청허선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방관자²⁹⁾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節死한 여인들의 심회를 수용할 수 있는 인물³⁰⁾이라든지 혹은 仁愛와 慈悲의 表象³¹⁾, 또는 희생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또 다른 타자³²⁾ 등과 같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면 청허선사를 몽유자로 설정한 것은 ‘조선시대 타자에 속한 채 억울하게 죽어간 여성들을, 또 다른 타자인 불교적 인애와 자비의 표상인 승려가 연대하여 전란을 넘어서고, 억압을 극복하는 희망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허선사는 작가의 의도를 대변하는 허구적 인물이며, 희생된 여성들 역시 전란으로 희생된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청허선사는 병자호란 이후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문에 의해 배척당한 還鄉女의 경우나, 강도실함 시 원치 않는 자결을 해야 했던 부녀자 등 철저히 소외된 약자의 위치에 선 여성들의 한³³⁾을 풀어줄 존재로 서술자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몽유라는 장치를 통해 허구적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을 유교적 충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조정과 신료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는 것은 작품 해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요컨대 <달천몽유록>과 <강도몽유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역사적 실존 인물일 수도 있지만, 시공간적 구성의 측면을 고려하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허구적 성격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몽중사건의 허구적 성격

이러한 인물의 허구적 형상화는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몽중사건의 성격 면에서 몽

28) 장효현·윤재민·최용철·지연숙·이기대, <강도몽유록>, 앞의 책, 197쪽. 寂滅之寺有禪師 名曰 清虛. 其性也仁且愛 其心也慈且悲. 或見寒者 則寒者衣之 或見飢者 則飢者食之. 孰不曰春風於大寒之際也 人皆謂白日於覆盆之底也.(중략) 清虛禪師 憐其無主 思欲一斂 手把楊枝 飛渡江流 則人家蕩盡 無處可依 燕尾亭南 誅草爲幕 法事於斯.

29) 서대석, 앞의 논문, 513쪽. : 김성식, 「丙子胡亂 關係의 歷史小說 考察 - <江都夢遊錄>의 性格究明을 中心으로」, 建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7. 42쪽. ; 박명순, 「戰爭小說로서의 <江都夢遊錄> 연구」, 『인문과학연구』17,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204쪽. ; 정충권, 「<江都夢遊錄>에 나타난 역사적 상채와 형상화 방식」, 『한국문학논총』45, 한국문학회, 80~81쪽.

30) 양연석, 앞의 책, 262~263쪽.

31) 김연옥, 「江都夢遊錄 研究」,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17~18쪽.

32) 조현설, 「17세기 전기·몽유록에 나타난 타자 연대와 서로주체성의 의미」, 『국문학연구』19, 국문학회, 12~19쪽 참조.

33) 조혜란,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292~293쪽 참조.

유록은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적 이해와 관련되어 있어 작품외적 지식이 없으면 몽유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과 연계될 수 있다. 이 지적은 <달천몽유록>에 있어서는 일면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탄금대 전투의 전황 및 등장인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서사 진행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몽유록>까지 이 지적이 타당성을 지닐지는 검토해 볼 측면이 있다.

<강도몽유록>에서 열다섯 여귀들에 관한 史實적 지식을 동원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작품을 교술 장르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³⁴⁾ 필자는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그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여귀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서사를 분석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나열해 보았다.(번호는 여귀들의 대화 순서를 의미함)

- ① 한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사정에 치우쳐 교만한 아들에게 강화도를 지키는 군무를 맡긴 것과, 아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강화도를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다.
- ⑧ 女中男子가 정절을 지키려 자결한 부인은 낮이 천당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며, 낭군이 적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유지한 것을 비판하다.
- ⑩ 며느리와 딸과 함께 있던 노부인이 낭군의 처사를 비판하며, 궤절한 자신의 동생에 대해 부끄러움을 말하다.
- ⑬-1 송백과 같은 지조를 지닌 한 여인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하늘이지만, 낭군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서도 패망했으니 사람의 잘못이라 말하다.
- 2 염라왕의 말을 인용해 嫗父의 節死로 인해 자신도 극락세계에서 소요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 3 상제가 시부와 그 며느리의 절의를 포상하여 선계로 보내고, 염라왕으로 하여금 정절을 표창하게 하다.
- ⑭ 난초의 기상을 가진 한 부인이 나와, 염라왕이 조부와 손녀의 절의를 아름답게 여겨 천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며, 그럼에도 양친과 낭군을 볼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한탄하다.
- ⑮ 신선같은 외모의 여인(기녀)이 열녀들의 절의와 정렬에 하늘이 감동하고, 사람이 따르기 어려우니, 죽었으되 죽은 것이 아니라서 무슨 한이 있겠냐고 위로하다.

①~⑫번째 대화에 해당하는 여귀들은 강도실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겪은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원한을 표출하고 ⑬, ⑭번의 여귀들은 정절을 지킨 대가로 천당에 들어가 보상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⑮번 여귀는 기녀인데 앞선 여귀들을 모두 열녀라 칭하고 그녀들의 절의와 정렬에 하늘이 감동하였으니, 죽었으되 죽은 것이 아니라서 무슨 한이 있겠냐며 그녀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있다. 즉 이렇듯 열다섯 여귀들을 익명으로 처리해도 서사를 파악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따라서 <강도몽유록>은 여타의 몽유록과 다르게 특정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해도, 몽유자와 몽중 인물이 모두

34) 부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김정녀의 논문(김정녀, 「신 자료 국문본 <강도몽유록>의 이본적 특성과 의미」, 『고소설연구』27, 한국고소설학회, 2009.)을 참조하면 12, 14, 15번째 여인을 제외하고는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강도몽유록>이 허구적 형상화를 통한 서사적 결과물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녀들이 누구인지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구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몇몇 여귀의 정체가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지만 그것은 작품에 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전>이나 <임궏정>의 경우 역사적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 맞지만 그를 작가의 의도에 맞춰 허구적으로 서사화함으로써 소설로 인식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강도몽유록>에 몇몇 史實과 부합되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를 교술로 보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조선전기 몽유록의 마지막 작품인 <달천몽유록>이 작품 외적 지식에 기대어 작품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강도몽유록>은 등장인물 및 사건에 있어 설혹 史實에 기반을 두었을지라도 작가의 의도에 의해 허구적으로 서사화됨으로써 작품외적 세계에 근거하지 않고도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몽유록의 서사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희조일사』의 편찬 양상과 서술 특성 :

『호산외기』·『이향견문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태식(서울시립대)

1. 서론

본고는 이경민(李慶民 : 1814~1883)이 편찬한 『희조일사(熙朝軼事)』(1866)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다른 전기집과는 차별되는 『희조일사』만의 특성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문학담당층이 중인층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은 시사(詩社)를 결성하여 자신들만의 창작물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기존의 저작물을 정리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결과 『소대풍요(昭代風謠)』, 『풍요삼선(風謠三選)』 등의 시선집과 『호산외기(壺山外記)』,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과 같은 전기집 등을 간행하게 된다. 『희조일사』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결과물의 하나로, 조희룡의 『호산외기』, 유재건의 『이향견문록』과 함께 편저자가 모두 중인층에 속한 인물이면서 수록된 인물 또한 주로 중인층이하의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조선 후기 3대 위향 전기집¹⁾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의 평가나 연구에 있어서는 다른 두 전기집에 비해 미진한 실정이다. 『호산외기』는 중인문학의 한 주체에 의한 18,9세기 중인문학의 사적 기록으로서²⁾, 조선후기 이래의 중인층의 문예와 문화적 활동의 전개, 발전을 반영하고 있다는³⁾ 평가를 받아오고 있으며, 『이향견문록』은 객관적 전달을 위주로 하여 문학적 효과는 감했으나 중세 윤리규범적 평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설 자리는 마련했다는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희조일사』에 대해서는 간략한 소개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평가에 있어서도 『호산외기』와 『이향견문록』의 내용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⁵⁾, 모두 편집되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⁶⁾ 정도에 머물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위

1)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429쪽.

2) 박희병, 「중인층 전기작가로서의 호산 조희룡」, 한길사, 1992, 439쪽.

3) 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255쪽.

4) 이지양, 「『이향견문록』을 통해 본 겸산 유재건의 의식」, 『성균여문연구』30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5, 161쪽.

5) 유영주, 「조선후기 여향인 전기집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5쪽.

상이 낮게 두어져 있으며, 『희조일사』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또한 몇 편 정도에 불과하다.

서강대 인문과학 연구소에서 영인본을 펴내면서 마련된 전미희의 「해제」가 『희조일사』의 전반적인 양상을 다룬 첫 연구물이라 할 수 있는데, 『희조일사』의 전반적인 양상을 다루면서 이를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켜 이경민의 편찬의식이 중인층의 위상 정립에 있다고 보았다⁷⁾ 이후 박종선이 번역을 통해 『희조일사』의 주제 고찰에 중점을 둔 학위논문을 발표하였고⁸⁾, 고인순은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편찬자의 의식을 알아보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⁹⁾, 원 저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작품을 통해 『희조일사』의 편찬의식을 살펴본다는 것은 편찬집의 특성상 온전한 이경민만의 편찬 의식으로 보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미희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이를 보다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른 중인층 작가의 저작물과는 차별되는 『희조일사』만의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통적 속성을 보이고 있는 다른 전기집과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호산외기』, 『이향견문록』과 관련해 편찬 양상 및 서술 특성을 살펴, 『희조일사』의 위상을 보다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보고자 한다.

2. 『희조일사』의 편찬 양상

이경민은 순조 14년(1814)에 태어나 고종 20년(1883)에 졸하였는데, 장지연이 편찬한 「대동시선」에 보면, 자가 원희, 호는 운강, 진우당의 현손이며 벼슬이 동지중추에 까지 올랐다고 되어 있으며, 집안이 가난하여 이조의 소리(小吏)가 되었고, 학문에 전념하여 공경, 귀인들로부터 고사로 대우 받았다는¹⁰⁾ 정도만 알려져 있다. 서문에는 병인년 중하로 되어 있고 발문에 “상지삼년 병인 계추”로 되어 있기에 조희룡이 졸한 해인 고종 3년(1866년)에 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상으로 『이향견문록』과는 4년의 거리가 있고, 『호산외기』와는 20여 년 정도 차이가 난다.

『호산외기』와 『이향견문록』이 필사본으로 전해진 것과는 달리 『희조일사』는 활판본으로 간행되었고, 필사본까지 유포되었기 때문에¹¹⁾ 상대적으로 널리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남병길의 서문이 앞머리에 있으며, 그 다음에 수록인물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초찰군서목록(抄撮群書目錄)」이라고 하여 각 작품에서 인용된 자료의 인용서목을 수록한 부분이 있고, 본문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다. 마지막에 윤정현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서문과 본문으로 된 『호산외기』나 서문과 의례, 본문으로 되어있는 『이향견문록』에 비해 구성에 보다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문은 당시 예조판서였던 남병길이 썼는데, 편찬 동기를 “중인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6) 이향순, 「『이향견문록』의 텍스트적 성격과 작가의식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4쪽.

7) 전미희, 「해제-희조일사」, 이경민, 『희조일사』,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90, 181~182쪽.

8) 박종선, 「『희조일사』 완역을 통한 내용고찰」,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109~116쪽.

9) 고인순, 「『희조일사』의 인물형상과 편찬의식」,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10) 전미희, 위의 글, 188~190쪽.

11) 위의 글, 192쪽.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져 있는 인물을 찾아 추가하는 데 있다”고 밝혀 놓았다.¹²⁾ 발문은 당시 지중추부사로 있던 윤정현이 썼는데 윤정현은 『방시한집』, 『해동외사』 등을 편찬하여 중인층 인물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윤행임의 아들이다. 그는 『희조일사』의 수록인물의 순서를 “이 책은 머리에 효우충의를 싣고 그 다음 문학, 서화, 금, 기, 의, 복, 탁절지여행을 마지막으로 하였다”¹³⁾라고 기술해 놓았다. 서문과 발문을 쓴 남병길과 윤정현은 중인층의 신분이 아닌 양반 사대부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호산외기』와 『이향견문록』이 가급적 양반 사대부 계층의 개입을 멀리하려고 애쓴 것에 비해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이다.

인용서목을 밝혀 놓고 있는 「초찰군서목록」에는 31편이 제시되고 있는데, 『공사건문록』을 제외하고는 『이향견문록』에서 인용한 서적들이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53편을 인용한 『이향견문록』에 비해 인물 수만큼이나 인용 서목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본문을 살펴보면 목록에 수록되지 못한 인용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총 8편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39편의 서적을 인용하고 있는 셈이다. 인용이 가장 많이 된 서적은 『호산외기』로 총 13편, 그 다음이 윤행임의 「석재고」 7편, 고시언의 「성재집」 7편, 장지완의 「비연상초」 6편, 「침우담초」 6편, 정래교의 「완암집」 5편, 홍량호의 「이계집」 4편, 신광순의 「위향쇄문」 4편, 유재건의 「겸산필기」 3편 순이다. 서문과 발문을 양반사대부가 쓴 것 이외에 양반 사대부에 해당하는 윤행임의 「석재고」에서 『호산외기』 다음으로 많은 인용 편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이향견문록』과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향견문록』이 인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야담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데 반해, 『희조일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 예로 홍차기와 강효원의 경우, 『이향견문록』에서는 그 인용서가 각각 『청구야담』과 『청구야사』로 되어있으나 『희조일사』에서는 홍양호의 『이계집』과 유재건의 『겸산필기』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수록된 인물을 제명으로 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향견문록』처럼 의례를 제시하여 이에 따라 구분된 인물을 차례대로 수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윤정현이 밝힌 순서에 의거하여 대체로 인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탁절지여행 앞에 수록된 6명의 인물은 문학서화금기의복에 해당하지 않은 인물들이다.

본문에는 상권 40편 40인, 하권 45편 55인의 총 85편 85인의 인물이 입전되어 있다. 『이향견문록』과 마찬가지로 작품말미에 인용 작품집을 밝혀놓았는데, 『이향견문록』에는 유재건의 저작인 「겸산필기」가 같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희조일사』에는 그가 직접 기술한 전 작품은 없이 모두 기존의 서적에서 인용한 작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입전 인물이 앞의 『호산외기』와 『이향견문록』과 겹치지만, 『호산외기』와 『이향견문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인물들도 다수 실려 있다.¹⁴⁾ 『희조일사』에만 실려 있는 인물은 총 8명인데 충의에 해당하는 인물이 4명, 문학 1명, 탁절지 여행 1명으로 충의에 해당하는 인물의 비중이 높다. 이경민이 무엇보다 중인층 이하의 인물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충의에 해당하는 인물을 발굴하는 데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12) 이경민, 『희조일사』, 1~2쪽.

13) “是書首載孝友忠義次及文學書畫琴棋醫卜以卓絕之女行終焉”(이경민, 『희조일사』, 171쪽.)

14) 「정육동(鄭六同)」, 「박의(朴義)」, 「김우석(金禹錫)」, 「이형익(李亨翼)」, 「안용복(安龍福)」, 「이최준(李最濬)」, 「정후교(鄭後僑)」, 「김홍원(金弘遠)」이 이에 해당한다.

입전인물을 발문에 기술된 순서에 따라 구분에 해보면 효우(孝友) 10명, 충의(忠義) 13명, 문학(文學) 30명, 서화(書畵) 9명, 의(醫) 3명, 기(碁) 2명, 금(琴) 1명, 복(卜) 1명,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10명이고 복에 해당하는 인물과 탁절지여행에 해당하는 인물 사이에 기타 인물로 10 명이 수록되어 있다. 다른 전기집에서는 지모와 신이한 능력을 보인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향견문록』과 마찬가지로 탁절지여행까지 포함하면 충과 효에 관련한 인물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문학, 서화 순이다. 이를 『호산외기』, 『이향견문록』에 수록된 인물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15)

『희조일사』	『이향견문록』	『호산외기』	비고
한순계	O	X	효우(孝友)
유희경	O	X	효우(孝友)
정운	O	X	효우(孝友)
김창국	O	X	효우(孝友)
박태성	O	O	효우(孝友)
홍차기	O	X	효우(孝友)
김중진	O	X	효우(孝友)
김익춘	O	X	효우(孝友)
윤명상	O	X	효우(孝友)
송규휘	O	X	효우(孝友)
백대봉	O	X	충의(忠義)
문기방	O	X	충의(忠義)
정육동	X	X	충의(忠義)
김충렬	O	X	충의(忠義)
박의	X	X	충의(忠義)
김우석	X	X	충의(忠義)
이형익	X	X	충의(忠義)
오효성	O	X	충의(忠義)
강효원	O	X	충의(忠義)
전만거	O	X	충의(忠義)
이진화	O	X	충의(忠義)
안용복	X	X	충의(忠義)
최노	O	X	충의(忠義)
홍세태	O	X	문학(文學)
고두표	O	X	문학(文學)
안광수	O	X	문학(文學)
임준원	O	X	문학(文學)
이득원	O	X	문학(文學)
고시언	O	X	문학(文學)
김만취	O	X	문학(文學)
정래교	O	X	문학(文學)

15) 수록인물의 순서는 『희조일사』의 목록에 따랐으며, ‘비고’의 내용은 윤정현의 발문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정민교	O	X	문학(文學)
정후교	X	X	문학(文學)
백운구	O	X	문학(文學)
한이형	O	X	문학(文學)
이몽리	O	X	문학(文學)
최천익	O	X	문학(文學)
박영석	O	O	문학(文學)
이최준	X	X	문학(文學)
김영	O	X	문학(文學)
석희박	O	X	문학(文學)
이연진	O	O	문학(文學)
이단전	O	O	문학(文學)
천수경	O	O	문학(文學)
김낙서	O	X	문학(文學)
장흔	O	O	문학(文學)
왕태	O	O	문학(文學)
조수삼	O	O	문학(文學)
정민수	O	X	문학(文學)
박윤목	O	O	문학(文學)
이지화	O	X	문학(文學)
김홍원	X	X	문학(文學)
정지운	O	X	문학(文學)
이수장	O	X	서화(書畵)
엄한봉	O	X	서화(書畵)
조광진	O	X	서화(書畵)
김명국	O	X	서화(書畵)
진재해	O	X	서화(書畵)
김홍도	O	O	서화(書畵)
최북	O	O	서화(書畵)
임희지	O	O	서화(書畵)
전기	O	O	서화(書畵)
백광현	O	X	의(醫)
조광일	O	X	의(醫)
이익성	O	O	의(醫)
유찬홍	O	X	기(碁)
김종귀	O	O	기(碁)
김성기	O	X	금(琴)
유운태	O	X	복(卜)
조생	O	O	기타(其他)
염시도	O	X	기타(其他)
김수평	O	O	기타(其他)
유세통	O	O	기타(其他)
신두병	O	O	기타(其他)
문김생원	O	X	기타(其他)

오효부	O	X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취매	O	X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안협효부	O	X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김가모	O	X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고절부	O	X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엄열부	O	O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하절부	O	X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이효녀	O	X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연흥	O	X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영동의부	O	X	탁절지여행(卓絶之女行)

『이향견문록』은 의례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덕행과 경술에 관련된 인물을 우선 수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효와 충, 영호와 준결, 정렬녀, 문학, 서화, 예술, 도가와 불가 순이다. 반면 『희조일사』는 유교의 가장 근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효와 충에 관련한 인물을 우선 수록하고 그 다음 문학과 서화에 관계된 인물을 담고 있다. 중국의 사서들은 물론이고 『고려사』 열전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 바로 충의, 효우, 방기(方技), 열녀인데,¹⁶⁾ 문학과 서화를 제하고 보면, 『희조일사』도 이와 비슷한 순서로 되어 있다.

『호산외기』에는 충에 관련된 인물은 실려 있지 않으며, 『이향견문록』에서도 효와 충의 인물 비율에서 효에 관련된 인물이 압도적이었으나 『희조일사』에 와서는 충에 관련한 인물이 압도적인 수를 점하고 있다. 기존의 전기집이 단순히 인간품성의 문제를 고려했다면 『희조일사』는 이의 외연을 넓혀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물 또한 동류계층의 인물들이 수행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인물과 관련한 인물의 경우, 다른 전기집에 실려 있는 인물들에 비해 서술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다.

게다가 『희조일사』의 발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향견문록』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을 추가한다는 것인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로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국익에 보탬이 된 인물이 입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조일사』에만 수록된 인물로는 정육동, 박익, 김우석, 이형익, 안용복, 김홍원, 등이 있는데 정육동은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치는 데 공헌한 인물이고, 박익은 병자호란 때 청의 장군을 쏘아 죽인 인물이며, 안용복은 울릉도가 일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처럼 『이향견문록』보다 후대에 간행된 전기집임에도 수록 인물의 수가 1/3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부족한 인물 유형이었던 충에 관련한 인물을 보강하고, 야담집에서는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그 체제를 기존 사서에 맞추어 마련했다는 점은 『호산외기』, 『이향견문록』과 차별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16) 강성난, 「고려사 열전의 분석적 고찰」, 『이화사학연구』, 이화여대 사학연구소, 1988, 275쪽.

3. 『희조일사』의 서술특성

『희조일사』는 『호산외기』보다 『이향견문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을 보면, 세 권의 전기집에 공통으로 수록된 작품은 총 20편인데¹⁷⁾, 이중 13편은 『호산외기』에서 인용해 놓았지만 나머지 7편은 『이향견문록』의 인용서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¹⁸⁾ 그러나 『이향견문록』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내용 전개상 불필요한 부분 등에 있어서는 이를 과감히 없앴으며, 대상 인물을 다루는 데 있어 『이향견문록』의 인용서와 함께 다른 서적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를 『호산외기』와 『이향견문록』에 공통으로 수록된 인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비현실적 일화의 삭제

전대의 전기집과 비교했을 때 『희조일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술상의 특성은 내용이 축약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향견문록』에서도 보이고 있지만¹⁹⁾, 『이향견문록』의 축약이 주로 논란부를 삭제하는 선에서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희조일사』에 와서는 그 양상이 작품 전반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차이를 지닌다. 논란부가 생략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적부의 내용에 있어서는 축약의 형태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호산외기』를 인용하고 있으면서, 『이향견문록』에서도 들어가 있는 작품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유세통」, 「임희지」, 「이익성」, 「이단전」, 「김홍도」, 「엄열부」, 「장훈」, 「왕태」, 「신두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세통」이 원본으로 하고 있는 『호산외기』에는 크게 네 가지 일화가 제시되고 있다. 1)몸가짐이 검소하고 장자의 기풍이 있었다는 것 2)평안도의 아전으로 있을 때 당시의 폐단을 고친 것, 3)부모상을 당했을 때 흑단령을 입게 한 것, 4)음란하고 사특한 글은 읽지 않고 경전만 읽었다는 것인데, 『희조일사』에는 이 중 3)과 4)만이 수록되어 있다. 「임희지」는 마지막 부분에 조희룡과 관련된 일화가 빠져있으며, 「이익성」도 마지막 부분에 원저자인 조희룡의 소견이 담겨 있는 부분에 삭제가 이루어졌다. 「이단전」은 마지막에 소개된 일화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가 한말들이만한 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다른 사람의 좋은 시구를 얻어 넣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소개된 다른 일화들이 주로 그의 시적 재능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은 그의 재능과는 거리가 있다 하겠다. 그 외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일화 중의 한 부분이 아예 없어지거나, 조희룡의 설명이 들어간 부분에서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작품 중에 축약의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신두병」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호산외기』에서는 그의 신이한 행적에 초점이 두어져 있던 작품이었으나, 『이향견문록』에서는 조희룡의 개인적인 평가라 할 수 있는 논란부가 생략

17) 「박태성」, 「박영석」, 「이언진」, 「이단전」, 「천수경」, 「장훈」, 「왕태」, 「조수삼」, 「박윤묵」, 「김홍도」, 「최복」, 「임희지」, 「전기」, 「이익성」, 「김종귀」, 「조생」, 「김수평」, 「유세통」, 「신두병」, 「엄열부」의 총 20 편이 이에 해당한다.

18) 「박태성」, 「이상조」, 「최복」, 「박영석」, 「조생」, 「장훈」, 「박윤묵」은 이향견문록에 인용한 서적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다.

19) 이향순, 앞의 글, 37쪽.

되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희조일사』에는 단순히 ‘이후의 종적은 알 수가 없다(竟不知所終)’ 정도로 간략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

- 1) 신두병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참동계』를 즐겨 읽었고, 승문원의 산원이 되어 서, 중국과의 외교문서는 모두 그가 살피고 관여하였다. 승문원에 일이 있으면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와서, 남들이 그의 집을 알 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물러가겠다고 말하였다. “홀로된 누님이 있었는데 부양할 길이 없어 녹봉을 구했었습니다. 이제 누님이 죽었으니 녹봉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드디어 옷을 털고 가버렸다. 일찍이 어떤 한 사람과 절친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나아가 작별하며 말하였다. “지금 나는 떠나오. 훗날 모년에 풍악산에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그 사람은 괴이쩍다고 의심하였는데, 그해가 되어 그 사람은 과연 풍악산을 유람하였다. 단발령에 이르렀는데 신두병이 패랭이를 쓰고 오는 것이었다. 덩불을 깔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사다 마시며 즐거움을 극진히 한 뒤에 갔다. 그 사람이 함께 유람하기를 요구하니, 신두병은 말하였다. “갈 곳이 있어서 감히 머무를 수가 없소. 모년 모월 모일에 마땅히 그대의 선산을 방문하겠소.” 그해가 되자 그 사람이 죽었다. 장사지내는 날에 신두병은 술 한 병을 갖고 와서 광중(壙中)을 내려다보며 한 바탕 통곡을 하고 가버렸다. 그 이후의 종적은 알 수 없다.²⁰⁾ - (강조 : 인용자)
- 2) 신두병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참동계』를 즐겨 읽었고, 승문원의 산원이 되어 서, 중국과의 외교문서는 모두 그가 살피고 관여하였다. 승문원에 일이 있으면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와서, 남들이 그의 집을 알 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물러가겠다고 말하였다. “홀로된 누님이 있었는데 부양할 길이 없어 녹봉을 구했었습니다. 이제 누님이 죽었으니 녹봉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드디어 옷을 털고 가버렸다. 그 이후의 종적은 알 수 없다.²¹⁾

1)은 『호산외기』에서 신두병의 면모를 보여주는 행적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누이만을 생각했던 신두병의 품성과 그가 지니고 있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조된 곳은 그가 지닌 신이한 능력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이후 조희룡의 논찬부가 나오는데 『이향견문록』에서는 논찬부가 생략되고 1)만이 인용되어 있다. 『희조일사』의 「신두병」에서는 논찬부와 함께 2)에서 보듯 그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을 삭제하여 놓았다. 결과적으로 원작이 가지고 있던 신두병의 이인적인 풍모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신두병을 참 모습을 밝히고자 주력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삭제된 부분이 원 저자가 직접 견문을 통해 나타낸 것이 아니라 허구적인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향견문록』에서 취한 인용서를 그대로 수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박태성」, 「이상조」, 「최복」, 「조생」, 「장훈」이 있는데, 이 중 「박태성」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청담의 농민인 손씨 형제 세 명이 묘제를 지내고 햇별을 찢며 잠이 들었다. 꿈에 머리가 하얀 어른이 “일어나거라, 박효자의 곁에 사람이 없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며, 지팡이로 그들의 등을 쳤다. 깨어나보니 등이 은은히 아픈 듯하였다. 세 사람이 그들의 꿈을 말

20) 申斗柄不知何許人好讀參同契爲承文院散員事大文字皆照管院有事不待報而必先至不使人知其所居如是幾年忽投狀告歸曰有寡姊無以養所以干祿今姊沒矣何用祿爲遂拂衣而去嘗與一人友善詣其人別曰今吾去矣後某年可相逢於楓嶽其人疑其誕至是年其人果遊楓岳至斷髮嶺斗柄載涼笠來班荊道舊沽酒盡歡而去其人要與偕遊曰有去處不敢留矣某年某月某日當相訪於君之先壟至其年其人沒歸葬之日斗柄携一壺酒來臨壙一痛而去竟不知所終(『이향견문록·호산외기』, 아세아문화사, 1974, 74쪽.)

21) 申斗柄不知何許人好讀參同契爲承文院散員事大文字皆照管院有事不待報而必先至不使人知其所居如是幾年忽投狀告歸曰有寡姊無以養所以干祿今姊沒矣何用祿爲遂拂衣而去竟不知所終(『희조일사』, 148쪽.)

하니 한결같았다. 급히 포복해 가서 보니, 태성은 막 아침밥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²²⁾

위의 인용문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향견문록』에는 있던 부분이나 『희조일사』에 수록되면서 사라진 부분이다. 박태성의 근처에 살던 손씨 삼형제 모두 박태성을 보호하라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비현실적인 내용이며, 이 부분이 없더라도 박태성의 면모를 드러내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희조일사』에서는 기본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의 생략뿐만 아니라, 원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생략하는 것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 주관적인 가치 평가의 지양

『희조일사』에 수록되면서 오히려 내용이 확대된 작품도 있다. 『호산외기』와 『이향견문록』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작품에서는 「박영석」과 「천수경」이 해당되며, 『이향견문록』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이수장」, 「엄한봉」, 「이몽리」, 「홍차기」, 「김익춘」, 「강효원」, 「백대봉」, 「김성기」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박영석」, 「천수경」, 「이수장」은 『이향견문록』에서 인용한 작품 외에 다른 작품을 함께 수록한 경우에 해당하고, 「엄한봉」, 「이몽리」, 「홍차기」, 「김익춘」, 「강효원」, 「백대봉」, 「김성기」는 『이향견문록』과는 다른 작품을 인용하여 내용이 확대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천수경」과 「이수장」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천수경」은 『호산외기』와 함께 『침우담초』를 함께 인용해 놓았다. 『침우담초』의 내용은 단순히 인물의 행적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 송석원이 만들어진 배경을 통해 천수경의 이야기를 부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송석원은 옥류동에 있다. 처음 세울 때는 초옥 몇 간이었다. 석벽 위에 추사 김시량의 글씨로 송석원 세 자를 세기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었다. 객들이 그 곁에 표제를 달아 이르길, “돌은 부족함이 없는데 돈은 어찌 여유가 없는가” 하였다. 추사가 이를 보고 금액의 손해를 보면서도 새겨 주었다. 한사로 글방 선생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많았지만 송석원의 성대함만은 감지 못했다. 송석(천수경)은 처음엔 가난하여 노모를 봉양할 수 없었다. 마을의 어린 아이들을 모아 가르쳐서 한달 비용의 계책을 삼았다. (중략)
천수경, 장흔, 왕태가 송석원에 모임을 인도하니 모이는 자가 수백이었다.²³⁾

『침우담초』에서 인용한 위 내용은 시작부터 전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용서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송석원 및 천수경과 관련한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천수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다 다른 서술이 존재한다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보다는 비록 형식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 입전 인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이수장」에서도 확인된다.

1) 그는 공력을 들이는 것이 전일하였고 조예가 극진하였는데 큰 글씨, 작은 글씨, 해서,

22) 靑潭野民孫氏兄三弟人祭播抱陽而眠夢幡然大人曰起起毋令無人乎朴孝子側以杖叩其背覺則猶隱隱痛也三人者語其夢如一匍匐趨視之孝子始得養也 (『이향견문록』, 56쪽)

23) 松石園在玉流洞始立草屋數間石壁上秋史金侍郎書松石園三字欲刻之無金客有題其傍日石非不足金豈有餘秋史見之乃捐金刻之寒士之以塾師爲生者多矣未有如松石之盛松石始貧無以養老母也集里中小兒教之計一月之費(中略)千壽慶張混王太倡社於松石園會者數百人 (『희조일사』, 56쪽).

행서가 드디어 진(晉)나라 영화 년간의 필법에 빙진하였다. 그가 임모한 「난정첩」, 「성교서」 등의 필법은 진본에 비교하여 터럭만큼도 못할 것이 없어 보는 이가 거의 그 진가를 분별할 수 없었다. (중략)

필법에 있어서의 진(晉)은 시에 있어서의 당(唐)과 같아 단연 천고의 절조다. 진실로 하늘이 그 고금을 나우었기에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고려 이래로 수천 년동안 명가의 글씨가 시대마다 나와서 각기 행촌이 되고 비해, 청송, 고산, 봉래가 되고 석봉이 되었으나 홀로 진체를 이룩한 사람은 극히 적다. 이 어찌 그것이 어렵다고 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간혹 글씨를 배운다 하던 자가 겨우 두서넛 있었으나 오직 김생만이 그 필세를 얻었을 뿐이다. 나머지는 다 스스로 좋아하였을 뿐 따질 만한 자가 없다. 이와 같이 진체를 배우는 일은 어려운 것이다.²⁴⁾

- 2) 이수장이 일찍이 숙종조에 궁중으로 불러 들어가 명으로 어제시 8장을 썼고, 또 명하여 김임종의 왕첩을 써서 매번 올리니 임금이 그것을 보고 칭찬이 끊이지 않았으며 술자리를 베풀어 후하게 대접하였다. 기축년에 청나라 사신 연경요가 우리나라의 잘 쓴 글씨를 보고자 하니 조정에서는 이수장의 글씨를 보여주었다. 경요가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길 그대의 서법은 가지런하고 힘이 있어 동국제일이다하며 스스로 양심론을 배껴 그에게 주었다. (중략)

신묘년에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들어갔다. 일본인들이 비단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수장의 신묘한 글씨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날마다 수천인이었다.²⁵⁾

1)은 『성재집』에 실려 있는 이수장에 관한 내용 중 일부이고, 2)는 「나한이시랑찬」에서 인용한 내용 중 일부이다. 『이향견문록』에는 1)의 내용만 실려 있는 데 반해, 『희조일사』에는 1)과 2)가 모두 실려 있다. 1)의 내용은 원 저자의 감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2)는 일화의 나열식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희조일사』에서 1)만 실지 않고 2)도 함께 실어 놓은 까닭은 「천수경」에서 보여주었던 의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 작가 중에 자료에만 의존하여 쓰는 작가들의 경우는 타인의 기록들을 사용하여 해당인물의 전모를 그려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타인의 기록들이 서로 모순되고, 개인적인 관점에 의해 윤색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입전 인물에 대한 가장 참다운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이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²⁶⁾ 이처럼 『희조일사』에서는 원전이 가지는 입전인물에 대한 편향된 시각, 또는 감상이 지나쳐 해당 인물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불러 올 소지가 다분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작품을 함께 실어 놓아 입전인물의 참다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입전인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할애하여 편집을 하였다는 것 또한 『희조일사』만이 가지는 서술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4) 其用功專而造詣至大小楷行遂遍永和臨摸蘭亭聖教等諸帖與眞本毫髮不爽觀者殆不能辨其眞假 (中略) 筆之晉猶詩之唐斷爲千古絕調因天所以限古今而非人力之可到我東自羅麗以來歷數千年名書家代出各自爲杏村匪懈聽松孤山蓬萊石峰而獨爲晉者絕少豈非以憚其難而不爲之歟間有名爲學者僅數人唯金生獨得逾勁而餘皆自檜無識若是乎學晉之難也(『희조일사』, 109~110쪽)

25) 李君壽長曾於肅宗朝召入禁中命書御製詩八章又命以泥金臨鍾王帖每書進上見之嘉獎不已宣醞而厚賚之己丑清使年羹堯要見東方善書者朝廷以君應羹堯見書大悅曰君之書法勾整有力可謂東國第一手自寫所製養心論贈之 (中略) 辛卯從通信使入日本日本人携絹牋丐君墨妙者日累數千人 (위의 책, 111쪽.)

26) 레온 에델,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 -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 삼영사, 1983. 48~50쪽.

4. 결론

이제까지 『희조일사』의 편찬 양상과 수록된 작품을 『호산외기』, 『이향견문록』과의 비교를 통해 서술 특성을 고찰해 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희조일사』는 남병길의 서문, 수록인물의 목록, 인용된 자료의 인용서목을 수록한 부분이 있고, 본문은 상하로 구분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윤정현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서문과 본문으로 된 『호산외기』나 서문과 의례, 본문으로 되어있는 『이향견문록』에 비해 구성에 보다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입전인물의 수록 순서가 효와 충에 관련된 인물을 앞에 두고 그 다음 문학, 서화 순으로 기존 사서에 순서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충에 관련된 인물을 보강하고, 작품을 수록할 시에는 야담집에서는 인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 또한 체재 면에 있어서 『호산외기』, 『이향견문록』과 차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세 권의 전기집에 모두 수록된 인물을 중심으로 『희조일사』만의 서술 특성을 찾아 본 결과, 원 저작이 가지고 있는 기본 내용을 가급적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주로 부분적인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생략하는 것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원전이 가지는 입전 인물에 대한 편향된 시각, 또는 감상이 지나쳐 해당 인물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불러 올 소지가 다분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작품을 함께 실어 놓아 입전인물의 참다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입전인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할애하여 편집을 하였다는 것 또한 『희조일사』만의 서술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처럼 『희조일사』는 앞선 전기집들을 비판적으로 적극 계승하면서, 오늘날 전기 작가들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인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도록 엄밀한 기준을 두어 역사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중인층 전기집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대로 들어서는 초입에 간행된 『일사유사』의 서문에서 참조한 인용서목을 나열하는 부분에²⁷⁾ 『희조일사』를 맨머리에 둔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향견문록·호산외기』, 아세아문화사, 1974.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연구회 譯, 『里鄉見聞錄』, 글항아리, 2008.

이경민, 『희조일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0.

장지연, 「일사유사」,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장지연전서』2, 1979.

강성난, 「고려사 열전의 분석적 고찰」, 『이화사학연구』, 이화여대 사학연구소, 1988.

고인순, 「“희조일사”의 인물형상과 편찬의식」,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레온 에델,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 -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 삼영사, 1983.

27) “희조일사, 침우담초, 추재기이, 위향쇄문 어우야담 진조속기 호산외기 영엽기, 검산필기 송양지 및 기타 선배의 문집을 고증하고 채록하여 수년간 여섯 권을 편집하여 이에 일사유사라 이름하고...”(장지연, 「일사유사」,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장지연전서』2, 1979.)

- 박종선, 「“희조일사” 완역을 통한 내용 고찰」,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희병, 『韓國古典人物傳研究』, 한길사, 1992.
- 유영주, 「조선후기 여향인 전기집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1999.
- 이경민, 『희조일사』,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0.
- 이지양, 「‘이향견문록’을 통해 본 겸산 유재건의 의식」, 『성균어문연구』30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5.
- 이향순, 「‘이향견문록’의 텍스트적 성격과 작가의식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고려속요의 樂章적 성격 고찰 :

〈쌍화점〉을 중심으로

김지은(상지대학교 강사)

1. 서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통해 <쌍화점>을 바라보는 시각은 ‘음사’ 내지 ‘남녀상열지사’로 고정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잣대로 평가 절하된 것이며 이에 따른 논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쌍화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려속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학 작품의 의미를 편향된 시각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음사’ 이외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쌍화점>이 궁중 음악으로 사용되었다는 단서를 바탕으로 ‘음사’ 이외의 악장적 성격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쌍화점>이 유행했던 충렬왕대의 사회·정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의의 출발은 이러한 음탕한 노래가 어떻게 고려의 궁중 음악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조의 악장으로 흡수·사용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받은 고려속요를 전격적으로 폐지하지 않고 조선시대 악장으로까지 수용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음사’ 이외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지는 않은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고려가요를 남녀상열지사나 이별에 대한 정한으로 그 문학적 의미를 한정짓는 것은 고려시대 시가 문학연구에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일제의 식민사관이 조장한 恨 이라는 패배적 좌절적 속성을 신봉하는 것도 문제이다. 고려가요가 민요에서부터 궁중악으로 상승한 것이기에 민중적이고, 민중은 늘 지배층에 억눌리다보니 이별·고통·가난에 시달리는 삶 속에서 恨의 문학을 창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없다. 고려가요를 한과 결부된 센티멘탈리즘으로 보는 도식성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 시가 연구의 한 과제이다.¹⁾ 漢樂府詩는 애수를 많이 담고 있지만 中國文學史는 그것을 중국문학의 특성·기본정조로 치부하지는 않는다. 악부시나 고려

1) 허남춘, 「動動과 禮樂사상」, 『고려가요연구의 현황과 전망』,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편, 집문당, 1996, 335쪽.

가요는 궁중 樂章으로서의 공통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美論(예악사상의) 입장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²⁾

2. 고려속요의 樂章³⁾적 성격

樂章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견해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악장의 개념이 복잡한 까닭은 용도, 내용, 시대, 표기 등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논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악장이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궁중음악에 얹어 가창되었던 노랫말’이라는 사실에 이의가 없다면⁴⁾ 궁중 음악으로 불렸던 고려속요를 악장적 성격으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고려시인들이 대부분 宮中에서 공연되었다는 점이다. 이 노래들이 『樂學軌範』에 실려 있는 모습은 宮中音樂으로서의 그것이며 이것이 실려 있는 또 다른 문헌인 『樂章歌詞』나 『時用鄉樂譜』는 궁중음악을 정리한 官撰이었으리라는 것이 마땅한 推定이다.⁵⁾

남녀간의 애정을 주제로 한 詩歌에 있어서 그 표층과 심층이 일치하는 노래도 있겠지만 그 이면적 주제에 있어 사랑하는 ‘임’을 임금이나 혹은 다른 대상으로 얼마든지 치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의 여타 시조나 가사 작품들에서도 ‘연군지정’을 노래함에 있어 임금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표현하는 작품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시가가 가지는 함의성, 다의성은 고려시가에 오로지 戀慕의 대상인 ‘임’으로만 묶여있던 굴레를 풀어낼 수 있다고 본다.

고려가요의 ‘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님’만의 표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의미가 ‘사랑과 이별·고독과 그리움’이라는 도식적 답을 얻게 되고 고전시가가 가질 수 있는 함의를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님’의 표상은 ‘임금’으로도, 절대적인 존재인 ‘하느님’, 혹은 ‘神’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宮中樂으로 쓰인 노래에 대해서는 宮中讚歌로서의 속성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⁶⁾

2) 최진원, 「고려가요 연구의 현황과 전망」, 『高麗歌謠研究의 現況과 展望』, 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編, 집문당, 1996, 19쪽.

3) ‘樂章’이란 말은 원래 왕실에서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에 쓰이는 노래 가사를 두고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왕실의 국가적 행사로서는 대표적 의례에 해당하는 祭禮樂(제향)과 會禮樂(연향)에서 王業을 찬양하고 송축할 목적으로 만든 노래 가사를 주로 ‘악장’이라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12세기에 송나라로부터 아악을 처음 도입하여 왕실음악을 雅樂·唐樂·鄉樂의 체제로 새로이 재정립하면서 송나라의 악제를 본받아 악장의 창작이 빈번했고, 몽고의 침입으로 문란해진 왕실음악의 체제를 14세기 공민왕 때 다시 정비하면서 새로운 악장이 많이 창작되었다. 특히 조선 초기에는 왕조의 교체로 인한 왕실음악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해짐에 따라 태조에서 세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악장의 창작이 이루어졌고,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필요에 따라 새로운 악장의 창작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 따라서 ‘악장’이라는 말은 고려 중기부터 조선의 모든 시기에 걸쳐 왕실의 국가적 행사에 쓸 목적으로 만든 송축적인 노래 가사이면 어느 시기의 노래이건 두루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었던 것이다.....따라서 예로부터 우리 선인들이 써 온 일반 명칭으로서의 ‘악장’과 근대적 한국문학의 체계화를 위해 조선 초기의 특정 작품군에 주목하여 붙인 장르 명칭으로서의 ‘악장’은 개념이 같지 않다. ‘향가’라는 명칭이 그러하듯 ‘악장’ 또한 종래에 사용하던 이름을 가져와서 조선 초기의 특정한 작품군을 일컫는 이름으로 개념적 전치를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르 명칭이다. (성기옥·손종흠, 『고전시가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6, 214쪽~217쪽 참조.)

4) 양태순, 「고려시대의 악과 악장」, 『한국고전시가의 종합적 고찰』, 민속원, 2003, 276쪽.

5) 金大幸, 「高麗詩歌의 文學的 性格」, 『高麗歌謠研究의 現況과 展望』, 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編, 집문당, 1996, 38쪽.

6) 허남춘, 「動動과 禮樂사상」, 『高麗歌謠研究의 現況과 展望』, 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編, 집문당, 1996, 352쪽.

여기서 現傳 고려가요의 대부분이 넓은 의미에서의 樂章이라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악장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性情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성정에 부합한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한다는 것이고 이에 기반을 둔 노래가 악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궁중의례, 넓게는 의례 일반에서 불려졌다는 것은 당연히 의례에 적합하도록 짜임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점인데 율격의 정형성, <鄭石歌>類의 표현수법-불가능의 가능성 추구-, 反復의 양상, 후렴과 여음의 실현, 언어의 統一性·單純性·事實性 등등은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양식화이며 樣式化의 秩序다.⁷⁾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님은 보편적인 님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주체적인 님으로 전환되며 궁중악에 수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즉 想思를 주제로 하는 노래는 그 성격상 翫사리 忠臣戀主之詞로 전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⁸⁾

3. <쌍화점>의 재해석

3.1. 忠烈王代 시대 배경과 정치 세력

어느 시대의 문학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문학이 탄생된 그 시대의 사회·역사적 특성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작품 출현은 그 시대 문학의 전 체험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는 당연히 한 시대의 의식을 통하여 수렴된 기원과 소망, 사건 등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투영되어 작품의 어딘가에 나타나게 된다.⁹⁾ 고려시가는 예술적 지향이었는데 그것이 조선조의 공리적 지향과 맞닥뜨리면 서 어쩔 수 없이 비판의 적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문학관은 결국 그 시대 삶을 지배했던 세계관과 깊은 관련을 가질 것이다. 어떤 역사학자가 “고려시대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조선조 사회를 보는 잣대로 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¹⁰⁾고 한 것처럼 고려속요를 고려시대의 사회상과 밀착시켜 해석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고려속요들은 대개 고려후기에 생성된 것이며, 이 중에서는 민요에서 악장으로 승화된 것이 많으므로 이 노래들의 형성배경을 고려의 사회역사적 상황과 관련시켜 고찰해 볼 수 있다.¹¹⁾ 남녀상열지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쌍화점>은 <만전춘별사>와 더불어 충렬왕대에 유행한 노래였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작품의 의미는 작품이 창작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해석해야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정치·사회사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고려후기 사회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가 元의 부마국이 된 후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충렬왕대에 대한 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4대 원종과 원의 부마가 된 25대 충렬왕대 이후 공민왕까지 약 80년간은 고려가 원

7) 趙萬鎬, 「고려가요의 情調와 樂章으로서의 성격」, 『高麗歌謠研究의 現況과 展望』, 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編, 집문당, 1996, 133쪽~134쪽 참조.

8) 김명호, 「고려가요의 전반적 성격」, 『白影 鄭炳昱 先生 華甲紀念論叢』, 신구문화사, 1982, 335쪽.

9) 김쾌덕, 『고려노래속가의 사회배경적연구』, 국학자료원, 2001, 49쪽.

10) 金大幸, 앞의 논문(1996), 36쪽.

11) 김쾌덕, 위의 책, 15쪽.

의 복속국으로 전락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이다. 고려는 자주성을 거의 상실하고 국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특히 충렬왕은 元의 사위가 되었던 인물로 한 나라의 국왕이지만 심한 내정간섭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펼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였다. 원과 고려와의 관계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갈등 관계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君臣관계에 있어서는 충렬왕과 충선왕을 따르는 무리들 간의 갈등이 충렬왕에게는 또 하나의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생각된다.

오랜 몽고와의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천을 복구하는 일도 충렬왕의 몫이요 안정된 정치권을 형성하는 것도 충렬왕의 당면과제였다. 여기에 원의 간섭을 받는 현실을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事大만이 아니라 고려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¹²⁾ 따라서 충렬왕은 즉위와 함께 왕권 강화정책을 통한 자신의 세력기반으로서 측근세력을 형성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충렬왕이 왕권강화를 지향한 것은 원종 폐위에 따른 위기감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在元活動과 태자시절 入元活動 등을 통해 볼 때 왕권강화가 말로 원의 간섭으로부터 그나마 고려의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인식했을 것이다.¹³⁾

이러한 혼재된 갈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충렬왕이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충렬왕을 오로지 가무와 여색에만 빠져있던 퇴폐적인 성향이 강한 풍류아로 규정지어 평가하는 것은 <쌍화점>의 해석의 틀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없다. 충렬왕의 이러한 면모는 아마도 원의 감시와 통제를 따돌리려는 하나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볼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렬왕은 실추된 자존심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을 것이다.

戊子日, 왕이 재상들을 불러서 접견하고 말하기를, “에로부터 어진 임금은 반드시 충성있고 선량한 신하들에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능히 태평치세를 이루었으니 우리 국가의 평안하고 위태로움이 오직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만일 말할 일이 있거든 잠자코 있지 말아야 한다.”¹⁴⁾

이것은 선량한 신하들에게 의지하여 태평치세를 하고자 한 충렬왕의 과제와 숨은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기도 하다.

충렬왕대의 정치형태를 측근정치로 규정할 때, 이 시기 충렬왕과 충선왕 사이의 왕권 경쟁은 이러한 측근 정치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¹⁵⁾ 국왕을 정점으로 상하관계를 유지하면서 결속을 보이던 충렬왕 측근세력은 충선왕의 집권과정에서 그 내부적 갈등이 표면화되어 구체적으로 분열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충선왕 집권과정에서 충렬왕 측근세력은 충선왕에 의해 직접 숙청당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측근세력에서 이탈하여 충선왕 지지 세력으로 변심한 부류가 있었고, 또는 측근세력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력화되거나 사거함으로써 측근세력에서 제외된 부류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므로 충선왕 집권과정에서 충렬왕의 측근 세력은 타격을 입어 그 규모나 역할이 상당한 정도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¹⁶⁾

12) 邊銀淑, 「高麗 忠烈王代 政治勢力的 形成배경」, 『명지사론』11집, 명지사학회, 2000, 230쪽.

13) 金光哲, 「원간섭기 왕권과 세족」, 『高麗後期 世族層研究』,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1.

14) 『高麗史』권28, 世家 忠烈王 즉위년 9월 戊子條.

15) 金廣植, 「충렬왕대 측근세력의 분화와 그 정치적 귀결」, 『考古歷史學志』9집,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3, 292쪽.

충렬왕파	충선왕파
측근세력 권의 염승익(무력화) 이정(무력화) 박의(무력화) 최세연(충선왕에 의해 제거) 김인경(충선왕에 의해 제거) 도성기(충선왕에 의해 제거) 조인규(변절) 류청신(변절) 인후(변절) 원경(변절)	조정관료 조인규(변절)-삿기광대? 류청신(변절)-삿기광대? 인후(변절)-삿기광대? 원경(변절)-삿기광대?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충선왕이 집권하면서 충렬왕의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형성되었던 측근세력들은 거의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최세연, 김인경이나 도성기처럼 충선왕에 의해 직접 제거되거나 원경, 염승익 등과 같이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충렬왕에게 있어서 변절자만큼은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충선왕의 정치 행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원에 의해 충선왕이 강제소환을 당함으로써 충렬왕은 다시 왕권에 복위하게 된다. 충렬왕은 다시 예전처럼 왕권강화책으로 측근정치를 시도하는데 주요세력 가운데 <쌍화점>의 작자 혹은 개작자로 떠오른 오잠과 그 일행인 석천보, 석천경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충렬왕 복위 후의 측근세력>¹⁷⁾

번호	이름	출신 및 가계	주요경력	특기사항
19	吳潛	부 : ?(찬성사) 조 : 光?(대장군)	지신사 지도첨의사 밀직사	충선왕비 개가운동을 벌이다가 충렬왕 29년에 원에 체포 압송됨.
25	石天補	내료		천도를 도모했다는 혐의로 원에 압송됨. 개가운동에 참여로 가산몰수.
26	石天卿	내료		"

어쨌든 이로부터 충렬왕 측근세력과 충선왕을 지지하는 관료들의 대립이 본격화되었으며 원으로서의 이러한 대립을 이용하여 충렬왕을 견제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고려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충렬왕은 이전의 측근정치를 다시 시도하지만 충렬왕의 이러한 의도는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다. 충선왕을 지지하던 관료들의 충렬왕의 측근정치에 대한 반발과 함께 元은 성종이 즉위한 뒤, 사신을 파견하거나 정동행성을 강화하여 내정간섭을 강화하여 충렬왕의 왕권을 제한하였다.¹⁸⁾ 이러한 충렬왕대의 복잡한 정치사적 상황을 작품과 별개로 보지 않고 <쌍화점>을 재해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삼고자 한다.

16) -----, 위의 논문(1993), 302쪽 참조.

17) 김광철, 『高麗後期 世族層研究』,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1. 부록 <家系圖>에서 고려숙요 <쌍화점>의 작자로 알려져 있는 오잠과 그 일행인 석천보, 석천경에 관한 부분만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8) 이익주, 「충선왕 즉위년(1298) '개혁정치'의 성격-간제개편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제7집, 한국역사연구회, 1992, 139~141쪽 참조.

3.2. <쌍화점>의 심층적 의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렬왕에게 있어서는 원종 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측근 세력들이 충선왕파로 변절하는 수모와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 신뢰할만한 측근 세력 구축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측근 세력 중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과 충선왕파와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무리가 또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고 견제하였을 것이다. 만약 충렬왕에게 있어 충신인 오잠이 이 노래를 만들었다면 그 노래는 충렬왕의 聲色을 만족시키는 단순한 차원의 노래가 아니라 그 안에는 깊은 함의가 담겨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가설을 세워보고자 한다.

이렇듯 음사로 잘 알려진 <쌍화점>이 『高麗史』 <樂志>를 비롯하여 『樂章歌詞』에 실렸다는 사실은 당시의 원나라와의 비정상적인 지배와 감시 때문에 저속한 노래로 위장·포장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당시 원나라의 내정간섭과 감시 속에서 왕과 고려의 솔직한 심중을 맘껏 드러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다. 즉 원나라를 속이기 위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설로 가득하게 포장을 해놓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의미는 충렬왕의 자주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쌍화점>에는 외교적 언사 - 비밀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전제 하에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쌍화점>의 노래 가사가 민요였을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향유자와 가창자가 전혀 다른 樂章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들 계층에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이다.¹⁹⁾ 특히 왕으로 해석되는 우뭇용의 정체를 통해 왕의 퇴폐함을 노래로 담아 그 당사자인 왕 앞에서 부르며 왕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음은 노래의 1연 부분을 살펴보자.

(여성화자A)
쌍화점에 쌍화사려 가고신디
회회아비 내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숨미 이 점밭기 나명들명
다로려거디려
췌고맛감 샷기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둥성 다리러디려 다리러디려 다로려거디려 다로려

(여성화자B)
괴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여성화자A)
위 위 다로려 거디려 다로려
괴 잔디 7티 덮거츠니 업다

<쌍화점>의 내용은 익히 알려진 대로 1연부터 4연까지 같은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시적화자는 모두 두 명이다. 노래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주된 시적 화자인 여성 화자A와, 여성 화자A가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여성 화자B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여성 화자A로부터 입단속의 협박을 받고 있는 샷기 광대라는 존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회아비, 삼장사의 寺主, 우물가의 용, 술집아비까지 이들은 모두 시적화자인 여성A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19) 김쾌덕, 앞의 책, 311쪽.

그동안 주로 회화아비는 외국인(원의 세력), 사주는 지배계층, 혹은 불교계의 타락상을 나타냈으며, 용은 임금을 상징하였다. 또한 <쌍화점>은 등장하는 술집아비를 상인계층으로 상징하여 각 계층을 통한 고려사회의 전반적인 타락함에 대한 풍자와 이에 성적 착취를 당한 고려 여성의 자탄의 노래로 알려져 왔다. 거기에 여성화자B는 덩달아 그러한 자리를 부러워하며 ‘나도 자러 가고 싶다’고 하면서 음사의 노래로 해석되는 데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각각의 인물이 상징하는 바는 당시 사회의 각계각층이 너나할 것 없이 부패했음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회화아비, 삼장사의 寺主, 우물가의 용, 술집아비 이들 횡포의 공통점은 평등하게 이루어진 애정의 관계가 아닌 무리한 요구와 협박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사실이다. 이는 모두 원나라의 무리한 협박과 조공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과 대상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여 반복하는 구조는 필요이상의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원나라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다. 이는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횡포에 가까운 것이며 당시 고려와 조정의 입장에서는 여성화자A와 별다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노래에 나타난 여성화자A는 고려, 혹은 고려조정 내지는 충렬왕을 상징한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과 여성화자 A는 서로 동등하지 못한 입장에서 애정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여성입장에서 본다면 참기 힘든 굴욕적 사건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서술하고 객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침략과 내정간섭으로 인한 감정 상태의 표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화자 A는 자신의 경험한 일을 진술하면서 샷기 광대라는 존재에게 이 말을 소문내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시킨다. 샷기 광대라는 존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충렬왕과 충선왕과 사이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무리들을 상징한다. 조인규, 류청신, 이후, 원경과 같은 변절자들일수도 있다. 원은 충렬왕과 충선왕 사이에서 자신들이 고려를 쉽게 지배할 수 있도록 두 왕의 사이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사이에서 긴밀한 정보를 빼내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이들을 바로 샷기 광대로 폄하해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화자 B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바로 이 노래가 忠臣戀主之詞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은 충렬왕 곁에서 충렬왕의 보위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측근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평등하고 모욕적인 자리에 ‘나도 자러 가겠다’는 것은 임금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충신의 언사로 해석해 봄직하다. 여성 화자A의 마지막 진술인 ‘그 잔디 7티 덮거츠니 업다’라는 부분은 <쌍화점>의 모든 시상을 집약하는 대목이다. 그렇게 불평등하고 더러운 외교만한 것이 없으니 나 혼자 감당하겠다는 충렬왕의 임금으로서의 군주다운 면모를 나타내며 찬양하는 頌禱적 성격이 드러난다. 이 노래에 대한 지은이 혹은 개작자를 김원상, 오잠 등으로 보고 이러한 노래를 지어 충렬왕에게 바쳤다면 당연히 충렬왕 입장에서는 흡족해했을 것이다. 결국 음사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쌍화점>은 긴장성 있는 작품으로 君臣관계를 회복하고 충성을 다짐·확인 받으면서 원나라에 대한 대응관계를 회복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충렬왕의 숨은 노력과 의지를 찬양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쌍화점>은 왕의 군주다운 면모를 찬양함에 있어 악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신하들의 충정을 다짐하고자 하는 연군지정의 내용까지 아우를 수 있는 노래이다.

이러한 이유로 <쌍화점>을 단순히 음사라고 폄하하기엔 그 긴장도와 울림이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쌍화점>은 음사로 보이는 외형 속에 악장적 성격과 더불어 연군가적 내용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쌍화점>을 단순히 음사 내지는 남녀상열지사로 간주하여 폄하하기에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노래를 단순히 남녀상열지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정치사와 결부시켜 <쌍화점>을 새롭게 보고자 한 점에 이 글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광철, 『高麗後期 世族層研究』,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1.
- 김명준, 『악장가사연구』, 도서출판다운샘, 2004.
- 김쾌덕, 『고려노래속가의 사회배경적연구』, 국학자료원, 2001.
- 박노준, 『高麗歌謠의 研究』, 새문사, 1995.
- 성기옥·손종흠, 『고전시가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6.
- 최철, 『고려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출판부, 1996.
- 金光哲, 「원간섭기 왕권과 세족」, 『高麗後期 世族層研究』, 동아대학교 출판부, 1991.
- 김광철, 「충렬왕대 측근세력의 분화와 그 정치적 귀결」, 『考古歷史學志』9집,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3.
- 金大幸, 「高麗詩歌의 文學的 性格」, 『高麗歌謠研究의 現況과 展望』, 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編, 집문당, 1996.
- 김명호, 「고려가요의 전반적 성격」, 『白影 鄭炳昱 先生 華甲紀念論叢』, 신구문화사, 1982.
- 邊銀淑, 「高麗 忠烈王代 政治勢力의 형성배경」, 『명지사론』11집, 명지사학회, 2000.
- 양태순, 「고려시대의 악과 악장」, 『한국고전시가의 종합적 고찰』, 민속원, 2003.
- 이익주, 「충선왕 즉위년(1298) ‘개혁정치’의 성격-간제개편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제7집, 한국역사연구회, 1992.
- 趙萬鎬, 「고려가요의 情調와 樂章으로서의 성격」, 『高麗歌謠研究의 現況과 展望』, 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編, 집문당, 1996.
- 최진원, 「고려가요 연구의 현황과 전망」, 『高麗歌謠研究의 現況과 展望』, 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編, 집문당, 1996.
- 허남춘, 「動動과 禮樂사상」, 『高麗歌謠研究의 現況과 展望』, 成均館大 人文科學研究所編, 집문당, 1996.

『補閑集』의 서술방식과 현대적 수용

김상진(한양대)

1. 시작하는 말

崔滋(1188~1260)의 『補閑集』은 李仁老 (1152~1220)의 『破閑集』과 더불어 고려시대의 대표적 저술로 꼽힌다. 『보한집』은 일명 ‘續破閑集’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파한집』과는 ‘작자를 달리하는 속편’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비록 작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보한집』의 연구를 위해서는 『파한집』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파한집』의 ‘파한’을 의미대로 분석한다면 ‘한가로움을 깨뜨림’이란 의미로, 요즘 식으로 이야기 하자면 심심풀이, 심심타파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어석만으로 『파한집』을 추론한다면 이것은 그저 심심하거나 무료할 때 부담 없이 펼쳐서 봄직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파한집』을 보완했다는 『보한집』 역시 이와 동궤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리란 추론이 가능하다.

제목이 환기하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파한집』과 『보한집』을 오늘날의 유머집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도 우리의 고전 가운데는 『古今笑叢』, 『禦眠楯』처럼 우스갯소리나 음담 패설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도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한집』이나 『보한집』을 제목을 대했을 때, 쉽게 그만 보고 이러한 추측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한집』의 내용을 보지 않은 채, 책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만으로 책을 접하게 된 독자라면 적잖이 당황하게 된다. 『보한집』의 내용구성을 보면 詩話와 詩評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詩論과 소수의 說話가 포함되어 있다. 즉 『파한집』과 더불어 『보한집』은 일명 시화라고 명칭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다룬 일종의 시평론집이라 할 만하다.

그러면 평론집을 저술하면서 이인로는 왜 ‘파한’이라 명명하였으며, 최자는 왜 또 거기에 동의하며 『보한집』을 저술했을까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보한집』이나 『파한집』의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내용의 불일치는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려시대, 또는 최자나 이인로가 무료함을 달래는 방식과 요즘 시대

가 생각하는 심심풀이 방식이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결과일 뿐이다. 오늘날에도 심심풀이로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프로그램에는 차이가 있다. 오락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 뉴스나 스포츠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처럼 심심풀이의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게 마련이고 시대를 달리한다면 그 편차는 더욱 클 것이다.

그렇다면 한가로움을 깨뜨린다는 뜻을 함의한 이인로의 『파한집』을 계승한 『보한집』에서 최자가 생각한 閑, 또는 破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더불어 현대의 시점에서 『보한집』이 어떻게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崔滋의 思想과 『補閑集』

최자는 고려시대의 名儒였던 文憲公 崔冲(1188~1260)의 6대손으로, 이른바 무신정권시대(1170~1270)로 일컬어지던 시기를 살아갔던 인물이다. 무신정권시대에 文臣으로, 정치가이자 문장가로서 활약했던 인물이다. 고려시대 최고의 명문가로 알려진 海州 崔氏 집안의 자손이자 어려서부터도 학문에 출중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國子監의 學諭가 되었다. 좋은 집안에 학문도 뛰어났으며 성품 또한 순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급제 후 10년 동안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던 최자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李奎報(1168~1141)로 말미암는다. 그가 지은 <虞美人草歌>와 <水精盃詞>를 이규보가 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최자의 詩作을 본 이규보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崔怡(?~1249, 처음 이름은 崔瑀였음)에게 최자가 자신을 이어 당대의 문명을 잡을 만한 최고의 인물이라며 천거하였다. 『高麗史』에서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규보가 최이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누가 가히 공을 이어 문명을 잡을 만한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학유 최안(崔安, 최자를 일컬음. 안은 최자의 초명(初名)으로)이란 자가 있고, 급제(及第) 김구(金丘)가 그 다음입니다.” 그 때에 이수(李需), 이백순(李百順), 하천단(河千坦), 이함(李咸), 임경숙(任景肅) 등이 모두 문명이 있었다. 최이가 그 재능을 시험하고자 서(書)와 표(表)를 짓도록 명령하고 이규보로 하여금 등급을 정하게 하였다. 무릇 열 번을 뽑았는데 최자가 다섯 번 씩 장원과 부장원을 하였다. 또 관리로의 재능을 시험하고자 급전도감록사(給田都監錄事)를 제수하였는데 역시 민첩하고 부지런하여 드디어 발탁하고 이규보의 대를 이어 문명을 잡았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최자의 재능은 가히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출중하다. 조선시대 徐居正(1420~1488)의 『동인시화(東人詩話)』에서도 이인로, 이규보, 임춘과 더불어 최자를 ‘문장에 뛰어난 자’로 기록하고 있어서 옛 선학들도 이미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 최자의 위상은 동시대의 학자인 이규보나 이인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타의 문인들과 견주었을 때 그 만의 개성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예컨대 그의 대표적 저작물인 『보한집』만 보더라도, 이것이 후세에까지 최자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언제나 이인로의 『파한집』이 먼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

표적인 비평집, 또는 시화집을 거론하는 자리에서는 『파한집』이 우선하며 최자의 『보한집』은 항상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학문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그는 漢詩의 作詩法으로 新意와 用事에 대하여 필적할만한 의견을 내세웠지만, 이 또한 이규보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신의와 용사에서는 이규보가 언급되게 마련이다.

요컨대 문장에 뛰어났고 또 후대에 길이 남을 저작물도 남겨놓았지만, 후대에 이르러 그것을 평가할 때는 최초의 것도 아니며 또 그 만이 지니는 독창적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보한집』 작가로서 그의 명망은 이인로의 뒷자리에 머물게 되고, 신의와 용사를 중하게 여기는 그의 문장 실력은 이규보를 계승하는 정도로만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그의 위치를 논하기보다는 『보한집』의 작가로서 최자의 가치를 가늠하고 『보한집』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현대인들에게 ‘최자’라는 이름은 언제나 ‘보한집’과 함께 떠오르는 연관검색어이다. 최자에게 있어서 『보한집』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의 무료함을 달래는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한집』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보한집』에는 시화와 시평 등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들의 편수나 분류에는 논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류 등은 작가가 스스로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한집』의 체제를 보면, 전체의 내용을 상·중·하로 구분해 놓았을 뿐, 글의 성격이나 내용, 주제 따른 또 다른 분류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분류의 항목이 달라 질 수도 있고 그 분류 항목에 포함되는 작품의 편수도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보면 고경식의 「최자론」¹⁾에서는 『보한집』은 시화 73편, 시평 70편, 시론 20편, 설화 6편의 총 169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허영미의 「보한집의 문학적 성격」²⁾에서는 전형대가 「고려의 시학」³⁾에서 제시한 개념을 수용하여 『보한집』의 장르를 시화(시일화, 시평, 시론), 문담(文談), 사전체만록(史傳體漫錄), 설화로 분류하며 본문의 내용을 총 147편으로 보았다. 특히 여기서는 동일한 내용이 여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전체만록을 총 40편이라고 했지만 이들은 또 시일화나 문담, 설화의 성격도 공유하고 있어서 순수한 사전체만록은 2편에 불과하다. 설화 또한 18편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시일화나 문담, 사전체만록에도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 순수 설화는 2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시일화(다른 논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화에 해당함) 46편, 시평 46편으로 역시 시화와 시평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처럼 수록된 글의 종류만 보더라도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심풀이의 개념에 근접하는 내용은 별로 없다.

『보한집』이 지향하는 파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前作이 되는 『파한집』을 집필한 이인로가 정의한 파한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파한을 “세상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림에 은둔하며 온전한 한가로움을 얻음은 장기·바둑 두는 일보다 낮기에 ‘파한’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이인로가 지향하는 파한은 요즘 시대의

1) 고경식, 『고전작가작품의 이해』, 박이정, 1998.

2) 허영미, 「보한집의 문학적 성격」, 『동방한문학』1집, 동방한문학회, 1982.

3) 전형대, 「고려의 시학」, 『한국고전시학사』, 흥성사, 1981, 에서는 ‘시평, 시론, 시일화(詩逸話)’로 구분하였다.

심심풀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인로가 피력한 이와 같은 파한의 의미는 『보한집』에도 유효하다. 『보한집』의 서문에서 최자는 이것의 찬술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고금의 명현(名賢)으로서 문집을 엮어놓은 사람은 다만 수십 명밖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밖에 좋은 문장이나 뛰어난 시는 모두 없어져 버려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학사 이인로가 그러한 시문을 대강 수집하여 책을 엮어 내니 그 이름을 ‘파한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양공은 그 책이 수록된 범위가 너무 간략하다고 하여 나에게 그 책을 속작(續作) 보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없어져 버리거나 잊혀진 나머지를 가까스로 찾아서 신체시(新體詩)로 약간의 연(聯)을 얻었다. 혹 부도(浮屠)나 아녀자들의 작품에 있어서는 한두 가지 담소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은 그 시가 비록 훌륭하지 않아도 실었다.

즉 최자가 『보한집』을 찬술하게 된 것은 당시의 權臣이었던 최충헌의 아들인 晉陽公 최이의 권유로 말미암은 것이다.⁴⁾ 이들 부자가 『파한집』이 소략함을 이유로 최자에게 명하여 『보한집』을 집필토록 하였다.

한편 『보한집』에는 다수의 시화가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시화’라고 하는 장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시화의 개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인 다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시화, 시의 이론이 중심이 되는 시론, 평론이 중심이 되는 시평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는 일단의 시구를 곁들인 고사 일화나 잡록류의 성격을 지닌 시화이다. 둘째는 시장작활동에서 추구해야 할 문학세계나 작품기교 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 방향이나 기준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시론, 셋째는 다른 사람의 작품의 경향과 우열을 가리고 품격을 판정한 시평 등의 분류가 가능하다. 요컨대 시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내용이 전개되는 것으로써 ‘시화’란 좁은 개념의 시화와, 시론이나 시평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의 시화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아우른다.

다음은 대표적인 시화 가운데 하나인 탁연선사(卓然禪師)와 천영선사(天英禪師)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수선사(修禪社)에 재상의 아들인 탁연선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필법이 아주 뛰어났다고 한다. 갑진년 봄에 서울로부터 강남으로 돌아가다가 계룡산 아래에 있는 어떤 마을을 지나다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까치 한 마리를 보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하였다. 몸은 흰데 가슴은 붉고 꼬리는 검은 빛을 띤 것이었다. 그곳에 사는 장복(長福)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는 까치에 대한 내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까치가 여기에 등지를 뜬 지 칠 년이 되었다. 그런데 새끼를 치면 항상 올빼미가 잡아먹어 버려서 매일 울면서 호소하였다. 그러자 일 년 후에는 머리가 희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년이 지나자 머리가 다 희어졌고, 삼 년이 되자 몸까지 모두 하얗게 변하였다. 올해는 다행이도 그 액을 면하여 꼬리가 다시 조금씩 검게 되었다”는 것이다.

탁연선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수선사에 함께 있는 천영선사에게 말하였더니 천영선사가 이것이 바로 금두인(禽頭人 : 새의 머리를 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며 시를 지었다.

怨氣積頭成雪嶺	원통한 기운은 머리에 쌓여 눈덮힌 고개를 이루고,
血痕沾臆化丹田	핏자국은 가슴을 적셔서 붉은 발이 되고 말았네.
渠如不惱他家子	그가 만약 남의 집 자식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4) 최충헌은 고려의 무신정권기의 대표적 인물이었고 최이는 그러한 부친의 뒤를 이어 집권하였다.

四海霜毛一日玄 사해의 서리를 맞아 하얗게 된 털이라도 하루 만에 검어 지리라.

이러한 탁연선사와 천영선사의 이야기는 『보한집』을 이야기 하는데, 몇 가지 방면에서 유효하다. 우선은 ‘시화’가 과연 어떤 양식의 문학이나 하는 것이다. 『보한집』을 일컬어 시화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에 그것의 개념이 확연하게 와 닿는 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 위의 이야기는 그것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화의 개념을 분명하게 해 준다. 즉 이야기와 시가 결합된 형태의 어떤 양식이라는 것이다. 또 위의 이야기는 시화 가운데서도 시일화(詩逸話)에 속한다. 이것은 『보한집』에 수록된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한집』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도 유효하다.

그런가 하면 위의 내용이 주는 시사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천영선사의 작시(作詩)와 관련된 것으로, 그가 시를 짓게 된 경위를 밝힌 것이다. 즉 탁연선사가 전해 준 기이한 까치의 이야기를 듣고 천영선사가 감동하여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천영선사가 전해들은 것은 까치이야기이지만, 그는 그것으로써 인간의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갓 미물(微物)의 기이한 이야기로 그칠 수 있는 것을 인간사회의 문제로 끌어 올렸다는 점이다.

이 시가 단지 까치와 올빼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라는 것은 천영선사가 이것을 일컬어 스스로 ‘금두인’이라고 한 것으로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상층 계층의 인물인 점을 볼 때, 여기서의 문제는 인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⁵⁾ 요컨대 까치와 올빼미의 관계를 통해 인간 사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위의 시화는 말하자면 우화(寓話)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⁶⁾

그런가 하면 다음은 시평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한집』에서는 당시의 시인들에 대하여 작가의 말이 아닌 당대인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문안공(文安公) 유승단(兪升旦)은 말이 굳세고, 뜻은 순박하여 인용하는 것이 정결하고 간단하다. 정숙공(貞肅公) 이규보는 기상이 웅장하고 말이 장대하며 창의(創意)가 신기하다. 학사(學士) 이인로는 말마다 격조 높고 말을 신과 같이 구사하여 마치 신과 같아서 옛 사람의 모습을 답습하기만 하였으나 다듬고 조는 공은 옛 사람보다 더 정교하다. 승제(承制) 이공노(李公老)는 말이 굳세고도 고우며 더구나 연고(演誥), 대구(對句)에 뛰어나다. 한림(翰林) 김극기(金克己)는 말의 구성이 맑고 시원스러우며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풍부하고, 간의(諫議) 김군수(金君綏)는 말뜻이 부드럽고 여유 있으며 오세재(吳世才) 선생과 처사(處士) 안순지(安淳之)는 풍부하고 넉넉하여 전체가 후하다. 사관(史館) 이윤보(李允甫)와 임춘(林椿) 선생은 간결하고 예스러우며, 보궐(補闕) 진화(陳渾)는 맑고 웅장하고 화려하여 변화무쌍하니 이들은 모두 동시대의 거장들이다

위의 글에는 유승단과 이규보, 이인로를 비롯한 다수의 문인들과 그들의 문체에 대하여 평하고 있다. 물론 이것 최자 스스로의 평가는 아니며 당대의 시인들이 평가를 옮겨 적은 것이지만, 최자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은 최자의 평가

5) 시화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가늠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천영선사는 최자와 마찬가지로 진양공 최이에 의해 발탁되었고, 단속사(斷俗社)의 주지로 머물며 선사(禪師)의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탁연선사는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재상의 아들이다.

6) 계룡산 마을의 까치이야기를 전한다는 점에서는 설화와 흡사하고, 우화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사물을 의인화한 가전체 소설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다음과 같은 화답시의 인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崎嶇石棧躡雲行
華構隣天若化城
秋露輕氈千里爽
夕陽遙浸一江明
漾空嵐細連香穗
啼谷禽閑遞磬聲
可羨高僧心上事
世途名利總忘情

험하디 험한 돌다리를 구름을 디디고 올라가니
화려한 이웃 하늘은 화성(임시로 나타내어 보이는 성)과도 비슷한데
가을 이슬 가볍게 뿌리니 천리가 시원해진 듯하고
저녁 노을 멀리 스며드니 온 강이 밝아 오는구나.
허공에 깔려 있는 안개는 가늘어서 향냄새로 이어졌고
골짜기의 새 울음소리는 한가로워 경쇠 소리로 대신하였네.
부러운 것은 고승의 마음이며
세상의 명예와 이익은 모두 잊음일세.

蘇刻丹書額
壺藏白日仙
清歡雖共客
眞樂得全天
庭雨蕉先響
園晴草自烟
桃花流水遠
回卻武陵船

이끼는 붉은 액자를 조각하고
술병엔 대낮 신선을 갖추었네.
맑게 즐기는 기쁨은 손님과 함께 즐기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천분(天分)을 온전히 함일세
뜰에 비가 내리니 파초가 먼저 울고
동산엔 비가 개이고 풀은 저절로 푸르구나.
복숭아꽃 떠서 멀리 흐르니
무릉으로 뱃머리를 돌리세.

이는 문안공 유승단의 다양한 화답시로, 위에 있는 시는 예묘(睿廟, 고려 16대 왕 예종을 뜻함)가 지은 「승가굴시(僧伽窟詩)」에 차운한 것이고 아래의 시는 문정공(文正公)이 지은 「독락원창화시(獨樂園唱和詩)」에 차운한 것이다. 이처럼 최자는 시인의 시세계를 논함에 있어서 그의 시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이것 역시 시를 창작한 것은 각 시인들이지만, 그것을 수록한 것은 최자이다. 말하자면 최자의 의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최자의 의도, 또는 취향에는 당시대의 지배적 이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교적 제가치국(齊家治國)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생각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보한집』상권의 처음에 수록한 내용을 보면 “태조는 전쟁 후 간과(干戈)로 나라를 세우려던 시기에 음양설(陰陽說)과 불교에 깊은 뜻을 두었다.”고 하고는 이어 참모 최응(崔凝)의 말을 인용하여 ‘나라가 혼란할 때는 문치(文治)에 힘을 써서 인심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문덕(文德)을 닦아야 한다’고 하며 이에 태조가 ‘난이 평정되고 백성들이 안정을 얻게 되면 바로 풍속을 고쳐서 아름답게 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유교적 이상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⁷⁾ 이로써 최자와 『보한집』의 성격을 거칠게나마 가늠할 수 있다.

3. 『보한집』의 현대적 수용

그러면 최자의 심심파적인 『보한집』이, 과연 현대인들에게도 심심파적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가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다는 명목과는 달리 『보한집』은 현대인은 물론이고 당대인들에게도 지식계층이 아니고서는 접근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책이기도 하다. 대신 그 시대에게도 지금도 시화집으로서 비평집으로서의 가치를 발하고

7)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적 사상에 대하여 배타적이지도 않았다. 위에 인용된 시만 보더라도 고승에 대한 그의 존숭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최자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사대부층이 지닌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있다. 다만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계층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보한집』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이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작품연구와 작가연구가 그것이다. 즉 『보한집』을 통하여 거기에 나타난 최자의 정신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연구의 초점을 『보한집』 자체에 맞추어 그것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일한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어떤 쪽의 접근이든지 『보한집』의 연구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

거기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보한집』의 효용에 좀 더 관심을 둔다. 그리고 그 효용이 당대 보다는 현재적 관점 맞춰질 때 그 텍스트는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또 특수한 소수가 아닌 보편적 다수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더 큰 힘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보편적 다수가 『보한집』을 재미있고 유익한 읽을거리로 인식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앞서 일부계층을 제외하고는 『보한집』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했지만, 반면에 의외로 『보한집』에서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 자칫 이율배반적으로도 느껴지는 이 진술은 말하자면 기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보한집』을 흥미 중심의 책으로 여겨 단순한 우스갯거리를 찾으려고 한 독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그저 지루하고 무거운 책에 불과하다. 반대로 시평론집으로만 생각한다면 등장하는 다수의 설화(시일화 포함)에 당혹스러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한집』은 말 그대로 ‘시화집’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시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그 이야기들은 당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충분히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요컨대, 그것의 성격을 옳게 파악하고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시에 대한 평론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를 더한 것, 그것이 바로 『보한집』이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독자가 『보한집』을 대한다면 시론이나 시평이 아닌 시일화를 포함한 설화 중심으로 접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의 하위 범주를 지니며 각각은 일정한 요건을 지닌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설화를 생각할 때 그것은 그저 재밌는 옛날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보한집』의 유용성을 현대의 보편적인 독자층으로까지 이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장르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보한집』에 수록된 설화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6편에서 18편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들조차도 우리가 비교적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설화와는 차이가 있다. 『삼국유사』에 있는 설화가 일정한 요건을 지니며 구조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보한집』에 있는 설화는 매우 단순한 편이며 ‘재밌는 이야깃거리’로서의 설화와는 다소의 거리가 있다. 그래도 본격적인 시평론 등에 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접할 수 있다.

『보한집』의 설화는 지괴(志怪)류와 일화(逸話)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개념이 설화에 보다 가까운 것은 지괴류이다. 지괴란 중국의 한나라 말엽부터 육조(六朝) 시대의 남조(南朝)시기인 약 3~5세기에 걸쳐 일어난 기괴한 일들을 적은 짧은 이야기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칭 ‘기괴한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중에서 설화로서의 요건을 비교적 온전하게 구비하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앞서 6편에서 18편

정도가 수록되어 있다고 했지만, 사전체(史傳體), 만록(漫錄) 등과 혼합된 양상으로 설화라기보다는 단편(斷片)적인 이야기에 가깝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설화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귀(人鬼)교환설화’와 ‘호승(虎僧)환생설화’ 두 편 정도이다.

다음은 그 가운데 하나인 사천감(司天監 : 고려, 조선시대의 관청으로 천문·역수·측후·각루의 일을 맡아 보았다)의 인귀교환설화이다. 그 대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승안(承安) 3년 무오년에 사천감 이인보(李寅甫, 고려조)란 인물이 경주도제고사(慶州都祭庫使)로 소 산천에 두루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부석사에 이르니 중 하나가 마중 나와 객실로 맞아들였다. 온 집안에는 아무도 없이 쓸쓸한데 웬 여자가 홀연 골마루에 잠깐 보였다. 사천감은 그 고을 목사가 보내 온 기생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조금 후에 돌아 나와 사뿐사뿐 춤을 추며 인사하는 모습이 창기(娼妓)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인사를 마치고 섬돌 위를 거쳐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주의 깊게 보니 화식(火食)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사천감은 비록 괴이하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룻밤의 인연을 맺는다. 사흘 동안 머무르고 난 다음 절을 떠나 우정(郵亭)에 이르러 자는데 그 여자가 또 나타났다. 그 여자는 사천감의 시를 배에 하나 품었는데 다시 하 나를 더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전과 같이 동침하고 새벽이 되어 이별하니 정의가 더욱 깊어졌다.

흥주(興州)에 가서 잘 때에 여자가 다시금 찾아왔다. 천감은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 그 여자를 본 체도 하지 않으니 여자가 눈을 부릅뜨고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화를 내며 안색이 변하여 이후론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며 곧장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며 청사(廳舍) 사이의 사립 문 한 짝을 부수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서 갔는데, 마치 도끼로 잘라 버린 듯하였다.

위의 설화에 등장하는 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귀(女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밤이면 나타나서 홀연히 사라지고, 화식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으로써 여귀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이인보와 여귀가 사랑을 나눈 것으로 전형적인 인귀교환설화이며 전설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인보라는 구체적인 인물과 경주, 부석사, 흥주 등의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며, 행복한 결말이 아닌 것 등은 설화 가운데서도 전설에 가깝다. 많은 전설가운데서도 사람과 귀신과의 인연, 더욱이 그 귀신은 아름다운 용모를 한 여귀라고 하면 그 자체로도 흥미로울 수 있다.

그래서 사람과 귀신의 교환은 여타의 설화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테마이다. <최치원전(崔致遠傳)>에 등장하는 <쌍녀분(雙女墳)설화>라든지, 『삼국유사』에 있는 <도화녀(桃花女)설화> 등도 모두 인귀교환을 주된 테마로 삼고 있다. 비교적 익숙하고 알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한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결국 『보한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둘의 사랑이나 비극이 쌍녀분 설화나 도화녀의 이야기처럼 극적이지는 않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귀교환설화에 이어 『보한집』에서는 변산(邊山)에 있는 노승이 고창현(高敞縣)의 사람이 베푸는 연등회에서 겪었던 호승환생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승은 보통사람과 다른 소년을 만나 누구인지 물어보지만 아무도 소년의 신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연등회가 끝나고 소년의 뒤를 따라 갔다. 산기슭에 이르러 소년은 더 이상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했으나, 노승은 이미 해도 저물고 갈 곳도 없다는 핑계로 소년과 동행을 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소년을 따라간 곳은 놀랍게도 호랑이굴이었다. 이에 노승이 나가려하자, 노파가 와서는, 두 아들(호랑이 형제를 뜻함)이 벌써 와 있으니 역지로 가다

가는 위태로울 것이라며 노승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호랑이 두 마리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들어왔다. 노파는 그들이 다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으로는 먹이가 부족하다며 빨리 나가 먹을 것을 더 구해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호랑이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내며, “어머님(노파)에게는 먹을 것이 있는데 어찌 다시 구해 오라 하십니까?” 하고는 나갔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는 신령님께 빌어 각자 양식을 구하였으니 누이동생도 따라오너라. 어찌 배고픔을 참으며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겠느냐?”하고는 다시 나가 버렸다.

잠시 후 누가 와서 부르더니 “그대 자녀의 마음이 왔다갔다 하며, 떠돌고 놀랐기 때문에 신령님께서 별하라 명하셨으니 마땅히 내일 아침에 고창현에 있는 우리 함정에 빠져 죽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소년은, 신령님을 명을 거역할 수는 없고, 노승을 만난 것도 숙명이라 하였다. 이어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많은 이들이 그를 막을 것이라며 그때에 자신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낼까 두려우니 노승이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혼자 짧은 창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죽여 줄 것을 청하였다.

그때 자신이 말 한마디라도 하고 죽으면 그것은 노승의 은혜라고 하였다.

다음날 고을에 가서 우리 속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어제 소년(호랑이)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때 호랑이가 “나는 어느 마을 아무개 집의 아들로 환생할 것입니다. 12, 3세가 되면 노승을 찾아 뵈러오니 제가 중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는 창끝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죽고 말았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어느 날, 노승이 우연히 굴 입구에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소년이 절을 하였다. 소년이 누구인지를 묻고, 노승은 과거 호랑이가 했던 말을 생각하고는 그를 데려가 머리를 깎고 중을 만들었는데 무척 영특하였다. 그 후 소년은 곧 사라져 행방을 몰랐는데, 후에 들으니 일암사(日岩寺)의 한 중이 비방주문에 열심히 법력이 출중하여 많은 사람을 감복시켜 경기도 내에 있는 절로 부임하라는 명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노승이 알아보니 바로 그 어린 중이었다.

즉 처음 노승이 만난 소년은 호녀(虎女)였으며, 오라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 했던 노승을 도운 호녀는 그로 인해 죽게 되고 환생하여 승려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불교의 윤회설을 바탕으로 한 위의 이야기는 구체적 인물이 아닌 ‘변산의 노승’이란 막연한 인물의 체험담이라는 점에서 민담에 가깝지만, 한편으로는 호녀가 환생하여 일암사의 승려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전설적 요소도 구비하고 있다.

호승환생 설화는 박인량(朴寅亮)의 『수이전(殊異傳)』에 소개된 <호원사(虎願寺)설화>라든지 『삼국유사』의 <김현감호(金現感虎)>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호원사 설화>와 <김현감호>가 이물(異物)과 교유하는 설화로, 남자와 호녀 사이에 애정과 갈등이 등장하며 이것이 불교적 설화와 결합한 것과 달리, 『보한집』에 있는 호승환생 설화는 노승과 호녀 사이에 애정의 요소가 삽입되지 않는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보한집』의 전반적인 성격과도 유사한 것으로, 이것이 설화집이 아닌 시비평을 위한 시화집이라는 데서 비롯될 것이다.

위의 두 설화처럼 본격적인 설화담은 아니더라도, 각 시인이나 작품에 대한 일화 또한 『보한집』이 가져다주는 재미이다. 다만 이들 설화가 여타의 설화집에 수록된 이야기들처럼 극적 구성을 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들 설화가 구조적으로 틀을 갖추어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단순하게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대적 한계이자 『보한집』의 한계일 수 있다. 다만 『보한집』이 어렵고 지루한 평론집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유용한 고전도서라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4. 맺음말

통칭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은 종종 제목으로만 익숙한 경우가 많다. 『보한집』 또한 그러한 고전 가운데 하나이다. 다수의 독자들은 제목으로만 고전을 접하고 그것의 대체적인 파악하는 것으로써 독자의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독자의 탓을 할 수는 없다. 현대인이 고전작품을 멀리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의 가치체계가 현대와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가치체계로 공감을 획득할 수 없다보니 자연 그것을 멀리 하게끔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작품의 한계는 내용보다는 형식에서 비롯될 때가 더욱 많다. 즉 한자로 기록된 작품은 한문의 해독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고, 한글로 쓰인 것이라 하더라도 문장 체계라든지 어휘가 달라서 어렵긴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번역의 문제가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문이나 고어를 풀이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대적 문장으로 놓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된 고전 작품을 보면 원문보다 주석이 더 많이 달린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럴 경우, 독자가 읽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글자일 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대적인 문장체로 바꾸어 글을 읽는 것이 곧 의미를 파악하는 일로 연결되어야 한다.

책의 구성 또한 현대인이 고전을 멀리하는 이유가 된다. 『보한집』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체의 체제를 보면 상·중·하의 구분만 있을 뿐이며 다양한 종류의 성격의 이야기들이 다소 무질서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전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또 각각에 소제목을 붙여서, 그것만으로도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요즘 서적의 체제와는 매우 다르다.

『보한집』보다 늦은 시기에 편찬된 『삼국유사』가 다수의 연구자와 함께 다수의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거기에 수록된 내용의 문제이겠지만, 내용에 따라 이야기가 분류되고 또 각각의 내용 또한 토픽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국유사』가 『보한집』과 동일한 체제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야 물론 흥미를 가지고 접근했겠지만, 일반 독자가 가까이 하기에는 상당히 난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불명료하여 읽기에 지남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한집』 또한 그 유용성을 현대로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의 편제를 새롭게 하여 재구성해 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아무런 구획 없이 하나로 서술된 이야기를 핵심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낱말의 이야기로 나누어주기만 하더라도 『보한집』을 읽는 독자로서는 그 개념이 훨씬 확연하게 다가오게 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한집』은 상·중·하 세 분류로 이루어진 서술물이 아니라 100편이 넘는 단편적인 이야기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것은 이야기를 토픽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 이외에, 독자의 입맛에 따라 이야기를 선택하여 읽을 수 있단 장점을 아우르게 된다.

나아가 이야기의 성격에 따라 체제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보한집』을 보면 인용한 내용과 최자가 서술한 내용을 한 눈에 분별할 수는 없다. 또한 본체를 이루는 내용과 그것에 대한 평론의 구분도 모호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디서 끝을 맺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시화와 시평, 시론, 설화 등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무엇이 시화이며 시평인지, 또

는 설화인지의 구분은 더더욱 모호하다.

그러므로 『보한집』에 수록된 이야기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재분류한 범주 안에 각 단편의 이야기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물론 재배치된 이야기들은 각각의 내용에 맞는 적절한 제목을 붙임으로써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보한집』은 고려시대에 찬술한 지루한 고전, 어려운 시비평집이 아니라, 무료하고 심심할 때 읽을 수 있는 가치와 흥미를 동시에 아우른 현대에도 유용한 독서물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고전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난, 익숙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서 신선함을 느낀다. 현대인들이 고전에 매료되는 이유 또한, 현대적인 것에 식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 고전이 극히 일부에 국한되는 감이 없지 않다. 그것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현대인의 취향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의 취향을 맞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고전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그것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도 무난히 흡수할 수 있는 고민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본고에서는 『보한집』을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그 ‘재미’가 찬술자인 최자에게서 그치지 않고 현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로써 『보한집』이 현대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水路夫人 說話 再考 :

현화가 · 해가 창작의 시공간

이주희(중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1. 머리말

水路夫人 이야기의 시대배경은 성덕왕대이며, 무대는 왕경에서 강릉 사이의 旅路이다.¹⁾ 성덕왕대 신라왕경을 출발한 수로부인은 남편의 부임지인 강릉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현화를 받기도 했고, 해룡에게 海中으로 납치되기도 했다. 일연의 표현대로 그녀의 ‘姿容絶代’가 그 이유였다.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수로부인은 巫女로 보기도 하였으며,²⁾ 기우제를 주관하는 司祭로 이해하기도 했다.³⁾ 수로부인의 이름이 ‘水路’ 즉 ‘물꼬를 튼다’고 해석하여, 그의 제의가 구체적으로 기우제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⁴⁾

노웅은 성스럽고 신비스런 도교의 신선으로 보는 설이 있고,⁵⁾ 노인의 가면을 쓴 무당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⁶⁾ 禪僧으로 보기도 했다.⁷⁾ 노인이 두 노래를 지었고, 그가 관음의 변신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⁸⁾

상징적 은유적 해석은 ‘모호’하다는 반성에 의해 작품 자체의 1차적 의미탐색을 중시 하자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현화가를 순수한 구애의 노래로 보고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기도 했다. 그래서 견우노웅과 수로부인을 현실속의 노인과 여인관계로 보고 젊은 미모의 여인에게 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절벽에서 꽃을 꺾어 바치며 부른 노래로 보았

1) 수로부인이 이야기는 ①현화가 배경설화 ②해가 배경설화 ③수로부인이 신물에게 자주 납치되었다는 일연의 해설 등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허영순, 『古代社會의 巫覡思想과 歌謠의 研究』 부산대 석사논문 1963.

안영희, 「고대인들에게 반영된 꽃의 의미」 『아세아여성연구』 11,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1972.

3) 여기현, 『수로부인 이야기의 제의적 구조』 한양대 석사논문 1985.

4) 윤경수, 『향가 여요의 현장성 연구』 집문당, 1993.

5) 김선기, 「꽃받친 노래(獻花歌)」 『現代文學』 153, 1967, 307쪽.

6) 조동일, 『文學研究의 方法』 지식산업사, 1980, 125쪽.

7) 김종우, 『鄉歌文學研究』 삼문사, 1976, 30-31쪽.

김광순, 「獻花歌說話에 관한 一考察」 『韓國詩歌研究-서수생환갑기념』 형설출판사 1981, 20쪽.

8) 김운학, 『鄉歌에 나타난 佛敎思想』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 1982, 31쪽, 81쪽.

다.⁹⁾ 하지만 이러한 자성적인 연구도 문학적 해석의 가지 수를 줄이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로 묻히고 말았다.

한편 수로부인 이야기를 정치적 시각으로 본 연구도 있었다. 왕명을 받고 부임하는 귀족신분의 부인을 납치한 해룡을 반중앙적 지방세력의 한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했고,¹⁰⁾ 동해안에 출몰한 倭海賊으로 추정하기도 했다.¹¹⁾

이러한 추정과 해석은 향후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해가에서 보이는 수로부인·해룡·노인의 관계를 중앙정부: 중앙정부 대항세력 :민중세력으로 보기도 했다.¹²⁾ 나아가 현화가에서 보이는 수로부인과 노옹의 관계를 탐미적 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전개된 지배대 피지배의 질곡을 넘어서고자 한 민중의 염원으로 해석하기도 했다.¹³⁾ 신문왕대 완성한 9주 5소경은 원래 의도와 달리 지방의 호족을 통제하기에 유명무실한 것이었고, 그 아들 성덕왕대 지방의 호족세력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존치했다고 본 견해도 있었다.¹⁴⁾

지금까지는 통일신라기 전체를 고려하여 수로부인 설화를 연구했다. 그 시간 폭 만큼 문학적 해석의 여지는 열려있었고, 상징·은유적 해석을 담은 다양한 연구논문들의 생산력도 여기에 비례했다.

하지만 수로부인 설화창작을 성덕왕대로 한정했을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 성덕왕대는 어느 시기보다 왕권은 안정이 되어 있었다.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있었고,¹⁵⁾ 그 만큼 지방지배도 확고했다. 반중앙적 지방세력이나 중앙정부 대항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 알다시피 호족의 등장은 9세기 중후반 혼란기에 가서였다.

『삼국사기』 권8, 성덕왕 30년 조를 보면 동왕대 일본의 침입과 신라의 대응 기록이 보인다.¹⁶⁾ 하지만 731년 당시 김순정이 사망한(725년 6월 30일) 6년이 흐른 후였고,¹⁷⁾ 동시기의 『속일본기』 기록에서 일본의 신라침공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김순정은 성덕왕대 빈번했던 일본과의 외교와 교역을 주도했던 인물이다.¹⁸⁾

9) 윤영옥, 『新羅詩歌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2.

박노준, 『新羅歌謠의 研究』 열화당, 1982.

앞서 노옹을 범상한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소를 매려 가던 그곳 지형에 밝은 사람(서재극, 「獻花歌 研究」 『이재수박사 환력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1972, 258쪽), 그저 ‘늙은 노인’이라 했다(김동욱, 「新羅鄉歌의 佛敎文學的 考察」 『국문학논문집』 민중서관, 1977, 50쪽.).

10) 이우성, 「삼국유사 소재 처용설화의 일고찰」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1969.

11) 이용범, 「처용설화의 일고찰」 『진단학보』 32, 1969.

12) 신영명, 「현화가의 민본주의적 성격」 『어문논집』 37, 1998, 68-79쪽.

13) 진경한 우웅순 외 『고전문학 이야기 주머니』 녹두 1994, 48쪽.

신영명 앞의 논문 76-79쪽.

14) 김은수 「수로부인 설화와 현화가」 『古詩歌研究』 17, 2006, 57-67쪽.

15) 『삼국사기』 권8, 성덕왕 6년(707) 조 “봄 정월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었으므로 한 사람에게 하루 벼 3되 씩을 7월까지 나누어 주었다. 2월에 크게 사면하고 백성들에게 오곡종자를 차등 있게 나누어주었다.”

16) 『삼국사기』 권8, 성덕왕 30년(731) 4월 조 “일본국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 우리의 동쪽변경을 습격하므로 왕이 장수를 시켜 군사를 내어 이를 크게 깨뜨렸다.”

17) 『続日本紀』卷9, 神龜三年(726) “秋七月戊子。金奏勳等歸國。賜璽書曰。勅。伊瀆金順貞。汝卿安撫彼境。忠事我朝。貢調使薩瀆。金奏勳等奏稱。順貞以去年六月卅日卒。哀哉。賢臣守國。爲朕股肱。今也則亡。殲我吉士。故贈賻物黃紼一百疋。綿百屯。不遺尔績。式獎遊魂。令木靖民, 「金順貞·金豈論—新羅政治史の一考察」 『朝鮮學報』 45, 1967, 奈良, 21-38面, 참조

18) 『続日本紀』卷33, 宝龜五年(774) 三月 癸卯 “新羅國使礼府卿沙瀆金三玄已下二百卅五人。到泊大宰府。遣河内守從五位上紀朝臣廣純。大外記外從五位下内藏忌寸全成等。問其來朝之由。三玄言曰。奉本國王教。請修舊好每相聘問。并將國信物及在唐大使藤原河清書來朝。問曰。夫請修舊好每相聘問。乃似亢礼之隣。非是供職之國。且改貢調稱爲國信。變古改常。其義如何。對曰。本國上宰金順貞之時。舟楫相尋。常脩職貢。

그렇다고 선행 연구방법들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성덕왕대를 대표하던 수로부인과 남편 김순정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고려 초기까지 구전을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헌화가에서 흥미적인 요소와 해가에서 주술적인 모습이 보이듯 그것이 채록되어 기록되기 민중의 취향에 맞게 이야기가 변형 굴절되었던 것도 사실이다.¹⁹⁾

그래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변형과 굴절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설화생성의 시발점이 된 성덕왕대 강릉 부임지로의 여행 시공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시간을 좁혀야 한다. 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

모든 판단 해석은 그 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자료는 해석의 여지가 그 만큼 축소된다. 그리고 시기의 축소로 사료량은 제한을 받지만 그 활용성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명확한 시기의 설정은 오히려 사료 활용성을 더욱 높인다. 시간의 범위 축소 그자체가 1차적 사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헌화와 해가의 창작의 공간으로 수로부인이 강릉으로 향했던 여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당시 수로부인이 여행했던 동해와 그 해안 지형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현지 자연 환경에 대한 재검토는 설화창작의 공간을 규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화와 해가의 창작 배경이 된 두 사건이 왜 모두 바다를 매개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수로부인의 이름 ‘水路’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왕경에서 강릉으로 향한 시기

725년 6월 30일 신라국 왕경에서 어느 남자가 세상을 떴다. 그해 정월에 흰 무지개가 떴고, 3월에 눈이 4월에 우박이 내린 뒤였다(삼국사기 권8, 성덕왕 24년(725) 조). 金順貞(純貞公),²⁰⁾ 수로부인의 남편인 그의 죽음은 이듬해 일본에도 알려졌다.

726년 속일본기는 그가 일본과의 외교와 관무역을 주도했던 신라의 집정 재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725년(성덕왕 24) 세상을 뜨기 전에 김순정은 신라 2관등인 ‘伊滄’이었다.²¹⁾ 이는 그가 江陵太守로 부임해간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삼국사기』 권40, 직관지 外官 조를 보면 ‘태수’에 관한 다음과 같은 관등 규정이 있다.

“郡太守는 115명 이었다. 관등이 舍知(13관등)에서 重阿滄(6관등)인 자로 임명한다.”

위의 기록과 관련하여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신라의 17관 위계(位階)를 간단히

今其孫繼。繼位執政。追尋家聲。係心供奉。…”

19) 김학성,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형성 및 변이과정 시고」 『관악어문학연구』 2, 서울대 국문과, 1977.

이영태, 「수록경위를 중심으로 한 수로부인 조와 헌화가의 이해」 『국어국문학』 126, 2000, 202쪽.

20) 양자는 동일인물로 보인다 李惠和, 『龍思想의 한국문학적 수용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1988, 89쪽.

김은수, 「水路夫人說話와 獻花歌」 『古詩歌研究』 17, 2006, 50쪽 참조.

21) 『삼국사기』 권9, 景德王-元年 조 “景德王立. 諱憲英, 孝成王同母弟. 孝成無子, 立憲英爲太子, 故得嗣位. 妃伊滄順貞之女也.”

新羅日本紀卷9, 神龜三年(726) “秋七月戊子. 金奏勳等歸國. 賜璽書曰. 勅. 伊滄金順貞. 汝卿安撫彼境. 忠事我朝. 貢調使薩滄 金奏勳等奏稱. 順貞自去年六月卅日卒…”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伊伐滄=角干
- ② * 伊尺滄=伊滄
- ③ 迺滄=蘇判
- ④ 波珍滄=海干
- ⑤ 大阿滄
- ⑥ + 阿滄=重阿滄
- ⑦ 一吉滄
- ⑧ 沙滄
- ⑨ * 級伐滄=級滄
- ⑩ 大奈麻=重奈麻
- ⑪ 奈麻=奈末
- ⑫ 大舍(韓舍)
- ⑬ + 舍知(小舍)
- ⑭ 吉士(吉次)
- ⑮ 大烏(大烏知)
- ⑯ 小烏(烏知)
- ⑰ 造位(先祖知)

태수는 군수이며 이는 6관위에서 12관위까지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중아찬은 6위 아찬과 위계는 같다(阿滄=重阿滄). 다만 重阿滄이라 명기하고 있는 것은 진골귀족 아래의 신분인 6두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고위 신분인 진골귀족은 아찬으로 태수직에 임명될 수 있으나 6두품은 중아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6두품 귀족은 5위인 대아찬에 진급할 수 없었다. 때문에 아찬에 오른 6두품 귀족을 한 단계 진급시킬 때 중아찬으로 하는 중위제²²⁾를 취했다.

김순정이 강릉태수로 부임해갈 때는 6위 아찬에서 13위 사지 사이의 관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²³⁾ 그가 2위인 이찬까지 진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정월이 115명인 태수 바로 위에 있는 외관직 도독의 관등규정을 보자. 9주로 이루어진 신라의 지방장관 도독은 9명이었다.

都督은 9명이었다. … 관등이 級滄에서 伊滄까지인 자로 임용하였다.

22) 신라의 관등제는 골품제(骨品制)와의 연관하에 운영되어 관등의 승진이 골품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었다. 진골(眞骨)만이 승진에 제한이 없었고, 6두품은 제6관등인 아찬(阿滄)까지,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4두품은 제12관등인 대사(大舍)까지로 승진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중대 이후 왕권이 강화되고, 6두품 중심의 관료제의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골품제적인 제한은 6두품 이하 관료들의 관등 진급을 막았다. 이에 따라 진골 중심의 골품제를 유지하면서도 비진골 중심의 관료제를 활성화시키는 타협안으로 중위제가 성립되어 아찬에 4등급, 대나마에 9등급, 나마에 7등급의 중위를 설치하여 관등상의 상한선에 오른 비진골 관료층에게 특진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한편 제8관등인 사찬(沙滄)에도 최소한 3등급의 중위를 설치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 후에 지방민에 대해 특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23) 이점에 대해서는 윤영옥이 언급한 바 있다. 윤영옥, 新羅詩歌의 研究 憲형설, 1982. 165쪽.

도독은 2위 이찬에서 9위 급찬 사이로 임명되었다. 도독과 태수는 관등규정으로 볼 때 6위阿湊에서 9위級湊까지 겹친다.

하지만 정원이 9명인 도독과 115명인 태수 사이의 간격은 크다. 그 만큼 태수가 도독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라 9주의 각지역의 주 장관인 도독의 위치는 宰相급인 중앙의 집사부 侍中과 맞먹는다. 金憲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의 시중에 지방의 도독으로 발령받는 사례가 보인다(新삼국사기憲權10, 헌덕왕 8년 조). 통일기 후반에는 대부분 이찬의 관위를 가진 사람이 도독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新삼국사기憲權10, 헌덕왕 3년 조, 이찬 雄元 완산주도독). 김순정은 젊은 시기에 강릉태수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725년 사망당시 이찬으로 ‘上宰’의 자리에 까지 오른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²⁴⁾

주지하다시피 新삼국유사~~憲~~ 김순정이 강릉태수로 부임해가는 시기를 성덕왕대(702년-737년)라고 명기하고 있다. 新삼국사기~~憲~~ 新삼국유사~~憲~~ 新삼국사기~~憲~~ 日本기~~憲~~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김순정은 성덕왕이 즉위한 702년에서 그가 사망한 725년까지 23년 사이에 태수에서 上宰까지 진급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덕왕이 즉위한 702년 직후 어느 시기 봄날에 김순정은 강릉태수로 발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경주에서 출발하여 강릉으로 향하는 그때의 여정이 현화창작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수로부인의 ‘旅路’ 北海通

수로부인 일행의 여정은 지금의 경주에서 시작되어 목적지인 강릉에서 끝이 났다. 현재 경주에서 강릉사이의 여정은 버스로 5시간 걸린다고 한다.

신라시대에 경주에서 시작되어 강릉까지 뻗어져 있는 육로가 존재했던 것 같다. 그 흔적이 新삼국사기~~憲~~지리지 三國有名未詳地分에 편린으로 나온다. 신라의 사방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北海通 鹽池通 東海通 海南通 北徭通”이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東海通’이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 국도가 경주에서 고성군 통일전망대 까지 뻗어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서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해 해안선 따라 가로지르는 국도이다. 하지만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다.

일찍이 井上秀雄은 신라 5개 通을 다음과 같이 비정했다. 북해통은 신라왕경에서 북쪽으로 통하는 교통로로 파악하여 동해안을 따라서 발해와의 접경으로 통하는 간선도로로 보았다. 여기에 비해 동해통은 신라인들이 甘浦와 蔚山 일대의 바다를 지칭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울산-동래-김해-진주로 통하는 간선도로로 비정하였다.²⁵⁾

이노우에의 지적인 바와 같이 신라왕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동해안을 따라 가는 간선도로는 北海通이었다. 이는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 내물왕과 김제상 조에서 확인된다. 눌지왕(재위 417~458)의 명령을 받고 고구려로 향하는 김(박)제상은 北海의 길(“北海

24) 『統日本紀』卷9, 神龜三年(726) 秋七月 戊子 조.

『統日本紀』卷33, 宝龜五年(774) 三月 癸卯 조

25) 井上秀雄, 「新羅王畿の構成」 新朝鮮學報 49, 朝鮮學會 1968, 奈良, 33-53面; 新羅史基礎研究 憲東出版 1974(재수록).

之路”)로 향했다. 북해통은 신라에서 일찍이 개통된 도로 가운데 하나였다.

北海 통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조선시대 驛道는 청하도(淸河道)와 평릉도(平陵道)이다. 두 역도는 강릉-삼척-울진-영해-영덕-청하-흥해-영일-경주로 이어지고 있었다.²⁶⁾

신라가 성장한 경주분지는 포항에서 울산에 이르는 형산강 지구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형산강 지구대는 남쪽으로 흐르는 동천과 북쪽으로 흐르는 형산강의 침식에 의해 형성되었다. 포항에서 울산까지는 자연적인 통로가 만들어졌고 신라는 일찍이 포항을 통해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울진 삼척까지 세력을 확대하였다.²⁷⁾

504년 2월 지증왕은 삼척지방에 悉直州를 설치하고 伊斯夫를 軍主로 삼았다. 왕이 나라 안의 州郡縣을 정하면서 실직주를 설치했다는 기록을 僞史(新삼국사기 卷4, 지증왕 6년 조), 이는 504년 이전에 신라가 삼척 강릉지역을 차지하였고, 그때 와서 주라는 군정단위지구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524년에 세워진 「울진봉평신라비」에서 삼척의 실직군주 탁부(梁部)의 이부지 나마(“悉支軍主 喙部 余夫智 奈麻”)가 보인다. 당대 신라의 삼척 강릉지역 지배를 금석문 자료가 증명하고 있다. 余夫智는 이사부의 후임자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도 왕경에서 부임지로 갔을 것이고 200년 후 순정공도 수로부인을 데리고 그 길을 갔을 것이다.

제대로 된 국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신라시대에는 동해안을 따라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동해안은 함흥에서 강릉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완만한 평야지대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가 명주군 강동면에서 태백산맥의 줄기가 바다와 마주친다. 정동진의 지형을 보더라도 배후의 산과 바다는 거의 붙어있으며, 삼척에서 울진까지 해안은 거의 절벽을 이루고 있다. 근덕이나 임원 그리고 원덕에서 완만해진 해안선이 보이기도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다와 만나는 태백산맥의 결가지가 줄기가 고저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산발적인 현상일 뿐이다. 대부분 마을은 앞은 바다요 산으로 둘러싸인 灣의 좁은 귀퉁이에 붙어있을 뿐이다. 현화가 창작의 공간이 “石嶂如屏臨海”했던 곳이었다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울진에서 남으로 영덕까지 산줄기가 조금 약해지긴 해도 그 정도는 만만치 않다. 강릉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육상교통로는 험준하다. 新삼국사기 卷 이사부전을 보자. 동해안의 이동 수단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이다.

지증왕 13년 임진(512)에 (이사부는) 阿瑟羅州(강릉)의 軍主가 되어 于山國을 병합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는 그 나라 사람들이 미련하고 사나워서 힘으로 항복받기는 어려우나 전략으로 항복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으로 가서 거짓으로 말했다.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 놓아서 밟아 죽이겠다.”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즉시 항복하였다.

26) 新經國대전 卷1, 吏典 外官職과 新증동국여지승람 卷1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청하도의 관할 범위는 청하-영덕(盈德)-영해(寧海), 그리고 청하~경주(慶州) 방면과 청하-흥해(興海)-영일(迎日)-장기(長鬐) 등에 이어지는 역로이다. 이에 속하는 역은 영해의 병곡(柄谷), 영일의 대송(大松), 흥해의 망창(望昌), 영덕의 주등(酒登)·남역(南驛), 장기의 봉산(峯山 또는 蓬山), 경주의 육역(陸驛) 등 7개 역이다. 평릉도(뒤에 중심역이 교가역(交柯驛 : 삼척)으로 이속하였다)의 관할범위는 강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삼척-울진-평해(平海), 북쪽으로 양양(襄陽)에 이어지는 역로(驛路)이다. 이에 속하는 역은 강릉의 동덕(冬德)·대창(大昌)·구산(丘山)·목계(木界)·안인(安仁)·낙풍(樂豐), 삼척의 신흥(新興)·사직(史直)·교가(交可, 交可)·용화(龍化)·옥원(沃原), 울진의 흥부(興富)·수산(守山)·덕신(德神, 또는 德新), 평해의 달효(達孝) 등 15개역이다(鄭杓根, 新高麗 朝鮮初 驛路網과 驛制 研究 兪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8, 257쪽 참조).

27) 서영일, 新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兪학연문화사 1999, 24-25쪽.

이사부는 우산국(울릉도)를 점령하였다. 강릉까지 복상했던 신라가 6세기 초두에 東海로 본격 진출했던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증왕대 牛耕法 실시를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 선박이용제도정비 東市 개설을 통한 유통경제 활성화 등 각종제도 정비로 상징되는 사회 발전 때문이었다.

이사부가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사자로서 그들을 위협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사부가 이끄는 수군의 무력시위 혹은 위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산국 사람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할 정도의 무력 시위였다면 이사부의 수군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대형전함과 잘 훈련 된 군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⁸⁾

그렇다면 신라는 해양으로 진출하여 정복활동을 벌일 정도의 수군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의 사회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동해안의 험한 지형이 이동수단으로 항해기술발전을 촉진시켰지 않았나 생각해볼 수도 있다. 연안 항해기술 축적이 원양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된 것은 세계사의 상식이다.

4. ‘水路’의 의미

수로부인과 순정공의 여정이 시작되기 약 300년 전, 배를 이용하여 고구려와 왜에서 신라로 두 王弟를 탈출시킨 박(김)제상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고구려에서 寶海를 탈출시킨 제상은 왜국에 불모로 가있는 미해를 구출하기 위해 곧장 바로 栗浦(울산)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배를 타고 왜국으로 향했다. 배위에 오른 남편을 제상의 아내는 간곡하게 불렀지만, 제상은 손을 흔들며 보일뿐 배를 멈추지 않았다고 新삼국유사²⁹⁾는 기록하고 있다.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고구려를 탈출한 寶海의 이야기를 보자.

눌지왕 10년 乙丑(425)…략… 제상은 왕의 앞에서 명령을 받고 바로 ‘北海之路’로 향하여 變服하고 고구려에 들어가 寶海(눌지왕의 동생)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도망할 일자를 약속해 놓았다. 제상은 먼저 5월 15일에 高城 水口에 와서 배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날짜가 정해지자 보해는 병을 핑계로 몇일동안 조회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밤중에 도망하여 고성 바닷가에 이르렀다. 고구려 왕은 이를 알고 수십명의 병사를 시켜 쫓게 하니 고성에 이르러 따라잡게 되었다. 그러나 보해는 고구려에 있을 때 늘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기 때문에 쫓아온 군사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두 화살의 축을 뽑고 쏘아서 몸이 상하지 않고 돌아 올 수 있었다(新삼국유사²⁹⁾권1, 기이 제1 내물왕 김제상 조).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제상이 눌지왕의 동생 보해를 탈출 시킨 경로는 고성에서 포항에 이르는 해로인 것으로 보인다.

육로로 탈출했다가는 지형상 도주로가 뻗은 동해안 길에서 고구려군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다. 배로의 탈출이 안전했기 때문에 특별히 배를 이용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배는 연안이동에 용이한 도구이기도 하다. 날씨와 바람이 맞으면 배는 매우 빨

28) 권덕영, 「三國時代 新羅의 海洋進出과 國家發展」 新STRATEGY21 卷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210쪽.

랐다. 이동비용과 노력이 육로보다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 물론 이동하다가 항구에 들려 쉬어가야 했다. 고대에 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현재 고성항, 박제상이 보해와 탈출을 했던 高城 水口로 추측된다.



피항을 해야 했고, 항구에서 식량과 물을 공급 받아야 했다.²⁹⁾

‘新삼국유사冤 권2 기이 제2 수로부인 조’를 보면 수로부인과 그 일행이 바닷가에서 2차례 점심을 먹는 기록이 보인다.

“성덕왕대 순정공(純貞公)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도중에서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곁에는 돌 봉우리가 병풍과 같이 바다를 두르고 있어 그 높이가 천 길이나 되는데, 그 위에 철쭉꽃이 만발하여 있었다. 공의 부인 ‘水路’가 이것을 보더니 좌우 사람에게 말했다. “꽃을 꺾어다가 내게 줄 사람이 없는가.” 그러자 從者들은 “거기에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때 암소를 끌고 곁을 지나가던 늙은이 하나가 있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 歌詞까지 지어 바쳤다. 그러나 그 늙은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 뒤 편안하게 이틀을 가다가 또 臨海亭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나더니 부인을 끌고 바닷 속으로 들어갔다.”

29) 윤명철, 「高句麗 發展期 海洋活動能力에 대한 검토」 新 延瀨教授停年退任紀念史學論叢 1995, 참조.

위의 기록을 보면 배를 이용하여 이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면 수로부인 그녀의 이름이다. ‘水路’라는 이 작은 편린이 그녀의 여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장인물의 이름은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그녀의 남편 김순정은 성덕왕대 바다 건너 일본과 외교와 교역을 주도했던 신라의 집정上宰였다.³⁰⁾ 동왕대 그가 생존했던 725년 이전까지 총 14회 일본과의 사절 왕래가 있었다. 726년 일본에서 귀국길에 올랐던 신라사신 金奏勳 등은 일본왕이 신라의 집정대신 김순정 등에게 내리는 칙을 받기도 했다. 그때 김주훈은 김순정이 전년 6월 30일에 죽었다는 사실을 일본왕에게 보고했다. 일왕은 자신의 吉士가 죽었다고 한탄하고 많은 비단제품을 賻儀로 내놓았다. 일왕은 김순정을 자신의 신하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³¹⁾



1913년 함경도 동해안 함흥 방면에서 고구려의 舊都 국내성으로 향하는 해발 1225m 고개에 568년 신라 진흥왕이 세운 「황초령비」를 본 이마니시류(今西龍)는 신라가 동해바다를 교통로로 이용하여 북쪽 영토를 확장했다고 보았다. 그의 글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진흥왕 순수비가 북한산(서울-필자)에 세워지고 또 비자벌에 세워진 것과 비교할 때, 본비(황초령)는 비리성(강원 최북부 안변)에서 너무 멀리 (북쪽으로) 떨어져 있다. (황초령비가) 신라의 영토라고는 거의 추측할 수 없는 황초령 위에 남아 있는 것은 기이한 느낌을 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구려는 삼국 위나라시대에 한반도 서쪽에서 압록강 하구조차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음에도 동쪽에서는 강원(도) 및 경상(도) 연안의 예맥을 종속시킨 사실이 있다. 일본에서도 태평양 방면에서는 진출이 늦어 히타치(常陸 현 이바라키현)와 시모스케

30) 新羅日本紀卷33, 宝龜五年(774) 三月 癸卯 条 “本國 上宰 金順貞 때에 배(舟)와 노(楫)가 서로 이어졌으며 (相尋). 항상(常脩) 職貢을 다했다. 지금(今) 그의 손자(其孫) 김웅(邕). 繼位하여 執政하고 있다.”

31) 新羅日本紀卷9, 神龜三年(726) 秋七月 戊子 条.

(下野 현토치기현)에서 정제된 것에 비해 일본해(동해) 방면에서는 훨씬 복진했다. 이것은 바로 당시에 교통로로서 바다가 가졌던 중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비열홀 측 안변에 軍主를 파견한 시기는 新삼국사기³²⁾에 따르면 진흥왕 17년(556)이었고, 이것은 당시 신라가 발흥하던 형세로 보아 참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신라는 해상 통로를 이용해서 종래 고구려에 종속되었던 예족을 자신에게 종속시켰던 것이다. 한 걸은 더 나아가 함흥평야에 들어가 옥저를 종속시켰던 것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고구려와 백제의 싸움을 틈다 신라가 해상을 이용해 일시에 급격히 발전하여 황초령에 도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³²⁾

고려시대에 동해안지방과 경주를 약탈했던 여진해적의 활동은 이마니시의 주장을 일면 보충하여 주는 듯하다. 현종 2년(1011) 부터 숙종 2년(1097)에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기록에 나타난 것만 20여회나 된다.³³⁾ 그 가운데 일부 사례를 보자.

“(신해 2년 1011) 8월에 동여진이 100여 척의 배로 慶州에 침입하였다. 청하(淸河) 흥해(興海) 영일(迎日) 울주(蔚州) 장기(長吉)에 성을 쌓았다(新高麗史節要卷3 현종 원문대왕).”

고려가 건국 후 지금의 평안도와 함경도인 북계(北界)의 경영에 나서자 압박을 받은 여진족 중에서도 특히 함흥, 흥원, 북청 등 동북면 해변에 살고 있던 무리들 중 일부가 해적이 되어 동해안 각지에 자주 침범해 들어왔다.³⁴⁾

앞서 1011년 동여진은 100척의 배를 동원하여 동해안과 인접한 당대 최대의 도시 경주까지 쳐들어 왔다. 그들은 포항에 상륙하여 경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동해 해안 육로의 멀고 험난함은 항해를 시도했을 충분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헌화가 창작의 공간이 “石嶂如屏臨海”한 장소였다. 이는 ‘水路’를 통해 동해안의 가장 험한 삼척-울진 사이의 어느 어촌 灣에 입항하는 배에서 목격되는 풍경일 수도 있다.

5. 맺음말- 水路부인의 도보여행?

이제 본문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수로부인설화 창작 시발점이 되는 시기를 그녀의 남편 사망시기와 관등과 관직의 진급 기간을 고려하여 좁혔다.

32) 今西龍, 「新羅眞興王巡狩觀境碑考 上」 新考古學雜誌卷12-1(1921); 新羅史研究會京城 近澤書店, 1933 ; 이 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新신라사연구宛서경, 2008, 356-357쪽.

33) 김재근, 新의리의 배: 구조와 역사宛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4) “(기미 10년 1019) 4월에 鎭溟船兵都部署 張渭男등이 해적의 배 8척을 잡았는데, 供驛令 鄭子良을 일본에 보내어 해적들이 사로잡은 사람 2백 59명을 돌려주었다. … (기미 10년 1019) 7월에 우산국의 民戶로 일찍이 여진의 침략을 피하여 도망해온 자를 모두 돌아가게 하였다(新高麗史卷4, 현종).”

“(현종 19년 1028) 여름 5월에 여진이 와서 平海郡, 慶北 蔚珍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賊船 4척을 추격해 잡아 그들을 모두 죽였다(新高麗史節要卷3 현종 원문대왕).”

“(현종 19년 1028) 10월… 丁亥에 東女眞의 賊船 15척이 高城에 침입하고 己丑에 龍津鎭을 침공하여 中郎將 朴興彦 등 70여 명이 사로잡혔다(新高麗史節要卷3 현종 원문대왕).”

“(현종 20년 1029) 閏 2월 己亥에 女眞의 賊船 30여 척이 동쪽 국경에 침입해 왔으나 船兵都府署判官 趙閏貞이 쳐 쫓아버렸다(新高麗史卷5, 현종).”

“(현종 20년 1029) 3월 … 庚辰에 東女眞 賊船 10척이 溟州에 침입하여 왔으나 兵馬判官 金厚가 쳐서 물리쳤다(新高麗史卷5, 현종).”

“병자 2년(1036) 2월에 동여진 賊船이 三陟縣 桐津戌에 침입하여 人民을 약탈하므로 장수가 군사를 수풀 속에 숨겨두었다가 도적들이 돌아가는 것을 엿보아, 북 치고 소리 지르며, 추격하여 40여급을 사로잡기도 하고 베어 죽이기도 하였다(新高麗史節要卷4, 정종 용혜대왕).”

725년(성덕왕 24) 세상을 뜨기 전에 김순정은 신라 上宰로 2관등인 ‘伊滄’이었다. 이는 그가 江陵太守로 부임해간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김순정이 강릉태수로 부임해갈 때는 新羅國史記卷四 관지 규정에서처럼 6위 아찬에서 13위 사지 사이의 관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가 6위의 관등으로 강릉태수에 부임했다고 하더라도 2위의 관등이 이찬까지 진급하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新羅國史記卷四 김순정이 강릉태수로 부임해가는 시기를 성덕왕대(702년-737년)라고 명기하고 있다. 新羅國史記卷四와 新羅國史記卷四 新羅國史記卷四 新羅國史記卷四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김순정은 성덕왕이 즉위한 702년에서 그가 사망한 725년까지 23년 사이에 태수에서 上宰까지 진급한 것이다. 김순정은 젊은 시기에 강릉태수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덕왕이 즉위한 702년 직후 어느 시기 봄날에 김순정은 강릉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수로부인과 그가 함께한 여로가 어떠한 코스인지 살펴보았다. 그들의 여로는 ‘東海通’이라기보다 ‘北海通’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井上秀雄은 동해통은 신라인들이 甘浦와 蔚山 일대의 바다를 지칭하였다는 사실을 고증한 바 있다. 신라왕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북쪽으로 동해안을 따라 가는 간선도로는 북해통이었다.

신라시대 동해안을 따라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함흥에서 강릉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해안이다. 하지만 명주군 강동면에서 태백산맥의 줄기가 바다와 마주친다. 산과 바다는 거의 붙어있으며, 삼척에서 울진까지 해안은 거의 절벽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마을은 앞은 바다요 산으로 둘러싸인 灣의 좁은 귀퉁이에 붙어있다. 현화가 창작의 공간이 “石嶂如屏臨海”했던 곳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수로부인 일행이 어떠한 이동수단을 이용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수로부인과 순정공의 여정이 시작되기 약 300년 전의 배를 이용하여 고구려에서 눌지왕의 王弟를 신라로 탈출시킨 박(김)제상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新羅國史記卷1, 기이 제1 내물왕 김제상 조’의 기록을 고려해 볼 때 제상이 눌지왕의 동생 寶海를 탈출시킨 경로는 고성에서 포항에 이르는 해로이다. 당시 배는 연안이동에 용이한 도구였다. 날씨와 바람이 맞으면 배는 매우 빨랐고, 이동비용과 노력이 육로보다 훨씬 소요되지 않았다.

현화가 창작의 공간은 “石嶂如屏臨海”한 장소였다. 이는 ‘水路’를 통해 동해안의 가장 험한 삼척-울진 사이의 어느 어촌 灣에 입항하는 배에서 보이는 풍경일 수도 있다.

하지만 ‘新羅國史記卷2 기이 제2 수로부인 조’를 보면 배를 이용하여 이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면 수로부인 그녀의 이름 ‘水路’뿐이다. 때로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그의 남편 김순정은 바다 건너 일본과 외교와 교역을 주도했던 신라의 집정 재상(上宰)이기도 했다.

1913년 함경도 동해안 함흥 쪽에서 568년 신라 진흥왕이 세운 「황초령비」를 본 이마니시류(今西龍)는 신라가 동해바다를 교통로로 이용하여 함흥까지 북쪽 영토를 확장했다고 보았다. 배를 이용하지 않고서 신라가 그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512년 장군 異斯夫가 우산국(울릉도)를 점령할 정도로 신라가 항해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수로부인과 그의 남편 순정공은 702년 직후 배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을 수도 있다. 적

지 않은 가솔들을 데리고 육로로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 연안항해시 배는 항구에 들러 잠시 쉬어가야 했고, 바다와 태백산맥의 준령이 맞닿은 울진에서 삼척에 이르는 지역에서 여러 번 정박해 점심을 먹었을 것이다. 여기서 노옹 등을 만났고 지역사람들에게 목격되었을 것이다. 신라 최고위 신분의 가족들의 행차가 아닌가.

『金鰲新話』에 나타난 解冤의 具現 樣相 研究：

「萬福寺樗蒲記」를 中心으로

유권석(남서울대 교양과정부 조교수)

1. 序論

본고는 김시습이 지은 新金鰲新話에 실려 있는 「萬福寺樗蒲記」를¹⁾ 분석하여 結緣²⁾에 의한 解冤의 具現 樣相을 考察해 보고 그 意味를 밝혀보기 위해 시도된 논문이다.

주지하다시피 「萬福寺樗蒲記」는 이승의 남자와 저승의 鬼女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人鬼交歡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인공 양생은 노총각이며 가진 것이 없어 현실적으로 결혼하기 힘든 인물이다. 또한 鬼女는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 해 보고 倭寇에게 희생당한 억울한 영혼이다. 이러한 두 존재의 運命的인 사랑은 時空을 超越한 結緣에 대한 강한 慾望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들이 첫 만남 이후 장소를 옮겨가며 보내는 즐거운 시간은 정상적인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結婚이라는 통과의례의 缺乏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비현실적인 사랑은 사회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逸脫에 대한 自覺이 수반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 바로 因緣에 의한 運命論이다. 결국 여주인공의 해원은³⁾ 운명론을 앞세운 結緣에 대한 욕망이 실현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원의 문제는 귀녀의 부모와 양생의 최후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 동안 「만복사저포기」에 대해서는 김태준이 新金鰲新話에서 고찰한 이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⁵⁾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解冤과 관련해서는

1) 「萬福寺樗蒲記」의 내용은 리가원·허경진 옮김(1995), 新금오신화·매월당집 韓 한양출판에 따랐다.

2) 양생과 귀녀의 만남은 현실에서의 결혼과는 다르며 그렇다고 연인관계에 그치는 연애와도 다르다. 그러므로 인연을 맺는 것을 뜻하는 結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 해원은 억울하게 맺혀 있던 것을 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소설에서도 민간신앙에 의한 해원의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박대복(1995), 新고소설과 민간신앙 韓 계명문화사, p.143.)

4) 김태준 著, 박희병 校注(1991), 新증보조선소설사 韓 한길사, pp.58~63.

5) 「萬福寺樗蒲記」에 대한 연구는 新金鰲新話를 논의로 삼은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그 중에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박혜숙의 연구가 주목된다. 박혜숙은 특정한 사상만을 토대로 新금오신화를 바라보기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박혜숙(1989), 「금오신화의 사상적 성격」, 新韓國문화사의 쟁점집문당, pp.343~355.) 한편 「萬福寺樗蒲記」에 대한 연구 동향은 최근에 발표된 김문희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김문희(2012), 「인물의 내면소설로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의 독법」, 新

선행된 설중환과 박희병의 논문이 주목된다. 설중환은 「萬福寺樗蒲記」에 등장하는 여귀의 경우 그녀가 지녔던 怨恨을 부처를 매개로 하여 양생에게 풀었다고 보았다.⁶⁾ 그리고 박희병은 新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다섯 작품 중에서 남녀의 연애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작품의 형식화가 ‘연애’와 ‘별개여행’이라고 보았는데, 그 중에서 연애를 통해 憤恨의 감정이 해소된다고 보았다.⁷⁾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양생과 鬼女의 만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연에 대한 욕망의 실현과 해원의 과정, 영원한 이별에 나타난 승화의 관점과 같은 부분에서 기존의 논의를 補完하고 改進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결연에 의한 해원의 과정에 유교와 불교 등 종교적 가치관과 민간신앙의 관념이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에 의해 업보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작가의 숨은 의도도 면밀히 파악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양생과 鬼女의 비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解冤의 側面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解冤의 具現 樣相

「만복사저포기」기에서 양생과 귀녀가 시공을 초월한 비현실적인 사랑을 나누는 장소는 전적으로 이승이며 공교롭게도 승려들이 수행하는 寺刹의 으스스한 공간이다. 수도처인 道場에서 귀녀와 양생이 사랑을 나눈다는 설정도 파격이지만 귀녀의 모습이 주변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객관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만남은 결혼을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생이 여인을 만나면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관계를 지속하는 이면에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이루기 힘든 곤궁한 처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이는 여인이 이미 죽은 영혼이면서도 결연을 이루기 위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⁸⁾ 여인이 이승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양생이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여인이 혼자 만복사에 늦은 시각에 온 것과 情을 나눈 후 둘이 즐겁게 술을 마실 때, 개령동으로 갈 때 동네사람들이 여인을 못 알아본 일 등은 모두 비정상적인 만남에 대한 암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양생은 여인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것은 양생이 결연에 집착하여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만복사저포기」의 서사에 존재하는 비현실적인⁹⁾ 상황과 인식의 부재는 結緣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渴求했기 때문이다.

소설연구 32집, 고소설학회, pp.66~68.)

6) 薛重煥(1983), 新金鰲新話研究 冤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pp.285~286.

7) 박희병(1995), 「新金鰲新話에 小説美學」, 新韓國한문학회연구 18집, 한국한문학회, pp.242~243.

8) 죽은 영혼과 이승의 남자가 사랑하는 낯선 상황은 ‘격차에 의한 서술기법’으로 설명된 경우가 있다.(김용기(2007), 「<만복사저포기>의 敘述技法과 人物 性格의 形象化 方式 研究」제22집, 新유리문학연구 冤 우리문학회, pp.7~9.)

9) 박희병(1995), 전거서, 「新금오신화에 小説미학」, pp.240~252.

신재홍(1999), 「新금오신화에 환상성에 대한 주제론적 접근」, 新고전문학과 교육 1집, 청관고전학회, pp.301~321.

윤경희(1998), 「<만복사저포기>의 환상성」, 新韓國고전연구 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pp.235~258.

2.1. 逸脫과 因緣의 對立

양생에게 여인에 대한 心懷를 드러내게 만든 것은 바로 봄이라는 계절적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배꽃으로 대변되는 春興은 메마른 양생의 마음에 占을 통해서라도 여인을 얻고 싶은 감정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그리고 未知의 음성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 부처님과 저 포놀이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부처라는 절대자와의 대담한 승부는 양생의 결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나를 짐작케 해 주고 있다. 어쩌면 양생에게 부처라는 존재는 친근하면서도 단순히 복을 빌고 기원하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탈바꿈 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랬기 때문에 양생은 자기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혼자서 저포를 던지고 혼자서 판단하며 실체가 보이지 않는 부처님과 내기를 한다. 또한 스스로 내기의 대가를 설정했 으면서도 자신이 이겼다면 부처님을 압박하고 심지어 불좌 뒤에 숨어서 여인을 기다리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양생의 바람이 간절했던 만큼 결과는 양생의 의도대로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녀 또한 양생과 같이 결연에 대한 간절함을 토로하고 있다.

인간의 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며 선악의 응보를 피할 수 없으니, 제가 타고난 운명에도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배필을 얻게 해주시길 간절히 비읍니다.¹⁰⁾

여인은 전생의 因緣과 運命論을 거론하며 配匹을 만나고 싶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여인이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은 전적으로 왜구의 침입에 의해 不可抗力인 상황에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¹¹⁾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지만 끝까지 정절을 지켰다는 점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前生에 대한 인연과 함께 등장하는 善惡의 應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은 여자로서 지켜야 할 道理를 다 지켰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데도 쓸쓸한 골짜기에서 죽은 존재로 묻혀 있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당시의 결연에 대한 관념과 貞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저는 버들처럼 가냘픈 소녀의 몸이라 멀리 피난을 가지 못하고, 깊은 규방에 들어 앉아 끝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윤리에 벗어난 행실을 저지르지 않고서 난리의 화를 면하였 습니다. 저의 어버이께서도 여자로서 정절을 지킨 것이 그르지 않았다고 하여, 외진 곳으로 옮겨 초야에 붙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지가 벌써 삼 년이나 되었습니다.¹²⁾

여인은 죽은 영혼이며 저승으로 가기 전에 잠시 九泉을 떠도는 원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죽게 만든 왜구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배필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후대의 아랑이야기나 장화홍련의 주인공이 추구하는 해원과는 방향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승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중시되는 정절을 논하고 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도 이면적으로는 여자로서의 감정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남자를 섬기는 당시의 도덕적 관

10) 新金鰲新話 萬福寺樗蒲記

11) 전란은 新金鰲新話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만복사저포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환국(2002), 「新金鰲新話와 新鰲燈神話」 지향과 구현화 원리, 新金鰲新話연구 22집, 한국고전문학회, p.309.

12) 新金鰲新話 萬福寺樗蒲記

념을 강하게 인정하면서도 정작 부모의 허락 없이 양생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일탈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덕적 가치를 앞세우면서도 스스로의 감정에 더 매몰된 矛盾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여인이 양생을 만났을 때 나눈 대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도 또한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의심이라도 나시지요? 당신께서는 다만 좋은 배필만 얻으면 되실 테니까, 반드시 이름을 묻거나 그렇게 당황하지 마십시오."¹³⁾

여인의 목적은 오로지 인연에 의해 정해진 배우자를 만나 情을 나누고 행복한 결연을 맺는 데 집중되어 있다. 즉 자신도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면서 오히려 양생에게는 자신의 비현실적인 실체와 솔직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양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양생이 노총각이며 가진 것도 없고 혼자 살아가는 쓸쓸한 처지에 놓여있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인연을 빙자한 일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인은 양생이 이끄는 대로 만복사의 판자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雲雨之情을 나누었으며 양생은 죽은 영혼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情을 나눈 후 나타난 존재가 바로 여인을 모시고 있던 시녀였다. 시녀의 등장에서 양생과 여인의 만남이 다시 한 번 일탈이며 여인이 이것을 인연설로 정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평소에는 아가씨가 문 밖에도 나가지 않으시고 서너 걸음도 걷지 않으셨는데, 어제 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셨다가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이 말하였다.

"오늘의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느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고운님을 맞이하여 백 년해로를 하게 되었다. 어버이께 여쭙지 못하고 시집가는 것은 비록 예법에 어그러졌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된 것은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이다.

여인은 양생과의 만남이 분명히 일탈임을 자각하고 있다. 부모님께 상의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정을 나누는 상황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부처님을 거론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결연에 대한 합리화가 자리하고 있다. 즉 죽은 영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을 수도 없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처음으로 몸을 허락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자기고백을 통해 일탈을 인연으로 탈바꿈시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한 것은 아니지만 여인은 양생과의 사랑을 단순한 연애가 아닌 結緣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양생이 여인과 술을 마시면서 느낀 점과 「만강홍」 한 곡조를 불러주었을 때 여인이 말한 내용 속에서도 드러난다.

양생은 비록 의심나고 괴이하였지만, 여인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맑고 고우며 얼굴과 몸가짐이 압전하여, '틀림없이 귀한 집 아가씨가 한때의 마음을 잡지 못하여 담을 넘어 나왔

13) 癸金鰲新話宛「萬福寺樗蒲記」

구나' 생각하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¹⁴⁾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서글프게 말하였다.

"지난번에 봉도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은 어겼지만, 오늘 소상강에서 옛 낭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낭군께서 저를 멀리 버리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시중을 들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습니다."¹⁵⁾

양생은 여인의 행동에 일말의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귀한 집 아가씨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여인이 귀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단지 마음을 잡지 못한 양가집 규수의 일시적인 사랑 놀음 정도로 덮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양생의 생각과 달리 여인은 둘의 만남이 신선끼리의 만남이라고 전제하고 前生에 봉래산에서 만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어그러졌고 이번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운명에 의해 어렵게 만난 인연인 까닭에 양생을 낭군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멀리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즉 양생이 자신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시중을 들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다고 하여 지아비를 섬기는 일반적인 여인네로서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과 양생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다. 개령동에서 삼일을 보낸 후 찾아온 이별이 바로 그것이다.

여인은 양생에게 자신을 멀리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였지만 그 시간은 불과 3일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승과 자신 같은 귀신이 머무는 공간을 대비시켜 양생을 설득하고 있다. 즉 일탈과 인연을 대립시키며 결연을 유지해 왔지만 운명의 시간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다. 이때에서야 양생은 여인이 이승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양생과 여인이 벌인 일탈의 결과는 매우 허망한 것이었다.

"이곳의 사흘은 인간세상의 삼 년과 같습니다. 낭군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생업을 돌보십시오."

드디어 이별의 잔치를 베풀며 헤어지게 되자, 양생이 서글프게 말하였다.

"어찌 이별이 이다지도 빠르오?"

여인이 말하였다.

"다시 만나 평생의 소원을 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누추한 곳에 오시게 된 것도 반드시 묵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¹⁶⁾

양생과 여인은 단지 삼일 동안 정을 나누었을 뿐이며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별을 맞게 되었다. 삼일은 여인이 개령동 무덤 속에서 혼자 머물던 시간과 같은 것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야하는 최후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양생과 여인의 이별은 1차 목적인 결연을 이룬 후의 첫 이별이며 일탈의 끝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일탈의 결과는 분명 슬프이지만 다시 만나 所願을 이룰 수 있다는 暗示를 통해 또 다른 상황의 到來를 제시하고 있다.

14) 新金鰲新話宛「萬福寺樗蒲記」

15) 新金鰲新話宛「萬福寺樗蒲記」

16) 新金鰲新話宛「萬福寺樗蒲記」

2.2. 結緣과 自由의 追求

여인은 양생과의 1차적인 離別을 고하며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期約했다. 그리고 다시 인연설에 입각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탈의 결과가 헤어짐이라면 더 질긴 인연에 의해 다시 만날 수 있음을 看破했던 셈이다. 양생에게 닥친 이별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여인이 제안한 것은 사방의 친척들을 만나보는 것이었다. 네 명의 여인들이 찾아와 술을 마시며 각자의 소회를 담은 시를 읊었는데, 내용은 하나같이 결혼도 못해보고 죽은 처량한 신세를 恨歎하는 것이었다. 즉 양생을 만난 鬼女처럼 낭군을 만나 결연으로 인한 원한을 풀 것에 대한 동경과 축하, 자신들의 원한을 토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김 씨 여인을 통해 다른 여인들이 지은 시들이 음탕하여 절조를 잃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이는 죽은 영혼이면서도 현실의 여자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婦德을 지켜야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술이 떨어져 여인들과 헤어진 후 여인이 양생에게 은그릇 하나를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그런데 이때 여인이 내세운 조건이 양생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섬기겠다고 했던 부분과 비슷한 상황으로 여인이 양생에게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면,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¹⁷⁾

여인은 자신과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자고 청했으며 양생은 이를 受諾했다. 이것은 곧 죽은 영혼이지만 결혼에 대한 怨恨을 부모로부터 인정받아 풀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은그릇을 주어 부모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았다. 여인의 집안은 양생의 눈을 통해 귀족의 집안처럼 풍족하게 비춰지고 있으며 비록 결혼을 못하고 죽은 딸이지만 제를 지내고 있다는 점에서 딸에 대한 슬픔이 매우 큰 것임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즉 딸이 혼란한 전쟁 중에 정절을 지키다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문에 누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던 까닭에 애착이 무척 강했던 것이다.

은그릇을 매개로 여인의 부모를 만나게 된 양생은 그간의 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여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거든 기다렸다 함께 오라고 하였다. 양생은 과연 여인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여인의 과거를 共有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비정상적인 만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모의 슬픔을 덜어내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여인이 양생과의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의 스님과 친척들은 여전히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믿지 못했다. 이때 여인이 함께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모두에게 진실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17) 癸亥新話宛「萬福寺樗蒲記」

여인의 부모가 시험해 보려고 같이 밥을 먹게 하였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면서 오직 수저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인간이 식사하는 것과 한가지였다.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권하여 휘장 옆에서 같이 잠자게 하였다. 한밤 중에 말소리가 낭랑하게 들렸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그 말이 끊어졌다.¹⁸⁾

鬼女の 존재에 대한 확신은 둘이 나누는 대화와 음식을 먹는 소리를 통해 전해졌다. 半信半疑하던 마음이 귀로 직접 확인하게 됨으로써 양생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둘의 관계는 부모와 친척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또한 현실에서 결연을 맺고 사는 부부들처럼 거리낌 없이 함께 잠자리를 하도록 권유받고 있다. 이것은 양생에게는 2차적인 만남을 통해 1차적인 만남 후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씻는 동시에 한 여자와 결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받는 것을 뜻한다. 여인 또한 친척들과 부모로부터 결연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여인은 빼놓지 않고 자신의 일탈에 대한 죄책감과 이미 죽은 영혼이 이승의 양생을 만나 정을 나눈 것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하고 있다.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귀녀로서 양생을 만나 자연의 섭리를 어겼고 반가의 여식으로서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탈의 動機가 原初적으로 타고난 사랑의 감정에 있음을 드러내어 자신이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님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三世의 인연에 의한 것이었지만 아쉽게도 未盡한 업보가 남아있어 다시 저승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즉 여인은 인연에 의해 양생을 만났던 만큼 여자로서의 소박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業報가 끊어지지 않아 다시 이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했었습니다만, 애달게도 업보를 피할 수가 없어서 저승길을 떠나야 하게 되었습니다.¹⁹⁾

여인이 결연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바로 절개를 지키고 술을 빚으며 옷을 만드는 평범한 여인네의 삶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양생을 만날 때에도 자신의 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듯이 떠날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서사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여인과 양생의 1차 만남 ⇒ 결연에 의한 해원 (행복)
- ② 양생과 여인의 1차 이별 ⇒ 운명론 (슬픔)
- ③ 양생과 여인의 2차 만남 ⇒ 부모의 결연 인정에 의한 해원 (행복)
- ④ 양생과 여인의 2차 이별 ⇒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불완전한 해원 (슬픔)
- ⑤ 양생과 여인의 3차 이별 ⇒ 진정한 사랑에 의한 자유 획득 (승화와 행복)

여인은 이별에 따른 안타까운 목소리만 남겨 놓은 채 양생과 부모의 곁을 떠나 저세상으로 가버렸다. 여인은 처음 양생을 만나게 되면서 1차적으로 해원되었으며 부모의 인정을 받음으로서 2차적인 해원을 이루었다. 그러나 저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업보로부터의 완전한 해원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편 양생 또한 여인과의 사랑에 성공했고

18) 新金鰲新話 萬福寺樗蒲記

19) 新金鰲新話 萬福寺樗蒲記

여인의 부모로부터 공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노총각으로서 지니고 있던 恨을 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인의 부모 또한 여인이 저승으로 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가슴 속에 묻었던 응어리를 풀고 결연을 시켰다는 점에서 해원될 수 있었다. 양생은 이때에서야 여인이 귀신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으며 여인의 부모는 비로소 양생과 여인의 관계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해원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다. 양생은 여인이 떠나간 뒤 연민이 남아 여인이 묻혀 있다는 개령동으로 찾아갔다. 이때 여인의 부모 또한 여인이 양생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것처럼 재물을 받고 딸자식을 잊지 말아달라고 한다. 양생을 사위로 인정하면서 하나뿐이었던 딸의 소망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양생은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낸 남편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장례를 지내 주었는데, 제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다.

지난번에 하룻밤 당신을 만나 기쁨을 얻었으니, 비록 저승과 이승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알면서도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움을 다하였소. 장차 백년을 함께 지내려하였으니, 하루 저녁에 슬피 헤어질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²⁰⁾

양생은 뒤늦게 여인이 鬼女였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즐거움과 이별의 슬픔을 일반 사람과 다름없이 느끼고 있다. 즉 자신이 만났던 대상이 비록 鬼女로 判明되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傷心이 깊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을 모두 팔아 다시 한 번 여인을 위한 재를 올리게 되었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다시 정업을 닦아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나십시오."

양생이 정성을 다해 재를 올려 준 덕분에 여인은 저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다. 미진한 업보가 남아 양생과 헤어졌지만 양생의 극진한 사랑이 담긴 제사를 통해 저승으로 가지 않고 輪回에서 解放된 것이다. 이는 여인에게 있어 3차적인 해원이자 모든 인연과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뜻한다. 귀녀는 양생이 보여 준 진정한 사랑을 통해 완전한 해원을 이루었으며 양생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것은 양생이 단지 자신의 욕망에 의해 결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여인이 양생을 통해 眞正으로 해원된 것과 달리 양생은 장가도 들지 않고 혼자 남겨졌다는 점에서 悲劇에 가까운 최후를 보여준다.²¹⁾ 그러나 양생의 최후가 정말 비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귀녀는 양생에게 해원되었음을 알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는 사랑이 昇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인의 양생에 대한 감사는 사랑의 승화라는 측면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연에 의한 관계에서 영원한 자유를 추구하는 道伴과 같은 사이로 발전한 것이다. 여인은 자신의 해원을 확인하고 나서 양생에게 정업을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제안함으로써 혼자 남겨진 양생

20) 新金鰲新話(萬福寺構蒲記)

21) 김정식은 불교관에 입각하여 낙관적 비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정식(1991), 「新金鰲新話에 나타난 김시습의 창작의식」, 新韓國어문연구會 6집, 한국어문연구학회, p.280.) 설중환은 이상세계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설중환(1983), 新금오신화연구會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p.125.)

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귀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기에 때문에 양생은 결국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을 수 있었다. 여인이 떠나간 뒤 양생이 장가들지 않고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캔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양생의 최후는 鬼女와의 이별이라는 점에서는 비극이지만 그 후 정업을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행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인과 양생의 만남은 결연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어 일탈에 대한 강한 자각을 수반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인의 완전한 자유와 부모의 해원, 양생의 완전한 해원에 대한 추구로 귀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解冤의 意味

「만복사저포기」에 등장하는 양생은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으며 결혼도 못한 고독한 존재이다. 그런 그가 지닌 능력이 있다면 시를 잘 짓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귀녀에게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을 주었으며 자신도 정업을 닦는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다. 양생이 보여주는 이러한 삶의 궤적들은 마치 세상과 不和했던 方外人 김시습의 행적과 닮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처를 방랑하다가 경주 금오산에 들어가 시련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대결을 소설 新金오신화²²⁾에 나타냈다는 평가나²²⁾ 「만복사저포기」에서 귀녀가 양생을 받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저버린 것에 대해 정치적인 상황을 반영한 분석²³⁾ 등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된 유추에도 불구하고 해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뒤튼린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김시습의 삶에 드리워졌던 회한을 풀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장래가 촉망되던 김시습은 뜻하지 않았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으며 그렇다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도 누리지 못했다. 이런 좌절과 결혼에 대한 동경이 「만복사저포기」를 통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즉 뒤튼린 현실을 결연을 매개로 한 해원으로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김시습의 삶에 대한 회한의 반영은 나이 쉰 살에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남긴 「自歎」이라는²⁵⁾ 시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나이 쉰이 되었어도 자식 하나 없는 자신의 인생이 가엽지만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이것은 이이가 지은 「김시습전」에서도 확인되듯이 나이 47세에 결혼했던 안 씨와의 생활이 예기치 못한 그녀의 죽음으로 불행하게 끝났기 때문이다.²⁶⁾

다음으로 新金오신화²²⁾를 창작할 당시 김시습은 30대였지만 이미 24살에 정치 상황에 절망하고 승려가 되었다. 즉 김시습은 儒敎의 환경에서 성장했고 儒敎의 통치 질서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승려가 되면서 유교적 가치관에 매몰되었던 心境에 變化를 보이고 있다. 귀녀가 보여준 일탈에 대한 자각이나 죽은 영혼이지만 양생과의 관계를

22) 조동일(1991), 新金國문학통사²²⁾ 2권, 지식산업사, p.395.

23) 소재영(1987), 新金소설통론²³⁾ 이우출판사, pp.93~94.

24) 일찍이 김기동은 「만복사저포기」의 내용에 대해 30여세의 老總角이었던 김시습이 결혼을 못해 본 것에 대한 幻想의 心境을 반영시킨 것으로 보았다.(김기동(1983), 新金조시대소설론²⁴⁾ 이우출판사, p.80.

25) 상계서, 新金오신화·매일당집²⁵⁾ p182. 「自歎」 五十已無子, 餘生眞可憐. 何須占泰否, 不必怨人天. 麗日烘窓紙, 清塵狐坐氈. 殘年無可願, 飲啄任吾便.

26) 전계서, 新金오신화·매일당집²⁶⁾ pp.286~288.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한 것은 분명 유교적인 價值觀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에 대한 자각은 언제나 인연에 의한 운명론에 압도당한다. 귀녀를 통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탈에 대한 자각과 인연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운명론의 대두는 이러한 정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짐작할 때 비록 이야기 속에서라도 유교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면서도 끝내 불교적인 인연을 앞세워 유교적인 가치관을 脫皮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내세웠던 당시의 지배층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도 있다.

셋째, 결혼은 현실이다.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복사저포기」를 통해 김시습의 눈에 비친 결혼은 다분히 抽象的이다. 만남의 즐거움과 이별의 슬픔만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것이 원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모두 여성들이다. 양생과 함께 시를 짓고 놀았던 네 명의 여자 친척들은 결연을 못해보고 죽었기 때문에 결연에 대한 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만복사저포기」에서 결연에 대한 욕망의 성취는 이미 죽어 저승으로 가야할 鬼女와의 사랑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간절한 결연의 이면에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전제되어 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鬼女는 양생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자유를 얻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여성들이 사랑을 통해 불평등한 삶에서 구원될 수 있음을 갈파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만복사저포기」에 존재하는 해원의 의미는 대략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4. 結論

第30次 中央語文學會 全國 學術大會

현대문학

한국적인 것과 타자들
김영찬(계명대)

2007 개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현대시 텍스트 분석
류찬열(중앙대)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타자 형상화 방식의
변화 과정 연구
장성규(서울대)

新마스터를 통해 본 ‘공통성’과 ‘소통’
허정(동아대)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수기를 중심으로-
강진구(중앙대)

親인보에 나타난 역사의 형상화 양상
-4·19 시편, 5·18 시편을 중심으로-
장은영(경희대)



한국적인 것과 타자들

김영찬(계명대)

당일 배포합니다

2007 개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현대시 텍스트 분석

류찬열(중앙대학교)

1. 서론

이 연구는 2007년 개정 문학교과서(14종)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현대시 텍스트를 분석하여, 고등학교 ‘문학’ 교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 9월 17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대비 0.7%(46,954명)로 집계되었고, 2014년에는 1%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학교 급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72.0%(33,792명), 중학생이 20.5%(9,647명), 고등학생이 7.5%(3,515명)로 여전히 초등학교 비율이 높지만, 중·고등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¹⁾

최근 발생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방화 사건은 이러한 객관적 통계에 잠복해 있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근원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12년 3월 3일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푸른 눈을 가진 한국 국적의 17살 소년이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년은 왜 불을 질렀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불이 나면 쾌감이 느껴지고 화가 풀린다. 나는 분명 한국 사람인데 주변에선 한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아니라고 한다. 나는 반쪽이다.”라고 답했다.²⁾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몇몇 신문이 사실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여야 국회의원 71명이 소년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덕분에 소년은 교정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1) 보도자료, 「다문화가정 학생 5만명 시대」, 교육과학기술부 홍보담당관실, 2012. 9. 17.

2) 이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는 이해인, 「왕따 시달리던 다문화 소년 ‘분노의 연쇄방화」(新경향신문 2012년 5월 15일자 5면)와 김지훈, 「왕따에 분노…주택가·학교에 화염병」(新한겨레신문 2012년 5월 16일자 10면)을 참조하기 바람.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미구에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를 비극적 사건이 훈훈한 미담으로 적당히 봉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필자의 인상은 이제까지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치중하여 오히려 그들을 한국사회의 이등 시민으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으로 확대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다문화가정 학습자에서 일반 학습자 전체로 확대하고, 다문화교육을 선택 주제가 아닌 필수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Banks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6가지 목표는 우리에게 좋은 참조 틀을 제공한다. Banks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첫째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둘째 학생들에게 문화적·민족적·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이며, 셋째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그리고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신체적·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다섯째 학생들이 전지구적이고 평평한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적 능력을 습득시키는 것이며, 여섯째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공동체, 국가적 시민공동체, 지역문화 그리고 전지구적 공동체에서 제 구실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³⁾

물론 개별 교과 수준에서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현대시 텍스트가 시적 주체의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시적 대상인 타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양상을 분석하는 수준에서 문학교과서의 다문화교육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 2007 개정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텍스트 현황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현행 2007 개정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텍스트의 현황을 제시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표 1> 2007 개정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텍스트 현황

출판사	교과명	단원	제목
금성출판사	국어 상	4. 분석과 시사 논평 (2) 시사 문제 논평하기	다문화 사회, 동화가 아니라 공존
디딤돌	국어 상	7. 함께 만드는 세상 (2) 다문화 시대의 현주소	다문화 시대의 현주소
비상교육	국어 상	3. 세상을 보는 눈 (1) 다문화 사회를 위한 노력	다문화 사회를 위한 노력

3) James A. Banks, 新다문화교육 입문 宛 모경환·최충욱·김명정·임정수 공역, 아카데미 프레스, 2009, pp.2~7.

창비	국어 상	2. 읽기와 쓰기의 즐거움 (1) 완득이	완득이
창비	국어 상	7. 생활, 매체, 소통 (1) 화음을 이루는 축제	화음을 이루는 축제
창비	국어 하	4. 정보의 수용과 비판 (2) 세계 인권 선언문	세계 인권 선언문
천재교육	국어 하	4. 세상을 말하는 언어 (2) 논평하기	건강 사회 만드는 '다양성'
해냄에듀	국어 상	6. 다양한 입장과 관점 (2) 시평쓰기	이주민과 선주민
해냄에듀	국어 하	4. 사람과 사람 (1) 잘 빛은 면담 기사	가수 인순이, 꿈을 말하다

<표 2> 2007 개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텍스트 현황

출판사	교과명	단원	수록 작품
교학코포레이션	문학 II	I 한국문학의 위상 01 다문화 시대의 한국 문학	박범신, 나마스떼(소설)
미래엔	문학 II	IV 한국문학의 세계화 1. 다문화 시대의 한국 문학 (1) 다문화 시대 한국 문학의 양상 (2) 다문화 시대 한국 문학의 방향	하종오, 밴드와 막춤(시) 김태용, 달리는 차은(시나리오)
비상교육	문학 II	I 문학의 위상 3. 한국 문학의 세계화 (1) 다문화 시대 한국 문학 01 마주 보며 웃어 작품으로 적용해 보기 : 거대한 뿌리	연미정·이해정, 마주보며 웃어(드라마 대본) 김중미, 거대한 뿌리(소설)
비상교평	문학 II	I 한국 문학의 위상 3. 세계 속의 한국 문학 (1) 다문화 시대 한국 문학 01 마주 보며 웃어 생각 넓히기 : 골목길	연미정·이해정, 마주보며 웃어(드라마 대본) 하종오, 골목길(시)
좋은책 신사고	문학 II	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3. 한국 문학의 세계화 (1) 다문화 시대 한국 문학 : 동승	하종오, 동승(시)
지학사 (대표저자 이송원)	문학 II	4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2] 세계화 시대의 한국 문학 01 달리는 차은 작품 더 읽기 : 원어	김태용, 달리는 차은(시나리오) 하종오, 원어(시)
지학사 (대표저자 최지현)	문학 II	6.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3. 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 01 신분	하종오, 신분(시)
창비	문학 II	I 한국 문학의 위상 2. 한국 문학의 세계화 [1] 다문화 시대의 한국 문학 01 코끼리 적용 활동 : 원어	김재영, 코끼리(소설) 하종오, 원어(시)
천재교과서 (대표저자	문학 II	Ⅲ.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2.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관련	

정재찬)		양상 (2) 세계화·다문화 시대의 한국 문학 02 명랑한 밤길 작품 너머로 : 사과 한 알	공선옥, 명랑한 밤길(소설) 조인선, 사과 한 알(시)
천재교육 (대표저자 김윤식)	문학 II	II.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2. 한국 문학의 세계화 (1) 다문화 시대의 한국 문학 01. 코끼리 02. 원어 작품 너머로 : 사과 한 알 확인 학습 : 힘내라, 네팔	김재영, 코끼리(소설) 하종오, 원어(시) 조인선, 사과 한 알(시) 한명희, 힘내라, 네팔(시)
천재교육 (대표저자 고형진)	문학 II	III. 한국 문학의 세계화 1. 다문화 시대의 한국 문학 (1) 시내버스 정류장에서(하종오) (2) 나마스테(박범신) 확장 학습 : 불법 체류자들, 가리봉 연가 단원의 마무리 : 붉은 얼굴로 국수를 말다	하종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시) 박범신, 나마스테(소설) 박후기, 불법 체류자들(시) 공선옥, 가리봉 연가(소설) 신용목, 붉은 얼굴로 국수를 말다(시)
해냄에듀 (대표저자 조정래)	문학 II	IV.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3.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문학 이미테이션	전성태, 이미테이션(소설)

표 1과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현행 국어교과서의 경우에는 주로 비문학 지문을 활용하여 ‘다문화시대’ 혹은 ‘다문화사회’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고 있고, 문학교과서의 경우에는 주로 문학 지문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공감과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이 “교육과정의 구조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내용, 개념, 주제, 관점을 교육과정에 더하는 부가적 접근법”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문화 텍스트들이 적절하게 수업시간에 활용되어 교수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양미영은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그것은 첫째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하나인 다문화교육이 다른 범교과 주제들과 명확한 구별이 되지 않아 다문화교육이 새터민·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교육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것이고, 둘째 35개의 범교과의 선택 주제로만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교육이 범교과의 필수 주제로 강화되어 교육과정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다문화교육이 수업시수가 많은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⁵⁾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개된 양미영의 이러한 비판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물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편에 “(20)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4) 양미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서 내용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32.

5) 같은 논문, pp.32~33.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과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⁶⁾는 항목을 두어 2007 개정 교육과정보다 진전된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 교육’이 여전히 필수 주제가 아닌 선택 주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지는 의심스럽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어떤 다문화텍스트를 수록할 것인가 라기 보다는 어떻게 다문화텍스트를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고등교육 목표 중 네 번째로 제시한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⁷⁾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문화교육이 교육과정의 구조 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3. 2007 개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현대시 텍스트 분석

II 장의 표2에서 제시한 것처럼, 2007 개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현대시 텍스트는 중복 수록된 텍스트를 제외하고 총 10편이다. 이를 작가 별 가나다라 순서로 정리하면, 박후기의 「불법 체류자들」, 신용목의 「붉은 얼굴로 국수를 말다」, 조인선의 「사과 한 알」, 하종오의 「골목길」, 하종오의 「동승」, 하종오의 「밴드와 막춤」, 하종오의 「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하종오의 「신분」, 하종오의 「원어」, 한명희의 「힘내라 네팔」 순이다. 이러한 텍스트 수록 현황에서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하종오의 시가 6편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하종오의 시 작업이 양과 질 두 차원에서 다른 시인들이나 작가들의 작업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⁸⁾

하종오의 ‘다문화시’가 갖는 시사적 의의와 가치에 걸맞게 현행 14종 문학교과서는 부텍스트로 실린 「골목길」을 제외한 총 5편의 시(「동승」, 「밴드와 막춤」, 「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신분」, 「원어」)를 해당 단원의 주 텍스트로 싣고 있다. 이 중에서 「동승」과 「신

6)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1호), 2012, p.26.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는 다음과 같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등”

7) 같은 책, p.13.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진로를 개척하며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를 갖춘다. (2) 학습과 생활에서 새로운 이해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3)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4)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협동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8) 필자는 두 편의 논문에서 하종오 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시대 한국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류찬열, 「다문화시대와 현대시의 새로운 가능성」, 新韓國어문44, 국제어문학회, 2008, 류찬열, 「하종오 시에 나타난 다문화 연구」, 新다문화콘텐츠연구11,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1을 참조하기 바람.

분」을 선택하여 시 원문과 해당 문학교과서의 학습활동을 함께 인용한 후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껄삭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동승」 전문

1. 이 시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는지 말해 보자.
2. 시상 전개 과정에 따라 화자의 내면이 변화하는 양상을 정리해 보자.
3. 이 시의 주제를 고려하여 제목인 ‘동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좋은책신사고 문학 II(대표저자 이승원), 활동 다지기, pp.94~95.)

이 시의 시적 주체는 공휴일 오후 밥벌이(잔무)를 위해 국철을 타고 사무실로 가는 중이다. 이때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누는 아시안 젊은 남녀 한 쌍을 발견하고 이들을 바라본다. 여기서 주목해 할 시적 점은 시적 주체(나)와 시적 대상(아시안 젊은 남녀 한 쌍) 사이에 발생하는 시선의 비대칭성과 불균등성이다. 즉,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만,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이는 내가 국철을 탄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이 국철을 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라는 상황 인식을 전제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이 나로 하여금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 보”게 한 것이다. 만약 저들이 그 나이 또래의 한국인 남녀였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국철을 타고 간다는 것에 “천박한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저들이 아시안 젊은 남녀였기 때문에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물론 하종오의 시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이 시에도 무의식적인 시선의 폭력에 대한 자기반성이 뒤따른다.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만약 이 시가 이러한 자기반성에 머물렀다면, 이 시는 범상한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는 이러한 자기반성을 조금 더 밀고 나간다. 색깔이 다른 여러 마리 새가 함께 물결을 타는 것처럼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

하지 못하는 나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일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시의 시적 주체는 이처럼 자기반성의 주체이자 자기성찰의 주체이고 타자에 공감하는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⁹⁾

이 시의 분석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이 시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주류 한국인들의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을 토대로 극복하여 그들을 자신의 ‘동승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도 쉽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형상화 되었다. 따라서 이 시는 고등학생들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한국사회의 소수자들 혹은 타자들이 한국사회라는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는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사실을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문과 함께 인용한 문학교과서의 활동학습도 비교적 잘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습활동이 텍스트의 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이 시의 감상과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을 대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와 같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소수자들 혹은 타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항목을 더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파파원한 씨는 이주민이고
지한석 씨는 정주민이지만
같은 공장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여서
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다

공장의 불문율에는
일하고 있는 동안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불법 체류 합법 체류 구분하지 않고
출신 국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걸
그도 알고 그녀도 안다
세계의 어떤 법령에도
노동하는 인간의 신분을 따질 수 있다고
씩어 있진 않을 것이다

한국 청년 지한석 씨가 내는 숨소리에
미안마 처녀 파파원한 씨가 가만히 귀기울인다

—「신분」 전문

1. 이 작품은 ‘파파원한 씨’와 ‘지한석 씨’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 <보기>와 비교할 때, 이 작품의 의도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9) 이 시에 대한 분석은 필자가 앞서 발표한 「다문화시대와 현대시의 새로운 가능성」의 분석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이 시를 비롯해 시선의 문제를 중요한 시적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은 류찬열, 「하종오 시에 나타난 다문화 연구」, 新다문화콘텐츠연구 11,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 연구원, 2011, pp.286~291을 참조하기 바람.

파파원한 씨는 외국인이고 / 지한석 씨는 한국인이지만 / 같은 공장 같은 부서에 / 근무하는 노동자여서 / 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다
 파파원한 씨는 불법 체류자이고 / 지한석 씨는 한국인이지만 / 같은 공장 같은 부서에 / 근무하는 노동자여서 / 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다
 파파원한 씨는 여성이고 / 지한석 씨는 남성이지만 / 같은 공장 같은 부서에 / 근무하는 노동자여서 / 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다

2. 이 작품의 3연이 뜻하는 바를 정리하여 써 보자.
3. 작품의 제목인 ‘신분’이란 단어를 넣어 이 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완성해 보자.
 (지학사 문학 II(대표저자 최지현), 「신분」 학습활동, p.328.)

「신분」의 시적 주체는 「동승」과 달리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종오의 다문화 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적 주체의 반성과 성찰이 강조될 때는 시적 주체가 전면화 되어 서정성이 강화되고,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의 일상과 현실이 강조될 때는 시적 주체가 배면화 되어 서사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분」의 경우는 후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시적 주체는 시의 전면에 나서는 않고,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나아가 논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시의 1연에서는 ‘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는 ‘파파원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주민 처녀와 ‘지한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주민 총각이 ‘같은 공장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는 사실과 ‘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다’는 사실이 간략하게 제시된다. 별다른 시적 기교나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듯 보이지만, 1연의 구성 방식은 매우 탁월하다. 1연의 1행과 2행에서 구체적인 실명으로 제시된 ‘파파원한 씨’와 ‘지한석 씨’가, 2연에서 ‘이주민/정주민, 여성/남성, 불법체류/합법체류, 미얀마 출신/한국 출신’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가르는 모든 기준들을 부질없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3연에서 노동현장에서 조화롭게 협력(‘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다’)하는 인물을 넘어 한국사회 전반에서 상생(‘숨소리에 귀 기울인다’)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시의 제목이 ‘신분’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보통 ‘신분’은 전근대사회에서 혈통에 따라 사람의 지위나 자격이 세습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근대사회에서 혈통에 근거한 ‘신분’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법령에도 노동하는 인간의 신분을 따질 수 있다고 써어 있진 않을 것이다”라는 단정적 진술에는 근대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신분’이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과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분석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이 시는 이주민과 정주민이 동등한 인간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는 평이한 시어와 유사한 문장을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이 이주민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정주민들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원문과 함께 인용한 문학교과서의 활동학습도 무난하게 설정된 편이다. 다만 학습활동이 앞의 「동승」의 경우처럼 텍스트 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최근 “세상을 놀라게 한 차별 수업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윌리엄 피더스의 **푸른 눈, 갈색 눈**이 번역·출판되어 잔잔한 반향을 얻고 있다. 이 책은 미국 아이오와 주 라이스빌의 초등학교 교사인 제인 엘리엇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해당한 사건에 충격을 받아 자신의 학생들에게 실시한 ‘차별수업’을 다루고 있다. 실험 첫날 제인 엘리엇은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이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선언했다. 우월한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쉬는 시간이 5분 더 주어졌고, 먼저 점심을 먹을 권리도 주어졌다. 게다가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이 초대하지 않으면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은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놀 수도 없었다. 다음날 제인 엘리엇은 정반대로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이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선언했다. 물론 푸른 눈을 가진 학생들은 어제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이 가졌던 특권이 주어졌다. 이러한 이틀간의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불러왔다. ‘열등하다’는 표지를 단 학생들은 정말로 열등해 졌고, ‘우월하다’는 표지를 단 학생들은 정말로 우월해 졌다.

이렇듯 편견은 차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차별의 결과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흔히 차별의 원인이라 오해하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다문화 텍스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텍스트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해 단순히 학습될 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소수자(이주자)의 부적응 문제보다 다수자(한국인)의 차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수자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기초 자료

1.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 김대행 외 8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천재교육, 2010.
 김병권 외 11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더텍스트, 2010.
 김종철 외 9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천재교육, 2010.
 문영진 외 7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창비, 2010.
 민현식 외 11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좋은책 신사고, 2010.
 박갑수 외 7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주)지학사, 2010.
 박영목 외 10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천재교육, 2010.
 박호영 외 7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주)유웨이중앙교육, 2010.
 방민호 외 7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주)지학사, 2010.
 오세영 외 8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해냄에듀, 2010.
 우한용 외 20명, **새국어 상****새국어 하**전시본, 두산동아, 2010.

윤여탁 외 12명, 新국어 상 新국어 하 宛전시본, (주)미래엔 컬처그룹, 2010.
윤희원 외 11명, 新국어 상 新국어 하 宛전시본, (주)금성출판사, 2010.
이삼형 외 7명, 新국어 상 新국어 하 宛전시본, (주)도서출판 디딤돌, 2010.
조남현 외 7명, 新국어 상 新국어 하 宛전시본, (주)교학사, 2010.
한철우 외 11명, 新국어 상 新국어 하 宛전시본, 비상교육, 2010.

2.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고형진 외 6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천재문화, 2011.
권영민 외 8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주)지학사, 2011.
김운식 외 4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천재교육, 2011.
박영민 외 10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비상교육, 2011.
박종호 외 14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창비, 2011.
유병환 외 11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비상교평, 2011.
윤석산 외 6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교학코퍼레이션(주), 2011.
윤여탁 외 11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주)미래엔, 2011.
이승원 외 9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좋은책 신사고, 2011.
정재찬 외 5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천재교과서, 2011.
조정래 외 28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해냄에듀, 2011.
최지현 외 6명, 新문학 I 宛 新문학 II 宛전시본, 지학사, 2011.

3.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1호), 2012.
양미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서 내용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류찬열, 「다문화시대와 현대시의 새로운 가능성」, 新국어문 宛44, 국제어문학회, 2008.
-----, 「하종오 시에 나타난 다문화 연구」, 新다문화콘텐츠연구 宛11,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 술연구원, 2011.
James A. Banks, 新다문화교육 입문 宛 모경환·최충욱·김명정·임정수 공역, 아카데미 프레스, 2009.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타자 형상화 방식의 변화 과정 연구

장성규(서울대 강사)

1.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 소설에서 국경 너머의 타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급증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한국자본주의의 비교적 성공적인 반(半)주변부로의 진입과 이에 따른 중심부를 대신한 주변부에 대한 대리착취가 수행되면서, 이주노동자나 탈북자를 비롯한 타자는 실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담론이 전개되면서 한국 소설 역시 이들의 형상화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었다.

한국 소설에 나타난 국경 너머의 타자에 주목한 연구들 역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연구를 다소 거칠게나마 나누어보자면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타자의 재현과 이에 수반되는 윤리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이다. 이들 논의들은 명백히 주체에 해당하는 한국인 작가가 국경 너머의 타자를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철학적 탐색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타자에 대한 재현이 자칫 주체의 나르시시즘에 함몰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에도 일정한 유효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¹⁾ 둘째, 다양한 타자를 보다 섬세하게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국경 너머의 타자 일반으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려는 일련의 논의들이다. 이들 논의들은 타자라는 큰 호명에 가린 이주노동자, 탈북자, 난민, 여성, 낯 존재(in between) 등 다양한 타자의 양상과 정체성을 복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현재 한국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타자들이 기실 매우 복합적인 층위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²⁾ 셋째, 주체와 타자간의 연대 가능성에 주목하는 일련

1) 대표적인 논의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복도훈, 「연대의 환상, 적대의 현실」, *문학동네* 2006 겨울; 황호덕, 「넘은 것이 아니다」, *문학동네* 2006 겨울 등.

2) 대표적인 논의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중심부 제국의 주변부에 대한 폭력 속에서 만들어진 타자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 고인환, 「중동 분쟁의 문학적 수용 양상」, *문학제어문* 2011; 방민호, 「세계시민' 오수연」, *문학예술* 2003.4; 김미정, 「우리는 왜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지 않은가」, *천문문학* 2007 겨울 등. 2) 탈북 디아스포라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 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의 논의들이다. 이들 논의들은 보다 현실적인 층위에서 국경 안쪽의 주체와 바깥쪽의 타자 사이의 관계맺음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다소 관념적 심급에 그치기 쉬운 주체와 타자의 인식론적 문제설정을 수행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 소설에 나타난 타자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평가는 일정 수준의 양적·질적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반면 심도 깊은 철학적 논의나 현실과의 긴장감을 지닌 사회학적 논의에 비해 소설 텍스트의 고유한 내적 형상화 방식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다. 몇몇 단편적인 비평에서 이와 같은 작업이 수행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10여년 이상 동안 지속된 타자의 형상화 방식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추적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탐색하려는 연구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설의 내적 구성 원리가 그 주제의식과 모종의 필연적 상관성을 지닌다고 할 때, 그리고 명징한 텍스트 표면의 발화보다 이면에 숨겨진 불투명한 담화 구성의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보다 근원적인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할 때, 타자의 형상화 방식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기존 연구들이 미처 읽어내지 못한 텍스트의 징후들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소설이 언어라는 물질을 통해 구성된 텍스트이며, 이로 인해 텍스트 표면의 발화는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모순을 징후적으로 표출하는 생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그렇다면 문학 연구자의 몫은 텍스트 표면에 투명하게 새겨진 발화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불투명한 징후를 해석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⁶⁾ 이러한 관점에서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타자 형상화 방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변화를 통해 표출된 징후들을 의미화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미리 밝혀두자면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시론적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닌다. 왜냐하면 국경 너머 타자에 대한 형상화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종결된

연구, 新韓國문학논총 2009; 오창은, 「분단 디아스포라와 민족문학」, 新韓文學 2010; 김효석, 「“거울”의 서사와 “탈복”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 新韓文學 2010 등; 3)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들의 재현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들: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新韓文學집 2009;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 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新韓文學연구 2012 등.

3) 대표적인 논의들은 다음을 들 수 있다. 조정환, 「경계-넘기를 넘어 인류인-되기로」, 新韓文學집 2007 여름; 고봉준, 「타자,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新韓文學와 비평 2007 상반기 등.

4) 더불어 최근에는 보다 진전된 논의들 역시 도출되고 있다. 예컨대 젠더적 관점에서 타자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김윤정의 연구(「디아스포라 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연구」, 新韓文學한국어문학 2010)나 타자 형상화 과정에서 성찰되어야 할 국민국가적 틀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박진의 연구(「박범신 장편소설 新韓文學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이미지와 국민국가의 문제」, 新韓文學이론연구 2010), 청소년 문학에서의 타자 재현 양상을 다룬 박정애의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 갈등과 그 해결 양상 연구」, 新韓文學의 연구 2010) 등을 들 수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조할 수 있다. “(...) 언어는 활동적인 (아마 결정적인) 사회관계 구성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언어는 사고 그 자체와 함께 병존적으로 확대된다. 언어는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위치를 설정한다. 우리는 언어가 단일하지 않음을 이미 보았다. 즉 언어는 다른 그 무엇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언어 자체의 리얼리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리얼리티는 언어가 여러 가지 관행(말하기, 쓰기, 몸짓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또 사회과정에서, 사회적 모순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물질적이다.”(로잘린드 코워드-존 앨리스, 이만우 옮김, 新韓文學와 유물론 2006, 146면).

6) 피에르 마슈레의 ‘징후적 독해’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피에르 마슈레, 배영달 옮김, 新韓文學산이론을 위하여 2006 백의, 1994 참조.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서술적 정체성’의 형성을 통한 증언의 서사

흥미롭게도 한국문학의 장에서 국경 너머 타자를 형상화한 본격적인 텍스트는 픽션보다는 논픽션의 형식으로 표출되었다. 오수연의 新부 알리, 죽지 마冤아 이에 해당할 것이며 이는 그녀의 소설집 新금 지봉冤로까지 이어진다.⁷⁾ 기실 新금 지봉冤에 수록된 소설들 역시 온전한 픽션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투영된 논픽션 형식이 크게 차용된 소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장면은 이라크 전쟁에 평화활동가로 참여했던 그녀의 생생한 체험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끄트머리 장갑차 위에서 미군 병사가 기관총을 이 차로 드르륵 틀었다. 하이달은 뺨에 핏기가 가시며 감속기를 밟았고 셋은 앞으로 쏠렸다. 미군 장갑차는 앞으로, 차는 뒤로 엇갈렸다. 차가 뒤로 밀리는 만큼 미군의 기관총도 각도가 섬세하게 바뀌며 차를 정확히 조준했다. 총구에서는 광선이나 파동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와, 셋은 가슴이 짜부라지고 얼굴 살이 뒤로 밀렸다. 그것 때문에 차가 뒤로 밀려가는 듯싶었다. 미군 장갑차의 뒤쪽 범퍼와 이 차의 앞 범퍼가 나란히 줄을 맞추는 순간, 손가락 한 마디쯤 벌어진 차창으로 밀려 들어오는 모래바람과 차안에서 팽창하는 공기의 압력이 딱 일치하여 숨도 멈추었다. 그리고 미군의 범퍼가 앞으로 나가자 숨통이 트이고, 미군 범퍼가 멀어질수록 차 안의 억눌린 공기가 차창 틈으로 세차게 빠져나갔다. 후우우. 그러나 차가 장갑차 뒤로 돌아왔건만 미군의 총구도 같이 돌아왔다. 차가 뒤쳐지면 뒤쳐질수록, 군인은 총구를 서서히 올려 조준점을 맞췄다. 이제는 차를 세워도 총알이 날아올 것만 같았다. 눈앞의 총구에 이어진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차는 미군 장갑차에 질질 끌려갔다.⁸⁾

위와 같은 섬세한 장면 묘사는 실제 전쟁 현장에서의 평화활동 체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오수연의 작품들이 강한 공감을 추동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실제 체험이 기반을 둔 논픽션의 서술이 추상적 심급에서의 타자의 생과는 구분되는 ‘실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오수연의 소설은 일면 픽션이 아닌 논픽션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⁹⁾

그런데 新금 지봉冤 실린 텍스트들은 분명히 ‘소설’이라는 장르 표제를 달고 있다. 즉, 예컨대 新부 알리, 죽지 마冤아 “기록”이라는 논픽션 장르 표제를 달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종의 미학적 서술 장치가 이들 텍스트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논픽션 일반으로 환원되지 않는 모종의 욕망이 텍스트에 기입되어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당연하게도 소설이 논픽션 양식을 차용하는 과정에는, 논픽션을 픽션으로 재구성

7) 고인환은 이와 관련하여 오수연의 이라크 및 팔레스타인에 대한 서사의 전개 과정을 “기록(증언)-> 이해(번역)-> 소통(대화)-> 창조적 수용(소설)”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고인환, 「중동 분쟁의 문학적 수용 양상」, 87면.

8) 오수연, 「길」, 新금 지봉冤 실천문학사, 2007, 152-153면.

9) 이와 관련하여 논픽션과 픽션의 관계를 저널리즘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는 김성환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관습적으로 저널리즘 글쓰기와 문학적 글쓰기는 별개의 생산 기제로 이해된다. 하지만 한 작가에 의해서 저널리즘 글쓰기와 문학 글쓰기가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 두 텍스트의 장르 경계는 불분명해진다. 이 경우에 두 영역의 글쓰기는 상호 지시의 관계에 놓인다. 즉 작가의 저널리즘 경력은 소재 수준을 넘어 소설의 미학적 동력으로 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성환, 「1970년대 논픽션과 소설의 관계 양상 연구」, 新학보 2011, 14-15면).

하는 미학적 장치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 텍스트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논픽션과 픽션의 미세한 결합과 균열의 지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텍스트 표면의 진술에 숨겨진 이면에 놓인 텍스트의 욕망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수연의 일련의 소설들은 일반적인 논픽션과 구분되는 독특한 텍스트의 잉여를 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픽션을 통해 개입하는 지점이 정확히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상황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적인 논픽션의 장르적 규범, 즉 객관 현실의 팝진한 재현과는 다른 텍스트의 잉여가 픽션의 개입을 통해 생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 잉여는 다른 아닌 논픽션을 재현하고 있는 작가의 서술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오수연의 소설은 이중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인 층위에서 논픽션 양식을 차용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의사-제국주의적 폭력을 팝진하게 재현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서는 픽션 양식을 차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상도를 탐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두드러진다.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는 서쪽을 동쪽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밀려와서 가르쳐주었다. 너는 중심이 아니고, 멀고 먼 동쪽 끄트머리라고. 그런데 그 멀고 먼 동쪽 끄트머리는 어디인가. 나를 중심으로 놓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없으므로, 내게는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없다. 내가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거리를 재볼 수도 없으므로, 내게는 세상 어디도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중심 아닌 나머지 세상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¹⁰⁾

「황금 지붕」은 표면적인 스토리 층위에서 보자면 이라크 전쟁에 평화활동가로 참여한 작가의 체험을 담은 논픽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논픽션을 소설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작가-서술자의 서술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 생성된다는 사실이다. 리퀴르의 논의에 따르면 텍스트를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자아와는 다른 서술 상황에서의 주체가 형성되기 마련이며, 이를 일상적인 주체성과는 구분되는 서술적 정체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¹¹⁾ 이러한 논의를 적용시킨다면, 오수연의 텍스트는 자신의 체험을 담은 논픽션을 소설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서술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타자를 재현하는 주체 자신의 위치(position)를 모색하려는 의지의 소산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논픽션적인 체험을 소설화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위상도를 “내가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거리를 재볼 수도 없”으며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중심 아닌 나머지 세상”과의 교감 속에서 찾으려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재현되는 타자와 서술하는 주체간의 경계를 해체하기 위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아가 윤리적인 ‘증언’의 서사적 형식의 일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수연의 작품을 단순히 이라크에 대한 한국자본주의의 폭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거친 해석일 수 있다. 오히려 그녀의 작품이 타자의 형상화 과정에서 거둔 성과는,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의 재현과 동시에 타자를 재현하는 작가-서술자 자신

10) 오수연, 「황금 지붕」, 위의 책, 229면.

11) 서술적 정체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폴 리퀴르, 「서술적 정체성」, 석경징 외 편역, 癸癸대서술이론의 흐름(문학, 1997)을 참조.

의 위치에 대한 성실한 물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논픽션으로 대표되는 증언의 서사는 반드시 작가-서술자의 기록을 매개로 하여 구성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간과될 경우 기술하는 주체와 재현되는 타자 간에는 견고한 위계질서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좋은 논픽션 양식의 공통적인 특성은 논픽션을 기술하는 주체의 서술적 정체성에 대한 회의와 성찰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증언의 서사란 증언되는 타자와 증언하는 주체간의 교감의 매개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중의 구조를 고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수연의 일련의 작품들은 그 증언의 무게감을 획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호모 사케르’의 재현과 전율의 서사

오수연을 경과한 한국 소설은 이제 한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일련의 타자들에 대한 재현으로 나아갔다. 이 중에서도 김재영의 작품은 그 재현의 밀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학적 문제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타자를 재현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묘사의 팝진성에 기인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김재영을 통해 한국 소설은 추상적 심급에서의 타자가 아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구체적 실체로서의 타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묘사는 구체적인 실감을 제공하며 타자의 존재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평가될 수 있다.¹²⁾

2호실 아기가 칭얼대는 소리만 들릴 뿐 축사건물 전체가 조용하다. 나는 마당 한쪽에 있는 감나무 밑으로 다가간다. 커다란 돌맹이를 들추니 까맣고 축축한 흙이 드러난다. 나무 삭정이를 주워와 땅을 파헤친다. 굵다란 지렁이 한마리가 햇빛에 놀라 꿈틀대더니 이내 흙속으로 파고든다. 좀더 깊이 파헤쳐보지만 개미새끼 몇마리뿐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 벌써 다 썩어버렸나? 돈을 훔쳐 달아난 알리의 손가락을 초여름에 다섯 개나 묻었는데 하나도 없다. 작년에 묻은 베트남 아저씨 손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좀더 깊이 땅을 파려고 팔에 힘을 준다. 흙덩이가 부서지면서 얼굴에 튕다. 그러고 보면 알리도 대단하다. 돈을 훔칠 때 어떻게 한쪽 손만으로 캐비닛을 밀치고 벽을 파헤칠 수 있었을까. 나무 삭정이가 툭, 부러진다. 순간 하얀 뼈다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주머니에서 손가락을 꺼낸다. 휴지에 싸여 있던, 검붉은 손가락을 뼈다귀들 틈에 놓는다. 물든 감잎 하나가 손가락 위로 살며시 내려앉는다. 나는 구덩이에 흙을 푹, 밀어넣는다. 수돗가 쪽으로 침을 뱉고 나서 두 손을 모은다. “파괴의 신 시바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제물을 바라지 마세요. 특히 아버지하고 제 손가락만큼은 절대.”¹³⁾

이러한 성과는 기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타자의 재현 과정에서 주체의 문법 대신 타자의 문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네팔인 아버지와 조선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을 초점화자로 설정한 상황에서 “파괴의 신 시바”로 표상되는 타자의 신화적 코드를 차용한 서술은 초점화자의 발화에 신빙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이 작품

12) 김재영의 작품에서 묘사는 객관 대상에 대한 충실한 재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타자가 놓인 비극적 상황을 극대화하여 보여주기 위한 기법으로 기능한다. 서사학적 층위에서 이는 개별 묘사들이 전체의 연쇄를 구성하는 기법인 ‘체계화된 은유’에 해당한다. 즉, 김재영이 보여주는 각각의 세부 묘사는 결국 타자의 비극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김재영 작품에서의 묘사가 유독 강력한 전율을 제공하는 기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묘사의 세부 유형에 대해서는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옮김, 新 서사란 무엇인가 文예출판사, 1999, 239-242면을 참조.

13) 김재영, 「코끼리」, 新작과 비평 文예출판사 2004 여름, 199면.

을 관통하는 기본 서사가 힌두교 신화에서 세계를 지탱하는 존재인 코끼리가 혼돈을 상징하는 ‘외’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의 형상화라는 점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주체-서술자의 발화 대신 타자-초점화자의 발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장치로 힌두교 신화가 사용되면서, 타자에 대한 재현의 신빙성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점이 이 작품이 지니는 재현의 밀도를 담보한다. 특히 작품의 결말에 제시되는 다음과 같은 힌두교적 세계관의 붕괴는 한국 사회의 타자가 지닌 비극적 현실을 극대화시켜 형상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눈꺼풀 안쪽으로 은색 코끼리 한마리가 나타난다. 구덩이에 발이 빠진 코끼리는 큰 귀를 펴리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발버둥 칠수록 뒷다리는 점점 더 깊이 빨려들어간다. 구덩이는 삼시간에 시커먼 늪으로 변하더니 뭇튼 집어 삼킬 태세로 거세게 휘돌아간다. 아, ‘외’다. 현기증이 일도록 빠르게 소용돌이 치는 ‘외’…… 코끼리는 맥없이 빨려들어간다. 미처 비명을 지르지 못하고 눈을 부릅뜬 채. 눈앞이 온통 까맣다.¹⁴⁾

이러한 타자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 「코끼리」는 일종의 ‘전율’을 생성한다. 우리의 안온한 일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상 이면에 숨겨진 모종의 타자성이 일상 자체에 균열을 가할 때 이러한 전율은 의미를 지닌다. 실제 김재영의 작품은 공적 담론의 장에서 추방된 ‘불법체류자’로서의 타자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예 ‘법’의 외부로 추방되거나 애초부터 배제된 존재로서의 타자를 인식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는 텍스트의 구성 원리의 층위에서 초점화자의 설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¹⁵⁾ 이 작품이 충격적인 전율을 재현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사유를 지배하는 에피스테메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러나 공적 담론의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초점화자로 설정된 인물이 “호적도 없고 국적도 없”는 “살이 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¹⁶⁾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존재를 아감벤의 용어를 빌자면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법적 보호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법적 주체가 “살해할 수 있으나”, 바로 그 때문에 신성한 제단에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주권적 추방령하의 생명”인 동시에 “벌거벗은 생명”¹⁷⁾이다. 따라서 이 소년은 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틀 ‘외부’에 존재한다. 이러한 존재를 초점화자로 설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익숙한 감성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서사적 효과를 낳는다.¹⁸⁾ 왜냐하면 진정 낯선 존재로서의 타자는 일상을 위협하는 전율의 감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재영의 작품이 거둔 성과를 단순히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타자의 삶에 대한 찡찡한 재현으로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오히려 김재영의 작품이 지니는 의미는 주체의 사유틀 ‘외부’에 존재하는 타자에 대한 인식을 추동한다는 점에 있

14) 위의 작품, 212면.

15) 김남혁은 이 작품의 초점화자가 지닌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이 소설은 화자로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를 등장시키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는 미화되지 않고 그들의 궁핍한 현실은 가능한 찡찡하게 그려진다.”(김남혁, 「제국기계 앞에서 눈감는 소설」, 新작가세계 2010, 293면).

16) 김재영, 앞의 작품, 201면.

17)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新호모 사케르 新 새물결, 2008, 177면.

18) 다만 작품 내에서 간혹 소년화자가 지닐 법한 정보량을 초월하는 진술이 나타난다는 점은 타자 형상화 과정에서 작가의 욕망이 텍스트의 내적 구성 원리에 다소 과도하게 개입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로 인해 역으로 공감의 서사 구조 형성에 다소 부족한 성과를 도출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다. 그리고 이로부터 비로소 주체의 안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타자의 ‘불온성’을 복원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녀의 작품이 지니는 의미가 존재할 것이다.

4. 소수자들의 공통감과 연대의 서사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이후 활발히 발표된 타자를 다룬 작품들은 그 개별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형상화 방식의 측면에서는 타자가 처한 조건을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증언하려는 경향과, 혹은 타자의 비극적인 상황을 극대화시켜 연민의 감성구조를 추동하려는 경향으로 수렴되는지도 모른다. 이들 경향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한계를 지니는데, 이는 서술하는 자-주체와 재현되는 자-타자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원론적인 층위에서 주체와 타자가 동일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동일화의 욕망은 종종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으로 주체와 타자의 차이를 특권화시키는 편향 역시 개체들간의 공통감각의 생성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계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체와 타자가 공통적으로 처한 삶의 조건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연대의 가능성을 추출하는 작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발표된 몇몇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주목된다. 특히 최민석, 조해진, 김희선의 작품은 기존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발랄한 상상력을 토대로 심도 깊은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민석의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는 기존의 주체와 타자간의 경계설정을 카니발적 언어를 통해 해체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부당한 처우에 분개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이 내세우는 역겨운 친화적인 이미지의 대표적 허상”¹⁹⁾인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여 “청와대”로 돌진한 후 폭탄을 투척하겠다는 계획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계획은 “소년시대, 동방신기, 보아, 배용준, 이병헌”²⁰⁾등의 ‘한류 스타 문화 혼장 수여식’에 의해 갑작스레 취소된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면이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차 안에는 운전기사가 평생의 꿈이던 히말라야의 후예 구씨와, 내륙국가에서 태어나 바다를 한번도 못 본 칭기즈 칸의 후예 박씨,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전사의 족보를 자랑스럽게 이름에 달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포박당한 나 ‘유리스탄 스타코프스키 아르바이잔 스타노크라스카 제인바라이샤 코탄스 초이아 노프스키’가 함께 있다.

아, 빠듯한 직장생활에 시달려 그토록 좋아하는 주문진 회 먹을 여유조차 없었다는 운전사 김씨, 원더걸스의 이름을 울먹이며 부르는 중국소년과 그 옆에서 질세라 2PM을 외치는 태국소녀,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라며 마냥 들떠 있는 중국인 관광객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괴상한 조합이 한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²¹⁾

이토록 “괴상한 조합”이 가능한 것은 이들이 모종의 공통감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일련의 ‘한류스타’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이

19) 최민석,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 癸亥작과 비평 2010 겨울, 388면.

20) 위의 작품, 398-399면.

21) 위의 작품, 404면.

국적과 무관하게 세계체제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는 존재로서 ‘바다’에 갈 수 없는 삶의 조건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국적을 기준으로 주체와 타자를 구별짓는 문학적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행하며, 그 자리에 세계체제의 소수자들이 공유하는 공통감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공통감각은 소수자들의 정치적 리비도가 ‘한류스타’로 표상되는 대리보충물²²⁾로 수렴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조건에 기반을 둔 연대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조해진의 「이보나와 춤을 추었다」는 독특한 북유럽의 신화적 상상력과 국민국가 단위에서 추방된 난민의 정체성이 결합되어 형상화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인인 주인공 ‘지원’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는 ‘J’가 ‘Y’음으로, ‘W’가 ‘V’음으로 발음되기에” “이보나”²³⁾로 호명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호명은 기존의 한국인-주체와 외국인-타자간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해체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 해체가 가능한 것은 세계체제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지역간의 문화적 접촉의 가능성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작품의 초반부에 서술된 이보나가 탄생하는 곳이 “느릅나무 재질”²⁴⁾로 만들어진 책상이며, 이후 “느릅나무”가 미하우와 요안나가 온 ‘폴란드’의 신화적 상상력과 결합되어 의미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즉, 이보나로 표상되는 주체의 변모를 추동하는 힘으로써 주변부 민족의 신화적 상상력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소수자들의 문화적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신화적 상상력의 결합은 현실적 맥락과 결부됨으로써 더욱 강력한 의미를 생성한다. 이 작품은 주인공 지원이 자신의 또다른 이름인 이보나와 조우하면서 “M”을 환기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때의 “M”은 다름 아닌 ‘미하우’라는 점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미하우는 폴란드인이면서도 “계토에 살았”던 “반이 유대인”²⁵⁾인 소수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원이 아닌 이보나로 호명되는 순간 미하우를 떠올리는 장면은 중요하다. 이는 세계체제 속에서의 소수자로서의 공통감각이 도출되는 순간이며, 이를 통해 국적을 기준으로 한 주체와 타자간의 경계가 비로소 해체되어 소수자간의 연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해진의 작품은 그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희선의 「지상 최대의 쇼」는 기존의 타자를 다룬 작품들이 다소 간과한 지점을 매우 날카롭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타자를 둘러싼 지배 이데올로기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을 SF적 상상력을 통해 파헤치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 동부 산간 지대에 위치한 W라는 도시”²⁶⁾에 갑자기 UFO가 등장한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UFO의 등장으로 인해 형성되는 담론 체계이다. ‘외계인’이라는 타자의 등장에 대해 “‘고용안정 보장하라’ 같은 말들이 난무하는 깃발을 들고 시청 앞에 서 있”²⁷⁾던 사람들은 ‘외계인’이 자신들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뺏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곧 “‘외계인은 물러가라.’ 혹은 ‘더럽고 위험한 그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합시다.’ 같은

22) 이러한 정치적 리비도의 대리보충물로의 굴절 현상은 비단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류스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어쩌면 국적을 기준으로 주체와 타자를 구별짓는 문학적 관습 자체가 이미 소수자들의 정치적 리비도를 국경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23) 조해진, 「이보나와 춤을 추었다」, 민족문학연구소 편, 新뫼맷하시겠습니까? 憲 한겨레출판, 2012, 213면.

24) 위의 작품, 214면.

25) 위의 작품, 231면.

26) 김희선, 「지상 최대의 쇼」, 新문예중앙 2012 겨울, 138면.

27) 위의 작품, 144면.

표어가 적힌 플래카드”²⁸⁾를 들게 된다. 이러한 배타성의 발현은 “무슨 빌어먹을 놈의 인도주의는 인도주의야. 그리고 인도주의가 뭐냐고? 사람 인(人)에 법 도(道)잖아. 그런데 사람도 아닌 것들한테까지 그렇게 잘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야.”²⁹⁾라는 논리를 통해 정당화된다. 결국 외계인이라는 타자는 주체를 표상하는 ‘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의 범주에서도 추방당하는 셈이다.

문제는 정작 UFO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UFO, 즉 ‘미확인 비행 물체’는 말 그대로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UFO는 이를 둘러싼 일련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드러낼 뿐이다. 이런 까닭에 UFO는 시대에 따라 “제국주의 영국의 거울상”이나 인종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회생물학”³⁰⁾의 구체적인 현현으로 작동하기도 했고, 이후 냉전시대에는 “악의 제국”³¹⁾인 사회주의 권을 환기시키는 매개로 작동하기도 했다. 결국 UFO는 실체가 아니라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수렴시키는 가상의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따라서 W시의 상공에 등장한 UFO가 매일 아침 틀어대는 음악이 “‘활기찬 도시, 발전하는 경제’”라는 도시의 슬로건에 어울리는 것으로 마치 과거의 “새마을 노래”³²⁾와 같은 효과를 생성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나아가 일각에서 “비행접시 자체도 대형 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시각적 속임수일 게 확실하다는 의견”³³⁾이 제기되는 것 역시 필연적이다. 어차피 UFO는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다른 생명체나 다른 민족 또는 다른 국가에게 우호적으로 손 내미는 법을 알지 못했던 종족에게 내재된 상상력의 지평선 같은” “인간이라는 종(種)이 지닌 숙명적 한계”³⁴⁾를 이용하여 운동하는 가상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조우를 예비하지 못하는 주체에게, 타자란 언제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점유된 형태로 현현하기 마련이다. 이들은 구조에 복종하는(subject) 주체(subject)가 지닌 항시적인 분노와 불안의 리비도를 순치시키는 매개로 작동한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타자에 대한 담론과 정확히 조응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온갖 흉흉한 소문과 매스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진 이들의 엽기적인 범죄 등은 한국자본주의 내부의 불만을 흡수하는 내부식민지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이 SF적 상상력을 서사 구조에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SF는 시공간의 이동이나 인간 이외의 존재들(로봇, 복제인간, 외계인 등)을 통해 ‘지금-여기’의 현실을 ‘바깥에서’ 바라보게 하는 관점의 전환을 유발한다. 인류 문명과 인간 종(種) 자체를 상대화·조건화하는 SF적 시선은 그 ‘안에서’ 본 관점(문학의 관점이기도 한)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비판을 수행할 수 있다.”³⁵⁾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UFO는, 타자에 대한 환대의 감성 구조를 체현하지 못한 ‘구조에 복종하는 주체’의 한계를 환기시키는 매개로 작동한다. 나아가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불길한 소문과 이를 물리치기 위한 내부의 단결이라는 플롯

28) 위의 작품, 155면.

29) 위의 작품, 149면.

30) 위의 작품, 136면.

31) 위의 작품, 142면.

32) 위의 작품, 147면.

33) 위의 작품, 146면.

34) 위의 작품, 136-137면.

35) 박진, 「장르들과 접속하는 문학의 스펙트럼」, 新작과 비평 2008 여름, 43면.

은 한국자본주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자의 '상상된' 불온성을 환기시키며 그 본래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담론 구조와 매우 유사한 상동성을 지닌다.³⁶⁾ 이 작품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SF의 문법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타자 인식을 결합시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김희선의 작품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유통된 타자에 대한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복종하는 주체를 규율하는지를 매우 뛰어나게 형상화하고 있다. 더불어 스스로를 주체로 오인하는 우리 역시 타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비로소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외된 존재라는 공통감각의 복원이 가능할 것이기에, 그리고 이를 통한 타자간의 연대의 기획이 가능할 것이기에 이 작품은 현재 한국소설이 거둔 타자 형상화 방식의 최대치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타자 형상화 방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타자를 형상화한 초기 작품에서는 일련의 논픽션 양식의 서술 방식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오수연의 新부 알리, 죽지 마 衆의 텍스트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후 오수연은 소설집 新황금 지붕 衆에서 자신의 체험을 담은 논픽션적 서술과 이를 소설화하는 과정에서의 픽션적 서술의 결합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타자의 인식과 이에 대한 서술과정에서 생성되는 독특한 그녀만의 '서술적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후 타자를 다룬 텍스트의 급증 속에서 이들을 연민의 시선에서 재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다소 스테레오 타입화된 타자에 대한 재현이 나타나는 한계 역시 표출된다. 반면 김재영의 「코끼리」는 '호모 사케르'적 존재로서의 타자를 재현함으로써 주체의 사유들을 위협하는 전율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010년대 이후 일련의 젊은 작가들은 주체와 타자간의 경계를 넘어 소수자로서의 연대를 추구하는 발랄한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최민석, 조해진, 김희선 등의 작품은 기존에 관습화된 국적을 기준으로 한 주체와 타자간의 경계를 넘어 세계체제의 소수자로서의 연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형상화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자 형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6) 이와 관련하여 SF의 기반을 구성하는 환상성에 대한 로지 잭슨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경청할 만하다. “그들은(환상문학자들은-인용자) 독단주의적 명제와 범주를 고발하고 바로 독단주의의 토대가 되는 상징질서, 즉 주체 안에서 그리고 주체를 통하여 수립되고 지배적인 의미화 체계가 재생산되는 상징질서를 해체하고자 한다.”(로지 잭슨, 서강여성문학회 옮김, 新환상성 衆 2001, 234면).

『나마스테』를 통해 본 ‘공통성’과 ‘소통’

허정(동아대)

1. 서론

박범신의 소설 『나마스테』에는 ‘나마스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마스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해지세요, 다시 만나요 등의 광범위한 뜻을 가진 네팔말”이다. 그것은 “만남의 의미”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소통”(박범신, 2005: 13-14)¹⁾을 이끄는 말, “참다운 악수 같은 인사말”(305-306)이다. 이렇게 ‘존재들 사이의 소통’의 뜻을 함의한 ‘나마스테’를 제목으로 내세운 이 소설은 ‘한국인 여성 신우’와 ‘네팔인 남성 카밀’의 소통과 그 결렬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 제목답게 이 소설은 ‘타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이 소설은 다양한 형태의 공통성(the common)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나와 다른 존재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공통성 획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을 이 소설에서 읽어낼 수 있다. 우선, 신우와 카밀이라는 인물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들 사이의 공통성을 찾고 이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소통을 급진화시킨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소설 후반부에 형상화된 ‘공통성 나눔의 실패’와 그로 인한 ‘소통의 결렬’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공통성을 만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역시 읽어낼 수 있다.

공통성이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으로, 개체들에게 두루두루 통용되는 것이다.²⁾ 공통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크게 다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낭시·블랑쇼·버틀러의 공통성이다. 낭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유한성’이라는 실존개념에 근거하여 공통성을 살핀다. “무엇이 있음보다, 존재보다 더 공동적일 수 있는가?”(낭시, 2010: 183)라는 말처럼, 낭시는 존재 그 자체를 공통성으로 설정한다. 이 존재는 낭시가 거듭 강조하듯이 유한한 존재(낭시, 2010: 48, 174)이기에 좁혀 말하면

1) 이하 이 책의 인용은 본문 속에 쪽수만 표기한다.

2) 한국에서 the common은 ‘공통된 것’, ‘공동성’, ‘공통성’, ‘공유’와 ‘공동’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공통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낭시의 공통성은 존재의 유한성이라고 할 수 있다.³⁾ 낭시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블랑쇼 역시 탄생·죽음과 같이 존재들의 한계를 각인시키는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유한성을 공통성으로 설정하고 있다.(블랑쇼, 2005: 24)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낭시의 유한성을, 버틀러는 현실정치의 차원에서 ‘폭력 앞에 노출된 신체의 취약성’이라는 주제로 변주하고 있다.⁴⁾ 이렇게 이들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자각하게 되는 유한성이나, 폭력 앞에 노출된 인간의 취약성을 공통성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그동안 너무나 고평가되어온 주제⁵⁾를 결여의 관점에서 보면서, 유한성과 취약성이라는 이 공통성을 타자의 삶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의 출처로 삼고,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네그리와 하트의 공통성이다. 자율주의 맑스주의의 맥락에 있는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dt)는 공통성을 다음 2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공통성은 먼저 지구, 그리고 지구와 연관된 모든 자원들(토지, 삼림, 물, 공기, 광물 등)을 가리킨다. 이는 17세기 영어에서 ‘common’에 ‘-s’를 붙인 ‘the commons’라는 말로 공유지를 지칭했던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공통성은 아이디어, 언어, 정동 같은 인간 노동과 창조성의 결과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전자를 자연적인 공통성(생태적 형태의 공통성)으로, 후자를 인공적인 공통성(사회적·경제적 형태의 공통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인공적인 공통성마저 사유화·수탈하려 하지만(지적소유권은 대표적인 수탈양상에 해당한다), 자본은 그 생산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성의 생산은 점점 더 자율적인 영역이 되어간다고 본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공통성(아이디어, 정동, 사회적 관계, 삶형태의 생산)이 점점 더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코뮤니즘적 기획을 위한 조건과 무기’가 출현하고 있음을 주목한다.⁶⁾ 그들은 이(코뮤니즘적 기획)를 조직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한다.(하트, 2012: 34-47, 141) 나아가 그들은 공통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통성이 생

3) 유한성은 탄생(시작)과 죽음(끝)과 같이, 우리가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서 부각되는 존재의 미완성과 결핍됨을 일컫는다. 유한성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자기동일성은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낭시는 유한성을 각인시키는 대표적인 상황으로 죽음을 꼽는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 ‘함께-있음’으로서의 공동체가 드러난다고 말한다.(낭시, 2010: 45-47, 233)

4) 낭시의 유한성을 버틀러는 취약성으로 풀어낸다. 버틀러는 애도에는 우리가 ①인간의 취약성을 느끼고, ②서로의 삶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가져내고, ③이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해나갈 길이 있다고 본다. 버틀러는 우리는 신체 때문에 다른 이들의 접촉과 폭력에 노출되며, 상처를 입는 취약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애도의 상황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취약성을 각인시킨다고 본다. 나아가 이 취약성을 인간의 공통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애도의 순간, 우리는 타인 역시 이러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내’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듯이 타인 역시 그러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까지도 체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버틀러는 타인의 삶에 대한 윤리가 바로 이러한 인간 공통의 취약성에서부터 발원한다고 말한다. 하여 애도의 상황에서 우울증 환자처럼 자신의 취약성에 나르시스트적으로 몰입할 것이 아니라, 그 취약성을 자신과 관계 맺고 있으며 이미 자신을 이루고 있는 타자의 취약성에 대한 배려로 바꾸어갈 것을 주장한다(버틀러, 2008: 45-84). 이렇게 애도를 통해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버틀러 이론의 핵심에는 취약성이라는 공통성이 자리하고 있다.

5) “분리된-유일한(ab-soul) 존재”로 존속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주체(낭시, 2010: 26), 그래서 불사(不死)의 경지로까지 격상되는 주체(낭시, 2010: 47), 분리된 개인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블랑쇼, 2005: 13, 18)을 부인하는 주체가 바로 그러한 주체에 해당한다. 주체에 대한 이러한 비판 이면에는 주체의 지고성에 대한 믿음이 타자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무시하고, 주체를 분리된 개인이나 자율성 같은 자폐적인 영역에 빠지게 하고, 공동체에 대한 물음을 탈각시킨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다. 이 공통성은 그동안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주체중심주의를 해체하고 확인되는 것이다.

6) 점점 더 공통적으로 되어가는 생산의 성격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사적 성격과 충돌한다. 공통성은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전통적 척도에도 저항한다. 이 공통성은 공통성의 자율과 민주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여러 형태의 정치적 운동들을 연결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하트, 2012, 148-152)

산된다는 것이다.(네그리, 2008: 20) 이렇게 이들은 공통성을 공유(공동 소유) 가능한 것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공통성을 찾으려는 이러한 시도들에는 지금의 삶 속에 이러한 공통성을 부인하는 위계화되고 범주화된 분리의 사유방식이 만연해있다는 현실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함께 있음과 유한성을 부정하며 개인이라는 위치에서 자폐(自閉)에 빠진 개인주의에 사로잡힌 주체(낭시), 취약성을 타자의 것으로 투사시키며 자신의 완전성에 대한 환영을 고조시켜온 서구 중심적 주체(버틀러). 이러한 주체들은 타자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무시하고, 자신을 타자에 비해 우월한 분리된 개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자율주의 맑스주의의 맥락에서 공통성을 찾으려는 시도 역시도 그동안 여러 분할선에 의해 은폐되었던 “존재론적으로 선행하는 공통성”(진성철, 2012: 292)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공통성을 찾으려는 이 시도는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분할선에 의해 부정된 공통성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공통성은 상이한 개체들의 연결고리를 부각시키고 개체들의 만남을 촉진하는 동력 역할을 한다. 개체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공통된 근거를 만들어가는 이 작업은 이 시대에 만연한 분리의 사유방식(인종, 민족, 계층 등에 의해 자신을 타인의 삶과 무관한 위치에 놓고 사유하는 방식)에 맞서 타자와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 나아가 우리의 감각을 키워준다. 이런 면에서 공통성은 개체들이 공존·연대하는 소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래서 공통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분리의 사유방식이 만연한 현재의 삶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창안하려는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통성에 관련된 이러한 사유와 노력들은 이주민과의 소통을 형상화한 한국문학에 적용하여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차이와 다양성 인정의 차원을 넘어서, 차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와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지금의 다문화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글은 이상의 공통성(the common) 이론에 근거하여 新다마스테에 나타난 소통과 그 결렬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II~III장에서는 소통에 관한 낭시의 관점을 빌어 新다마스테를 살필 것이다. 나와 다른 이들과의 소통(차이와 조우)은 어떻게 가능할까? 낭시는 “소통은 소통 가능한 것의 질서 내에 들어가 있지 않”(낭시, 2005: 128)다고 말한다. 즉 소통은 사회의 질서 속에서 구성원들 이전에 주어진 가치로운 것(예컨대 그 사회의 구성원을 연합·융합으로 이끄는 동일성)을 공유하는 손쉽고 편안한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같음을 확인하며, 거기서 발생하는 교감을 통해 동일성을 강화시키는 현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한 동일성의 확인 속에서 동일성이 강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서로 다른 것들이 소통하는 교류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낭시는 소통이 “자신과의 단절 자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규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자기 바깥에 존재하려는, 기존에 예상할 수 없는 과잉적인 것을 만들어내며 자신을 초과하는 탈자화(脫自化)를 통해 소통은 일어난다. 낭시가 소통의 존재를 두고 “소통의-존재”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밖의-존재”(낭시, 2010: 64)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한 탈자화를 통하여 차이와의 소통이 가능해진다.⁷⁾

그러나 소통은 어느 일방의 탈자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탈자화가 어느 일방에게서 나타날 때 소통 역시 일방적인 것에 머무른다. 소통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들

7) 이러한 소통은 사카이가 말한 사회성 개념과 상통한다. 사카이는 기존에 예상할 수 없었던 과잉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교섭과 접촉)을 사회성이라고 부른다.(사카이, 2003: 233)

모두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 즉 양자 모두 변화하는 쌍방의 탈자화를 통해서 소통은 일어나게 된다. 소통은 그렇게 탈자화한 단독적 존재들 사이에서(단독적 존재들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것이다.⁸⁾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존의 폐쇄영역에서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의 전달”(블랑쇼, 2005: 37)이 이루어진다.

한편 낭시에게 있어 소통은 공동체의 다른 이름⁹⁾이기도 한데, 그것은 유한성이라는 공통의 실존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 타인을 향해 존재하려는 외존(外存, exposition)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의 실존 자체를 나누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 즉 낭시에게 있어 소통은 자신이 부여받은 주체의 위치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자화된 존재들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은 유한성이라는 공통의 실존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

新다마스테¹⁰⁾에서 신우와 카밀이 자기변모라는 탈자화의 지평을 드러내고, ‘무적자’라는 공통의 실존을 확인하면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 가능하다. II장에서는 新다마스테¹¹⁾에서 이러한 자기변모와 ‘유한성이라는 공통성의 나눔’의 과정을 살핀 뒤, 이를 이주민을 재현한 한국문학에 확대하여 살필 것이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카밀이 한국인 일반과 공통성을 나누기 위하여 탈자화하는 양상을 살필 것이다.

그러나 유한성이라는 이 공통의 실존 확인이 소통을 지속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질적인 존재들의 만남에서 소통을 급진적으로 이끌지만, 그 자체가 지속적인 소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통성을 만들려는 활동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IV장에서는 네그리와 하트의 견해를 빌어 공통성을 찾으려는 부단한 시도야말로 다른 존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新다마스테¹²⁾ 후반부에 나타난 신우와 카밀의 소통 결렬을 공통성 찾기의 지속성 부재라는 측면에서 살필 것이다.

2. 무적성의 나눔을 통한 소통의 급진화

이 장에서는 신우와 카밀이 소통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신우의 환대와 무적성 인식, 신우와 카밀의 ‘무적성의 나눔’ 순으로 살핀다. 그 뒤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자와의 소통을 지향하는 이러한 양상을 이주민을 재현한 한국문학작품 속에서 살피기로 한다.

8) 단독성은 자기 결정력과 자기 동일성을 가졌기에 스스로 정립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자폐적인 주체(개인, 자기)와는 다르다. 또한 그것은 원자들(집단으로 환원되어버리는 원자들)의 질서 내에서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러한 주체로부터 벗어나는 탈자화와 관계가 있다. 그것은 자기 잘 난 듯이 수직으로 똑바로 서있음(正立)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음의 상태인 편위(偏位)의 영역에서 발생한다.(낭시, 2010: 31-32) 단독적 존재는 다른 단독적 존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단독적 존재는 다른 단독적 존재와 만나서 출현한다. 소통이란 이러한 단독적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단독성을 단독성 자체와 소통시키는 것이다.(낭시, 2010: 72, 206) 소통이란 ‘모든 소통이론을 붕괴시키는 소통’을 의미하는 단독자들 사이의 조우다.(사카이, 2005: 253)

9) “소통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주체도 아니고 연합의 존재도 아니며, 바로 공동체와 분유이다.”(낭시, 2010: 67)

2.1. 신우의 환대와 무적성 인식

1) 신우의 환대

『네팔 마스테왕』 첫 장면은 미등록이주노동자 카밀이 공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뒤 신우 혼자 기거하는 집을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집을 불쑥 찾아온 낯선 이방인의 출현에 신우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도움을 호소하는 고통에 찬 타자의 ‘얼굴’, 키우던 개가 죽어갈 때 보인 마지막 눈빛처럼 자신을 관통해 어디 먼 곳을 바라보는 카밀의 눈빛을 신우는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아주 깊은 눈이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관통해 어디,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가 나를 보았다. 열 살도 더 된 진순이가 죽어갈 때의 마지막 눈빛이 그랬다. 열 살도 더
된 진순이가 죽어갈 때의 마지막 눈빛이 그랬다. 입원시키고 사흘 후였던가, 내가 찾아가
진순아 하고 불렀을 때, 동물병원 비좁은 침상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가 끝내
픽 하고 쓰러져 누던 진순이의 눈빛이 선연히 떠올랐다.(12)

카밀의 이 눈빛을 레비나스의 ‘얼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레비나스의 얼굴은 지각적 경험 내에서 이해되는 안색(顔色)과 구분되는 것으로, 그것은 지각 장을 뛰어넘는 좌표에 해당한다. 얼굴은 타자의 극단적인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로 번역되지 않는다. 레비나스는 얼굴이 얼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얼굴이 목소리의 작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발화에 비유하자면 그것은 ‘입에서 나오지 않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은 고통의 발성이자 우리가 타자 삶의 불확실함에 눈을 뜨게 되는 발성이다. 이 얼굴은 ‘나’의 사유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나’를 ‘너머’로 안내한다. 얼굴은 밖으로부터 ‘나’에게로 와서 (나르시시즘의 부정적인 판형이자 그 한 형태에 불과한 양심적 가책을 포함하여) 나르시스트적인 회로를 차단한다. 레비나스의 이러한 견해를 언급하면서, 버틀러는 위험에 처한 삶의 불확실함을 알기 위해 언어와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는 얼굴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버틀러, 2008: 182-205)

타자의 얼굴 속에 간직된 고통의 발성과 대면하는 순간, 신우는 이를 외면하지 못한다. “불안하고 두려운 건 나보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대편 쪽”(12)이라는 생각으로 경계심을 풀고,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하다가 쓰러지던 진순이의 눈빛을 떠올린다. 그 뒤 물과 음식을 주는 행동으로 도움을 호소하는 타자의 얼굴에 간직된 고통의 발성에 응답책임의 윤리로 대면하게 된다. 그 뒤 신우는 이 네팔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했으며, 카밀이 애인 사비나와 헤어졌을 때는 그 심신의 상처를 모성적 보살핌으로 돌본다. 그런 관계 속에서 신우는 카밀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된다.

2) 신우의 무적성 인식

신우와 카밀은 무적성이라는 서로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급격히 가까워진다. 신우와 카밀 사이의 무적성 인식은 소설 2장(46-47)에 잠시 나타났다가, 3-4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카밀이 서술자로 등장하는 3장 「희망로 7번지로 가는 길」(71-115)에는 카밀이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신우를 만나기까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하는 점이 소개되고 있다. ‘네팔 카펫공장주의 아들이었던 카밀’과 사비나의 만남, 사비나의 한국행과 그

뒤의 수난사, 소식이 끊긴 사비나를 찾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는 카밀,¹⁰⁾ 한국 도착 직후 당한 소매치기로 인해 가진 것을 잃고 여러 공장을 전전한 카밀, 한국에서 사비나와의 재회 등이 3장에서 소개되고 있다. 신우를 찾았을 때 카밀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처지에, 청바지 공장에서 한국인의 집단 구타에 맞서 샌드기를 휘둘러 한국 직원을 다치게 한 일 때문에 수배의 위기로까지 몰린 처지였다. 게다가 이후 사비나는 카밀이 한국에서 모은 돈을 훔쳐 도망쳐버린다.(60) 그 충격으로 카밀은 오른 팔이 부러지는 사고까지 당한다.(66) 카밀은 가진 것도 의지할 곳도 없는 상태였다.

4장 「세 가지 독약」 전반부(123-136)에서 신우는 자신의 무적성으로 카밀의 무적성에 화답한다. 1992년 백인우월주의에서 발발한 흑인폭동 당시 백인사회는 자신들에게 날아올 돌팔매를 막기 위해 한국인을 방패막이로 삼았다. 백인 언론은 폭동 당시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폭도를 향해 총을 겨누었던 한국인을 반복 상영함으로써 한국인들을 무법자로 부각시켰다. 그 결과 폭동은 한국인과 흑인의 갈등에 맞춰지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2000개 이상 불타게 된다. 이때 신우의 아버지와 막내오빠가 희생되고, 신우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신우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은 그렇게 박살나고 신우는 “무적자라는 본질적 소외”(135)를 느끼게 된다.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러한 무적자로서의 경험은 소설 곳곳에 반복된다.¹¹⁾ 신우는 그러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택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다중인격 장애자였던 남편(143)으로 인해 순탄치 못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다.

미국에 남거나 조국에 돌아오거나, 무적자라는 본질적 소외는 마찬가지였다.
참았던 울음 밀이 마침내 터졌다.
나는 막 들어올리던 소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모아 세운 두 무릎 사이에 이마를 내려놓고 소리내어 울었다. 천둥치는 소리가 아주 가까이 들렸다. 카밀이 나를 안아주었다.
내가 떨어뜨린 잔에서 쏟아진 소주가 무릎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카밀의 품에서 울었다.
카밀과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135)

한국사회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처지에, 수배의 위기에 몰렸으며, 애인이 돈을 훔쳐 달아나면서 코리언드림이 파탄나버린 카밀, 아메리칸 드림의 좌절을 경험했고 결혼생활마저도 실패한 신우. “카밀과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신우의 고백처럼, 카밀과 신우는 무적자로서의 공통된 처지에 있었다. 무적자의 신세로 떨어진 카밀의 처지와 대면하면서 신우는 잠시 잊고 있었던 자신의 무적성을 강렬하게 깨닫는다. 인용문에 나타난 “울음”은 카밀을 통해 새삼스럽게 환기하게 된 자신의 무적성에 대한 신우의 격렬한 반응에 해당한다.

-
- 10) 보통의 이주노동자들과는 달리 카밀의 이주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라 애인인 사비나를 한국에서 찾는 데에 있었다. 카밀은 “내게 코리안 드림은 그런 것이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 같은 거요.”(96)라고 밝힌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카밀은 적극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카밀은 한국문학에 재현된 이주노동자의 정형성(돈을 벌러 온 사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있다.
- 11) 이주민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신우는 LA 폭동 당시 경험했던 무적자(無籍者)로서의 경험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는 본문에서 진술한 내용(123-136) 외에도 46-47(아메리칸 드림이 좌절된 아버지처럼 카밀 역시 자본주의의 경쟁논리의 중심부로 편입될 수 없음을 인지함), 57(한국인의 편견 때문에 사비나가 한국에서 당한 일들을 들으면서 미국에서 놀림 받았던 점을 상기함), 300(한국정부의 강제단속에 무적자인 아버지가 미국사회를 향해 느꼈던 분노보다 더한 분노를 폭발시킴)에서도 나타난다. 애인 역시 2021년의 시점에서 어머니 신우의 일기를 보면서 ‘무적자’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고 ‘무적자’로서의 카르마가 자기 삶의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있음을 깨닫는다.(372)

흘끗 보면 신우와 카밀은 다른 처지이다. 신우는 한국인 국적을 가졌고, 카밀은 한국사회의 미등록체류자다. 그래서 신우는 자신을 카밀과 분리시켜 사유하는 방식, 즉 자신을 카밀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우월한 위치에 놓고 사유하기 쉽다. 신우 역시 처음에는 카밀과 사비나를 두고 “돈벌이 욕심에 제 나라도 등지고 여기까지 떠밀려 온 주제에”(54)라며,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고 그들을 업신여기곤 했다.

그러나 카밀과의 관계 속에서 무적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게 된다. 카밀이 한국사회에서 무적자의 처지에 내몰려 있듯이 신우 역시 미국사회의 무적자였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카밀의 무적성을 자기 것인 양 받아들이며 그 무적성으로 인해 카밀이 입었을 상처를 정성껏 치유하려고 한다. 자신이 그러하듯이 카밀도 안정된 처소 없이 부유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자신보다 더 취약한 존재라는 점을, 미국사회의 무적자였던 자신보다 한국사회에서 더욱 심한 무적자로 취급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무적자로서의 경험 속에 배양되었을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¹²⁾을 바탕으로, 자신의 취약성을 타자의 취약성에 대한 배려로 바꾸어 카밀을 모성적 품모로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된다.¹³⁾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랑을 싹 틔워가게 된다. 이렇게 무적성 인식은 신우에게 있어 카밀과의 관계를 급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카밀이 준 깨달음

그렇다고 카밀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보살펴야 하는 대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카밀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어떻게 그러한가?

어떤 장소 어떤 집의 ‘주’는, 바로 그 자신이 그 장소와 그 집의 최초의 ‘객’이다. (...) ‘객’이 ‘주’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말로 ‘객’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가 ‘객’이 와준 것을, 올 것을, 그리고 ‘주’인 자기 자신이 최초의 ‘객’이었음을 상기시켜 준 것을, 그렇게 해서 ‘주’인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주권’의 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부여해 준 것을, ‘객’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전환 말이다.(우카이, 2010: 29-31)

어떤 집의 주인 역시 따지고 보면 그 집을 방문한 최초의 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집에 정주하면서 자신의 주인됨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은 이를 달리 깨달을 기회가 없다. 그러나 집을 방문한 객을 통해서 주인 역시 객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객처럼 자기 역시 집을 방문한 최초의 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카이 사토시는 자신이 객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자기 자신을 구속하는 주권의 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부여해준 객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권을 내세우면서 객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객을 환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밀이 신우에게 준 깨달음 역시 그러한 것이다. 처음에 신우는 카밀이 쓰러진 곳이 “내 집 울타리 안”(12)임을 인식하고는, 카밀을 향해 “남의 집에서…… 뭐예요, 대체”(12)라며 짹짹한 췌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주임됨을 내세웠다. 그러나 신우는 카밀과의 대면을 통해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과거를 상기하고 무적자로서의 자신의 실존(유한성, 취약성)을

12) 소설 속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신우가 카밀을 정성껏 돌보는 대목이 몇 군데(48, 67-70, 138) 있다. 그것은 신우가 원래 모성적 품모를 가진 인물이라기보다는, 무적자로서의 경험에서 짙은 삶의 불확실함에 대한 이해, 이로 인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13) 이는 자신의 취약성에 나르시스트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약성을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타자의 취약성에 대한 배려로 전환시킨 자세에 해당한다.(버틀러, 2008: 60)

깨닫는다. 자신을 구속하는 주권의 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카밀은 고마운 존재다.

내 입술이 불가항력적인 힘에 인도되어 마른 꽃잎 같은 그의 입술을 적시는 순간 나는 무엇보다도 용서할 줄 모르는 어두운 나를 이겨냈으며, 나 자신에 대해 겸손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둘러쓰고 있던 두건을 단 번에 벗는 기분이었다.
내 속에선 매일 감사의 마음이 물결쳤다.(144)

잠든 그가 내게서 아주 겸손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은 눈물겨운 경험이었다. 미국 학교에서 놀림받을 때 느꼈던 열등감, 자기모멸이 아니라 겸손함이 내 안에 물처럼 고이는 걸 나는 느꼈다.(159)

서른 살이 돼서야 비로소 나는 단독자가 되었다고 느꼈으며, 단독자로 부딪칠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 느꼈다. 껍질을 깨고 나온 기분이었다.(164)

카밀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신우가 입었던 상처까지 치유해준다. 카밀을 사랑하게 되면서 신우는 미국학교에서 놀림 받았던 기억, 남편에게서 받았던 모욕과 같이 현재까지 신우의 삶을 가위 누르고 있는 어두운 기억들을 치유하게 된다. 카밀이 정성껏 치유해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이듯이, 어두운 방에 유폐시켜버리고 싶었던 자신 역시 정성껏 치유해야 할 소중한 존재였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과거 역시 자신과 같은 무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어낸 과거였으며,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시간이자 너그럽게 인정해야 할 시간이었다. 이렇게 카밀을 통해 자기 모멸감 대신 자기에 대한 존중과 거기서 발아한 겸손함까지 갖게 된 신우는 자신을 옥죄어오던 “두건”을 벗어던져버린 해방감과 영혼의 충일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141) 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해준 카밀은 고마운 존재다.

뿐만 아니라 카밀과 맺게 된 사랑¹⁴⁾으로 인해 신우는 자신의 단독성을 깨닫는다. 딸이라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위치, 그런 가족으로부터 도피하듯 하게 된 결혼(144)을 통해 갖게 된 아내의 위치, 이혼 후의 옷가게 주인이라는 현재의 위치. 그렇게 자신을 규정해온 집단의 부속품(원자)처럼 살아온 이십여 년의 세월동안 신우는 수인처럼 간혀 있음과 그 삶의 비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카밀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예측과 비루함에서 벗어나 집단 내의 원자로 환원될 수 없는 자신의 소중한 단독성을 깨닫게 된다.¹⁵⁾ 신우는 카밀 역시 “저 사람”에서 “그 사람 카밀”·“내 사람 카밀”·“나의 카

14) 이때의 사랑은 외존(자기 바깥, 외부에서 존재함. 타인을 향해 존재함)이다. “동일자가 타자로, 동일자가 타자로 인해, 또는 동일자가 타자에게 향해 있거나 기울어져”(낭시, 2010: 26) 있는 움직임에 해당하는 편위에 의해 획득되는 외존이다.

15) 전술한 바처럼 단독성은 스스로 정립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자폐적인 주체’와 ‘집단으로 환원되어버리는 원자’로부터 벗어나는 탈자화를 통해 발생한다. 가라타니 고진은 단독성이 윤리와 관련 있음을 다음과 같이 흥미롭게 제시한다. 개별성(특수성)은 일반적인 것 안에 속하는 것인 반면, 단독성은 결코 일반성에 속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 개’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개 일반에 속하면서도 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언가로서 있다. 단독성이란 유(類)에 대한 개(個)가 아니라, 유(類)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개(個)다. 단독성은 교환불가능하고 대체불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고유명과 관련된다. 고유명은 개체의 개체성을 한번에 가리켜 보이는 것이지, 그것을 집합 속 일원으로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를 고유명으로 부르는 자가 소를 죽이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반면 그는 적이라는 집합의 한 사람(고유명을 갖지 않고 일반성 속의 특수성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레비나스는 ‘얼굴’을 보는 한 타인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때의 ‘얼굴’을 개체의 단독성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가라타니, 2004: 339-350, 456-457) 이렇게 보면, 단독성은 타자성의 윤리와 관련이 있다. 개체의 단독성을 보지 못하고 이를 일반성 속의 특수성으로 환원하는 것(레비나스 식으로 말하면 얼굴을 지우는 것)은 이러한 윤리를 없애버린다. 여기에 대해 우에노 나리토시의 「삶의 정치와 죽음의 정치」에 나타난 다음 내용도 인상적이다. 제노

밀”(10-12, 306)로 부르며, 카밀을 교환·대체 불가능한 단독성으로 인식하게 된다.

4) 신우와 카밀의 ‘무적성의 나눔’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일방의 환대나 적극성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환대나 적극성을 다른 한 쪽이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일방향성 역시 문제적이다. 그것은 소통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이가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일방적인 관계일 공산이 크다. 한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쪽이 수동적인 상태로 고립되어 있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탈자화한 단독적 존재들의 소통’이라는 낭시의 말처럼, 소통은 서로가 자신을 변화시켜가며 서로에게 상호침투해나가는 쌍방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래서 신우와의 관계에서 카밀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하는 점 역시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많은 한국문학이 한국인 일방의 적극성과는 대조적으로 수동적인 정물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주민을 그린다. 이에 반해 新마스테(新) 한국인을 대면하는 이주민의 적극적인 태도 역시 담아내고 있다. 이는 Ⅲ장에서 기술할 카밀의 탈자화 부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그동안 연민과 시혜의 대상으로 그려졌던 이주노동자가 오히려 한국인의 아픔을 포용하는 모습이 그려진 아래의 대목에서도 잘 나타난다.

“나는 무적자니까…… 아, 아무것도 꿈꾸지 않았어.”

(…)

“더 말하지 말아요, 누나.”

“나는 우연에 내 삶을 맡겼던 거야.”

“비가 밤새 오려나 봐요…….”

카밀이 나의 눈물을 가만가만 닦아주었다.(136)

사이드(민족절멸)의 끔직함은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단독성)이 없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집단인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끔직함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에서도 발생한다. 2차세계 대전 중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을 강제수용소·절멸수용소로 이송하는 업무 종사자이며, 이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은 절대적인 권력자도 광신적인 반유대주의자도 아니었다. 그저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다루는 공무원에 지나지 않았다. 아이히만은 거대한 관료기구의 단순한 톱니바퀴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의 책임은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이송계획의 전문가로서 스스로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우에노 나리토시, 2012: 23-27) 아이히만 역시 자신을 단독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類)에 대한 개(個)라는 특수성으로 인식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관료기구에 전가하고 망설임 없이 스스로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 다음의 ‘일본군 전범의 변화’ 역시 단독성 인식과 관련 있어 보인다. 중국 대륙에서 전쟁이 끝난 뒤, 잔학행위를 했던 일본군들이 전범으로 다수 잡혀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총괄하던 수용소에 수감된 일일 있었다. 수용소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고백하는 데까지 전범들을 이끌고 갔다. 고백 이전에 그들은 자신의 전쟁범죄를 자기의식 밖으로 제외시켰으며 범죄행위에 둔감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거침으로써 그들은 범죄행위를 스스로의 죄로 경험하게 되었고, 고백의 순간 대부분 울어버렸다고 한다. 이후 그들은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사회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카이는 전범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가 중국 수용소 사람들이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임지현·사카이 나오키, 2003: 83-85)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인간적 대우보다는 단독성 인식 여부와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보인다. 먼저 가해자 측. 전범들은 자신을 유(類)에 대한 개(個)라는 특수성으로 인식하였기에, 자기행위의 책임을 일본군대에 전가하고 갈등 없이 잔학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희생자 측. 일본 전범들은 그들이 살해하거나 생체실험을 한 중국인들을 적이라는 집합 속의 한 사람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그 고백의 순간 전범들은 가해자인 자신이나 희생당한 이들이 이러한 집합 속에 아무렇게나 환원되어버리는 존재가 아님을, 유(類)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개(個)에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독성을 깨달음으로 인해 그들은 자기 변모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단독성 인식은 윤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인용문에서 신우는 카밀에게 무적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고백한다. 카밀은 신우의 이러한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무적자로 살았던 신우의 삶을 접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신산한 삶이 겹쳐졌는지 카밀은 “더 말하지 말아요”(136)라고 말을 제지하면서 신우의 눈물을 닦아준다. 신우의 눈물 속에서 우월한 척 하던 한국인들 역시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취약하다는 공통성을, 관념의 차원¹⁶⁾을 넘어 몸소 확인하게 된다. 자신들을 타자로 배제하는 폭력을 휘두르면서 결핍 없는 주체인 양 하던 한국인 역시도 취약한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를 확인하고 카밀은 신우의 아픔을 품는다. ‘내 집’이라는 주권적 인식을 가졌던 신우가 카밀을 통해 자신의 무적성을 수용하고 그 신산한 삶에서 드넓어졌을 모성적 품모로 카밀의 무적성을 마치 자신의 무적성을 대하듯 품어내었듯이, 카밀 역시 한국인의 나약함을 몸소 확인하고는 한국인들과 자신을 분리하며 거리를 두던 태도에서 벗어나 신우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을 품듯 껴안는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공통성을 나누며 소통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듯 보였던 신우와 카밀은 무적성이라는 서로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이를 나누게 된다. 서로의 유한성을 목격하면서, 그 한계 속에서 자기 바깥의 타자로 향하는 외존의 움직임 가운데 있게 되고, 타자의 무적성을 자신의 것으로 떠안으면서 무적성을 함께 나누게 된다. 함께 있음으로서의 공동체¹⁷⁾는 거기에 그렇게 존재한다.

이 공통성이 서로 닮은 존재들(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 서로의 비슷함을 근거로 서로를 이해하고 위하는 것(동병상련)이 아닌가 의심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동질성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공감’과는 다르다. 그것은 외부로 배제해버리는 “비슷한 것들의 가까움”이 아니다. 오히려 차이와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잉적인 것이기에 “낮선 것의 가까움”(버틀러, 2008: 70)의 양상으로 외부로 향해 열려 있다.¹⁸⁾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유한성은 수동성에 묶여 있지 않고 적극적인 표현의지나 실천과 결부될 수도 있다.

이런 소통에 힘입어 그들은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 속인주의라는 한국 제도의 높은 관문 때문에 아이를 낳아봐야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도 하고, 혼혈인의 잉태를 가문의 수치로 보는 편견 때문에 불법 낙태를 앞선하려는 가족의 요구도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딸 애린을 낳게 된다. 소설 전반부에 해당하는 여기까지의 내용은 공통성 인식이 이질적인 존재들 사이의 소통에 있어 얼마나

16) “한국사람들도 아주 옛날,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돈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만주나 중국이나 러시아로 떠돌며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학대받고 그랬잖아요. 나 한국 역사, 배웠어요. 역사 배우고 한국 교포들 얘기 듣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 심정 알겠구나.”(84)라며, 카밀은 그 공통성을 관념의 차원으로는 알고 있었다. 물론 그러한 기대는 한국 생활 속에서 산산조각나고 만다.

17) 기존의 공동체가 동일성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획일적인 기준 아래 만들어져 왔음을 비판하며 타자성에 열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낭시는 유한성 속에 노출된 우리의 실존 자체를 나누는 ‘함께 있음’을 공동체라고 명명한다. 아니, 낭시는 실체와 내면성, 특정한 종교와 인종성을 연상시킬 위험이 있는 공동체보다는 ‘함께-있음’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낭시, 2005: 108)

18) 일본의 국가주의를 비판하는 사카이 나오키는 공감과 정을 구분한다. 공감이라는 감상(感傷)은 일본인 이외의 사람을 배제하는 인종주의에 의해서 간신히 성립될 수 있었지만, 부끄러움과 같은 정(情)은 일본인 이외의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 즉 ‘정’은 사람이 타자에게 노출되어 있음에서 유래하는 정동(타자에 의해 내가 움직여지는 것)임에 반해, ‘감상’은 폐쇄구역을 구성하며 작용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타자와의 접촉이 결핍되어 있다(사카이, 2008: 258-329). 그런 면에서 정(情)은 공동체의 폐쇄구역에서 억압되었던 단독성을 살려내는 정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성은 외부의 것을 배제하고 폐쇄영역을 구축하는 그러한 공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서 열려 존재함을 계시하는 정(情)이라는 정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2.2. 한국문학에 나타난 공통성

이렇게 이질적인 존재들 사이의 소통에 있어 공통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新마스테寬 외에도 이주민과의 만남을 재현한 한국문학은 이 공통성을 주목하는 작품들이 많다. 대표적인 몇 작품만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만신(滿身)의 운명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영원’이 인도인 노무자가 그 취약한 삶 속에서도 자신처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공통성을 확인한 후, 시장사람들에 동조하여 그를 멸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손을 내미는(자신이나 인도인 노무자가 집합 속에 아무렇게나 환원되어버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난 뒤, 자기행위의 책임을 시장사람들에게 전가하고 갈등 없이 그를 멸시하던 태도를 반성하며 그를 환대하는 태도로 나아간) 이명랑의 新의 이복형제들寬 첫 소설집 新끼리寬에서 한국사회에서 희생당하는 이주민의 삶을 통해 폐쇄적인 한국사회의 악습을 비판해오다가, 두 번째 소설집에서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공통성을 포착하려는 김재영의 新폭식寬¹⁹⁾ 아메리칸 드림에 사로잡혀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를 욕망하며 이주를 떠나는 한국인, 그 욕망이 좌절된 뒤에 어려운 처지에 속한 한국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대 초창기부터 있어온 한국인 이민자들의 삶을 추적하며 한국인과 이주민이 같은 처지에 직면해 있음을 주목하는 하종오의 시.²⁰⁾ ‘이주해온 돌’들에 대한 궁금증(“어디서 온 돌들이지?”)을 축대를 이룬 토박이 돌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우리는 모두모두 어디서 온 돌들이지”)으로 이어가는, 그래서 토박이 역시 이방인이기도 했다는 스스로의 무적성을 탐문하고, 나아가 그 무적성을 상기시켜준 이주해온 돌들을 환대하는 장석남의 「돌들이 왔다」. 낯선 땅에서 남편을 잃고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삶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한 이국여자의 삶에서 자신의 취약한 삶을 겹쳐 읽어내는 공선옥의 「도넛과 토마토」. 이러한 작품들 역시 소통을 급진적으로 이끌거나, 이를 위한 전제로 공통성을 설정하고 있다.

물론 이 작품들은 서술자(화자)를 한국인으로 설정하여 이주민 쪽에서 일어나는 공통성 확인이나 탈자화의 노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공통성 찾기와 관련된 고민을 한국인의 입장에서만큼은 심각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공통성으로 인해 이질

19) 가령, 이 소설집 「꽃가마배」에는 이주여성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화자의 거부감, 이주여성에게 한국사회의 도덕적 잣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고모, 이주여성과의 결혼을 가정부 고용 정도로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편견 아래 태국에서 이주해온 능느타이가 희생당하는 모습이 주된 서사를 이룬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이 소설에는 화자와 애인 마이클의 관계(화자는 태국에서 온 계모 외에는 호적상 어떤 보호자도 없고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미국행 비자를 받을 수 없다. 급기야 결혼을 약속한 마이클은 자신의 부모를 설득하지 못하고 연락을 끊어버린다)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 이러한 대위서사는 이주민과 한국인이 처한 위치의 공통성을 보여준다. 「앵초」에서 세계인으로 살고 싶어하던 민옥은 9·11 때 세계무역센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버틀러가 당시 미국중심으로 차별화되어 할당된 애도로 인해 어떤 죽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도되었지만 어떤 죽음은 무시·망각·삭제되었다고 비판했듯이, (버틀러, 2008: 62-69) 민옥 역시 그 희생자의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리고 민옥의 아내 하운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만다. 또한 「M역의 나비」와 「롱아일랜드의 꽃게잡이」에서 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하다가 좌절당하는 인물이 나타난다. 이 점들은 이주민과 한국인의 공통성(한국인들 역시 안정된 처소 없이 부유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공통성)을 획득하려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20) 「제국의 공장-달러」 「제국의 공장-닭고집」 「교차로에서」, 「행복한 치매」, 「제국의 공장-꿈」 「제국의 공장-귀향자」

적인 존재로 분리되어 있었던 이들 사이의 장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 이 공통성은 한국인의 경우, 국가·민족·인종의 동일성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을 이주민과는 다른 안정된 위치로 특권화해온 우월적인 사유방식,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둔 배타적인 의식을 붕괴시킨다. 하여 자신 역시 이주민처럼 취약하다는 점을 각인시킨다. 다른 존재와의 접촉을 통해서 자기동일성에서 벗어나 제3의 존재로 변모해가는 탈영토화의 운동 속에서 획득된 이 공통성으로 인하여 소통은 급진적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3. 카밀의 탈자화

카밀의 탈자화는 신우와의 공통성을 나누는 데에서 멈추지 않는다. 신우와는 대조적으로 카밀의 탈자화는 작품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카밀은 신우와의 만남 속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신우의 남편이자 애린의 아버지로서의 생활을 꾸려나간다. 그런데 카밀은 소설의 후반부, 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미등록체류자를 강제 단속하는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가며, 탈자화의 지평을 넓혀간다.

카밀은 친구인 구름이 음독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덩이를 삭힐 수 없어 괴로워하다가 강제추방반대 농성이 벌어지는 곳을 찾는다. 이주노동자의 연이은 자살이 있을 무렵에는 “세, 세상이…… 화안…… 해요…….”라던 카밀의 현실 인식은 “세상이 캄캄해요…….”(305-306)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나 그러한 캄캄한 절망감 속에서 카밀은 “예전의 카밀…… 아닌 것 같아요.”(294)라며 자신의 변화를 고백한다. 그리고 농성을 거듭하면서 “여기서 너무나 많은 거 배웠어요. 한국이 저, 카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어요.”라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신념과 사유의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카밀은 여기에 종교적 신념까지 더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 꼭 해야만 돼요.”(312)라는 강단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농성의 지속 여부를 두고 벌이는 토론에서 농성을 지지하는 수장이 되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까지 한다. 자신도 자신이 낯설다고 할 정도로 카밀은 많은 탈자화를 경험한다.(312)

“모두…… 저만 아니고, 모두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농성, 안 해요. 지금은요. 우리가 투, 투쟁하는 거, 외국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한국,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도 관, 관계 있어요. 못사는 사람들 계속 못살면, 좋은 나라 안돼요. 못돼요……”(311)

그러다가는 인용문과 같이 자신의 투쟁이 이주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과도 관계있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여기에 함의된 바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서술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이주노동자와 다른 존재로 분리시켜 인식하지만, 한국인 역시 냉혹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주민들이 제3세계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양산해낸 인간 부초들이었다면, 한국인들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아래 정초할 곳을 잃고 무적자가 되어 부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직격탄을 맞고 고뇌하는 삶은 국경, 지역, 성별을 넘어서 이 시대의 보편적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무적자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무적자이다. 즉 여기서 카

밀은 자신의 무적성을 넘어 한국인들의 무적성을 깨닫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카밀의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하위주체로 배제되었던 이들이 그 무적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암시를 준다. 낭시와 버틀러의 공통성 논의는 취약성을 부인해온 서구 주체들에게는 잘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취약성을 지구상에 불공평하게 배치(버틀러, 2008: 60-61)해온 결과 그동안 취약한 존재 취급을 받아온 하위주체들이 이를 바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취약한 존재로 취급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또 취약성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항변이 나올 수도 있다. 바로 이 점, 하위주체들이 이 공통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해명되어야만, 취약성에서 발원하는 그 윤리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소통의 윤리로 나아갈 수 있다. 분명 취약성 인정은 그동안 취약성을 타자의 것으로 투사시키며 과잉 평가된 주체들에게서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주민들을 타자화한 주체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인들 역시 이러한 취약성에서 배울 점이 많다. 그렇다면 하위주체의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하위주체들 역시 이러한 취약성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데 있다. 취약성의 차별적 배치로 인한 ‘더’와 ‘덜’의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취약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기존 주체의 중심주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지배/종속이 하위의 단위로 계속 억압이양(抑壓移讓)되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하위주체 역시 자기보다 더 열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취약성을 부인하는 행위는 그동안 완전성의 착각 아래 자신을 부당하게 억압해온 주체들에게 보복성 폭력을 가하는 (9·11 당시 일어난 폭력의 악순환처럼)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그것은 폭력을 양산시키는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위주체가 그 열세를 주체에 대한 우위로 바꾸거나 중심을 차지했던 주체의 위치로 도약하려는 전도된 욕망으로 흐르기 쉽다. 하지만 이 전도된 욕망은 폭력을 양산하는 그 틀 속에 예측되어 있으며, 이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태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위주체들에게도 이러한 취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위주체들은 주체들에게 완전성의 신화를 부여해왔던 그 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주체들의 취약성(완전성을 가장한 그 주체들마저 사실은 취약하다는 점)²¹⁾을 살피고 그 취약성을 나누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유념할 것은 취약성을 적극성(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의지)의 표현과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과 적극적인 표현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별개다. 버틀러에게 있어 취약성의 인정이 취약성의 불평등한 배치를 바꾸려는 행위로 나아갔듯이(버틀러, 2008: 76), 취약성 인지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즉 하위주체가 취약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21) 낭시의 유한성이나 버틀러의 취약성 논의에서 암시되듯이, 주체는 유한하고 취약하다. 여기에 추가하여 다음의 내용도 참고할 만하다. 보통 주체는 자신을 타자와 대비된 보편의 위치에 놓고 수많은 타자를 만들어 낸다.(정영혜, 2011: 39) 그러나 주체와 타자를 분리시켜 사유하는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주체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주체로 호명한 사회의 동화압력 아래 ‘그 사회의 구성원 이외 다른 것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말소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주체를 자아상실의 상태로까지 내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의 가해성을 직시하지 못하면서 타자를 가해하는 구조와 공범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영혜는 이 점을 일본국가와 국민에게 적용하고 있다.(정영혜, 2011: 228, 302)

카밀의 태도는 여기에 대한 많은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스스로의 우월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인, 너희는 노비”(193)라는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에게 증오의 감정이 일어날 법도 하다. 그러나 카밀은 보복의 폭력보다는 자신과 한국인을 관통하고 있는 무적성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를 약점 삼아 한국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무적성을 나누는 배려의 자세로 나아갔으며, 지금의 폭력적인 구조를 바꾸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원으로 그 무적성을 수용한다. 신우는 “나는 무적자니까…… 아, 아무것도 꿈꾸지 않았어.”(136)라고 말했지만, 카밀은 무적성을 그렇게 수동적인 영역에 묶어두지 않고, 이를 한국인과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원으로 그 무적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하위주체로 취급받아온 이들이 그 취약성을 성숙한 윤리의식으로 잘 살려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취약성의 인정이 존재를 수동적인 영역에 묶어두는 것은 아니다.

카밀은 신우와의 공통성 획득에 머물지 않고 한국사회의 현실과 맞대면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거세게 탈자화하여, 한국인 일반과의 공통성 획득이라는 드넓은 층위에서의 공통성 획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가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농성을 접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자, 카밀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프래카드를 내걸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산화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 공통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마스테에서 신우 오빠, 아메리칸드림을 꿈꾸었던 한국인들, 공장의 고용주나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네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엘에이에 있을 때의 우리 신세와 같잖아. 상처는 오빠와 내가 같지만, 그걸 대하는 관점은 오빠와 내가 너무 다른 것 같아 하는 말이야. 좀더 넓은 각도로 생각해봐.”
“시끄러워!”(125)

①신우의 둘째 오빠는 LA폭동 당시 무적자로서의 상처를 경험하였고, 그나마 신우를 잘 이해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인용문에서처럼 그마저도 아메리칸드림을 꿈꾸었던 한국인과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공통성을 부인한다. 그리고 신우와 카밀의 관계를 두고 카밀이 “네가 한국 여자니까 붙는 거야”(163)라는 반응을 보인다. 신우는 오빠의 이러한 반응에 “우월주의에 가득 찬 코쟁이 흰둥이를 보는 것 같애”(125)라고 응수한다. 나아가 신우 오빠는 한국인과의 공통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 카밀의 말(311)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다리까지 저는 주제에…… 바보 같은 놈!”(312)이라고 반박한다. “누구보다 편견 없이 열려 있던 환한 사람”(220)인 그가 이럴진대 다른 이들은 어떠하겠는가?

②미국의 한인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사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백인들의 주류사회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127) 그리고 전술한 바처럼, 미국 백인사회는 자신들에게 날아올 돌팔매를 막기 위해 한국인을 방패막이 삼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인들은 가난한 흑인이나 중남미계의 비주류인들과 공통성을 느낄 법도 했다. 그러나 “부자 되면 더럽고 무식한 저들을 떠날 거야.”(129)라며 자신들을 그들로부터 분리시키려 했으며, 그들이 게으르고 부정직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백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인종을 착취·억압

하는 미국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해 봤자 백인의 벽을 뚫고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가난을 자업자득으로 이해했다.(129-130)

③같은 노동자인 공장의 근로자들 역시 노동자로서의 공통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이주 노동자와 자신을 분리시켜 인식한다. 카밀이 군포시 외곽 어느 박스 공장을 다닐 무렵, 난로 때문에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때 한국인 직원들은 “우리는 주인, 너희는 노비”(193)라며 자신들의 주권을 내세운다. 그러다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들의 향락을 빼앗아간 절도자로 인식되고, 질시·추방의 폭력이 가해지는 표적이 되어 버린다.²²⁾

4. ‘공통성의 나눔’의 실패, 그리고 소통의 결렬

낭시는 소통이 존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결속과 다르다고 하면서 소통에 참여하는 존재들 사이의 간격에 주목했다.²³⁾ 이 소설 후반부에는 카밀과 신우의 간격을 도드라지게 하고, 때로는 마주한 존재들 사이에 있기 마련인 간격에 머물지 않고 둘 사이의 소통을 위태롭게 결렬시키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가족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카밀의 신념과 카밀의 위치를 가족 관계 속으로 한정시키려는 신우의 욕망이다. 이 때문에 둘의 관계는 자꾸 어긋나게 된다. 카밀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고 온 몸을 던져 카밀을 받아낸 신우의 사랑은 숭고한 것이다. 그러나 **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작품 후반부에서 카밀과 신우는 더 이상의 공통성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각자의 영역에 고립되어 있다. 먼저 신우부터 살펴보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에서 시작된다고 믿어왔으면서, 기실 나는 내 식대로만 그를 사랑해왔다는 걸 나는 마침내 명징하게 깨달았다. (...) 그가 끝내 조국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조국을 버릴 것이었다. 조국과 가족이라는 말이 때로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단 말인가.(242-243)

카밀이 한국사회에 절망한 이유는 법 때문이었다. 카밀은 신우를 만나기 전부터 한국 사회의 법에 절망하고 있었다. 임금체불에 산재를 입고도 병원치료조차 받지 못한 친구 학바를 통해 한국에는 “한국 사람 지켜주는 법만 있”(84)음을 깨닫는다. 그 법은 이주노동자를 갖가지 편법으로 착취하는 사업주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이었고,(92) ②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추방의 공포심을 각인시키며 사업주의 각종 악행을 비호하는 법이었다.(90-93) ③그 법은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권하는 역설적인 법이었고,(151) ④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갖은 악습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법이었다.(157) 뿐만 아니라 그 법(고용허가제)은 많은 수의 미등록체류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법이었고, 거기에

22) 이 점은 손흥규의 「이무기사냥꾼」(2008: 93)과 홍양수의 「동거인」(2005: 63)에 잘 나타나 있다.

23) 낭시는 ‘함께’를 뜻하는 ‘공동(le commun)’을 두고 “서로 간격을 두고 있는 현전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함께라는 것’은 가까움과 내밀성이라는 의미 안에 간격 두기라는 의미를 뚜렷이 담고 있다고 말한다. ‘함께’는 연합도 원자화도 아닌 ‘같이 있음’이다. 나아가 낭시는 cum(공)에서의 가까움에도 ‘함께’가 그 자체 구조 내에 포함하는 환원 불가능한 간격 두기가 들어 있다고 본다.(낭시, 2005: 108, 124-125, 136) 소통의 다름 이름인 분유에 대해서도 “갈라 구별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 혹은 “분할과 분배”(낭시, 2010: 31, 203)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에도 존재들 사이의 사라질 수 없는 거리가 전제되어 있다.

반대하는 이들에게 ‘빨갱이 외국놈’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법이었다. 이 법 때문에 카밀은 자살을 두어 차례 생각(194, 238)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단속 때문에 ‘구름’이 음독자살을 시도하자 참았던 절망과 분노를 터뜨린다.

신우 역시 카밀을 매개로 법의 모순성을 몸소 깨닫는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집을 단속을 피해 대피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처소로, 농성장에서 다친 환자들의 요양소로 내어준다. 그리고 사비나의 차가운 응시(gaze)를 받으며²⁴⁾ 가족이기주의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가족만큼은 보전하겠다는 본능으로 마지막 마지노선처럼 지키고 있던 안방마저도 내준다.(290) 이주노동자의 연이은 자살이 있었던 시점에는 한국정부의 폐쇄적인 정책에 맞서 아파트라는 안온한 처소를 버리고 농성장 천막 속에 짐을 부리기도 한다. 거기서 LA폭동 당시 “아메리칸 드림을 증오감으로 바꾸어 갖고 끝내 한스럽게 눈감”(300)았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미국사회보다 더 오만하고 냉혹한 한국정부의 방침에 무적자로서의 증오감과 분노를 터뜨린다. 그리고 그때 폭발하는 정염에 복받쳐 천막 속의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한국인인 자신을 욕하고 때려달라고 말한다. 이렇게 신우는 기존의 자신을 초과하는 탈자화의 몸부림을 세차게 몰아간다.

그러나 신우는 그러한 탈자화를 이어가지 못한다. 점점 더 강경한 입장으로 변모하면서 농성장 일에 몰두하는 카밀을 두고 신우는 ‘카밀이 자신을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신우는 강경한 입장으로 변모한 카밀에게서 낯설음을 느낀다. “카밀이…… 낯설어……”.(314) 익숙한 경계 안에 카밀을 묶어두고자 했지만, 카밀은 신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었다.”(314) 카밀을 만난 뒤, “세상이 환해요”라던 카밀처럼 자신도 “세상의 한 귀통이가 새치름히 환해지고 있”(45)음을 느꼈지만, “세상이 캄캄해요”로 현실인식이 변해버린 카밀처럼 신우 역시 어느 순간 “사랑을 잃었다는 뼈저린 상실감”에 캄캄해진다.(321)

신우가 틈만 나면 농성장에 달려간 이유도 신념 때문이 아니라 카밀을 지키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절망과 분노’가 키운 신념 때문에 카밀이 농성장에 있었다면, 신우는 사랑 때문에 농성장에 있었다.(322) 카밀이 신우를 버린다면 신우에겐 그 농성조차 아무 의미가 없었다.(331) 이렇게 신우는 모순적인 현실전개과정과 부딪치며 이주노동자를 향해 넓혀가던 그 드넓은 사랑과 거기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탈자화 역시 카밀과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 의의를 애써 축소시키고 폄하해버린다. 농성(129)은 신우와 카밀이 또 다른 공통성을 획득하고 더욱 급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그 의미를 사랑으로 환원시키며 사랑의 울타리 속에 자신을 가두어버린다.

뿐만인가? 카밀과의 사랑전선에 이상기류가 발생하면, 신우는 자신의 집에 대피하거나 요양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악담을 퍼부었다. 신우는 카밀이 자

24) “……한국 사람들, 네파리 사람, 스리랑카 사람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생각 안 해요. 언니도 그렇구요. 언니는 여기, 넓은 방에서 혼자 자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나도 그래요. 스리랑카 사람이랑 자고 싶지 않아요.”(289) 대상을 보고 있는 눈(eye)은 주체 쪽에 있는 반면, 응시(gaze)는 대상 쪽에 있다. 내가 대상을 볼 때 대상은 언제나 이미 나를 응시하고 있다. 그것도 내가 대상을 볼 수 없는 지점에서 말이다.(지젝, 1995: 221) 즉 눈(시선)은 주체가 대상을 보는 것이며, 응시는 대상 쪽에서 주체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사비나의 응시를 통해 신우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기 몰래 사비나와 계속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심이 드는 시점에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대피해온 이주노동자들에게 “나가…… 니네들…… 그렇게 가증스러운 인간인지 몰랐어”(254)라는 폭언을 퍼붓는다. 그리고 카밀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요양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당신들, 생각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떤 처지인지 알고나 이러는 거예요? (….) 세상에 당신들같이 몰상식한 사람들, 참 봤어. 그러고도 이 나라한테 대접받길 바래?”(324)라는 폭언을 내뱉는다. 집단으로 정형화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단독성을 인식하는 태도를 거두어 “니네들” 혹은 “당신들”이라는 말로 그들을 유(類)에 환원되어버리는 개(個)로 정형화하고, 한 묶음으로 묶어 민족적인 차원에서 수치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신우의 뒤늦은 고백처럼,²⁵⁾ 그 발언은 이제까지 나누어왔던 공통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피부색·민족·우열의 경계를 나누는 말이었다.

내가 네팔 이야기를 무심한 척 꺼낸 것은 언제쯤 네팔로 가겠느냐 하는 걸 간접적으로 묻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해 두었으니 다음 할 일은 네팔로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정해져 있었다. 내팔 정부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양쪽 정부의 혼인신고 과정이 끝나면 카밀이 우리나라의 가족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가족동거 비자만 나온다면 일단 불안한 생활은 끝이었다. 카밀이 귀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2년은 금방 지나갈 터였다. 하루라도 빨리 네팔로 함께 가는 게 급선무인데, 카밀은 내내 그 점에 대해 말이 없었고, 나 또한 차마 재촉할 수 없어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이었다.(353)

인용 대목에는 신우의 속내가 잘 드러나 있다. 신우는 카밀과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길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 네팔로 가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한국에 가족방문 비자를 신청하고, 2년을 기다린 뒤, 카밀을 한국인으로 귀화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카밀을 한국인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계획’은 일전에 신우 오빠가 카밀을 설득하기 위해 한 말(310)이었다. 물론 이때 카밀은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공통성을 이야기하며 이를 거부했었다. 어느 순간 신우는 오빠의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농성의 해단식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농성장에서 귀가하여 절망하는 카밀을 앞에 두고, 신우는 제도의 관문을 통과하고(180) 한국인으로 귀화한 뒤, 불안한 생활을 청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신우는 이렇게 가족 꾸리기에 대한 열망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²⁶⁾

그러나 그것은 카밀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것이었다. 전술한 것처럼 카밀의 절망과 분노는 한국 법의 폐쇄성과 배타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카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고민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카밀을 한국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게 할 궁리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카밀이 신우와 함께 나뉘던 무적성을 한국인 일반과 나누기 위해 그 무적성을 드넓은 지평으로 확장시켜갔던 반면, 어느 순간 신우는 그 무적성이라는 공통성을 저버리고 삶의 의미를 ‘신우-카밀-애린’이라

25) “그것은 일터를 전전하며 편견에 사로잡힌 한국인들에게 수없이 들어온 말이기도 했다. 니네들과 우리…… 사이엔 건널 수 없는 피부색의 강, 민족의 강, 그리고 우열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259)

26) 이를 가족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신우는 “가족이라고 말하는 순간, 찌르르하고 온몸을 관통하는 어떤 경련이 지나갔다.” “눈물겹고 질긴 가족이 함께 있을진대 무엇이 두렵겠는가.”(216)라며, 가족이라는 말에 매우 감격해한다. 세 식구가 함께 있는 것을 두고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다.”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235)라고 느낀다. “공통된 것 속에서 특이성들은 사라지지 않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네그리, 2008: 252)하는 것인데, 신우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난 이후 카밀이 가진 이 특이성(단독성)을 무시하고 있다.

는 가족의 경계 안에 두었으며, 거기에 카밀을 가두려고 하였다. “조국과 가족이라는 말이 때로는 서로 배타적”(24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카밀이 한국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상상임을 알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려고 했으면서도(243), 카밀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견고한 성을 무시한 채 카밀을 자기 식대로 사랑해왔음을 반성하고(243) 카밀과의 관계에서 작용했는지 모르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우월감에서도 벗어나려 했으면서도(239), 가족에 대한 집착이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을 사비나를 통해 잘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273-274) 신우는 카밀을 법이라는 폐쇄영역 속에 안전하게 편입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한국 법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이방인 남편을 법 안에 편입시키기. 그것은 법이라는 폭력적인 재현체계 속에 자신들의 존재를 기입하려는 서발턴의 자기표현의지를 소거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자신들을 무적자로 배제한 기존의 경계(한국사회와 미국사회)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없다. 이는 신우가 카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문제를 풀려고 한 증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애린을 낳고 난 이후 신우가 보인 탈자화의 태도는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카밀을 매개로 한 것. 신우가 어느 호텔 옥상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경찰과 대치하던 카밀이 분신하여 뛰어내릴 때 불덩이가 된 카밀을 향해 자신의 몸을 날려 함께 불타버린 것²⁷⁾도 가족을 위한 욕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읽힌다. 카밀에 대한 사랑은 처음에는 신우의 탈자화를 추동시키는 확산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가족 꾸리기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면서 탈자화와 소통을 가로막는 덧으로도 작동한다.²⁸⁾ “동일자가 타자로, 동일자가 타자로 인해, 또는 동일자가 타자에게 향해 있거나 기울어져”(낭시, 2010: 26) 있는 외존의 움직임이었던 그 사랑은 ‘동일자가 또 다른 동일자에게 기울어진, 이질적인 것을 배제하는 결속이나 연합에 대한 욕망’으로 변질된다.

그렇다면 카밀의 태도에는 문제점이 없었는가? 전술한 바처럼, 카밀은 작품 후반부에서 신우와의 공통성을 넘어 한국인 일반과의 공통성 획득이라는 드넓은 층위에서의 공통성을 획득했다. 그러나 신우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자면, 카밀 역시 신우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나아갔다는 문제점이 있다.

카밀은 신우와의 관계를 좀더 집요하게 맺어야 할 지점에서 이를 회피해버렸다. 신우가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절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공통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좀더 설

27) 사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신우가 카밀을 향해 팔을 벌리고 달려들었다는 사비나의 말(378)에서 암시되듯이, 어쩌면 그 숭고한 희생은 연적관계에 있던 사비나와의 승부욕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28) 여기에는 자신을 규정하는 경계로부터의 탈자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 그러한 현실의 압력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솔직함, 가족애에 바탕을 둔 그 숭고한 희생의 의의 역시 폄하할 수 없다는 작가의 의식이 복잡하게 내재된 것으로 읽힌다. “박완서 소설은 명료하다. 명료해서 독자가 기대 설 공간이 없다. 그곳엔 잔혹하리만큼 정확한 포스터의 인과론이 행간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 데뷔한 지 나도 어언 20여 년. 박완서의 인과론적 리얼리즘 확대경은 박완서 선생의 것이고, 곧 20여 년간 간직해 온 나의 것이기도 하다. 그 확대경 하나 들고 밤낮없이, 심지어는 잠잘 때도 오직 가면 뒤의 굴절, 불확, 갈등, 상처만을 들여다보고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자연과학적으로 따져 빈틈없이 재배열하는 작업, 소설쓰기. 그 짓을 20여 년간이나 줄기차게 해오다니.”(박범신, 1994: 282) 위의 언급처럼 1993년 무렵, 박범신은 원인과 결과를 자연과학적으로 따져 빈틈없이 재배열하는 소설쓰기, 그러한 필연성의 고리 안에서 명료한 해석을 유도해내는 소설쓰기를 반성한다. 1993년 12월 돌연 절필을 선언하고 약 삼 년여 간의 침묵 이후 발표된 소설들은 이러한 명료한 인과론의 자장을 넘어서 소설들로 읽힌다. 본문에서 언급한 ‘카밀의 자살과 신우의 희생’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대목으로 읽힌다. 박범신의 소설은 단일한 의미로 매끄럽게 환원되지 않는다.

득해야 했다. 그러나 자기 고민에 몰두한 나머지 신우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 신우의 말이 오해(카밀과 사비나와의 관계를 오해)인 줄 잘 알면서도 집을 나가버렸고, 매정하게 신우와의 연락을 끊어버린다.(261) 그 투쟁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고, 폭압적인 진압에 희생자가 생긴 무렵에는 근엄한 투사의 모습을 한 채, 간절히 눈이라도 맞추고자 하는 신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320)²⁹⁾ 그러다가 불가항력의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신우가 염려하는 줄 잘 알면서도 사비나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러했겠지만,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신우와의 관계 내에서 보자면 그러한 태도는 소통의 노력을 포기한 것이었다.

5. 공통되기의 지속적 활동

우리는 한참 동안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둥켜안고 서 있었다. 예감은 일치했지만, 그렇다고 그와 내가 보는 방향도 같다고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껴안고서 방안에 두고 나온 애린을 보고 있었고, 그는 나를 껴안고서 폭력적인 세계의 끝을 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뚜렷하게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전체적인 공동체의 삶으로 나가는 길을 보고 있었던 셈이었고, 나는 한사코 그를 내 가정 안에 한 개인으로 붙잡아 주저앉힐 길을 찾고 있었던 셈이었다.(251)

신우와 카밀은 같은 공간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영역에 유폐되어 서로가 가치를 부여한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며, 서로를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나가는 노력에는 인색했다. 그러니 “그와 내가 보는 방향도 같다고 할 수는 없었다”와 같이 소통이 결렬된 느낌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카밀은 신우가 간절히 원한 가족의 울타리를 찢어버렸고, 신우는 그 모성적 품모와 질투심이 깃든 사랑으로 투신자살을 하던 카밀을 온몸을 던져 받아내는 양상으로 다시 찢어진 가족의 울타리를 장엄하게 봉합하려 하였다.

신우와 카밀이 공통성을 나누었을 때 소통이 일어났지만, 이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통은 결렬되어버린다. 그렇다면 공통성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공통성과 소통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는 네그리의 견해를 참조해보자.

- ① 우리는 우리가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언어들, 상징들, 생각들 그리고 관계들을 토대로 해서만 소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소통의 결과로 다시 새로운 공통적인 언어들, 상징들, 생각들, 관계들이 산출되기 때문이다.(네그리, 2008: 243-244)
- ② 우리의 소통, 협동 그리고 협력은 공통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확장하는 나선형 관계 속에서 공통된 것을 생산하기도 한다.(네그리, 2008: 20)
- ③ 우리를 모이게 하고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것은 차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활동입니다. 즉 이것, 저것, 그 어떤 것이라도 짓는 활동입니다.(Cesare Casarino· Antonio Negri, 2008: 83)

①에서 네그리는 소통이 공통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공통성에 기반을 둔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공통성이 만들어진다고 본다.³⁰⁾ 나아가 ②에서는 그러한 생산의

29) 이러한 외면은 ‘남자가 긴급한 일을 수행하는데, 여자가 감히 사적인 감정을 갈구하는냐’ 하는 식의 가부장적인 권위로도 읽힌다.

연쇄는 “계속 확장하는 나선형 관계”라고 말한다. 또한 네그리는 공통성이 삶정치적 생산의 양쪽 끝에서 모두 나타난다고 보면서, 공통성이 최종적 생산물인 동시에 생산의 예비적 조건이라고 본다.(네그리, 2008: 414) 즉 네그리에 의하면 공통성과 소통은 ‘공통성→소통 → 새로운 공통성 (….) 새로운 공통성’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공통성은 일회적으로 완성되어 차이들의 소통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통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공통성 형성 이후에도 다른 존재와 소통하며 계속해서 공통성을 형성하려는 시도다. ③에 나타난 이질적인 존재들 사이에서 공통성을 찾으려는 공통되기(becoming common, 소통)의 활동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이질적인 존재들과 무엇을 만들어내려는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질적인 존재와 공존해가는 지평은 점점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통이나 공통성의 생산은 기존의 폐쇄영역에 포획될 수 없는 과잉(잉여)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과잉은 이질적인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지평을 확장하는 일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³¹⁾

신우와 카밀의 관계에서 부족한 것은 바로 ‘공통되기의 지속적인 활동’이다. 이전의 ‘공통성의 나눔’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치에 몰두하는 자신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새로운 공통성을 만들기 위해 서로 마주하려는 공통되기의 활동이었다. 그 마주함에서 나의 입장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을 향해 열려있는 타자의 시선을 붙들어내고, 우리 자신을 진정 사실대로 직시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낭시, 2005: 108-109),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초과하여 서로 소통·협력하면서 더욱 풍부해진 공통성³²⁾을 만들어가려는 공통되기의 활동이었다. 이 공통성을 위하여 “참다운 악수 같은 인사말”(306)에 해당하는 ‘나마스테’를 외치며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활동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모두 다 부질없는 일이 되었다”(306)는 판단 아래 둘 사이에는 그러한 활동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6. 결론

결론은 생략합니다.

30) 이러한 견해는 新다중性 여러 곳에서 반복(네그리, 2008: 20, 167)되는데, 네그리는 그 예를 ‘언어’와 ‘특이성 권리들’에서 찾기도 한다. 물론 낭시의 공통성 논의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다중의 민주주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네그리의 공통성 논의를 가져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네그리의 공통성 역시 ‘특이성(단독성)들 사이의 소통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네그리, 2008: 252)이다. 네그리가 소통을 특이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 점은 낭시가 소통을 탈자화한 단독적 존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 것과 맥락이 통하고, 공통성을 그러한 소통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낭시가 공통성의 나눔을 소통으로 본 것과 맥락이 통한다. 무엇보다 낭시가 말한 공통성 역시 일회적인 관계로 완수되는 것이 아닐 것이기에 지속적인 공통성 형성의 맥락을 제시한 네그리의 견해는 참조할 만하다.

31) 공통성의 생산은 기존의 지배질서에 포획될 수 없는 어떤 잉여를 만들어낸다.(네그리, 2008: 261) 공통되기는 초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에티엔 발리바르·안토니오 네그리, 2012: 94) 이는 사카이의 사회성과 마찬가지로 만남·교섭·접촉을 통하여 기존에 예상할 수 없었던 과잉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32) 공통성은 우리의 일상적 실천 속에서 변형을 겪으며 풍요로워진다.(진성철, 2012: 247-248)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새언어와 비극* 窓 도서출판 b, 2004.
- 공선옥, *새명량한 밤길* 窓 창비, 2007.
- 김재영, *새끼리* 窓 실천문학사, 2005.
- 김재영, *새쪽식* 窓 창비, 2009.
- 마이클 하트, 「공통적인 것과 코뮤니즘」, *새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窓연구공간 L 엮음), 난장, 2012.
- 모리스 블랑쇼, 박준상 역, 「밤힐 수 없는 공동체」, *새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窓 문학과학지성사, 2005.
- 박범신, *새마스테* 窓 한겨레신문사, 2005.
- 박범신, *새게 소유하는 자가 자유롭다* 窓 자유문학사, 1994.
- 사카이 나오키, 이규수 역, *새국민주의의 포이에시스* 窓 창비, 2003.
- 사카이 나오키, 최정옥 역, *새일본*, 영상, 미국 窓그린비, 2008.
- 사카이 나오키, 후지이 다케시 역, *새역과 주체* 窓 이산, 2005.
- 손흥규, 「이무기사냥꾼」, *새붕섭이 가라사대* 窓 창비, 2008.
- 슬라보예 지젝(1995) 김소연·유재희 역 *새딱하게 보기* 窓시각과 언어.
- 안토니오 네그리, 조정한 외 역, *새다중* 窓 세종서적, 2008.
- 에티엔 발리바르·안토니오 네그리, 「공통적인 것, 보편성, 코뮤니즘에 대하여」, *새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窓연구공간 L 엮음), 난장, 2012.
- 우에노 나리토시, 정기문 역, 「삶의 정치와 죽음의 정치」, *새공존과 충돌* 窓해석과 판단 비평공동체 편), 산지니, 2012.
- 우카이 사토시, *새주권의 너머에서* 窓 그린비, 2010.
- 이명량, *새타의 이복형제들* 窓 실천문학사, 2004.
- 이진경, *새문주의* 窓 그린비, 2010.
- 임지현·사카이 나오키, *새오만과 편견* 窓 휴머니스트, 2003.
- 장-뤽 낭시, 박준상 역, 「마주한 공동체」, *새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窓 문학과학지성사, 2005.
- 장-뤽 낭시, 박준상 역, *새무위(無爲)의 공동체* 窓 인간사랑, 2010.
- 장석남, 「돌들이 왔다」, *새문예중앙* 窓 2006년 여름호.
- 정영혜, 후지이 다케시 역, *새다미가요 제창* 窓 삼인, 2011.
-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새탈확실한 삶* 窓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 진성철, 「공통적인 것과 새로운 해방의 공간」, *새본의 코뮤니즘, 우리의 코뮤니즘* 窓연구공간 L 엮음), 난장, 2012.
- 하종오, *새체국* 窓 문학동네, 2011.
- 홍양순, 「동거인」, *새사두* 窓 문이당, 2005.
- Cesare Casarino·Antonio Negri, In Praise of the Comm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p.83.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서사’ 연구 :

수기(手記)를 중심으로

강진구(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교수)

1. 들어가며

지구화(Globalization)와 이주(migration)로 대변되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일상적 삶의 경험이라 부르든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세계지배 전략이라 명하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다문화주의는 호불호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연루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문제라고까지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가 승리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최선이다”¹⁾라는 글레이저의 선언은 어쩌면 다문화주의로 대변되는 이 새로운 고민에 대한 솔직한 고백으로 보인다. 글레이저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되묻게 한다.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수많은 도전들을 물리치고 끝내 승리하게 되었는가,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런 질문들일 것이다. 전자의 물음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논외로 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현실에서 문학전반, 특히 한국문학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 일 것이다.

기실, 한국문학은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흐름 앞에서 나름의 진단과 모색,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적응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하정일(2008), 윤여탁(2009), 우한용(2009), 임현영(2010), 강진구(2010) 등의 논의²⁾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논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과 그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적어도 기존의 한국문학 연구의

1) 네이션 글레이저, 최현미, 서종남 옮김(2009),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미래를 소유한사람들, p.257.

2) 하정일(2008),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윤여탁(2009), 「다문화·다매체·다중언어의 교육 : 그 현황과 전망」, 『새문학』06, 한국어문학회, pp.21-55.

우한용(2009),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소설적 전망」, 『현대소설연구』40집, 한국현대소설학회, pp.7-35.

임현영(2010), 「한국문학과 다문화주의」, 『세계한국어문학』, 세계한국어문학회, pp.47-81.

강진구(2010), 「다문화시대와 한국문학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pp.7-27.

관행이었던 ‘민족문학’ 담론에 개입하여 반성적 성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통점과 유의미성을 갖고 있다.

우한용(2009)은 다문화로 인해 한국소설은 첫째, “소설의 공간(영토) 확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둘째 “새로운 유형의 문제적 인물들이 형상화”, 셋째 “삶의 다른 이념을 모색하고 창출”하는 바탕이 되며, 넷째 “새로운 양식의 소설언어[文體] 형성”의 가능성 등³⁾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임현영(2010)은 다문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국문학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7개 항목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 ① 문화(이념)의 전파와 수용, ② 마이너리티로서의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의 경험의 문제, ③ 실재적 존재로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강진구(2010)는 다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은 ‘이주’와 ‘다문화’라는 새로운 경험들을 쉽게 수용하지 못했다고 진단하면서 그 이유를 ‘국문학’이란 이름으로 통용되었던 관습화된 학문풍토와 한국문학 진영내의 다문화에 대한 합의된 개념 부재를 들고 있다.⁵⁾

다문화주의로 대변되는 흐름에 대한 한국문학의 대응은 많은 장점과 새로운 논의의 촉발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선이 투영된 타자에 대한 상징조작’과 ‘타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들로 인해 타자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양산⁶⁾하거나 심지어는 이주여성을 형상화하면서 이들을 한국인이 잃어버린 ‘순수의 저장소’이자 한국 가부장제의 피해자 등으로 정형화함으로써 이주여성에 대한 “또다른 타자화”⁷⁾를 획책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비판들은 다문화시대 한국문학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은 어떠한가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우리들을 이끈다. 즉 한국문학은 ‘이주’와 문화적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공간(영토)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연민이나 타자에 대한 상징조작, 또는 과도한 피해자 담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창작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 주체란 글자 그대로 창작의 주체를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등과 같은 직접적으로 다문화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다문화 주체들의 삶을 한국인 작가들이 온전히 대변할 수 없기에 창작 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을 통해 “국민국가의 중력장” 때문에 ‘타자와의 만남에 일종의 가성(假聲)이 섞이게 마련’⁸⁾인 한국 작가들의 한계를 허심탄회하게 돌아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문화주체들과 만나는 방식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 자유는 없다
무지한 이 세상에서
나는 자유를 원했다

3) 우한용(2009), 앞의 글, pp.30-31.

4) 임현영(2010), 앞의 글, pp.69-70.

5) 강진구(2010), 앞의 글, p.11.

6) 오창은(2006), 「연민을 넘어서 윤리」, 新대일을 여는 작가 5호, 작가회의 출판부, p.85.

7) 박정애(2009),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다문화가족’의 성별적 재현 양상 연구」, 新여성문학연구 22집, 한국여성문학회, p.117.

8) 고영직(2006), 「어떻게 연대하고 적대할까?-어느 이주 노동자의 시를 읽고」, 新천문학 3, 실천문학사, pp.347-356.

가난의 굴레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조국을 등졌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개새끼라는 욕을 들으며
우리는 노동을 했다

(빅토르히 타고르, 「이곳에 자유는 없다」 일부)

평론가 고영직은 이 시를 “세계방화(世界方化) 추세에 걸맞는 삶문학 텍스트를 생성할 ‘월경(越境)문학’의 시대가 본격 등장했음을 알리는 서막”⁹⁾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서막으로 끝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뛰어난 시작 능력과 다문화주체로서의 감수성을 보여준 예외적인 능력의 소유자는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해 더 이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작 주체가 추방당한 상황에서 필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추방당하지 않는 자들로 향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서사’는 한국사회에서 예외적이기보다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서사’는 비록 ‘빅토르히 타고르’의 시적 작업에 비해 문학적 형상화에 있어서는 덜 세련되고, 때로는 미흡하기도 하지만, 다문화주체들이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형상화를 통해 스스로를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재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기서사’는 이들을 형상화한 여타의 문학작품(한국인 작가들의 창작품)과는 다른 모습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서사’ 중 두 유형을 선택했다. 하나는 전국단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기들을 모은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¹⁰⁾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기록을 전문 연구자들이 엮은 新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이야기¹¹⁾이다. 필자가 다양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서사’ 중에서 이 두 유형을 선택한 것은 전국단위와 지역, 개방형과 폐쇄형(집단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한글 글쓰기와 모국어 글쓰기의 차이가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재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욕심 또한 작용하고 있다.

2. 결혼이주여성과 글쓰기의 의미

결혼이주여성의 ‘수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체험한 다양한 경험들을 글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존재였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실,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기에는 일정한 서사구조가 존재한다. 박선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기에 나타난 서사적 특징으로 연대기적 서사 구조와 ‘자기소개 - 결혼 - 기대와 환상 - 충격, 소외, 갈등, 좌절 - 문제 해결 - 적응 -

9) 위의 글, p.356.

10)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¹⁰⁾ 매일신문사와 법무부가 공동 개최한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을 모은 작품집이다.

11) 이 책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BK21 창의적 지역전문가 양성사업팀이 나주시와 공동으로 이 지역 거주 43명의 결혼이주여성의 수기를 엮은 것이다.

희망과 다짐'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전개¹²⁾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기는 연대기적 서사 구조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전체로서 고찰하고 있으며, '기대와 환상→괴리(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희망과 다짐'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인 "자기서사"라 부르기엔 큰 무리가 없다.¹³⁾ 여기에 근·현대 문학장에서 여성들의 수기가 차지하는 위치, 즉 "여성이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진솔하게 고백하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확인"¹⁴⁾하는 것이란 이해가 첨가되면 결혼이주여성의 수기는 영락없는 자발적인 자기고백이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발적인 자기고백을 통해 우리들은 기존에는 접할 수 없었던 다문화가족의 어려움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국제결혼과 한국으로의 이주, 그리고 결혼생활 동안 가슴에 담아 왔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던 이방인으로서의 갖가지 어려움-의사소통의 불편, 시집살이, 각종 생활풍습(식습관)의 차이, 음식, 제사, 기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 종국에는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¹⁵⁾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범박하게 정리하면 결혼이주여성은 수기라는 글쓰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으로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게 되며, 한국인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굳이 이견(異見)을 달고 싶지 않다. 다만 이런 형식의 결혼이주여성의 수기가 '자발적인 자기고백'이라는 점과 공모의 형식을 통해 제작된 결혼이주여성의 수기와 그 과정에서 형성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이 진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이다. 장미영은 수기라는 형식 특히 독자응모수기의 경우 외형적으로 "자유로운 체험담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자의 의도와 선택에 의해 일정 부분 조정되고 있어 사회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¹⁶⁾는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모전이란 형식이 단순한 체험의 고백을 넘어 '당선'이라는 점까지를 염두에 둔다고 할 때, 사회적 담론의 영향은 무시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표적인 공모수기인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¹⁷⁾을 통해 이 부분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총 상금 2000만원을 내걸고 전국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체험 수기를 모집했던 '2011년 전국 다문화가족 생활체험 수기 공모'를 보면 공모전의 목적과 공모내용, 출품자격, 응모요령 등이 자세하고 공고되어 있다. 먼저 공모전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한글에 대한 학습의욕을 높이"는 것이다. 공모의 형식은 수기 또는 산문형식으로 되어있고, 내용은 1) 국제결혼 또는 이주과정의 애환, 2) 본국 가족 이야기 또는 이주해온 배경 등의 사연, 3)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에피소드, 생활상

12) 박선옥(2011), 「여성결혼이민자 수기(수기)에 나타난 문화 변용 양상 연구」, 新문화콘텐츠연구¹,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p.115.

13) 박혜숙·최경희·박희병(2002),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新성문학연구¹, 한국여성문학학회, p.328.

14) 장미영(2007), 「여성 자기서사의 서사적 특성 연구- 新원¹을 중심으로」, 新성문학연구⁸, 한국여성문학학회, p.161.

15) 이창영(2009), 「발간사」, 新문화가정 체험수기 무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¹범무부/매일신문사.

16) 장미영(2007), 앞의 글, p.167.

의 어려움, 4) 가족간의 갈등이나 한국에 살면서 겪은 이웃이야기, 5) 한국 생활 적응 체험담, 6) 자녀교육에서 겪은 어려움, 7) 자신 또는 가족이 느낀 다문화가족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등이다.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는 한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주여성,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물론이고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등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공모전 공고에서 보듯이 공모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글쓰기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발적인 고백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모전은 공모 주최측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이들로 심사위원을 선정¹⁷⁾하고 심사위원들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한 '2012년 다문화가족 체험수기 공모'의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장병호(수필가)는 응모 작품들에서 “한민족으로 태어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다운 정신세계와 한국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다문화가족 생활체험 수기 공모가 다문화가족들에게 단순히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디자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¹⁸⁾ 실제로 '2011년 다문화가족 생활체험수기'에서 대상을 받은 당티 후엔은 자신의 글이 대상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들께 “자랑스런 딸의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 같아 기뻐”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히고 있다.¹⁹⁾ 당티 후엔은 대상 수상을 통해 자신의 결혼생활을 과거의 “어려운 현실과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한국생활을 기쁨과 사랑으로 채우며 생활”²⁰⁾하는 것으로 의미화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전국단위의 공모전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글쓰기는 통상적인 '자기서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까지를 요구받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발적인 고백이라는 사적 영역의 다문화가족이란 공적영역-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는 장치-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좀더 부연해보자. 매일신문은 공모전이 목표한 바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한글에 대한 학습의욕을 높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글쓰기는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목표치를 일정부분 충족시켜줘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글쓰기 행위-결혼이주여성이 처한 제반의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점과 기존에 글쓰기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의 내적 욕망의 표출 등-가 정작 글쓰기 본연의 역할보다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나 한글에 대한 학습의욕 고취라는 부차적인 문제에 치중하게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기는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정욕망과 다문화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 보이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이해관계 수기라는 형식을 매개로 하여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전국단위 공모전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기에는 수기라는 형식의 글쓰기를 통

17) 참고로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한 '2012년 다문화가족 체험수기 공모'에는 장호병(수필가), 천순복 (경상북도 다문화행복과장), 이화숙(다문화정책연구소·국어교육박사), 유가호(달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조두진(소설가) 등이 심사에 참가했으며, 이들은 전국에서 응모된 209편의 수기 중에서 대상1편과 우수상 2편을 비롯해佳作(5편), 특선(10편), 입선(30편) 등 모두 4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18) 장병호의 심사소감은 선정작 발표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다.

19) 당티 후엔, 「2011 전국 '다문화가족 생활체험'수기 대상 당선소감」, 新 매일신문 2011년 11월 16일자) ; 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5969&yy=2011

20) 같은 면.

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스스로를 결혼이주여성으로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균열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 이른바 집단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방식의 글쓰기이다.

이 수기집은 각 수기들을 여성들의 자국 언어로 작성하게 하였다. 기존의 수기집들은 거의 예외없이 모범 사례 수기집인데, 그 주된 이유는 수기를 우리말로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글로 능숙하게 수기를 작성할 수 있는 여성은 곧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모집된 수기들은 모범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²¹⁾

인용문은 집단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만들어진 결혼이주여성 수기집의 발간사의 일부분이다. 저자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기집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온 여성들이 처한 현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체험, 당사자들의 솔직한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²²⁾ 중요한 매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간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기집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그 원인으로 이른바 ‘모범적 사례’ 수집을 꼽고 있다. 여기서 말한 모범적 사례 속에는 능숙한 한글 사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저자들은 자국어 글쓰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기들은 한글로 작성된 수기들보다 결혼이주여성의 내면이 훨씬 풍부하게 형상화되어 있고, 공모전 수기에서는 볼 수 없는 불편한 진실(실패담) 등도 실려 있다. 실제로 이 수기집의 기획자는 자국어 사용을 통해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이주여성에게 글쓰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3. 결혼이주여성 수기(手記)의 이야기 방식

결혼이주여성의 수기란 그것이 공모의 형식이든 연구자들의 기획에 의한 집단심층인터뷰 형식이든 글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현재의 시점에서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연구의 중요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는 물론이고 자신이 살아왔던 개인의 역사와 그것을 둘러싼 환경 등을 서술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기가 재현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관해 공모 형식과 집단심층인터뷰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공모전 형식 수기의 이야기 방식

매일신문사가 발행한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²³⁾에는 총 48편의 수기가 실려 있는데,

21) 박해광(2010), 「발간사」, 新문화가족의 결혼생활 이야기²⁴⁾ 나주시, pp.7-8.

22) 위의 글, p.7.

이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수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의해 작성된 5편을 제외하고 모두 43편이다. 이 수기집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수기의 결혼형태 및 출신국가 분포(공모형)

대상 작품수	이주 방식		결혼 형태					출신국가						한국이름	
	결혼 이주	이주 노동자	연애	지인 소개	맞선	종교	불명	중국	일본	베트 남	태국	몽고	기타	사용	비사 용
43편	37	6	10	5	19	6	3	13	6	15	2	2	5	16	27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2011)는 이주의 방식과 결혼 형태는 물론이고 출신국가와 국적 취득 여부 등 딱히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대략적인 특징들만을 거론한다면 첫째, 결혼의 형태에 따라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는 점이다. 즉 한국인과의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은 지인의 소개나 맞선(결혼중개업소) 등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과 자신들이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태국 출신으로 일본대학에서 유학중 한국인 남성을 만나 7년간의 연애한 후 결혼한 여성은 수기에서 한국사람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항상 가난하고 어렵고, 배우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결혼한 불쌍한 사람들로 묘사”²³⁾한다고 지적하면서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듯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을 자유롭게 여행했던 결혼 전 자신의 경험과 4개 국어(태국, 일어, 영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학실력 등을 거론하면서 자신을 여타의 결혼이주여성들로부터 분리해 내려 한다. 한마디로 자신은 한국인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애결혼을 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이다.

둘째는 이주노동자와 맞선을 통해 결혼한 이들이 보여주는 일정한 패턴이다. 이들 수기에서는 가난에 대한 강조와 그 극복방안으로써 한국인과의 결혼, 그리고 이주한 한국에 대한 희망 등을 보여준다. “술만 마시면 집안 물건을 부수고 우리들에게 매질을 하던” 가난한 아버지와 같은 남편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국제결혼을 선택한 김희영의 수기²⁴⁾와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날들이 무척 많았고, 옷도 없어서 낡은 것을 그냥 몸에 걸치고 살아야”만 하는 삶으로부터 탈출과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기꺼이 이주노동자의 삶을 선택한 레티 튀 응아의 수기²⁵⁾ 등은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과거(이주 이전)와 현재(이주 이후)를 대립항으로 설정한 후, 과거를 부정의 공간으로 현재를 긍정의 공간으로 의미화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긍정의 공간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기실은 “베트남이란 나라는 못사는 나라지?”²⁶⁾처럼

23) 도왕사문 찬참니(태국), 「나의 인생을 바꾼 점원의 말실수」,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2011) 매일신문사, p.85.

24) 김희영(캄보디아), 「지금처럼, 꼭 지금처럼만……」,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2011) 위의 책, p.70.

25) 레티 튀 응아(베트남), 「꿈의 나라, 한국」,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2011) 위의 책, p.93.

26) 김은주(베트남), 「한국에서 살다 보니」,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2011) 위의 책, p.16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엄존한 사회라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고부갈등, 의식주로 대변되는 생활문화의 차이, 관혼상제의 차이로 인한 혼란과 불편함,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는 기후 차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를 ‘제 2의 고향, 한국’, ‘꿈의 나라 한국’, ‘코리안 드림’, ‘한국, 새로운 시작’ 등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정한 형태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이주방식-이주노동자/ 결혼이주-의 차이에 따라 이들이 구현하고 있는 이야기의 세계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눈여볼 필요가 있다. 전자가 한국사회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 비교적 사실에 근거해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후자는 “TV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은 여자를 안 때리고 잘 해주더라고요.”²⁷⁾에서 보듯이 피상적이다. 그들은 국제결혼을 하면 “친정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거나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믿”²⁸⁾고 결혼을 결심한다. 맞선을 해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누차에 걸쳐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 현실에 대해 발화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충격과 상심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배우자와의 나이차이가 평균 15년을 상회한다는 점도 맞선을 통한 결혼이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국적에 따라 그들이 수기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베트남이나 중국을 국적으로 갖는 이들에게 한국이 ‘부자 나라’나 ‘깨끗한 나라’, 이른바 번호표로 대표되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등으로 인식되는데 반해 일본 출신자들에게 한국은 ‘예의가 부족하고 고집불통의 나라’이거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남아 있는 나라’,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남아 있는 나라’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수기에는 한국을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이상적인 공간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수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해주겠거니와 하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국 사람이라면 눈치로 알아채겠지만 외국인며느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²⁹⁾수밖에 없는 한일양국의 문화적 차이(언어, 생활습관, 기후)와 경제적인 고통으로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이 들인 노력 등을 기록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수기형식 일반이 그러하듯 과거와 현재를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베트남 출신자들과는 정반대의 포즈를 취한다. 즉 부정과 긍정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긍정과 부정의 대립구도에서 자신이 어떻게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였으며, 그럴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히고 있다.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을 반대한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도착한 한국이 자신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믿음과 남편 또는 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책임 등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수기에서 출신국가별 분석에서 흥미를 끄는 또 하나는 국적취득에 관

27) 트란티기우(베트남), 「우리가족 사랑합니다」,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 卷 위의 책, p.198.

28) 보티짱(베트남), 「행복으로 가는 여행」,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 卷 위의 책, p.220.

29) 야마네 요시코(일본), 「어느 가을 날」,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 卷 위의 책, p.105.

한 인식이다. 동남아시아 출신자나 중국 출신 이민자들은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상당수가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심지어는 국적 취득을 “2010년 3월 15일 한국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남편과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쁜 마음을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³⁰⁾처럼 표현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한 분석이 요구되어야 하겠지만,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취득과 개명절차를 통해 과거의 불행과의 영원한 단절과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수의 수기에서 임신(출산)과 더불어 국적 취득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적취득을 국제결혼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국적취득에 대해 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는 외국인 등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적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이득에 관해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과 출신국가의 경제적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다 하겠다.

넷째는 이른바 ‘모범 사례 형’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공모라는 형식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수기를 읽다보면 이들이 유독 ‘행복’, ‘사랑’, ‘희망’이라는 어휘에 사로잡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같은 사라들이 없도록 제가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여 새로 한국으로 시집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제가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일들을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³¹⁾

결혼이주여성 수기의 전형적인 결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기를 비롯한 자기서사는 자신의 삶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스스로 일정한 답을 내리려는 시도로써 작성된다. 그렇게 때문에 수기에서는 “자신에 관한 특정한 이미지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입각하여 자신을 재구성하고 형상화”³²⁾한다. 이 말은 수기가 체험자가 경험한 삶의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자신이 기억하기를 원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취사선택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기를 통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이다. 즉 왜 공모전 수기에 등장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스스로를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쟁취한 이들로 형상화하는 하느냐는 것이다.

입선작이기도 한 인용문을 통해 점도 살펴보기로 하자. 수기는 ‘결혼과정과 한국 입국→한국생활의 어려움→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임신 및 출산)→완전한 한국인(행복한 가정)’의 서사구조를 갖고 있다. 5년 전, 한국에서 온 남자(농업, 과수원)와 맞선(결혼중개업체)을 보고 국제결혼을 한 화자는 남편이 짧은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자,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나를 잊어먹지는 않았는지 걱정”(155)을 하면서 한국으로의 출국 날짜를 기다린다. 한국에 도착해 공항에서 남편을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남편의 트럭을 타고 6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보이는 것은 산과 들뿐이고 집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156)은 시골이었다. 이런 낯선 환경은 화자가 베트남에서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

30) 김윤아(베트남), 「행복한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 新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 宛 위의 책, p.159.

31) 위의 글, p.160.

32) 박혜숙 외, 앞의 논문, p.343.

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불안했지만, 시부모님의 따뜻한 표정과 남편의 다정한 모습에서 불안이 조금은 가시기도 하였다. 도착 이후의 결혼이주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무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언어의 소통의 어려움과 입에 맞지 않은 음식, 베트남인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문화(장례문화와 제사 등) 등으로 인해 극심한 심적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

그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된 화자는 문화적 차이와 향수병으로 인해 아이를 유산하게 된다. 아이의 유산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화자는 “누구와도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없”(160)는 상황이 너무 답답해 남편에게 자신을 베트남으로 보내달고 졸랐고, 그것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 모든 갈등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부터 점차 해소된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갈등의 상당부분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을 받게 한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교류하면서 그녀는 의사소통 부재에서 오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한글 소통 능력이 향상되면서 그녀는 시부모는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들과도 점차 교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집에서만 머물지 않고 “남편을 도와 과수원일을 하며 집안일”(157)까지 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이러한 변화는 가족간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마침내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된다. 따라서 수기를 분석함에 있어 우리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점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구조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작품집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다.

3.2. 집단심층인터뷰 형식 수기의 이야기 방식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BK21창의적 지역전문가 양성사업팀에서 기획하고 나주시가 출간한 新다문화 가족의 결혼생활 이야기(2010)는 전형적인 집단심층인터뷰 형식의 수기는 아니지만, 기존의 공모전 방식의 수기와는 참가 대상, 모집 방식, 사용 언어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전문 연구자들의 참여관찰 연구의 결과물이란 점에서 큰 틀에서 집단심층인터뷰 형식의 수기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이 작품집에는 모두 43 편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기가 실려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분석대상 수기의 결혼형태 및 출신국가 분포(집단심층인터뷰 형)

대상 작품수	이주 방식		결혼 형태					출신국가						자녀유무	
	결혼 이주	이주 노동자	연애	지인 소개	맞선	종교	불명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기타	자녀 유	자녀 무
43편	41	2	5	8	17	8	5	20	3	7	4	2	6	32	1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新다문화 가족의 결혼생활 이야기(2010)기 역시 이주의 방식과 결혼 형태, 그리고 출신국가와 자녀 유무 여부 등에서 보면 앞서 살펴 본 新다문화가족을 타고 온 사람들(2010)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 수기집이 공모 형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공

모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명 또는 무기명의 수기가 제법 게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新문화 가족의 결혼생활 이야기(2010)에는 무기명 7편과 가명 1편 등 총 8편의 저자를 알 수 없는 수기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들 수기들은 한결같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위태로운 심리상태나 각종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형상화되고 있다.

집단심층인터뷰 형 수기가 보여주는 특징들을 기존의 공모형과 비교해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나 국제결혼 또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결혼이주자들이 느끼는 불만이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신랄하게 전개된다는 점이다. 공모형 수기의 경우는 격심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보다는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아무래도 심사과정이 고려한 때문일 터이다. 집단심층인터뷰형 수기에서는 “한국에 왔는데 집도 없었다. 나는 시누이 집에서 한 달 정도 개처럼 방에 갇혀 살았다. 밥 주고, TV 보고, 잠자고, 개처럼 말이다.”³³⁾에서 보듯이 감정 표현에 거침이 없다. 물론 위의 인용문이 ‘가명’ 사용이라는 보호 장치로 인해 감정표현에서 공모형 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감정표현은 꼭 가명을 사용한 수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차가운 분이다. 나에게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아기를 낳을 때에도 남편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와서 나와 아기를 보지 않았다. 그들의 차가운 태도와 애정 결핍으로 내 마음도 얼음장 같이 차가워졌다. 아이가 연속으로 태어나도 나의 친정에서는 나를 돌봐줄 수 없었고, 시집 쪽은 내가 아예 이 집 사람이 아닌 듯 안보도 묻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처음인 나로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매일 눈물로 얼굴을 씻었다. 땅을 부르면 땅이 대답 없고 하늘을 불러도 대답 없으니 원래 허약한 나는 또 다시 쓰러져서 입원했다.³⁴⁾

시어머니와 가족들의 냉대를 토로하고 있는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불만 대상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만들은 대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까지 이어진다. 필리핀 출신의 조안나 에이로오드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너희 나라에서 얼마나 못 살았으면 이런 곳까지 왔으라는 멸시와 천대”(150)를 하면 그러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구시대적이며 봉건시대적인 산물이고, 우월의식의 극치이자 무지의 소치”³⁵⁾라고 비판한다.

공모형과 집단심층인터뷰형의 세계인식을 비교해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같은 차이는 아무래도 한글 글쓰기와 모국어 글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국어의 사용을 통해 비로소 성인으로써의 인식 능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한국에 대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환상의 실체와 그 좌절이 보다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동경은 기존 공모형 수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기존 공모 방식에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한국을 동경했는지 충분히 표현

33) 신희망, 「내 삶의 그림자」, 新문화 가족의 결혼생활 이야기(2010) 위의 책, p.250.

34) 양추국,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新문화 가족의 결혼생활 이야기(2010) 위의 책, p.122.

35) 조안나 에이로오드, 「나의 인생, 나의 사랑 대한민국」, 新문화 가족의 결혼생활 이야기(2010) 위의 책, p.151.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고2 중간정도 다니다가 부모님을 도우려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 그때가 16살이었다. ...중략... 아이 돌보기, 설거지, 식당 서빙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19세 때에는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월급을 너무 적게 받았다. 그때 주변 사람이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부모님께 돈을 많이 보내줄 수 있고 본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³⁶⁾

인용문은 가난한 부모를 베트남 여성 원티디엠이 한국인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국제결혼을 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녀는 “외국에 가면 속임을 당할까봐 무서웠”기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한다. 한국 남자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지만, 개중에는 남편이 여인을 마치 돈을 주고 식모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구입해 온 것처럼 여긴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보다 한국은 더 큰 유혹의 공간이었다. 결국 그녀는 반대하는 가족들을 설득하고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안에도 나처럼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한국 남자가 와서 우리를 보았다. 나이 많은 남자, 장애인들도 있었다. 3일째 되던 날, 지금 우리 남편을 만났다. 남편이 나를 선택했다. 내 키보다 조금 작았다. 사람들이 이를 후에 약혼식을 한다고 했다. 이 결혼은 수많은 모험을 가져왔다. 나는 내 미래 남편을 잘 몰랐다. 약혼식에는 가족들이 참석했다. 둘이 이를 동안에 여행을 다녔 온 후 남편이 한국으로 갔다. 3개월 후에 나는 한국으로 왔다.³⁷⁾

그렇게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현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입에 맞지 않은 음식, 그리고 식습관의 차이(2번의 식사를 3번의 식사로 변경), 복잡한 가족관계(시집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낭패감 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환상과 좌절이란 서사는 “한국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현실인식을 넘어 국제결혼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셋째, 공모형 수기가 원하는 모범에서 벗어나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이 체험하고 있는 고통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공모형 수기가 국제결혼으로 갈등의 인식과 이 갈등 극복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노력, 그 결과물로 주어진 행복한 가정이란 일종의 정형화된 서사 구조를 차용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 수기에서는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고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C(무기명)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의 학대를 고발하는 수기 「내게는 감옥 같은 집」의 결혼이주여성은 시종일관 자신이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학대당하고 있으며, 그 학대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처럼 C역시 “좋게 열심히 살면 되겠지”(229)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알코올 중독자인 시아버지의 폭언과 폭행, 시아주버니의 폭언과 폭행, 시어머니의 잔소리 등

36) 원티디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新문화 가족의 결혼생활 이야기 冤 위의 책, pp.43-44.

37) 위의 책, p.44.

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감옥 같다고 느낀다.

시누이도 똑같았다. 매번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욕한다. 시누이는 나보고 너희나라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댁 사람들은 나 보고 집에만 있으라고, 밖에 공부하러 나가지 말라고, 하루 종일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라고, 일을 다녀도 안 되고 조금 늦게 일어나면 하루 종일 먹고 자고만 할 줄 안다고 말을 한다. 방에 조금 오래 있어도 뭐라 하고 욕을 한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혼한 지 4년이나 되지만 고향에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다.³⁸⁾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그녀는 공모형 수기에서 보여주는 이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누락되어 있다. 그녀는 “나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고 끝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삶의 위기에 봉착했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현재의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반전을 가져올 만한 ‘일정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계기라는 것은 어쩌면 ‘모범적 사례’ 또는 영웅적 서사 구조의 완성을 위해 구원자를 도움을 필요로 하듯 인위적으로 삽입한 것인지도 모른다. 결혼이주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구원자란 없으며 자칫하면 모든 것을 혼자서 해쳐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4. 수기의 결혼이주여성 재현: 결혼이주여성 되기의 조건들

결혼이주여성의 수기는 내용과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이주여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겪은 결혼 생활의 사적 경험들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개별적 한 인간에서 결혼이주여성이란 집단적 범주로 스스로를 규정짓는다. 그러면 서 그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소구한다.

4.1. 한국어 공부

-결혼이주여성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언어소통 부재)

한국어 공부를 통해 소통하면서부터 고립에서 벗어나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이 됨.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함.

4.2.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하기

결혼이주여성들이 맞이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진술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것은 전형적인 한국화 또는 동화의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 그들은 한국문화의 일원이 됨.(문화적 차이 부각)

38) C,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新문화 가족의 결혼생활 이야기 卷 위의 책, pp.230-231.

4.3. 임신을 통한 가족 만들기

임신과 출산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이 온전한 가족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재현하는 중요한 기제가 됨. 출산의 기쁨, 어려움 등등

4.4. 행복의 조건들 찾기

-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 중요한 조건들로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혼생활에서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과 시부모님의 변화가 요구됨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 나는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 등등

시부모님의 변화가 필요하다(나-166)

5. 나오며

결혼이주여성의 수기는 결혼이주여성들 스스로가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이주여성 되기의 조건들을 내면화하고 기꺼이 결혼이주여성으로 스스로를 재편하려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왜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일까?

-구술로 대체-

〈참고문헌〉

매일신문사 편(2011), *새 지개를 타고 온 사람들* 매일신문사/ 법무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BK21 창의적 지역전문가 양성사업팀 엮음(2010), *새 문화 가족의 결혼 생활 이야기* 나주시.

하정일(2008), *새 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임헌영(2010), 「한국문학과 다문화주의」, *세계한국어문학*, 세계한국어문학회.

윤여탁(2009), 「다문화·다매체·다중언어의 교육 : 그 현황과 전망」, *새 문학* 06, 한국어문학회.

강진구(2010), 「다문화시대와 한국문학 연구」, *새 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우한용(2009),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소설적 전망」, *현대소설연구* 40집, 한국현대소설학회.

박선옥(2011), 「여성결혼이민자 수기(수기)에 나타난 문화 변용 양상 연구」, *새 문화콘텐츠연구* 1,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박혜숙·최경희·박희병(2002),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새 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회.

『만인보』에 나타난 역사의 형상화 양상 :

4·19 시편, 5·18 시편을 중심으로

장은영(경희대학교)

1. 역사와 문학의 접점에 있는 글쓰기로써의 ‘이야기’

폴 리콥르(P. Ricoeur, 1913-2005)는 구조화된 이야기 자체가 사실과 허구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야기가 허구와 역사의 접점에 있다고 보았다.¹⁾ 그러나 문학과 역사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문학적 장르에서 나타나는 허구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와 달리 실제 대상을 지칭하거나 실제의 행동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이 실제 사건과 인물을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품 내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지 실제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허구 이야기가 재현하는 것은 “행동의 실재성이 아니라 행동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이며, 그러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세계이다. 텍스트의 세계는 현실에 모습을 부여하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을 다시 그리고 만든다.”²⁾

이에 비해 역사는 실제 일어났던 것에 대한 재현이다. 그러나 실제 일어났던 것, 즉 인간이 직접 경험했던 과거의 시간은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없다. 리콥르는 인간의 시간 경험이 매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나간 시간의 경험들은 이야기라는 매개를 통해서 인간에게 이해 가능한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야기 시학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와 허구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인간의 시간과 경험을 매개하는 이야기는 문학과 역사의 접점에 위치한다. 요컨대 역사의 지향성은 서술적 상상 세계와 관련된 허구화 능력을 자기가 겨냥하는 바에 통합함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으며, 반면에 허구 이야기의 지향성은 실제 과거의 재구성이라는 시도가 그것에 제공하는 역사화 능력을 받아들임으로써만 능동적 행위와 수동적 행위를 찾아내고 변형시키는 효과들을 만들어낸다. 허구 이야기의 역사화와 역사 이야기의 허구화가 긴밀히 교차할 때 인

1) 리콥르가 이야기 시학에 관한 저술한 難간과 이야기에서 사용되는 이야기 ‘recit’의 사전적 의미는 쓰여진 것 전체를 의미하지만 이야기 시학에서는 다시 histoire와 Histoires로 구별되어 사용된다. histoire는 허구 이야기를 지칭할 때, Histoires는 역사 이야기를 지칭할 때 쓰인다.

2) 김한식, 「폴 리콥르의 이야기 해석학」, 『新어국문학』146호, 2007. p.232.

간의 시간이 태어나며, 그것이 바로 이야기된 시간(temps raconté)이다.³⁾ 이야기는 과거를 이해 가능한 시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성찰의 매개가 된다.⁴⁾

본 연구는 이러한 이야기 개념을 통해 親인보覽의 역사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야기를 서술 장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학을 통합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글쓰기라고 할 때 서정 장르인 親인보覽에 나타난 역사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親인보覽은 실존했거나 실존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일대기나 삶의 한 장면을 서술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각 시편은 서로 독립적인 이야기를 구성하지만 親인보覽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한 집단의 역사적 시간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각 시편에 실린 인물의 경험은 공식적 역사도 아니며, 구체적인 실증의 대상도 아니지만,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기억과 서술을 통해 공식적 역사가 그려내지 못한 역사적 시간을 재현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 형식을 띤 親인보覽의 서술적 특징은 기존의 역사 소설이나 서사시가 보여준 총체적 의미의 역사성과는 다른 지점에서 역사적 성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고는 親인보覽의 역사 형상화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항쟁을 다른 시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의 진술 형태에 따른 역사 형상화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르포르타주와 증언

親인보覽의 각 시편들은 주로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연과 행의 구분이 이루어진 서정시 장르이지만 사건 중심으로 구성된 각 작품은 서술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 와서 시 장르의 서술성 문제는 서정시와 변별적인 장르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정시의 한 요소나 시적 장치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⁵⁾ 따라서 서술성을 규명하는 문제에 있어 서술시라는 장르적 특성에 대한 고찰보다는 미학적 형식으로서 서술성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더 유용한 접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 장르에 나타난 서술성은 리얼리티를 표출하는 미학적 장치⁶⁾이기도 한데, 親인보覽에 나타난 서술성은 리얼리티를 확보함으로써 역사적 국면을 강하게 표출한다.

본고는 사건과 경험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있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야기의 양상 가운

3) 폴 리코르, 김한식 역, 親間과 이야기3覽 문학과 지성사, 2004, p.537.

4) 리코르의 이야기 시학은 그 자체로 특정한 형식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형식적 측면에서 이야기는 미메시스와 뮈토스에 의거해서 구성된 행위에 대한 서술을 말한다. 리코르가 주목했던 이야기의 특성은 형식의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위에 대한 서술을 통해 인간의 과거 경험을 재구성한다는 점에 있다.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서술은 인간의 과거를 이해 가능한 경험으로 만듦으로써 과거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는 인간의 과거라는 실재를 이해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언어의 구조물이다. 이런 이야기 개념을 전제로 할 때 역사는 인간의 과거라는 실재가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한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허구 이야기와 중첩한다. 이야기 시학은 역사와 문학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서술 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5) 엄경희, 「서술시의 개념과 유형의 문제」, 親國근대문학연구卷ol.6, 한국근대문학회, 2005, 390-392면 참조.

6) “서술시의 미학적 장점은 산문소설에 등가되는 리얼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김준오, 「불확실성과 서술시의 변화」, 親代시와 장르비평覽 문학과 지성사, 2009, p.172.)는 점이다. 親인보覽에 나타나는 서술성은 실존 인물을 형상화하는데 있어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주요한 형상화의 방법이다.

데 르포르타주(Reportage)와 증언(Testimony)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 양상을 중심으로 新만인보의 역사 형상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르포르타주와 증언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1. 르포르타주(Reportage)적 발화

르포르타주(Reportage)는 광범위하게는 기록문학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좁게는 저널리즘 장르에서 보도 기사를 의미하지만 사실 문학과 저널리즘 사이에서 르포르타주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저널리즘에서 르포르타주는 대상에 대해 글쓰는 이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도하는 정보전달 유형에 해당한다. 장면적 또는 관점적 지식을 포함하는 르포르타주는 글쓰는 이에게 정보수집과 테마선택 그리고 표현방법에 이르기까지 보다 자유로운 보도 행위를 허용하는 정보전달 형식이기 때문에 덜 형식화되어 있고, 일상적인 이야기체에 가장 근접한 문체를 지닌다.⁷⁾

르포르타주의 주요 기능은 주어진 개개의 행위 또는 사건을 독자에게 구체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알리고, 자세히 설명하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르포르타주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관찰자의 서술 관점이 매우 중요한 장르이다.⁸⁾

사건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둔 글쓰기 양식으로써 르포르타주는 저널리즘에서 시작되었지만 문학과 연관성 속에서 논의가 확장되었다. 문학적 르포르타주의 창시자로 알려진 독일의 에곤 에르빈 키쉬(Egon Erwin Kisch)는 대중저널리즘이 야기한 고유한 문제들에 대한 저널리즘의 자기성찰로 이해할만한 도덕적, 문학적으로 상승된 르포르타주이론을 내놓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르포르타주는 “독점적 자본에 편입된 거대 출판사가 만들어낸 집단적 글쓰기와 상업주의의 위기에 대해 저널리즘은 근대 문학의 비판적 기능과 도덕적 전통을 근거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르포르타주 장르는 구체적 사건 및 대상에 대한 보고라는 신문매체의 고유한 역할과, 리포터 개인의 주관적 사유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매체로서 저널리즘의 도덕적, 문화적 자기 역할이해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는 가장 적합한 무대가 된 것이다.”⁹⁾

글쓰기의 현실적 역할과 의미를 중시한 키쉬가 강조한 것은 사실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하되 도덕적, 문화적 역할을 잃지 않는 것이다. 글쓰기의 목표나 지향점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는 글쓰기의 현실적 역할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르포르타주는 사실이나 객관의 전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의 문제나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통찰력을 담지한 글쓰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바는 르포르타주가 현실을 비판하고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글쓰기라면, 그것은 단순히 사

7) 오장근, 「사건보도, 사태보도, 르포르타주」, 新텍스트언어학 4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1, pp.197-199.

8) 부허(Hans-Jürgen Bucher)에 따르면 르포르타주는 다음과 같은 서술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목격자적 관점으로 보도되는 사건(행위)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을 기술하거나,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건(행위)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기술한다. 둘째, 사건에 참여하는 관찰자적 관점으로 한 사건의 현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기술하거나, 보도자가 참여하고 있는 장면이나 광경을 기술한다. 셋째, 내부자적 관점으로 보도자가 사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기술하거나 보도되는 사건의 행위자가 보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기술한다.(탁선미, 「에곤 에르빈 키쉬의 르포르타주 문학」, 新독일어문학 30집, 2005, pp.181-182, p.204.)

9) 탁선미, 위의 글, p.186.

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르포르타주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지향을 토대로 사건을 형상화하는 글쓰기라는 의미를 지닌다.

서구에서 르포르타주의 글쓰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은 가르시아 마르케스(García Márquez)이다. 젊은 시절 기자 생활을 했던 마르케스는 전업 작가가 된 이후 순수문학창작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는 르포르타주적 글쓰기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 마르케스의 “르포르타주 문학에 나타난 저널리즘적 특성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된다는 점이다.” 사건의 원인과 배경, 맥락을 현실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 토착어를 사용하며 순수문학적인 문체가 아니라 교양 있는 구어체를 사용한다. 한편 현실을 증거하는 실제 사건들을 되살리면서도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면모를 갖추도록 문학적인 것을 추구한다.¹¹⁾

한국에서도 1920년대에 이르러 르포르타주 글쓰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달성을 비롯한 新해벽冤필진들이 지방 실정을 다룬 르포르타주를 썼으며, 전시체제기(1938-1945)에는 친일작가들이 일본 파시즘에 부응하는 관변적 르포르타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방기에는 이전 시대에 비히 르포르타주가 대거 창작되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충돌, 경제적 모순의 심화로 대변되는 해방기 현실의 격동성으로 인해 수많은 사건과 현상이 발생했고, 매체환경의 변화로 술한 신문과 잡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르포르타주가 조선문학가동맹 작가들이나 좌파계열의 신문기자들, 즉 조선신문기자회 소속 기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¹²⁾ 한국의 해방기 르포르타주를 연구한 박정선에 따르면 르포르타주는 근대 이후의 사회적,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 현실의 여러 국면과 그에 대한 작자의 반응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연구의 사료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해방기의 르포르타주 역시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¹³⁾

1970-1980년대 리얼리즘 문학에 관한 논의에서도 르포르타주는 중요한 글쓰기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¹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신념을 토대로 르포 문학은 리얼리즘 문학의 한 갈래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객관적 역사와 주관적 서사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유지할 수 있는 있는 근거가 와해된 오늘날 ‘사실’에 대한 기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주체의 입장이나 태도 등의 문제이다.¹⁵⁾ 즉 르포 문학은 사실적 가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

10) 대표적인 작품은 新이노 조난자의 이야기(Relato de un naufrago)冤 新칠레에 잠입한 미겔 리핀의 모험冤 新납치일기(Noticia de un secuestro)冤조국호,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저널리즘적 글쓰기 탐색」, 新충남연구冤 제30권2호, 2011, p.61) 新이노 조난자의 이야기冤를 쓰고 난 뒤 마르케스의 회고에 따르면 “매일 여섯 시간씩 20일 동안 작업하면서 나는 그의 말투를 포착하고, 그의 증언이 지닌 모순을 밝혀내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함으로써 그가 바다에서 보낸 10일간의 이야기를 치밀하고 진실되게 재현할 수 있었다”고 한다.(위의 글, p.65) 그러나 마르케스의 소설이 증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증언들은 작가의 문체에 의해 다시금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르케스의 작업은 현실에 대한 치밀한 관찰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며 그것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르포르타주적 글쓰기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11) 위의 글, p.186.

12) 박정선, 「해방기 문화운동과 르포르타주 문학」, 新어문학冤 제106호, 한국어문학회, 2009, p.371.

13) 위의 글, pp.371-372.

14) 김성환은 1970년대 글쓰기 양식으로 논픽션, 르포, 노동 수기 등을 분석하면서 하위 주체의 발화를 표출하는 르포 양식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김성환, 「새로운 글쓰기 양식이 이끈 인식 지평의 확대」, 新천문학冤 제8호, 2012, 11, pp.39-43)

15) 손남훈, 「‘리얼’을 향한 르포르타주의 글쓰기」, 新오늘의 문예비평冤 2010, 가을호, pp.80-83참조.

라 진실을 추구하는 필자의 태도를 반영한 글쓰기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2. 증언적 발화

증언은 공식화된 역사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는 이야기를 말한다. 객관적 사건이나 구조에 주목하는 역사와 달리 기억은 과거를 재현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주목한다.¹⁶⁾ 그래서 공식적 기록이자 집합 단수를 의미하는 역사가 스스로 주체의 권위를 획득한 데 비해 기억은 역사라는 주체에 의해 타자화된 이야기들의 저장소의 의미를 지닌다.

증언의 내용은 사실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없지만, 경험적 진실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증언의 주체는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에 관해 그들의 경험을 목격자의 입장에서 대리하여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 발화 내용의 사실성 여부는 증명되기 어렵지만 증언은 희생자의 고통에 대한 증언 주체의 윤리적 책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스스로 경험적 진실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같은 증언의 성격에 대해 르네 쉐레르는 1910년대 유토피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순수한 방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관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다. 역사를 결정하는 저 높은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견뎌내고 있는 이 낮은 곳에 몸을 두는 것. 낮게 그것도 철저히 낮게. 수동성이라는 말이 이미 허튼소리가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행위 자체가 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낮은 곳에 몸을 두는 것”¹⁷⁾이다. 르네 쉐레르의 언급에서처럼 증언은 역사 이면에 놓인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삶에 대한 능동성을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오늘날 증언은 과학적 학문인 역사가 서술하지 못하는 인간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의미를 점에서 학문적으로도 주목받기도 한다. 증언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홀로코스트 연구, 아프리카 연구, 여성 연구, 그리고 하위주체 연구로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증언 연구는 학술적, 문화적, 혹은 문학적 담론 속에서 잊혀졌으면서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목소리, 즉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증언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희생되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스스로 목격했으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¹⁸⁾ 한 예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증언 문학은 “전쟁이나 탄압 혹은 혁명처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런 사건을 서술하고자 결심한 증인에 의해 서술된 진정한 서사물이다. 대중적이며 구어적 담론을 강조하면서, 증인은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의 대리인으로 자기의 경험을 묘사한다. 진실은 수탈과 탄압으로 점철된 현재의 상황을 고발하는 명분, 혹은 공식 역사를 떨쳐버리거나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⁹⁾

증언은 리코르가 말한 이야기의 개념과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리코르는 역사 다시 말

16)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pp.26-27.

17)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p.177에서 재인용.

18) 송병선, 「라틴아메리카 증언문학의 시학과 하위 주체의 문제」, 『라틴 아메리카연구』ol.17, 2004, p.380.

19) George Yúdice, “Testimonio and Postmodernism”, in Georg M. Gugelberger(ed.), *The Real Thing, Testimonial Discourse and Latin Amer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1, p. 44. 송병선, 「라틴아메리카 증언문학의 시학과 하위 주체의 문제」, 『라틴 아메리카연구』ol.17, 2004, p.380에서 재인용.

하기로서의 이야기의 함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힘없고 패배한 자들의 역사는 말해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증언은 패배한 자들, 희생된 자들 즉 역사의 타자들에 대한 기억이며, 그 기억을 통해 역사를 다시 말하고 이해하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일종인 증언은 항상 진실 그 자체인 것은 아니지만, 리피르는 증언의 주체는 타인에 의해 소환당한 주체로서 이야기 속에서 진실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증언은 타인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부과하는 이야기 형식인 것이다.

요컨대 증언은 증언 주체의 기억에 의존하는 발화라는 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지만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대한 사명감과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이자 타자 지향적 성격을 지닌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증언에 대한 관심은 5.18에 대한 증언 작업들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1995년 이후 국가 주도적인 진상규명 작업과 법적 판결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일련의 공식화된 기념비화 작업들은 5.18이 지닌 의미를 추상화하거나 이야기를 중단시키는 듯한 인상을 풍겼고, 이에 대해 역사적 사건 그 자체를 상실케한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5.18에 대한 다양한 문화 운동을 촉구함으로써 5.18을 현재적 기억으로 되살리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증언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기억이자 현재적 관점에서 재조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적인 측면을 지닌다.

親인보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증언의 성격이다. 親인보覽은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허구적 텍스트라는 점에서 객관적 과학으로서의 역사와 변별되지만 역사적 현장에 실존했던 실제의 개인들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역사화되지 않은 개인의 기억이라는 증언의 성격을 띤다. 일제 강점기 아래서 개개인들이 경험한 삶의 한국면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던 5.18에서 희생자나 그것을 목격한 이들이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는 공식적 역사로 포착되기 어려운 기억이다.

親인보覽은 역사화되지 못한 개인의 경험들을 증언하는 이야기이다.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증언은 각 시편에서 다양한 형태로 화자의 진술을 구사하면서 비극적 경험이나 학살의 풍경 그 자체를 하나의 의미로 수렴하기보다는 복수적으로 겹쳐놓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親인보覽의 다양한 화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개별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타인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죽음의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공동(共同)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3. 르포르타주적 시선에 나타난 4.19: 사회적 개인의 형상화

르포르타주는 저널리즘적 글쓰기의 한 형식이지만 문학과 르포르타주의 경계는 유연하다. 저널리즘에서도 문학적 형식을 통해 주요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저널리스트의 상상력과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문학적 저널리즘이 사용되었던 것처럼²¹⁾ 문학 역시 저널리

20) 장은영, 「증언의 시학: 역사에서 윤리로」, 親민주주의와 인권 11권 2호, 2011, pp.41-42 참조.

즘적 글쓰기를 통해 문학적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靑年인보覽에는 전반적으로 관찰자의 시선과 사실성이 강조된 르포르타주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 방식이 더욱 강조된 것은 21권, 22권, 23권이다. 靑年인보覽전체 구성으로 보았을 때 이 세 권의 시집은 1960년대 전후의 인물을 중심으로 당대의 사회 정치적 경향과 함께 4.19혁명 당시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강제하는 공권력과 다시 그에 맞선 시민 사회의 분노가 표출된 4.19혁명은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²²⁾

4.19혁명은 당대의 문학자들에게도 큰 충격과 격분을 안겨준 사건이었고, 한국 문학사에서 ‘4.19문학’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큰 파장을 일으킨 역사적 사건이다.²³⁾ 그러나 전후 문학과 구별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1960년대 문학의 특징이 4.19의 직접적인 결과로 환원되는 경향²⁴⁾은 도리어 4.19혁명을 추상화된 과거로 화석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평가를 모면하기 어렵다.²⁵⁾ 4.19문학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4.19라는 역사적 체험을 계기로 일어난 개인적·집단적 수준에서의 의식 변화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심적이었다.²⁶⁾ 이에 비해 靑年인보覽의 4.19 시편은 혁명의 추상화된 의미와 관념보다는 객관적 관찰자의 시선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개개인이 경험한 체험을 좇으면서 현장을 전달하는 화자는 사명감을 지닌 저널리스트의 시선으로 사건을 형상화한다.

① 대빛자루 두 자루 끝에 광목천 플래카드를 달았다/ 앞장섰다/ 스크럼이 뒤따랐다/ 고대생들의 풍경// 대광고도 나서야 했다/ 창신동 양조장집 아들 정병화 군이/ 양조장 밑가루 부대/ 다섯장을 책가방에 담아왔다/ 거기에 플래카드 구호를 썼다// 우리는 제2세 국민이다/ 자유당은 반성하라/ 부정선거 무효이다// 아침8시15분 예령(豫鈴)소리 요란했다/ 고3 4학급/ 고2 전학급 운동장에 집결/ 고1 신입생 운동장에 집결// 드디어 교문을 나섰다/ 신설동 로터리/ 동대문 로터리까지 뛰었다/ 고2 이문길 발등을 밟혔다 절뚝거렸다/ 그러나 뛰어갔다/ 종로5가 경찰저지선/ 오물청소차1대/ 백차3대가 기다린다/ 총구멍이 기다린다// 경찰저지선을 뚫었다 종로4가까지 뛰었다/ 대광고

21) 최성은, 「리샤르드 카푸시친스키의 르포르타주 에세이」, 靑年계문학비교연구卷29집, 2009, 겨울호, p.435 각주 2번 참조.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참조(<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23) 4.19문학은 1950년대 문학과 1960년대 문학 사이의 비연속성을 낳았다는 점에서 문학적 도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4.19를 계기로 남한에서 주도적이었던 반공문학이 점차 저항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혁명 직후부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시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에 있어서 4.19의 시적 수용은 단계적으로 변모한다. 초기 현장시들이 격렬한 구호와 직설적인 현장묘사, 엇비슷한 주제 또는 소재 나열 등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점차 4.19의 역사적·민족적·사회적 당위성이 인식되면서 거기에 걸맞는 시적 형상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수영과 신동엽으로 표상되던 60년대 4.19시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김지하, 신경림, 조태일, 이성부 등의 시인들은 반유신·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4.19의 영향력은 1970년대 민족문학운동을 통해 본격화되며, 80년대로 이어진다.(김재홍, 「4.19의 시적 수용과 문제점」, 靑年대시와 역사의식卷 1988, 인하대학교 출판부, pp.234-248.)

24) 김영찬, 「4.19와 1960년대 문학의 문화정치」, 靑年국근대문학연구卷15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p.138.

25) 고은은 4.19혁명의 화석화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혁명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혁명론에 의해서만 혁명은 그 현재성의 생명을 얻기 마련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혁명론 역시 혁명적이지 않으면 안될 과제가 역사에 대한 절박한 당위로 요청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는 그것의 역사적 인식행위인 4.19혁명론의 정당성을 부당하게 거세시켜 온 물리적 세력에 의해서 어찌면 그 혁명의 본질적인 진술의 부위까지 풍화되면서 4.19의 현재적 가치가 철저하게 화석의 유산으로 밀려나버린 형편이다.”(고은, 「그 혁명은 무엇인가」, 강만길 외, 靑年혁명론卷 한길사, 1983. p.238.)

26) 성민엽, 「4.19의 문학적 의미」, 靑年독교 사상卷제322호, 1985, 4, p.115.

- 이문길이 총탄을 맞았다// ㉠뒤에서/ 문길아/ 문길아/ 부르는 소리 점점 희미했다/
문길아/ 문길아/ 어디선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희미했다 (21권, 「이문길」 전문)
- ㉡ 많은 가족가방이 항상 무거웠다/ 시내버스 두번 갈아타며/ 안암동 대학 앞에 이른다/
고려대 동양학 교수/ 동양철학 전공// 학이었다/ 단학이었다// 맹자도/ 학의 맹자였
다/ 주자도/ 학의 주자였다// 親히자전을 달달 외웠다// 하지만 그는 학자가 아니
다/ 학생이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책 몇권이/ 막 펼쳐지려고 기다리고 있다// 식민
지 시대/ 모두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그는 중국으로 갔다// 북경대// 해방 직후/ 정
당에 가입했다가 앓 뜨거워라/ 대학으로 갔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교수단
궐기대회 수집자의 한 사람// 4월 21일/ 이상은/ 정석해/ 이종우가 만났다// 4월 24
일/ 이종우의 집에서 만났다// 4월 25일 오후/ 교수궐기대회 2백여 교수가 거리에 나
타났다/ 백발의 변희용과 권오돈이/ 플래카드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를 들고 앞장섰
다/ 태극기를 들었다/ 종로5가에서 화신까지/ 을지로 네거리에서/ 태평로 국회의사당
앞까지 나아갔다 그렇게 조용하게 혁명을 완성했다/ 다음날 이승만 하야성명이 나왔다
/ ㉢이상은은 향기였다 그리고 고고(孤高)의 뜻이었다/ 외진 밭 깊숙이 박힌 무였다
(21권, 「이상은」 전문)
- ㉢ 4월 18일 종로4가 천일극장 거리에서/ 돌아가던 대학생들을 패했다/ 반공청년단 깡패
들이 쇠갈고리로 몽둥이로 삽으로 벽돌로 패했다/ 세상의 분노가 터졌다/ 4월 19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났다/ 세종로와 경무대 앞 거리에서/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총
맞아 죽었다/ 세상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중략) 4월 25일 대학교수 258명이/ 서울
대 교수회관에 모였다/ 선언문을 기초했다/ 14개항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문이 채
택되고 쭉쭉 찢어지려 할 때/ 동국대 김영달이 벌떡 일어났다/ 긴급동의// 선언
문이나 내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 폐회하는 대로 거리에 나섭시다// 그러자
박수가 쏟아졌다 참을 수 없는 박수였다/ 곧장 플래카드를 만들었다/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 그 플래카드를 들고// 교수들이 거리에 나섰다/ 종로4가/ 벌써 학생과 시
민8천명이 뒤따랐다/ 종로 화신백화점/ 1만명을 넘었다 (23권, 「김영달의 막걸리」부
분)

인용시 ①은 교문을 나서서 종로로 뛰어가는 고등학생 시위대의 모습을 현장감있게 그
려내고 있다. 인용시 ②는 동양학 교수 이상은의 일대기를 약술하고 교수들의 시위로 이
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③은 대학생 김영달을 중심으로 시위대가 모이고 거리로
나서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위의 인용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시
위에 참여한 인물들을 뒤쫓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4.19혁명을 그려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이 사건들이 구체적인 신분과 이름
을 밝힌 실존 인물의 직접 경험이자 개인사의 일부라는 점이다. 주관적인 서술이 배제된
것은 아니나 각 시에서 관찰자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인물의 행위를 등장 인물의 이름,
신분 그리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성을 획득한다.²⁷⁾

르포르타주가 지니는 사실성은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계급적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발달한 르포 문학은 냉정한 사실성을 추구
하면서도 부르주아지를 비판하기 위한 관점이라는 특정한 입장과 경향을 지니고 있었
다.²⁸⁾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은폐된 것에 대한 사실적 보도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르포르타주가 추구하는 사실성은 그 자체로 의
미를 지니기 보다는 피지배 계급의 관점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27) 이러한 양상은 시인의 유년기에 해당하는 식민지 시기와 청년기를 그려낸 親인보초기 시편들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 방식이다. 親인보초기 시편에서는 어린 화자의 시선으로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마을 사람
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상호 연관된 관계망을 중심으로 경험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중점적으로 그려낸 바
있다. 이에 비해 4.19 혁명이라는 특정한 사건은 현장을 중심으로 시위에 참여한 인물과 희생자들을 대상
인물로 내세워 비교적 객관적이고 사실적 사건 정황을 표출하는데 주력한다.

28) 강태호, 「기록문학과 기록영화의 장르 특성 비교 연구」, 新어교육제43집, 2006, pp.184-186참조.

수 있다.

한인보 4.19 시편은 4.19 당시의 시위에 참여한 이들,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이 사실적 형상화가 지니는 의미는 정권의 부패를 더 이상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는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4.19는 지배계층이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 피지배 계층을 기만한 데에서 촉발된 시민 사회의 자발적 저항이었고, 사건 현장의 사실적 형상화는 시민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4.19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주로 학생 계층이었다. 위 시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항거는 정치적인 사전 모의와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동력으로 강하게 분출된다. 그들의 희생과 죽음은 교수들을 비롯한 지식인 사회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 공분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정치적인 지위나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패한 정치에 저항함으로써 정치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4.19 혁명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면 그러한 의미가 발생하는 지점은 참여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정치적인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적 개인이 탄생했다는 데 있다. ‘이문길’, ‘이상은’, ‘김영달’과 같은 이들의 경험은 개인적 경험적 층위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정치적인 것’²⁹⁾에 참여하는 사회적 개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나 역할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닌 개인들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앞에서 벌어지는 사회 구성원의 희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한다. 그들의 쫓기는 곧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희생양으로 내모는 부정과 독재에 대한 거부로 나아간다. 그들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공동의 삶에 관여한다. 위 시들에 등장한 주인공들은 구체적인 행위를 집단적으로 확산시킴으로서 사회적 개인 즉 ‘시민’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한다. “4월 25일 오후/ 교수궐기대회 2백여 교수가 거리에 나타났다/ 백발의 변희용과 권오돈이/ 플래카드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를 들고 앞장섰다/ 태극기를 들었다/ 종로5가에서 화신까지/ 을지로 네거리에서/ 태평로 국회의사당 앞까지 나아갔다”, “우리 모두 폐회하는 대로 거리에 나섭시다// 그러자 박수가 쏟아졌다 참을 수 없는 박수였다/ 곧장 플래카드를 만들었다/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 그 플래카드를 들고// 교수들이 거리에 나섰다/ 종로4가/ 벌써 학생과 시민8천명이 뒤따랐다/ 종로 화신백화점/ 1만명을 넘었다”와 같은 구절에서 나타나듯이 한 개인의 의지는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인들의 동의를 얻어 집단적인 행동으로 확산된다. 이들이 함께 정치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의 발현, 즉 사회적 개인의 의미를 이해하고 획득하는 일이다.

끝으로 르포르타주는 관찰자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29) 프랑스 철학자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d)는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구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정치(la politique)’는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등과 구분되는 제도적 영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적인 제도적 구분을 전제하는 정치는 정치의 핵심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즉 인간들이 세계 및 자신들 사이에서 맺고 있는 관계를 산출함으로써 사회를 성립 가능하게 해 주는 산출적 원리에 가 닿지 못하는 것이다. 르포르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사회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경제, 종교, 문화 등과 같은 사회의 한 제도로서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자체의 제도화를 실현하는 게 곧 정치다. 이러한 정치를 지칭하기 위해 르פור는 ‘정치적인 것(le politique)’라는 말을 사용한다.(진태원, 「용어해설」,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역, 新피노자와 정치 新이제이북스, 2005, pp.321-322.) 위 인용시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는 제도로써의 정치라기보다는 사회 자체의 제도를 변혁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것(le politique)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있지만, 관찰자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다는 점 또한 특성으로 한다.³⁰⁾ 르포르타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장르이지만 관찰자의 신념이 없다면 사실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르포르타주를 특수한 성격을 지닌 글쓰기로 만드는 것은 글쓰는 이가 지닌 신념과 의지이기도 한 것이다. 위 인용시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애타게 찾는 소년 ‘이문길’, 오롯이 학문에만 정진하던 학자 ‘이상은’,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김영달’ 등은 정치와 상관 없는 개인이었지만 공동의 삶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각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이야기하는 주체의 관점과 입장을 여실히 드러낸다.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참여는 지배 권력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희생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타인의 희생이 위 시의 인물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들의 행동은 화자를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참에의 의무를 부과한다. 르포르타주는 사실에 근거해 부패한 권력이 공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전달하고 현실에 대한 공분을 나눌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동참의 권유이자 신념의 글쓰기인 것이다.

4. 증언을 통한 5.18의 형상화: 상실한 세계의 회복

新聞인보覽에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한 시적 형상화는 그 자체로 역사와 문학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간의 접합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사실과 허구라는 두 영역을 넘나들며 더욱 풍만해진 이야기는 사실적 기록을 통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른다. 특히 타인의 고통이나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을 기억하는 목격자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이나 정황보다는 그 고통을 공유하거나 전달하는데 치중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리포르타주와는 다른 성격의 이야기 방식이 가능해진다. 목격자에겐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임무도 중요하지만 희생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신념 또한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진술은 증언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미 증언은 ‘비공식적인’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역사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역사 연구와 대상 영역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기억 문제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증언과 구술, 기억에 관한 연구는 크게 주목을 받았으며, 역사학, 사회학, 문학, 여성학 및 미디어 연구를 비롯한 인문 사회과학에서 주목하는 대상이기도 하다.³¹⁾

증언이라는 발화 형식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그것이 주로 지나간 과거라는 점에서 증언은 역사라는 장르와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대체로 증언은 역사로 인정받지 못한 비공식적 과거이자 개개인의 경험들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 이야기 되어야하는 것들이 그 내용을 이룬다. 따라서 증언 행위는 그 과정 자체가 사회적 기억의 구성 및 재구성 중요한 계기이자 최초의 촉발 계기로 작동하기도 한다. 실제로 오늘날 주목받는 기억과 증언은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망각되었거나 억압된 기억들을 새롭게 발

30) 강태호, 앞의 글, p.191.

31) 박진우, 「증언과 미디어」, 新聞론과 사회 2010, 봄, pp.48-51.

굴해내는 사회적 고발의 의미를 띠기도 한다.³²⁾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같은 사건이 바로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 의해 폭도로 내몰린 광주 시민들은 1995년 5.18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서서히 명예를 되찾기 시작했고, 5.18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증언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³³⁾ 新인보 5.18 시편 역시 이러한 증언 작업의 한 부분이라 하겠다.

- ① 나 열아홉살이랴오/ 연애하고 싶어 죽겠어랴오/ 연탄 운반 트럭운전사/ 연탄 배달로/ 화순광업소에서/ 광주까지 오고 가지랴오/ 휘파람 불며/ 5월의 지방도로 오고 가지랴오/ 트럭 운전석 라디오/ 가요 프로가 제일 좋아랴오/ 나 연애하고 싶어 죽겠어랴오/ 5월 20일/ 길 막혀 배달운송 쉬었지랴오/ 북동 양복점 재단사 친구 생일이라/ 주원동 탄광 광부촌에서/ 월산동 넘어갔지랴오/ 술 너무 마시고/ 여인숙에서 자버렸지랴오/ 깨고 나니 속이 뒤집어졌어랴오/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거리에서/ 계엄군 검문에 걸려/ 두 팔 노끈으로 묶여 끌려갔어랴오/ 맹타/ 맹타/ 곤봉 맹타/ 워커 맹타/ 오후 네시 꿈인지 생시인지 군용트럭에 실려/ 시청 지하실에 처박혔지랴오/ 너 빨갱이지 너 총 들었지/ 너 도청 폭도였지/ 너 총 쏘았지// (중략) 나 부동자세로 섰다가 끝내 주저앉았어랴오 죽었어랴오/ 워커가 조져대도/ 내 몸은 아무것도 몰랐어랴오/ 곤봉이 내리쳐도/ 이미 내 몸은 아무것도 몰랐어랴오/ 나는 송장으로 곤봉 실컷 맞았어랴오/ 몰랐어랴오// 이 세상 사는 동안/ 오리불고기 여섯 번인가 일곱 번 먹었어랴오/ 돼지불고기 열한 번인가 먹었어랴오/ 역전 싸구려 순댓국 자주 먹었어랴오// 나는 열아홉살이랴오/ 어디 가서 몇십년은 더 살아야 하여랴오 (28권, 「김성민」부분)
- ② 설날이나/ 그 이튿날이나/ 아니/ 초가을 음력 9월 생일날이나/ 문문한 훈김 모여/ 여섯 남매 넉넉넉한 큰절 받을 때/ 그 남매의 어린 새끼들/ 그 손자손녀 고사리들까지 뒤따라/ 엎어지기도 하는/ 일어서기도 하는/ 서투른 큰절 받을 때/ 등불같이/ 먼저 떠난 영감 생각에 눈물 한방울/ 매달았지 뭐// 그러다가 광주 난리로 큰 아들 죽은 뒤/ 며느리/ 두 달 뒤 뱃속 아이 유산하고 떠나버렸지 뭐/ 세살 손녀 낳두고 떠나버렸지 뭐/ 그래서/ 그 손녀새끼 불쌍한 것/ 밥 먹이며/ 옷 갈아입히며/ 오줌통 누이며/ 자장자장 잠재우며/ 함께 살았지 뭐// 몇 년 뒤 그 며느리 나타나/ 광주사태 사망자 보상금 타가려고/ 다시 나타나/ 내가 유족회원이오/ 내가 이금재 미망인이오 하고/ 보상금 타갔지 뭐 (29권, 「그 할머니」부분)
- ③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비름도 쇠비름도 아니며/ 그냥 여편네여 걸어다니는 몸뚱이여/ 아무개 마누라여/ 시민군도 폭도도 아니며/ 그냥 순수동 무지렁이/ 폭삭 늙은 가난뱅이 여편네여// (중략) 무등산 자락 산수동 산동네/ 40여 가구/ 음딱음딱 빈민굴/ 여그가 우리 동네여/ 개뿔도 없는/ 만경사자라는 암자도 하나 있어/ 산동네라 달동네라/ 저 아래 시내 총소리 찌렁찌렁 다 들려왔어/ 오메오메/ 광주 바닥 피바다 되었어/ 시민군 젊은이들이/ 화순/ 나주 무기고 총 화약 실어오고/ 시체 실어나르고/ 부상자 실어나르고/ 담양/ 목포까지 가/ 광주 참상/ 군대 만행 알리고 있는 판이여/ 계엄군은 광주 바깥 둘러싸고/ 총 쏘아 죽이고/ 죽여 파묻고/ 길 막고 있는 판이여/ 시내 나간/ 내 새끼들 걱정이 태산이여/ 그런 걱정 나누려/ 이웃집 여편네 만나고/ 집에 오는 길/ 그 잣고개 거기/ 하필 시민군 차가 내려오는데/ 그 차에 내가 치여버렸어/ 두개골 파열// 산동네 밑 눈에 묻혔어/ 그러다가/ 망월동에 덩달아 묻혔어// 나는 투사도 무엇도 아니며/ 그냥 송겁디송겁게/ 차에 치인 여편네란 말이여 (30권, 「김오순」부분)

新인보 28-30권은 주로 광주 항쟁에서 희생당한 이들, 희생자들의 가족, 그리고 가해자들을 주요 대상 인물로 삼고 있다. 新인보에는 광주 민주화 항쟁의 선두에 나서서 싸우다가 희생된 이들뿐 아니라 아무런 까닭없이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희생되어야 했던 이들도 많다. 위 시들에서 나오는 이들의 공통점도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 나섰던 것도

32) 박진우, 앞의 글, pp.54-56.

33) 이미 5.18 증언 자료집이 상당 수 출간되었다. 대표적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구술을 엮은 新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한얼미디어, 2006), 新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1.2권은 한얼미디어에서 2007년 출간, 3.4권은 심미안에서 2008년 출간) 등이 있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엮은 新.18 항쟁 증언 자료집(전남대학교, 2003)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증언 자료집이 출간되었다.

아닌데 자신의 일상 한 가운데서 우연히 목숨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가족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희생은 어떤 의미로 추모될 수 있을 것인가? 위 시에 나타난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역사적 기록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듯 민주화 정신, 시민 정신, 애국 정신 등의 수식어를 통해 이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게 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희생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5.18의 공식적 의미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역사적 의미만이 규정할 수 없는 목소리들, 역사적 시간이 구성하지 못한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위 인용시들의 발화 형태를 살펴보면 모두 ‘나’라는 1인칭 화자를 통해 진술하고 있다. 죽음에 이른 희생자를 1인칭 화자로 설정했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설정이다. 그러나 희생자의 목소리로 직접 얘기할 때 그의 경험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죽음이 어떤 신념과 저항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목격자의 진술은 오히려 이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을 과대포장하거나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1인칭 화자야말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화자이다. 이 화자들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죽음의 문제 그 자체이다. 말 그대로 무차별적, 불가항력적인 폭력에 처해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죽음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증언을 듣는 이들은 그 경험 자체에 주목하게 된다. ‘죽음’이라는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사실성과 객관성보다는 충격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한 인간의 육체에 가해진 물리적 고통뿐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인간성을 빼앗긴 죽음이라는 상황이다. 이들의 죽음이 어떤 말로 숭고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왜 ‘김민성’이나 ‘김오순’과 같은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연애도 더 해야 하고 ‘오리불고기’, ‘돼지불고기’, ‘순댓국’도 더 먹어야 하는 열아홉 살 ‘김민성’의 목소리, “망월동에 덩달아” 묻혔지만 “나는 투사도 무엇도 아니여/ 그냥 송겁디송겁게/ 차에 치인 여편네”라고 말하는 “김오순”의 목소리는 그들의 죽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차별적 사건임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의미들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죽음이라는 그 사건 자체이다. 그들이 겪은 고통과 죽음은 어떤 역사적 의미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죽음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스스로 답하지 못할 때 우린 세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³⁴⁾

당시 공권력을 장악한 계엄군은 ‘빨갱이’, ‘시민군’, ‘폭도’와 같은 말로 시민들을 사물화하고, 이들에게 인간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폭력을 휘두른다. 각자가 지닌 이름이 지워지고 수사화된 명칭으로 불리는 순간 그들은 인간적 존엄으로부터도 격리된다. 위 시에서 죽은 화자들의 목소리는 바로 이 비인간으로의 전락과 ‘세계의 상실’³⁵⁾을 드러낸다. 인용

34) 박준상은 5.18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5·18이 ‘군부독재 종식’이나 ‘민주주의 회복’, ‘계엄 철폐’와 같은 정치적 담론들로 표명되는 의미화된 시간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5·18을 이끌고 갔던 가장 중요한 추동력은 아니었으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5·18 자체’는 아니다. 5·18의 충격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인간이 비인간으로 전락하는 세계의 상실을 경험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박준상, 『무상(無想) 무상(無償)』, 親仁중심宛 그린비, 2008, p.184.)

35) 하이데거는 존재적인 의미에서 세계가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존재가 현존재로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곳인 세계는 실존적 의미를 지닌다. 세계는 “공적”인 우리-세계 또는 자신의 “고유한” 가장 가까운 주위세계를 의미한다.(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親仁중심宛 親仁, 2003, p.96 참조) 그러한 세계 안에 거주함으로써 인간은 서로 관여하고 세계에 참여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획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더 이상 자신이 거주하는 세계와 소통할 수 없는 사물로 전락하는 상태 또는 자신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상태를 세계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다.

시 ②에서 보여준 상황처럼 “광주 난리로 큰 아들 죽은 뒤” 집을 나간 며느리가 남겨 둔 손녀를 키우는 한 노모의 삶은 말 그대로 세계의 상실이다. 가족들이 모여 맞이했던 훈훈한 명절은 이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돌아온 며느리는 보상금을 타가지고 떠나버린다. 이 노모에게 남은 것은 민주화나 시민항쟁이니 같은 구호들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붕괴된 삶이다.

이제 공식적 역사는 다시금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타인의 죽음과 고통 또는 일상의 파멸을 어떤 의미로 수사화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는 역사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학과 문학의 접점이 생긴다. 인간의 과거에 관한 재구성물 즉 이미 희생된 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역사적 지평은 문학적 지평과 만나게 된다.

위 인용시 ①, ③의 화자는 희생자를 가정하여 스스로 1인칭으로 죽음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인간성의 상실이란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이므로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여타의 의미망이나 수식어에 기대지 않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성과 세계가 박탈되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이며, 이 기억은 박탈하는 자들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죽음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빼앗긴 인간적인 죽음,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가치 등 빼앗을 수 없는 것을 빼앗아간 행위에 대한 거부인 동시에 인간성과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남아있는 자들의 임무이다. 하나의 사물로 전락한 채 죽음에 이른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타인에게 자신의 죽음을 상기시킴으로써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가능케하는 것은 목격자에게 부과된 윤리적 책무이다. 고통받고 헐벗은 타자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 삶이 이루어지는 세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타인과 함께 하는 이 세계에서 비로소 우리는 인간성을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문학은 허구적 이야기이지만 현실을 능가하는 픽진성(verisimilitude)을 가지고 진실을 욕망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학은 사실적 기록으로서의 역사 못지않게 인간의 경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시간과 행위는 문학과 역사의 공통적 텍스트인 셈이다.

본 연구는 폴 리콴드가 제기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親인보(親人보)의 특징적 성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親인보(親人보)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親인보(親人보)에 나타난 역사의 형상화 양상은 사건을 바라보는 이야기 주체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르포르타주적 발화와 증언적 발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4.19를 형상화한 작품들에서 주로 르포르타주적 발화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르포르타주적 발화는 발화자의 진실에 대한 신념이나 책무감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다는 분명한 목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명과 일시(日時)에 대한 정

보 제공과 함께 사건의 전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성은 경험과 현장성을 부각시키며, 우리가 공유해야 할 역사적 기억을 환기한다. 아울러 혁명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모습은 이야기 주체가 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이나 시민계급으로서의 각성 또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신념을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바라보는 도식적 태도는 마치 1980년대 민중문학 운동 진영이 문학의 영역에 르포르타주를 편입시키고자 하면서도 진실한 정보기록으로서의 특성에 치중함으로써 르포르타주의 미학성을 포기했던 것³⁶⁾처럼 다소 상투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親인보覽 전체 작품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5.18 시편에 이르러 르포르타주적 발화가 지닌 도식성, 상투성을 탈피하여 증언적 이야기로써 새로운 형상화 방법을 보여준다.

증언은 희생자 당사자나 목격자 개인의 기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야기 방식이다. 어떤 사건에 대한 목격과 증언은 목격자 개인의 의무감과 신념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의무감, 신념은 르포르타주의 경우와는 다르다. 증언의 주요한 동기는 사실의 전달을 통한 진실이라기보다는 희생자의 경험이나 고통에 대한 공감을 통해 타자와 고통을 공감하는 것,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증언은 동일한 고통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증언의 원동력은 5.18 시편들이 보여준 것처럼 타인의 희생이나 고통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경험한 세계의 상실을 다시금 불러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세계에 함께 거주하며 세계를 공유하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윤리가 던지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親인보覽의 역사 형상화가 드러내는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계급, 계층의 인물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야기된다는 점이다. 역사 소설이나 서사시에서 다루는 인물들이 작가의 주제의식이나 역사적 사건의 총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범주에서 선택된다면 親인보覽 다루는 대상 인물의 경우 그것을 범주화할 수 있는 특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동시대를 또는 특정한 지정학적 공간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이 인물들의 공통범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新만인보覽는 작품 세계 안에서 여러 인물들은 제각기 개성과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한 시대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공동성을 띠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개인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보듬기도 하지만 모두가 평등한 인간 존재라는 관계 안에 있다. 親인보覽의 형상화하는 역사는 이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며, 개인의 삶에 흔적을 남기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겨진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모든 개인이 사회적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누구나 정치적인 것에 가담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역사 또한 그러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개개인들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둘째, 역사적 사건의 총체적 의미나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기보다는 개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공식화되지 않은 기억을 재현한다. 親인보覽한 편 한 편의 작품을 통해서는 사회적 맥락이나 의미를 구성하기 어렵다. 각 시편에서는 대상 인물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역사의 총체적 국면은 서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물 중심의 각 시편에서 부각되는 것은 경험에 대한 감각적 측면이다. 기억되어야 할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죽음이 이야기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책무를 느끼게 된다. 또한

36) 손남훈, 앞의 글, pp.90-91.

인간으로서의 윤리적 태도를 요구받게 된다. 세계와 인간성을 박탈당한 타인의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성찰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사실성 여부를 넘어서는 경험적 진실이 갖는 힘이다.

『한인보』는 역사와 문학의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는 텍스트이다. 『한인보』는 문학적 상상력을 매개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타인의 경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매개가 된다. 우리는 『한인보』에 형상화된 이야기를 통해 역사와 개인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삶이 공동체적 범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비극이 우리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참고문헌〉

- 강태호, 「기록문학과 기록영화의 장르 특성 비교 연구」, 『독어교육』43집, 2006.
- 고은, 「그 혁명은 무엇인가」, 강만길 외, 『월혁명론』 한길사, 1983. .
- 김성환, 「새로운 글쓰기 양식이 이끈 인식 지평의 확대」, 『필천문학』08호, 2012.
- 김재홍, 「4.19의 시적 수용과 문제점」, 『현대시와 역사의식』 인하대학교 출판부, 1988.
- 김영찬, 「4.19와 1960년대 문학의 문화정치」, 『한국근대문학연구』15호, 한국근대학회, 2007.
- 김준오, 『현대시와 장르비평』 문학과 지성사, 2009.
- 김한식, 「폴 리코르의 이야기 해석학」, 『독어국문학』146호, 2007.
- 박정선, 「해방기 문화운동과 르포르타주 문학」, 『어문학』106호, 한국어문학회, 2009.
- 박준상, 「무상(無想) 무상(無償)」, 『한중심』 그린비, 2008.
- 박진우, 「증언과 미디어」, 『한론과 사회』8권, 2010, 봄.
- 손남훈, 「‘리얼’을 향한 르포르타주의 글쓰기」, 『오늘의 문예비평』 2010, 가을호.
- 송병선, 「라틴아메리카 증언문학의 시학과 하위 주체의 문제」, 『한틴 아메리카연구』ol.17, 2004.
- 성민엽, 「4.19의 문학적 의미」, 『독고 사상』322호, 1985, 4.
- 오장근, 「사건보도, 사태보도, 르포르타주」, 『텍스트언어학』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1.
- 엄경희, 「서술시의 개념과 유형의 문제」, 『한국근대문학연구』ol.6, 한국근대학회, 2005.
- 장은영, 「증언의 시학: 역사에서 윤리로」, 『한민주주의와 인권』11권 2호, 2011.
- , 「고은의 『한인보』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2005.
- 조구호,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저널리즘적 글쓰기 탐색」, 『한남미연구』30권2호, 2011.
- 최성은, 「리샤르드 카푸치친스키의 르포르타주 에세이」, 『세계문학비교연구』29집, 2009, 겨울호.
- 정기철, 『해석학과 학문과의 대화』 문예출판사, 2004.
-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2002.
- 탁선미, 「에곤 에르빈 키쉬의 르포르타주 문학」, 『독일어문학』30집, 2005.
-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 H. White, 천형균 역, 『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1.
- R. Koselleck, 한철 역, 『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8.